

KOREAN ARCHITECT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September 1991

“스치로폼은

단열재의 생명

수성이 가장 중요



실 규

만

재로만 쓰입니다

발포성 폴리스티렌

절효과가 오랫동안

입니다

꼭 청색을 확인해

친한 폐적환경에서

강합니다!

다면 단열효과가 떨어

아 합니다. (물 1%

색스치로폼은 물을

로 하는 반영구적

압축강도가 뛰어나

축강도 또한 설계적

높은 한남화학 청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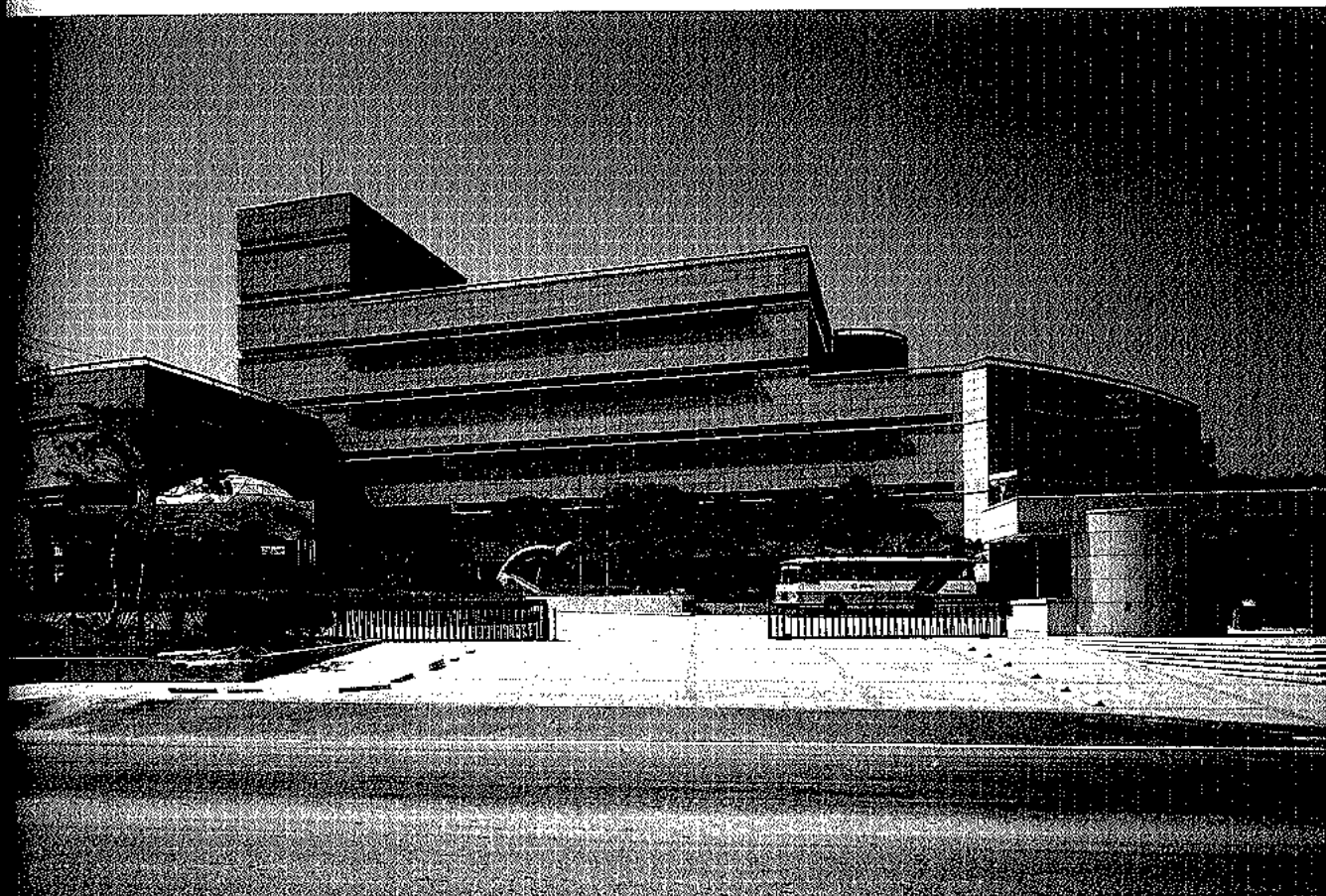
요구되는 단열시공

스스로 꺼집니다!

에 합격 한남화학

다가도 회원만 제

기소화성 단열재입



'89

관리대상 수상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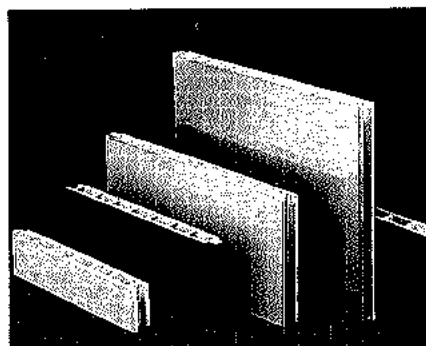
SEPTEMBER



●현대백화점호텔 주차타워

●부산백화점 주차타워

가장 이상적인 외장재 베이스판넬— 주차타워에도 잘 어울립니다.



베이스판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치움,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풍결 용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외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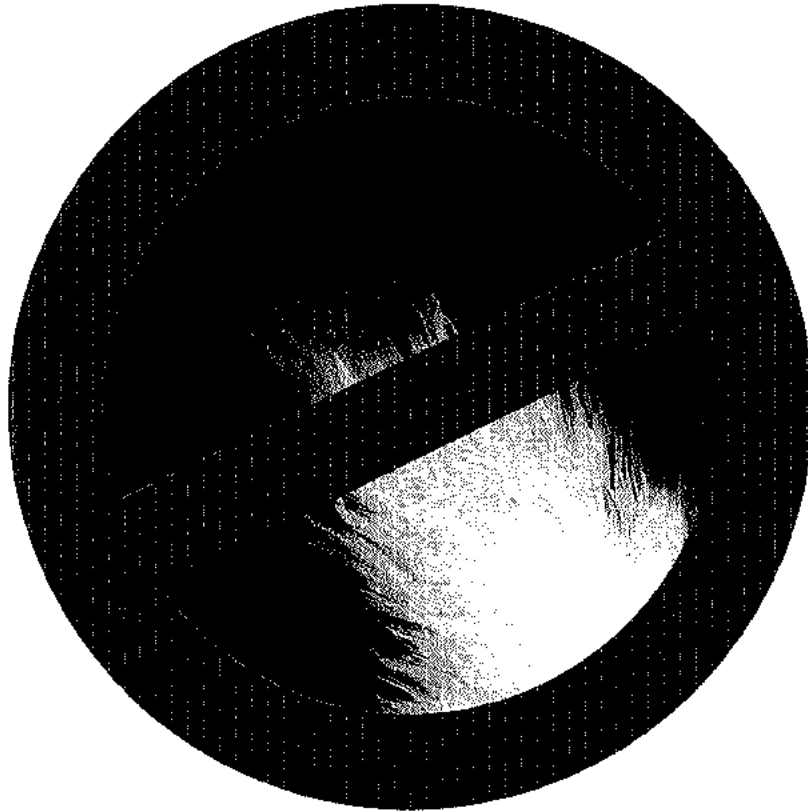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응도/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치움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벽산 베이스



INSU GLASS WOOL PANEL

**인슈그라스울패널 —
 더욱 우수한 1급불연패널입니다!**

■ 인슈그라스울패널이란?

INSU GLASS WOOL PANEL은 내부단열재를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단열효과가 우수함은 물론 화재시 불에 타지않는 불연성이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화재의 위험을 극소화하며, 특히 유리섬유의 입자들이 음의 진동을 완충시켜주므로, 차음 및 방음, 흡음능력이 더욱 우수한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 인슈그라스울패널의 3대 우수성

1. 우수한 불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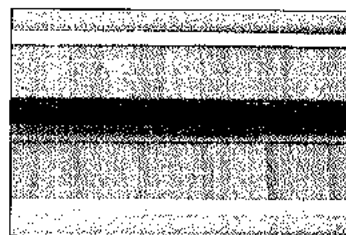
인슈그라스울패널은 내부단열재가 KSF2271, BS476 Part4의 관련 규격에 의하여 1급 불연재료 인정받은 무기질 단열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하므로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불연패널이며 내화 구조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료명	최고사용온도
스티로폼	85℃
P. U. R	110℃
P. I. R	180℃
페놀폼	200℃
그라스울	350℃

(단열재의 화재안전도)

2. 우수한 견고성

인슈그라스울패널은 내부단열재인 유리섬유의 겹을 수직으로 세워 성형한 제품이므로 기존의 섬유 겹을 수평으로 성형한 제품보다 압축강도가 10배나 뛰어나 매우 견고하고 균일한 두께유지가 가능하며 박리현상을 완전방지합니다.



(인슈그라스울패널의 단면구성)

3. 우수한 단열성

인슈그라스울패널은 내부단열재가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로 되어 섬유질이 가늘고 균일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안전함은 물론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효과가 우수하여 건물의 유지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열재명	열 전 도 율
그라스울	0.029
스티로폼	0.0285
알 연	0.053
발포 CONC.	0.15

(단열재의 열전도율 비교표)



주식회사 인함인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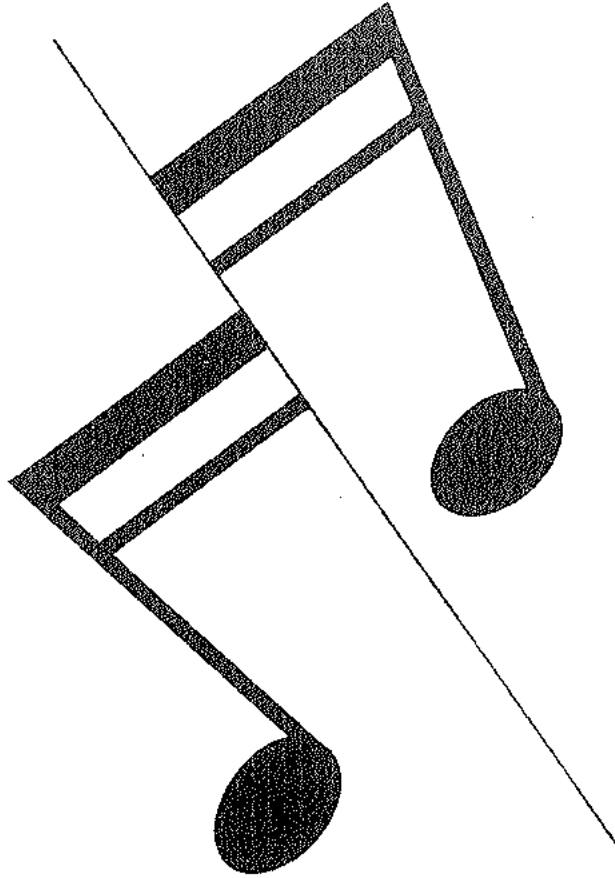


본사및공장 :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림리 39-2

TEL : (02)745-0687, (0336) 34-8880 FAX : (0336) 32-4243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TEL : (02)555-6891, FAX : (02)553-1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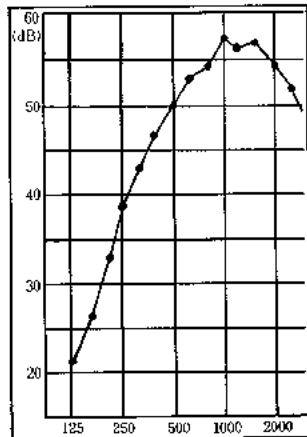
완·벽·차·음!

최고급 파티션 **INSU PARTITION**

■ 인슈파티션이란 ?

**보다 쾌적하고, 보다 안전한
실내공간을 연출합니다.**

방화 불연재로 사용되는 GYPSUM BOARD 및 GLASSWOOL이 주원료로 구성되어 있어 방화 및 방음능력이 뛰어난 내화구조체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입니다. 특히 인슈파티션은 P.V.C라미네이팅 뿐만 아니라 FABRIC 마감도 가능하므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오피스빌딩, 주택, 호텔, 아파트 등의 내부 파티션용으로 가장 적합한 소재입니다.



인슈파티션의 차음성능

■ 인슈파티션의 특징점

- 인슈파티션은 완전 불연재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내화 칸막이벽으로 좋습니다.
- 외부표면재인 GYPSUM BOARD 및 내부 소재인 GLASSWOOL이 음의 진동을 완충하므로 차음, 방음, 흡음이 우수합니다.
- 마감재를 P.V.C라미네이팅 뿐만 아니라, FABRIC 마감처리도 가능하여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 표준화된 규격으로 생산된 조립식 구조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조립·해체 이동 설치할 수 있으며, 진동 필터 유닛 등 연관설비와의 조합기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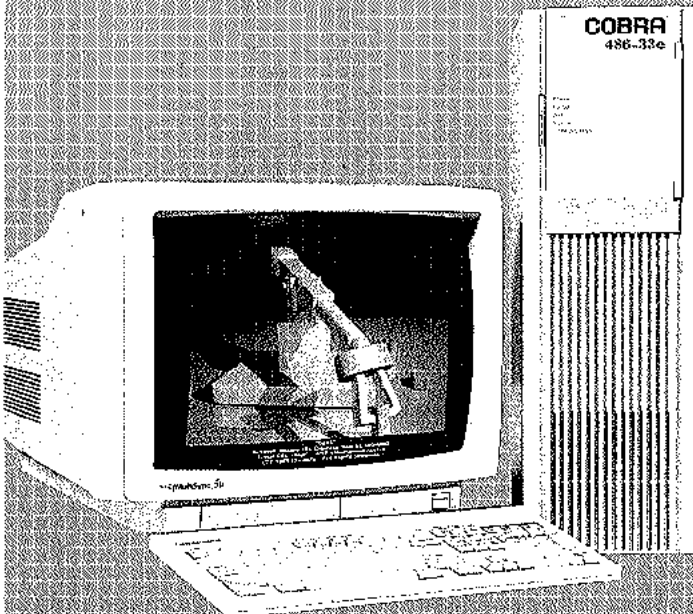
주식회사 연합인슈



본사및공장 :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림리 39-2
TEL : (02) 745-0687, (0336) 32-4635-6 FAX : (0336) 32-4243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TEL : (02) 555-6891, FAX : (02) 553-1651
부산사무소 : TEL : (051) 462-9554, 465-7038
대구사무소 : TEL : (053) 53-4543, 556-9860
광주사무소 : TEL : (062) 524-9779, 527-7144

올여름! CAD/CAM

SUMMER '91



SUMMER '91 AutoCAD Turn-Key 특별가·획·상품



당사에서는 AutoCAD의 국내 유일 Dealer
관독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금번 'SUMMER '91'
특별 기획을 통해 AutoCAD Turn-Key
SYSTEM을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의 성능과
민족을 얻을 수 있도록 귀사의 AutoCAD
SYSTEM 구축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좋은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특전1

AutoCAD System의 1년간 무상 A/S

특전2

서통의 Hardware System을 최대 4개월간(무이자)
분할 판매 합니다.

특전3

귀사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인원만큼 무상으로
교육지원 합니다.

AutoCAD Turn-Key System

386 SYSTEM	Summer '91특별가
CPU: i80386-20 L M: 29MHz Co-processor 80387/20 NEC 2A Color Monitor	475만원
CPU: i80386-25 L M: 43.5MHz Co-processor 80387/25 NEC 3D Color Monitor	545만원
CPU: i80386-33 L M: 58.7MHz Co-processor 80387/33 NEC 4D Color Monitor	595만원
486 SYSTEM	Summer '91특별가
CPU: i80486-25 L M: 114.1MHz NEC XL Color Monitor TYPE: ISA	745.5만원
CPU: i80486-33 L M: 150.2MHz NEC 5D Color Monitor TYPE: ISA	795.5만원
CPU: i80486-33 L M: 150.2MHz NEC 5D Color Monitor TYPE: EISA	895.5만원

공 통 사 양

DREAMY 2048
Graphic Board
2048×2048
×256
MEM: 4MB
HDD: 100MB
FDD: 5.25inch×1,
3.5inch×1
S/W: AutoCAD
Rel. 11

무상 제공장비

TB-8830 (테이블)
보안기

● PLOTTER는 A3R10와 동일
● VLT는 100%가량 합니다

시스템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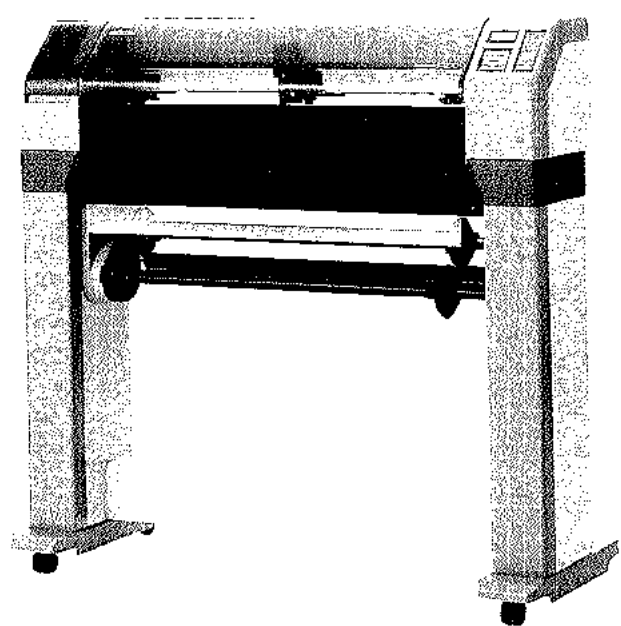
특별·기획·상품

“ARRIS·CAD·Turn-Key·판매·2주년·기념”



SUMMER '91·특별·기획·상품·소개
 당사에서 ARRIS CAD Turn-Key SYSTEM을 국내에 소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한지 만 2년이 됨을 기념하고, 건축설계 사무소의 설계업무 자동화 추세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뜻에서 금번 설계사무소의 건축설계 CAD化의 기본이 되고, 또 최적의 건축설계 전문 S/W인 ARRIS CAD의

BD & D(Building Design and Drafting)를 소개합니다. 본 BD&D를 사용시 짧은 기간내(3일)사용방법 습득은 물론이고, 최단시간내 업무에 적용됨으로 “조기 투자 효과”를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전1** ARRIS CAD의 기본인 BD & D와 XENIX O/S를 1년간 무상으로 대여 합니다.
 (귀사에서 Field Test 후 12개월내에 선택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특전2** 서통의 Hardware System을 최대 4개월간(무이자) 분할 판매 합니다.
- 특전3** 귀사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인원만큼 무상으로 교육지원 합니다.

386 SYSTEM Summer '91특별가	
CPU: i80386-25 L M: 43.5MHz Co-processor 80387/25	795만원
CPU: i80386-33 L M: 58.7MHz Co-processor 80387/33	855만원
486 SYSTEM Summer '91특별가	
CPU: i80486-25 L M: 114.1MHz TYPE: ISA	905만원
CPU: i80486-33 L M: 150.2MHz TYPE: ISA	965만원
CPU: i80486-33 L M: 150.2MHz TYPE: EISA	1,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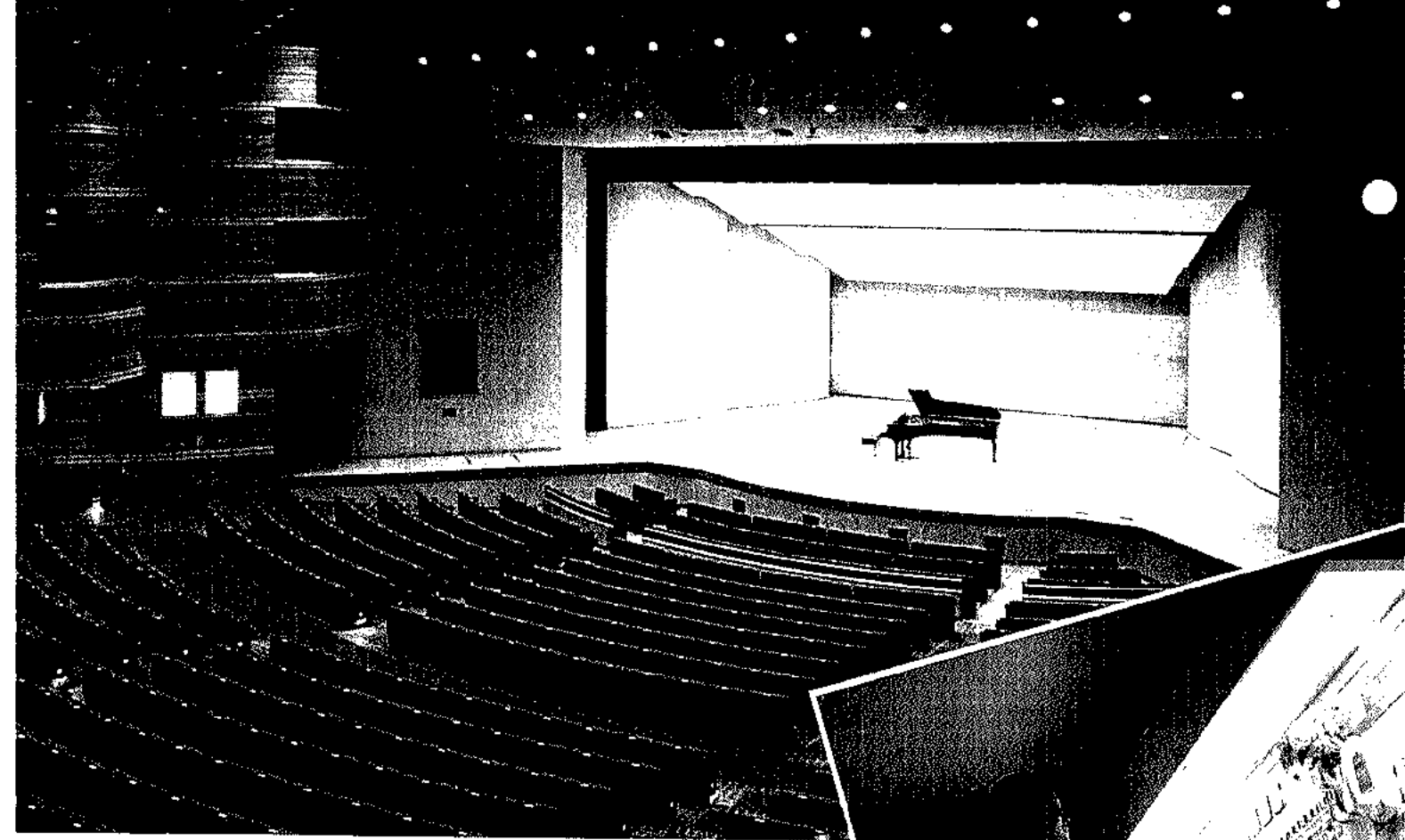
공 통 사 양
 NEC XL 20Inch
 Color Monitor
 VMI Graphic Card
 1024×768×256
 MEM: 4 MB
 FDD: 5.25Inch×1
 3.5 Inch×1
 HDD: 100 MB
 64K Cache Memory
 한글 Video Card (행랑)
 14Inch Mono Monitor

1년간무상 대여품목
 美 Sigma Design社 제품
ARRIS CAD
BD&D
XENIX O/S
 ※공히 VAT별도의 가격 입니다.

품 명	Mutoh Plotter Specification.	소비자가
iP-210	A3~A4, 707mm/sec, 8Pen, 24KB Buffer	118만원
iP-530K	A1~A4, 705mm/sec, 8Pen/Pencil, 1MB Buffer	465만원
iP-530KL	A0~A4, 705mm/sec, 8Pen/Pencil, 1MB Buffer	625만원
F-920E	A0~A4, 1,131mm/sec, 8Pen/260Pencil, 1MB Buffer	895만원
F-920ER	A0~A4, 1,131mm/sec, 8Pen/260Pencil, 1MB Buffer	1,195만원

※S/W의 윌립 COPY는 BSA에 규제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는 기술, 앞서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주요 공사실적

- 세종문화회관
- 국립극장
- 래튼워커히
- 롯데호텔
- 부산문화예술회관
- 이화여대강당
- 유관순기념관
- 충현교회본당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리틀엔젤스전용공연장
- 서울·제주 신라호텔
- 수안보 와이키키관광호텔
- 안양문화예술회관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계동·센타 예술극장
- 육군박물관
- 대전시민회관
- 부곡하와이 등

주요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大雅互電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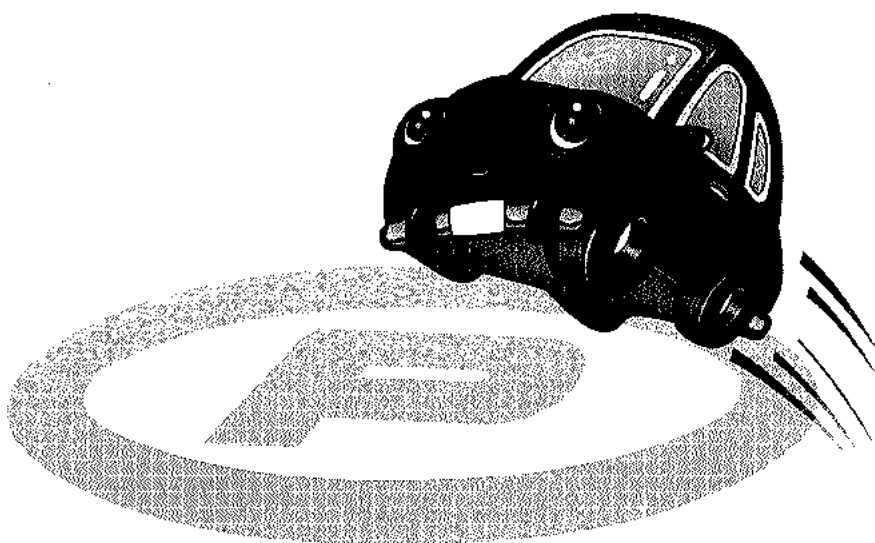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332-4500(代表), (02)335-4642(代表)
FAX. (02)392-2751

工場: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串面 山209-1 松麻里 山209-1
TEL. (0341)987-4184, (02)632-0216

패속입출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 주차설비안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설계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듯, 주차시스템에 따라 효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여년전 국내에 처음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를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고객여러분의 보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식 입체주차설비 — 좁은 면적에 고수익을 생각하신다면 단연 삼성타워파킹입니다.



신속한 입출고
기존제품의 속도보다 25% 향상된 초고속형과 어느 방향에서나 출고가 가능한 턴테이블 내장형의 삼성타워파킹은 신속한 입출고를 통해 단축된 시간만큼의 이익을 고객여러분께 드립니다.

첨단 COMPUTER 제어시스템
삼성타워파킹전용의 Computer 제어시스템과 기계의 작동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삼성만의 특허 Panel은 자동 입출고를 통한 간편한 조작과 탁월한 운전관리를 보장합니다.

저소음, 저진동 특수감속기의 사용 및 특수방진설계의 채택으로 저소음, 저진동을 실현하였습니다.

수동출고기능 삼성만의 브레이크제장체와 핸드체인의 장작으로 정전 및 기계적 고장시에도 인력에 의한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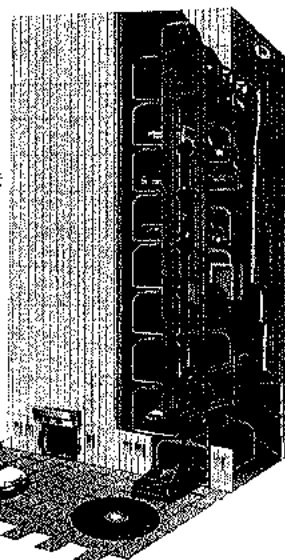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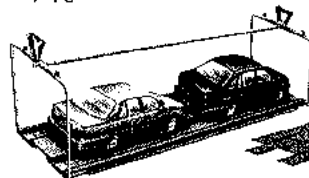
완벽 A/S 실현 최고기술진의 완벽 A/S는 언제 어디서나 고객 여러분의 긴급한 요구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다기종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은 구매자의 예산과 입지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대형차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

- 초고속형 :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턴테이블 내장형 : 케이지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 이중탑재형 : 파렛트 하나에 두대 주차

- ▶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하는 시스템 (횡식, 종식)
- ▶ **지하 다층 순환방식** : 다층으로된 지하주차 공간에 상하수평으로 순환이동시키며 주차시키는 방식
- ▶ **조립식 입체평면주차방식** : 경량 철골 조립식 주차장



삼성타워파킹

삼성중공업기계사업본부

TOWER PARKING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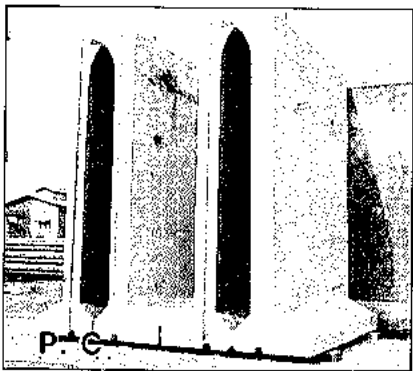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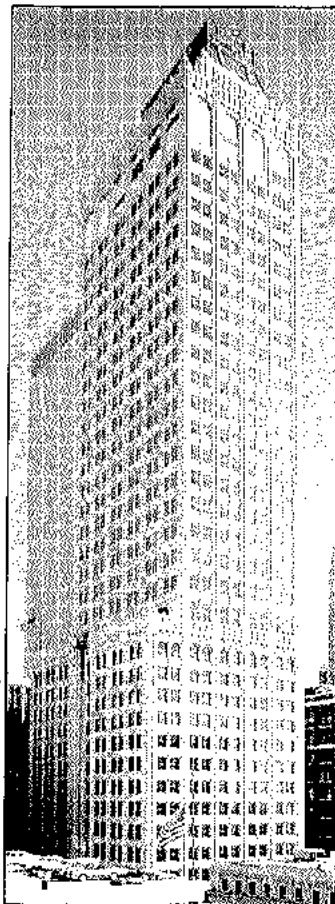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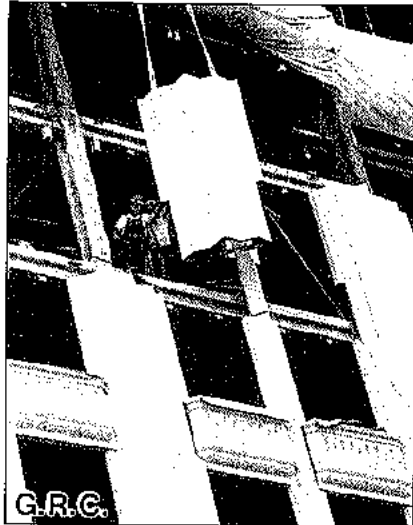
기계사업본부

■ 본사 : (02)728-6431 ~ 4 FAX : (02)728-6214, 756-9358 창원공장 : (0551)60-6385 ~ 7 FAX : (0551)60-6768 부산지점 : (051)607-6814 FAX : (051)862-5375 대구지점 : (053)254-3004 ~ 5 FAX : (053)23-9244
 광주지점 : (062)224-2174 FAX : (062)224-2173 대전지점 : (042)26-5009 FAX : (042)253-3988

G.R.C / P.C / 사각솔리드PILE

한국하이콘(주)는

조립식 건축자재(GRC, PC)를 생산하여 건설현장의 인력난 타개,
공기단축, 도시건축의 공간해결, 정부의 조립식 주택보급
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요생산제품

- GRC 판넬
- TPC, GPC
- 조립주택 및 빌딩용 판넬
- 4각 솔리드파일

한국하이콘(주)는 유럽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지력과 강도가 높은 4각 솔리드 PILE을
국내 처음으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하이콘(주)는 PCI회원으로써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G.R.C 제품의 특징

- ▲ **유용성**: 파괴강도, 충격강도가 타제품의 추종을 불허하며, 표면재가 불연성
G.R.C로 내화성, 흡음성 및 방수, 방습이 완벽하여 균열이 발생치
않는 영구벽체입니다.
- ▲ **의장성**: 초경량이지만 콘크리트의 중후한 질감과 세련되고 그래픽한 미관 및
패적인 색채, 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의장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 ▲ **시공성**: 조인트공법+조립식 Dry-Wall로 시공이 간편하여 공기의 단축, 공사
비의 절감은 물론 깨끗한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MEMBER

pci
PRESTRESSED
CONCRETE
INSTITUTE

HI 韓國하이콘(株)
HI-CON KOREA,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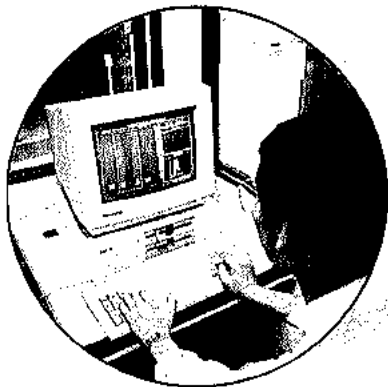
340-940

本社・工場: 忠南 禮山郡 鳳山面 花田里 山25-1
TEL. (0458)37-0508 (代)
FAX. (0458)37-0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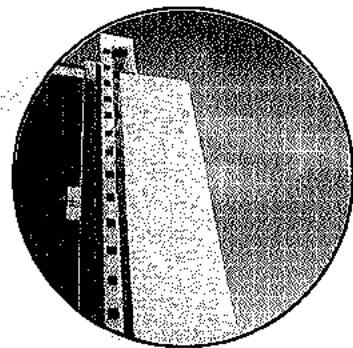
1315-080

서울事務所: 서울 江南區 驛三洞 647 韓州빌딩 303号
TEL. (02)554-6881 (代)
FAX. (02)554-9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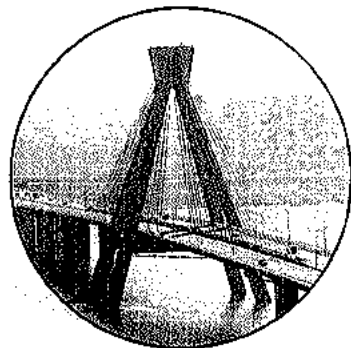
유원의 첨단기술이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 한국일보사신관 주차타워
컴퓨터 콘트롤 룸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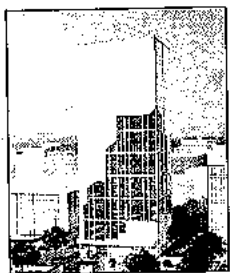


● 서울·올림픽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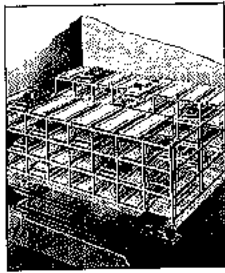
13평의 땅에 50대 주차 설비를 세운다.

올림픽대교를 건설한 유원건설이 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유원은 한국일보사 신관 주차타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등을 완공,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크고 작은 주차타워 설치공사를 수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원은 국내외에서 쌓은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주차설비 분야의 기획업무부터 설계, 시공, A/S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YOP-A 올림픽



YOP-M형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설의 특징

- 13坪에 50臺 주차설비 시설가능
- 지상, 지하에 동시 운행가능
- 트윈타입으로 설치면적 절감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시설의 7대 장점

1. 경제성 - 저렴한 시공비, 최소의 운영관리비
2. 안전성 - 16가지 이상의 COMPUTER 안전장치
3. 신속성 - 상승속도 60m/min 이상, 1분내 입출고 처리
4. 간편성 - 차량번호만 입력, 자동으로 입출고
5. 정숙성 - 승객용 승강기에 버금가는 무소음 무진동
6. 다양성 - 대지형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종

7. 독창성 -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 100% 국산화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공 및 착공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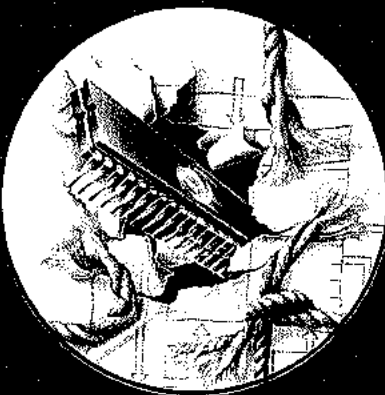
- 한국일보 신관 : 2기 48대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 1기 40대
- 부산 고속터미널 : 3기 120대
- 사당 쇼핑센터 : 3기 150대
- 잠실 뉴스타관광호텔 : 1기 50대
- 평창산업주차타운 : 4기 200대



유원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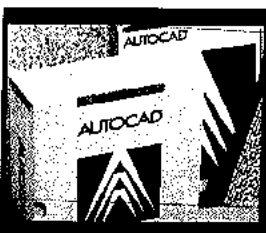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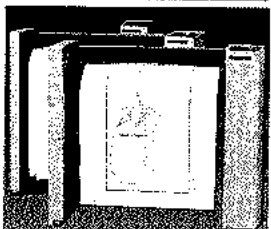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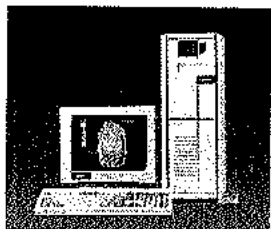
상담전화 : (02) 756-9821, 9841 (02) 777-9821, 9841
FAX : (02) 754-8521
주차 플랜트부

C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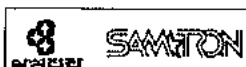
UCL®
UNION COMPUTER CO., LTD.

우리가 선택되는것은
남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절약!
기능과 인력의 절약!
경비와 자재의 절약!

우리들의 가까운 이웃
「유니온 컴퓨터의 CAD Plaza」에서
과감히 해결하십시오.



신용을 판매하는 기업
유니온컴퓨터(株)
UNION COMPUTER CO., LTD.
본 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8-14
TEL : 587-3500(代) FAX : 583-1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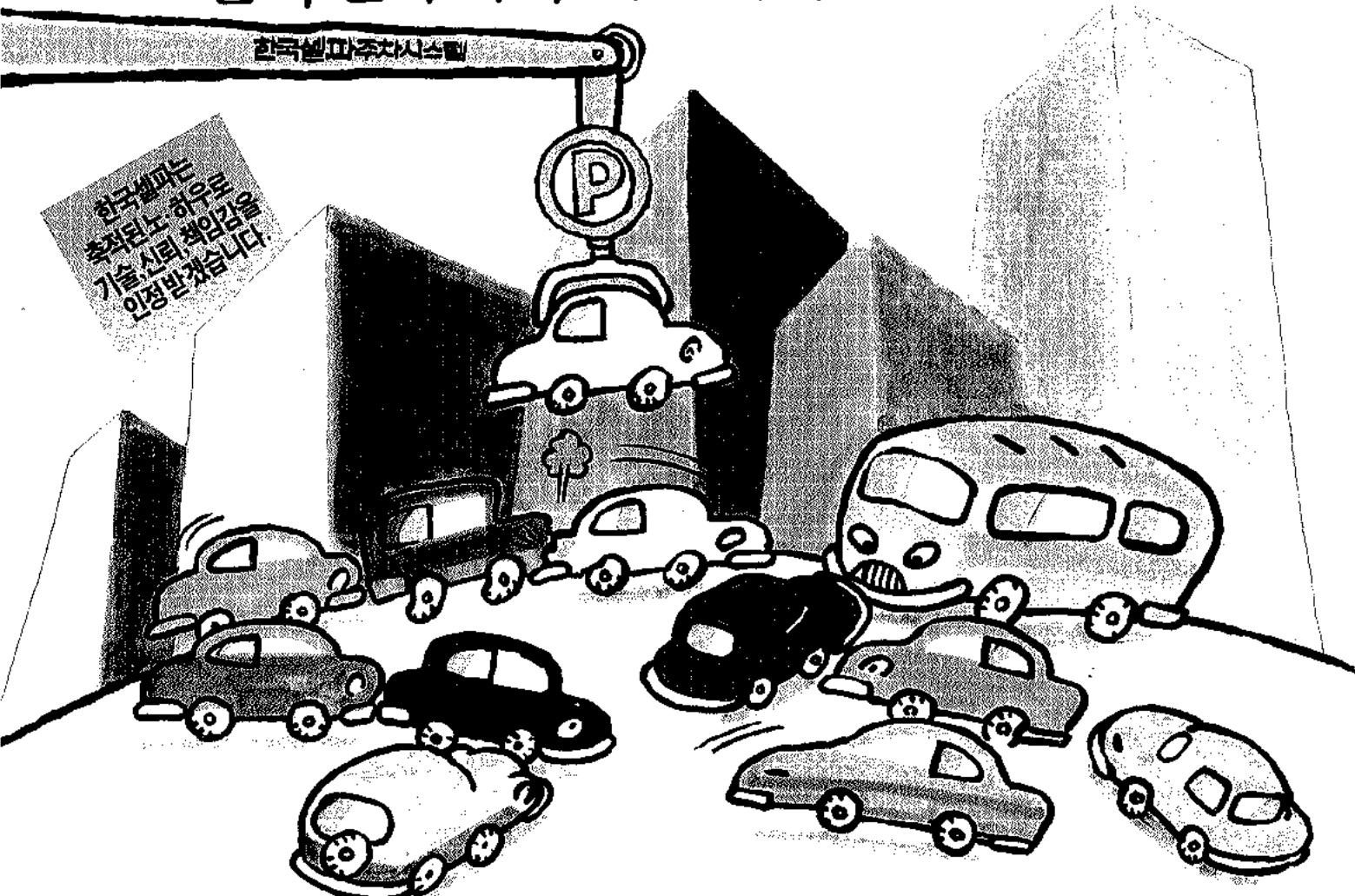
종로세운직매장 : (02) 265-0613, 266-0613 대리점 : 대전 : 유니온컴퓨터랜드 : 257-3510
용산나전직매장 : (02) 717-5364-5 광주 : 대 흥 데 이 타 : 225-4238-9 대구 : 삼 보 컴 퓨 터 : 252-7904
전자랜드직매장 : (02) 706-4321-3 부산 : 일 진 컴 퓨 터 : 227-8086 전주 : 호남마이크로 : 75-1118
선인상가웍스컴퓨터 : (02) 704-2272-4 마산 : 조 이 스 컴 퓨 터 : 807-6100 이리 : 동원 컴퓨터 : 51-3351-3
충천 : 대우 데 이 타 : 54-4388 제주 : 월드 컴 퓨 터 : 22-3536

주차문제

한국셀파의 주차설비가 해결합니다.

한국셀파주차시스템

한국셀파는
축적된 노하우로
기술 신뢰 책임감을
인정받았습니다.



주차시스템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주차난은 이제 강 건너 불구경일 수가 없습니다. 오피스빌딩, 백화점, 호텔 등 대규모 빌딩과 소규모 빌딩, 일반 점포에 이르기까지 건물의 외형과 지역상권의 가치를 따지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주변 교통환경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주차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두뇌가 그게 시공하는 주차 설비

한국셀파는 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하여 첨단 기술로 전진하고 있는 현시대의 추세에 맞춰 신속하고 편리한 주차시스템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책임있는 A/S로 철저한 사후관리

전국을 5개 권으로 A/S망을 구축 24시간 여러분 겐에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제품과 기업의 신뢰를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격한 품질관리

엄격한 자체의 선정, 가공 조립에 대한 공정일지라도 그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수요자 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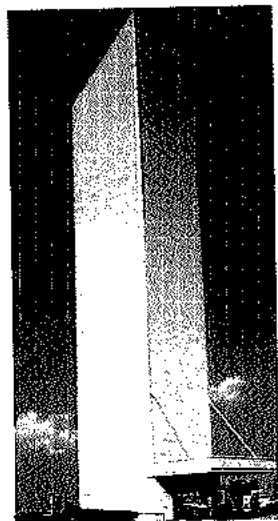
원격한 관리

컴퓨터의 정확한 공정관리에 의하여 한치의 착오

없이 최상의 상품을 생산하여 약속된 납 현장에 정확하게 납품, 시공하여 셀파의 축적된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겠습니다.

셀파 주차설비시스템의 종류

- 퍼즐파킹
발당규모나 주차대수에 제한받지 않고 사용보수가 용이합니다.
- 수평순환식
밀폐된 공간에 최대의 주차대수 확보를 자랑하며 컴퓨터식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 E/L 타워파킹
원터치 방식으로서 초고속 입출고를 자랑하며 Computer 자기관리운영방식을 도입, 첨단관리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 광장형 자주식 주차설비
백화점, 호텔, 관공서 등 입출고가 빈번하고 혼잡이 우려되는 곳에 적합한 만모스형 주차설비로서 최소의 관리비와 고객유치를 약속드립니다.
- 기타 주차설비 및 판매설비 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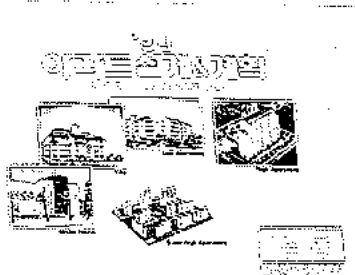
주식회사 한국셀파

본사 : 서울·성동구 군자동 326-4 (유선빌딩 4층) TEL : 215-1570 (대) FAX : 215-1572 공장 :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금현1리 1079-1 TEL : (0357) 34-1356~7

'91 아파트 설계 & 계획

Apartment Architectural Design & Plan

건축·설계·주택사업분야 관계자들의 필수도서 (절찬리 출간판매중!)



이 한권의 책이 백권의
건축전문도서를 대신합니다.



'91
아파트 설계 & 계획
Apartment Architectural Design & Plan

空間藝術社

- 이책의 특징 -

- '90~'91년도에 준공했거나 건설중인 아파트
- 경사진 곳, 특이한 형태를 지닌 대지의 아파트 단지배치
- 다양한 형의 평면설계 및 새로운 평면구조
- 서울근교 신도시 및 지방도시의 국내유수업체 건축작품

자 품 수 : 국내유수업체 150곳
 격 : 25.5cm × 38cm
 수 : 350면
 도 : 올 컬러
 지 : 고급아트지, 150파운드
 본 : 최고급양장, 고급양장케이스
 품급가격 : 230,000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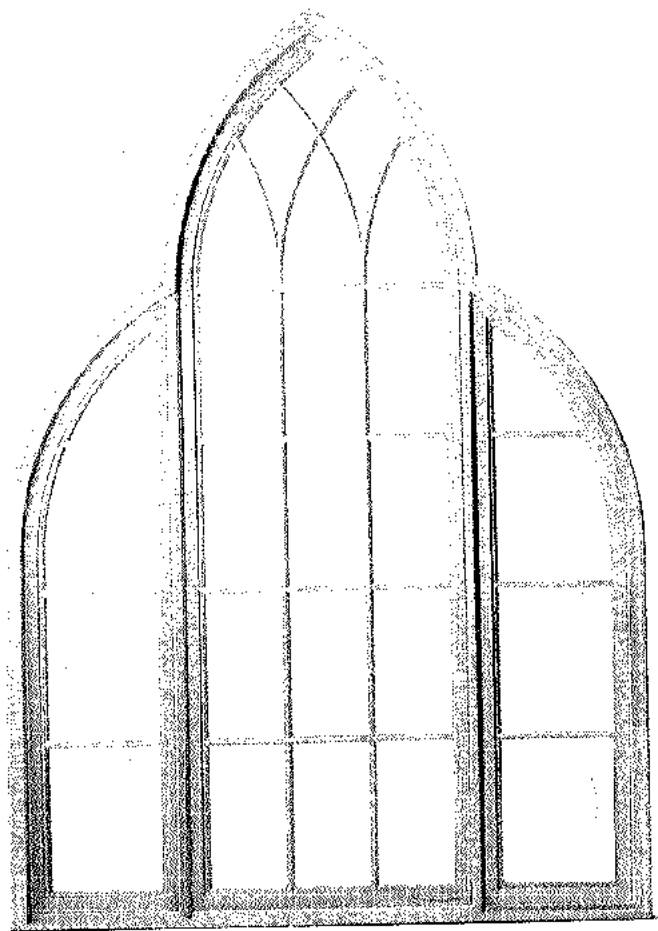
- 고급빌라
- 저층아파트
- 고층아파트
- 초고층아파트
- 모델하우스
- 조감도·투시도
- 입체평면투시도
- 평형별면적
- 설계상특장점
- 단지배치도



空間藝術社

서울시 西大門區 忠正路 2街 69-
 서울·경기총판 : (02) 363-1020
 부산·경남총판 : (051) 464-1997

■ 서울·경기총판 : 공간예술사 T. (02)363-1020 / (주)교보문고 T. (02)730-7891 / (주)종로서적 T. (02)732-2331 / 을지서적(주) T. (02)757-8991 / (주)동화서적 T. (02)555-7312 / 월드북센터 T. (02)514-6666 / ■ 충청지역 : 대전기술서적 T. (042)72-5761 / ■ 전북지역 : 이라기술서적 T. (0653)52-8452 / ■ 전남지역 : 광주공간도서 T. (062)232-8631 / ■ 경북지역 : 대구세일사 T. (053)424-2537 / ■ 부산·경남총판 : 공간예술사 부산지사 T. (051)464-1997 / 영광도서 T. (051)816-9500 / 동보서적 T. (051)803-8000 / 문우당 T. (051)245-3844 / 광복문고 T. (051)246-4081 / 남포문고 T. (051)245-8911 / 경남종합도서 T. (0551)85-4960



집을 바꾸시겠습니까? 창을 바꾸시겠습니까?

창과 문이 다르면 그 집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조금 비싸지만, 이견창호로 하세요.
주문제작으로 만들기에
원하는대로, 생각한대로 만들 수 있는 창호
귀하의 자부심이 새겨져 있는 창호
바로 이견창호가 만듭니다.



단독주택/아파트/빌라 시공사례

○ 올림피아드수출아파트 ○ UN빌리지 ○ 안구정동 현대아파트 리노베이션
○ 마포 벽산빌라 ○ 대구기동 용원빌라 ○ 삼성동 두산빌라
○ 해운대 삼익빌라 ○ 포항제철 영빈관 ○ E여지대학교 관사 외

오피스텔/빌딩/휴양시설 시공사례

○ 구기동 경원빌딩 ○ 삼성동 신도빌딩 ○ 양재동 한샘퍼시스 사옥
○ 천주교 성체대회기념관 ○ (주)동심 안양공장 ○ 주한 영국대사관
○ 제주도 신리호텔 ○ 강릉 비치호텔 ○ 삼성속초문도미나리 외

해외 시공사례

○ Izuna Rest House ○ Eastwood C.C
○ HGC Art Museum ○ JAPAN

전시장을 방문하시거나 문의전화로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사영업부 / 상설전시장 563-2071, 논현동전시장 540-2071,
부산전시장(051)557-2071, 제주전시장(064)41-4301

(주)이견창호시스템

관련사 이견산업주식회사, 이견자원개발주식회사
EAGON FOREST PRODUCTS INC., EAGON INDUSTRIAL CO., GmbH

ARRIS

AR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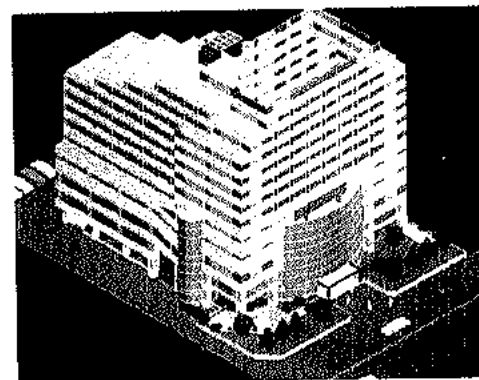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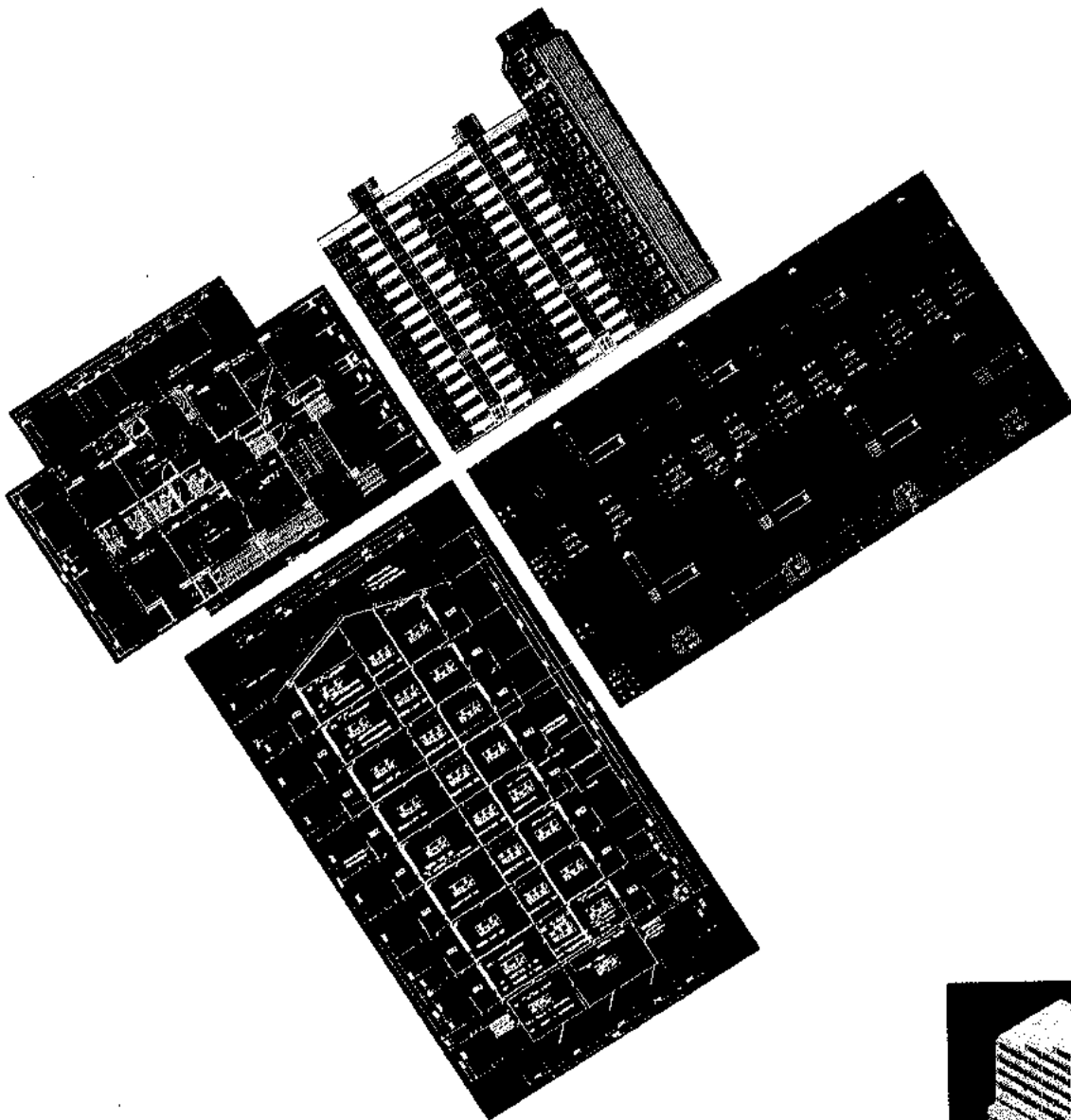
가장 강력한 건축전용 CAD시스템입니다.

이제는 건축 분야에서 건축용 CAD를 말하면 ARRIS를 생각합니다.
ARRIS는 미국에서 AIA, DECISION, AIA에 개발된 건축용 CAD의 최고수준입니다.

가장 강력한 3D/2D/4D/5D/6D/7D/8D/9D/10D/11D/12D/13D/14D/15D/16D/17D/18D/19D/20D/21D/22D/23D/24D/25D/26D/27D/28D/29D/30D/31D/32D/33D/34D/35D/36D/37D/38D/39D/40D/41D/42D/43D/44D/45D/46D/47D/48D/49D/50D/51D/52D/53D/54D/55D/56D/57D/58D/59D/60D/61D/62D/63D/64D/65D/66D/67D/68D/69D/70D/71D/72D/73D/74D/75D/76D/77D/78D/79D/80D/81D/82D/83D/84D/85D/86D/87D/88D/89D/90D/91D/92D/93D/94D/95D/96D/97D/98D/99D/100D/101D/102D/103D/104D/105D/106D/107D/108D/109D/110D/111D/112D/113D/114D/115D/116D/117D/118D/119D/120D/121D/122D/123D/124D/125D/126D/127D/128D/129D/130D/131D/132D/133D/134D/135D/136D/137D/138D/139D/140D/141D/142D/143D/144D/145D/146D/147D/148D/149D/150D/151D/152D/153D/154D/155D/156D/157D/158D/159D/160D/161D/162D/163D/164D/165D/166D/167D/168D/169D/170D/171D/172D/173D/174D/175D/176D/177D/178D/179D/180D/181D/182D/183D/184D/185D/186D/187D/188D/189D/190D/191D/192D/193D/194D/195D/196D/197D/198D/199D/200D/201D/202D/203D/204D/205D/206D/207D/208D/209D/210D/211D/212D/213D/214D/215D/216D/217D/218D/219D/220D/221D/222D/223D/224D/225D/226D/227D/228D/229D/230D/231D/232D/233D/234D/235D/236D/237D/238D/239D/240D/241D/242D/243D/244D/245D/246D/247D/248D/249D/250D/251D/252D/253D/254D/255D/256D/257D/258D/259D/260D/261D/262D/263D/264D/265D/266D/267D/268D/269D/270D/271D/272D/273D/274D/275D/276D/277D/278D/279D/280D/281D/282D/283D/284D/285D/286D/287D/288D/289D/290D/291D/292D/293D/294D/295D/296D/297D/298D/299D/300D/301D/302D/303D/304D/305D/306D/307D/308D/309D/310D/311D/312D/313D/314D/315D/316D/317D/318D/319D/320D/321D/322D/323D/324D/325D/326D/327D/328D/329D/330D/331D/332D/333D/334D/335D/336D/337D/338D/339D/340D/341D/342D/343D/344D/345D/346D/347D/348D/349D/350D/351D/352D/353D/354D/355D/356D/357D/358D/359D/360D/361D/362D/363D/364D/365D/366D/367D/368D/369D/370D/371D/372D/373D/374D/375D/376D/377D/378D/379D/380D/381D/382D/383D/384D/385D/386D/387D/388D/389D/390D/391D/392D/393D/394D/395D/396D/397D/398D/399D/400D/401D/402D/403D/404D/405D/406D/407D/408D/409D/410D/411D/412D/413D/414D/415D/416D/417D/418D/419D/420D/421D/422D/423D/424D/425D/426D/427D/428D/429D/430D/431D/432D/433D/434D/435D/436D/437D/438D/439D/440D/441D/442D/443D/444D/445D/446D/447D/448D/449D/450D/451D/452D/453D/454D/455D/456D/457D/458D/459D/460D/461D/462D/463D/464D/465D/466D/467D/468D/469D/470D/471D/472D/473D/474D/475D/476D/477D/478D/479D/480D/481D/482D/483D/484D/485D/486D/487D/488D/489D/490D/491D/492D/493D/494D/495D/496D/497D/498D/499D/500D/501D/502D/503D/504D/505D/506D/507D/508D/509D/510D/511D/512D/513D/514D/515D/516D/517D/518D/519D/520D/521D/522D/523D/524D/525D/526D/527D/528D/529D/530D/531D/532D/533D/534D/535D/536D/537D/538D/539D/540D/541D/542D/543D/544D/545D/546D/547D/548D/549D/550D/551D/552D/553D/554D/555D/556D/557D/558D/559D/560D/561D/562D/563D/564D/565D/566D/567D/568D/569D/570D/571D/572D/573D/574D/575D/576D/577D/578D/579D/580D/581D/582D/583D/584D/585D/586D/587D/588D/589D/590D/591D/592D/593D/594D/595D/596D/597D/598D/599D/600D/601D/602D/603D/604D/605D/606D/607D/608D/609D/610D/611D/612D/613D/614D/615D/616D/617D/618D/619D/620D/621D/622D/623D/624D/625D/626D/627D/628D/629D/630D/631D/632D/633D/634D/635D/636D/637D/638D/639D/640D/641D/642D/643D/644D/645D/646D/647D/648D/649D/650D/651D/652D/653D/654D/655D/656D/657D/658D/659D/660D/661D/662D/663D/664D/665D/666D/667D/668D/669D/670D/671D/672D/673D/674D/675D/676D/677D/678D/679D/680D/681D/682D/683D/684D/685D/686D/687D/688D/689D/690D/691D/692D/693D/694D/695D/696D/697D/698D/699D/700D/701D/702D/703D/704D/705D/706D/707D/708D/709D/710D/711D/712D/713D/714D/715D/716D/717D/718D/719D/720D/721D/722D/723D/724D/725D/726D/727D/728D/729D/730D/731D/732D/733D/734D/735D/736D/737D/738D/739D/740D/741D/742D/743D/744D/745D/746D/747D/748D/749D/750D/751D/752D/753D/754D/755D/756D/757D/758D/759D/760D/761D/762D/763D/764D/765D/766D/767D/768D/769D/770D/771D/772D/773D/774D/775D/776D/777D/778D/779D/780D/781D/782D/783D/784D/785D/786D/787D/788D/789D/790D/791D/792D/793D/794D/795D/796D/797D/798D/799D/800D/801D/802D/803D/804D/805D/806D/807D/808D/809D/810D/811D/812D/813D/814D/815D/816D/817D/818D/819D/820D/821D/822D/823D/824D/825D/826D/827D/828D/829D/830D/831D/832D/833D/834D/835D/836D/837D/838D/839D/840D/841D/842D/843D/844D/845D/846D/847D/848D/849D/850D/851D/852D/853D/854D/855D/856D/857D/858D/859D/860D/861D/862D/863D/864D/865D/866D/867D/868D/869D/870D/871D/872D/873D/874D/875D/876D/877D/878D/879D/880D/881D/882D/883D/884D/885D/886D/887D/888D/889D/890D/891D/892D/893D/894D/895D/896D/897D/898D/899D/900D/901D/902D/903D/904D/905D/906D/907D/908D/909D/910D/911D/912D/913D/914D/915D/916D/917D/918D/919D/920D/921D/922D/923D/924D/925D/926D/927D/928D/929D/930D/931D/932D/933D/934D/935D/936D/937D/938D/939D/940D/941D/942D/943D/944D/945D/946D/947D/948D/949D/950D/951D/952D/953D/954D/955D/956D/957D/958D/959D/960D/961D/962D/963D/964D/965D/966D/967D/968D/969D/970D/971D/972D/973D/974D/975D/976D/977D/978D/979D/980D/981D/982D/983D/984D/985D/986D/987D/988D/989D/990D/991D/992D/993D/994D/995D/996D/997D/998D/999D/1000D/1001D/1002D/1003D/1004D/1005D/1006D/1007D/1008D/1009D/1010D/1011D/1012D/1013D/1014D/1015D/1016D/1017D/1018D/1019D/1020D/1021D/1022D/1023D/1024D/1025D/1026D/1027D/1028D/1029D/1030D/1031D/1032D/1033D/1034D/1035D/1036D/1037D/1038D/1039D/1040D/1041D/1042D/1043D/1044D/1045D/1046D/1047D/1048D/1049D/1050D/1051D/1052D/1053D/1054D/1055D/1056D/1057D/1058D/1059D/1060D/1061D/1062D/1063D/1064D/1065D/1066D/1067D/1068D/1069D/1070D/1071D/1072D/1073D/1074D/1075D/1076D/1077D/1078D/1079D/1080D/1081D/1082D/1083D/1084D/1085D/1086D/1087D/1088D/1089D/1090D/1091D/1092D/1093D/1094D/1095D/1096D/1097D/1098D/1099D/1100D/1101D/1102D/1103D/1104D/1105D/1106D/1107D/1108D/1109D/1110D/1111D/1112D/1113D/1114D/1115D/1116D/1117D/1118D/1119D/1120D/1121D/1122D/1123D/1124D/1125D/1126D/1127D/1128D/1129D/1130D/1131D/1132D/1133D/1134D/1135D/1136D/1137D/1138D/1139D/1140D/1141D/1142D/1143D/1144D/1145D/1146D/1147D/1148D/1149D/1150D/1151D/1152D/1153D/1154D/1155D/1156D/1157D/1158D/1159D/1160D/1161D/1162D/1163D/1164D/1165D/1166D/1167D/1168D/1169D/1170D/1171D/1172D/1173D/1174D/1175D/1176D/1177D/1178D/1179D/1180D/1181D/1182D/1183D/1184D/1185D/1186D/1187D/1188D/1189D/1190D/1191D/1192D/1193D/1194D/1195D/1196D/1197D/1198D/1199D/1200D/1201D/1202D/1203D/1204D/1205D/1206D/1207D/1208D/1209D/1210D/1211D/1212D/1213D/1214D/1215D/1216D/1217D/1218D/1219D/1220D/1221D/1222D/1223D/1224D/1225D/1226D/1227D/1228D/1229D/1230D/1231D/1232D/1233D/1234D/1235D/1236D/1237D/1238D/1239D/1240D/1241D/1242D/1243D/1244D/1245D/1246D/1247D/1248D/1249D/1250D/1251D/1252D/1253D/1254D/1255D/1256D/1257D/1258D/1259D/1260D/1261D/1262D/1263D/1264D/1265D/1266D/1267D/1268D/1269D/1270D/1271D/1272D/1273D/1274D/1275D/1276D/1277D/1278D/1279D/1280D/1281D/1282D/1283D/1284D/1285D/1286D/1287D/1288D/1289D/1290D/1291D/1292D/1293D/1294D/1295D/1296D/1297D/1298D/1299D/1300D/1301D/1302D/1303D/1304D/1305D/1306D/1307D/1308D/1309D/1310D/1311D/1312D/1313D/1314D/1315D/1316D/1317D/1318D/1319D/1320D/1321D/1322D/1323D/1324D/1325D/1326D/1327D/1328D/1329D/1330D/1331D/1332D/1333D/1334D/1335D/1336D/1337D/1338D/1339D/1340D/1341D/1342D/1343D/1344D/1345D/1346D/1347D/1348D/1349D/1350D/1351D/1352D/1353D/1354D/1355D/1356D/1357D/1358D/1359D/1360D/1361D/1362D/1363D/1364D/1365D/1366D/1367D/1368D/1369D/1370D/1371D/1372D/1373D/1374D/1375D/1376D/1377D/1378D/1379D/1380D/1381D/1382D/1383D/1384D/1385D/1386D/1387D/1388D/1389D/1390D/1391D/1392D/1393D/1394D/1395D/1396D/1397D/1398D/1399D/1400D/1401D/1402D/1403D/1404D/1405D/1406D/1407D/1408D/1409D/1410D/1411D/1412D/1413D/1414D/1415D/1416D/1417D/1418D/1419D/1420D/1421D/1422D/1423D/1424D/1425D/1426D/1427D/1428D/1429D/1430D/1431D/1432D/1433D/1434D/1435D/1436D/1437D/1438D/1439D/1440D/1441D/1442D/1443D/1444D/1445D/1446D/1447D/1448D/1449D/1450D/1451D/1452D/1453D/1454D/1455D/1456D/1457D/1458D/1459D/1460D/1461D/1462D/1463D/1464D/1465D/1466D/1467D/1468D/1469D/1470D/1471D/1472D/1473D/1474D/1475D/1476D/1477D/1478D/1479D/1480D/1481D/1482D/1483D/1484D/1485D/1486D/1487D/1488D/1489D/1490D/1491D/1492D/1493D/1494D/1495D/1496D/1497D/1498D/1499D/1500D/1501D/1502D/1503D/1504D/1505D/1506D/1507D/1508D/1509D/1510D/1511D/1512D/1513D/1514D/1515D/1516D/1517D/1518D/1519D/1520D/1521D/1522D/1523D/1524D/1525D/1526D/1527D/1528D/1529D/1530D/1531D/1532D/1533D/1534D/1535D/1536D/1537D/1538D/1539D/1540D/1541D/1542D/1543D/1544D/1545D/1546D/1547D/1548D/1549D/1550D/1551D/1552D/1553D/1554D/1555D/1556D/1557D/1558D/1559D/1560D/1561D/1562D/1563D/1564D/1565D/1566D/1567D/1568D/1569D/1570D/1571D/1572D/1573D/1574D/1575D/1576D/1577D/1578D/1579D/1580D/1581D/1582D/1583D/1584D/1585D/1586D/1587D/1588D/1589D/1590D/1591D/1592D/1593D/1594D/1595D/1596D/1597D/1598D/1599D/1600D/1601D/1602D/1603D/1604D/1605D/1606D/1607D/1608D/1609D/1610D/1611D/1612D/1613D/1614D/1615D/1616D/1617D/1618D/1619D/1620D/1621D/1622D/1623D/1624D/1625D/1626D/1627D/1628D/1629D/1630D/1631D/1632D/1633D/1634D/1635D/1636D/1637D/1638D/1639D/1640D/1641D/1642D/1643D/1644D/1645D/1646D/1647D/1648D/1649D/1650D/1651D/1652D/1653D/1654D/1655D/1656D/1657D/1658D/1659D/1660D/1661D/1662D/1663D/1664D/1665D/1666D/1667D/1668D/1669D/1670D/1671D/1672D/1673D/1674D/1675D/1676D/1677D/1678D/1679D/1680D/1681D/1682D/1683D/1684D/1685D/1686D/1687D/1688D/1689D/1690D/1691D/1692D/1693D/1694D/1695D/1696D/1697D/1698D/1699D/1700D/1701D/1702D/1703D/1704D/1705D/1706D/1707D/1708D/1709D/1710D/1711D/1712D/1713D/1714D/1715D/1716D/1717D/1718D/1719D/1720D/1721D/1722D/1723D/1724D/1725D/1726D/1727D/1728D/1729D/1730D/1731D/1732D/1733D/1734D/1735D/1736D/1737D/1738D/1739D/1740D/1741D/1742D/1743D/1744D/1745D/1746D/1747D/1748D/1749D/1750D/1751D/1752D/1753D/1754D/1755D/1756D/1757D/1758D/1759D/1760D/1761D/1762D/1763D/1764D/1765D/1766D/1767D/1768D/1769D/1770D/1771D/1772D/1773D/1774D/1775D/1776D/1777D/1778D/1779D/1780D/1781D/1782D/1783D/1784D/1785D/1786D/1787D/1788D/1789D/1790D/1791D/1792D/1793D/1794D/1795D/1796D/1797D/1798D/1799D/1800D/1801D/1802D/1803D/1804D/1805D/1806D/1807D/1808D/1809D/1810D/1811D/1812D/1813D/1814D/1815D/1816D/1817D/1818D/1819D/1820D/1821D/1822D/1823D/1824D/1825D/1826D/1827D/1828D/1829D/1830D/1831D/1832D/1833D/1834D/1835D/1836D/1837D/1838D/1839D/1840D/1841D/1842D/1843D/1844D/1845D/1846D/1847D/1848D/1849D/1850D/1851D/1852D/1853D/1854D/1855D/1856D/1857D/1858D/1859D/1860D/1861D/1862D/1863D/1864D/1865D/1866D/1867D/1868D/1869D/1870D/1871D/1872D/1873D/1874D/1875D/1876D/1877D/1878D/1879D/1880D/1881D/1882D/1883D/1884D/1885D/1886D/1887D/1888D/1889D/1890D/1891D/1892D/1893D/1894D/1895D/1896D/1897D/1898D/1899D/1900D/1901D/1902D/1903D/1904D/1905D/1906D/1907D/1908D/1909D/1910D/1911D/1912D/1913D/1914D/1915D/1916D/1917D/1918D/1919D/1920D/1921D/1922D/1923D/1924D/1925D/1926D/1927D/1928D/1929D/1930D/1931D/1932D/1933D/1934D/1935D/1936D/1937D/1938D/1939D/1940D/1941D/1942D/1943D/1944D/1945D/1946D/1947D/1948D/1949D/1950D/1951D/1952D/1953D/1954D/1955D/1956D/1957D/1958D/1959D/1960D/1961D/1962D/1963D/1964D/1965D/1966D/1967D/1968D/1969D/1970D/1971D/1972D/1973D/1974D/1975D/1976D/1977D/1978D/1979D/1980D/1981D/1982D/1983D/1984D/1985D/1986D/1987D/1988D/1989D/1990D/1991D/1992D/1993D/1994D/1995D/1996D/1997D/1998D/1999D/2000D/2001D/2002D/2003D/2004D/2005D/2006D/2007D/2008D/2009D/2010D/2011D/2012D/2013D/2014D/2015D/2016D/2017D/2018D/2019D/2020D/2021D/2022D/2023D/2024D/2025D/2026D/2027D/2028D/2029D/2030D/2031D/2032D/2033D/2034D/2035D/2036D/2037D/2038D/2039D/2040D/2041D/2042D/2043D/2044D/2045D/2046D/2047D/2048D/2049D/2050D/2051D/2052D/2053D/2054D/2055D/2056D/2057D/2058D/2059D/2060D/2061D/2062D/2063D/2064D/2065D/2066D/2067D/2068D/2069D/2070D/2071D/2072D/2073D/2074D/2075D/2076D/2077D/2078D/2079D/2080D/2081D/2082D/2083D/2084D/2085D/2086D/2087D/2088D/2089D/2090D/2091D/2092D/2093D/2094D/2095D/2096D/2097D/2098D/2099D/2100D/2101D/2102D/2103D/2104D/2105D/2106D/2107D/2108D/2109D/2110D/2111D/2112D/2113D/2114D/2115D/2116D/2117D/2118D/2119D/2120D/2121D/2122D/2123D/2124D/2125D/2126D/2127D/2128D/2129D/2130D/2131D/2132D/2133D/2134D/2135D/2136D/2137D/2138D/2139D/2140D/2141D/2142D/2143D/2144D/2145D/2146D/2147D/2148D/2149D/2150D/2151D/2152D/2153D/2154D/2155D/2156D/2157D/2158D/2159D/2160D/2161D/2162D/2163D/2164D/2165D/2166D/2167D/2168D/2169D/2170D/2171D/2172D/2173D/2174D/2175D/2176D/2177D/2178D/2179D/2180D/2181D/2182D/2183D/2184D/2185D/2186D/2187D/2188D/2189D/2190D/2191D/2192D/2193D/2194D/2195D/2196D/2197D/2198D/2199D/2200D/2201D/2202D/2203D/2204D/2205D/2206D/2207D/2208D/2209D/22

ARRIS

ARRIS는 미국 Sigma Design
사에서 개발한 "디자인 전용" CAD
(Computer Aided Design) 시스템
으로서, 그 적용분야는 건축, 인테리어,
가구, 산업미술 등이며, Drafting
뿐만 아니라 Design 자체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CAD 시스템으로
특히 간편한 3-D (입체적 표현 및
무한한 COLOR와 빛의 Simu-
lation이 가능한, 디자인을 위한 가
장 강력한 최신 CAD 시스템입니다.



SIGMA DESIGN

(株) 시그마디자인코리아

서울·서초구 방배동 795-25 (방배빌딩 5F)

TEL: (02) 536-4057 ~9

FAX: (02) 599-4030



영남지역총판 (주)우신시스템
TEL: (051) 816-2611~5

- ARRIS에 관한 무료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ARRIS 전문 엔지니어가 필요하실때 유능한 인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가 새로 개발한 한글단 선체, 한글북 선체, 디테일을 드립니다.

차레/1991년 9월호 통권 제269호

건축허가제한 조치에 따른 우리의 입장

會員作品	한국통신연구소 / 金正湜+崔泰容	20
	정한오피스텔 / (주)간·삼중합건축사무소	22
	벌크헤드 / 金仁喆+韓英帝	28
	수원문화회관 / 林長烈	32
	제주 한신리조트 / 金鎬慶+李昶祐	36
	한국투자신탁 잠실지점 / 李永熙	39
	그랜드 레저 오피스텔 / 李逢春	42
	서초동 주택 / 吳基守	44
스케치	“有 無” / 崔東儔	46
일하며 생각하며	사랑이 感應하는 건축을 위하여 / 朴時翼	48
초대 集	건축이 말을 한다 / 崔英集	50
企劃시리즈		52
	집합주거 주민의 생활양태와 단위주호 공간계획 / 禹銅宙	53
	인간 중심의 집합주거단지 개발방향 / 李熙奉	54
	집합주택계획과 주거밀도 / 朴勇煥	59
新 究	日本史 속의 건물과 도시(4) / 趙仁淑	64
	한국의 전통건축(36) 朝鮮時代의 建築 / 張慶浩	72
한와성도	해양건축을 향하여 / 이용재譯	75
實 科	1991년 7월분 도서신고현황	84
新人會員		90
協會消息		92
		93

發行人: 吳雲東

編輯企劃: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義求

委員: 徐千植, 姜哲求, 金煥起, 崔英集, 吳元根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170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02)586-8823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0612(519)

印刷人: 李鳳秀/正文社

Publisher: Oh Woon-Do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Lee, Eun-Koo

Member: Suh Chun-Ski/Kang, Chul-Koo/
Kim, Hwan-Kee/Choi, Young-Jeep/Oh Won-Keun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 581-5712~4

FAX: (02)586-8823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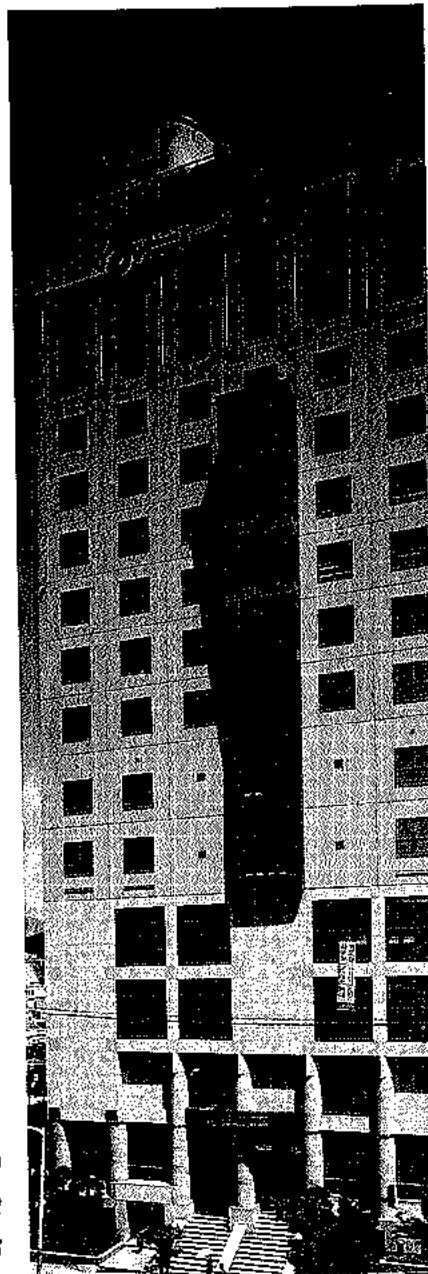
U. D. C.: 69172(054-2):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표지: 金正湜+崔泰容作
『한국통신연구소』
사진: 정정웅

CONTENTS Vol. 269, SEPTEMBER 1991

ARCHITECTS' ASSERTION	20
WORKS	22
KTA Research Center / Kim, Jung-Sik & Choi, Tai-Yong	28
Junghan Officetel / Group-3 Architects & Engineers	32
BULKHEAD / Kim, In-Chul & Han, Young-Je	36
Suwon Cultural Center / Lim, Jang-Ryul	39
Cheju Hanshin Resortell / Kim, Ho-Kyung & Lee, Chang-Woo	42
Korea Investment & Trust Co. Chamshil Branch / Lee, Young-Hee	44
Grand Leisure Officetel / Lee, Bong-Choon	46
Sôcho-dong Residence / Oh, Ki-Soo	48
SKETCH	50
Existence & Nonexistence / Choi, Dong-Ho	52
ESSAY	54
For the Sake of the Sincere Architecture / Park, See-Ik	59
POEM	64
Living With Architecture / Choi, Young-Jeep	72
FOCUS	75
Design Unit Plan Suited to People's Life Style / Woo, Dong-Ju	84
The Search for Developing a People-Mattered Housing Complex / Lee, Hee-Bong	90
Architecture Planning of the Density of the Multiple Housing / Park, Yong-Hwan	92
REPORT	93
Building and Cities in Japanese History / Cho, In-Souk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 / Chang, Kyung-Ho	
Composition of Oceanic Architecture / Lee, Yong-Jae	
MATERIALS	
NEWLY ADMITTED MEMBER	
KIRA NEWS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서울특별시초중고교동1603-55, 561-5715~8. 서대문분회/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관악분회/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도봉분회/도봉구수유동191-13, 903-3125. 영등포분회/영등포구당산3가81, 634-2143. 강동분회/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강서분회/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성동분회/성동구구로동252-16, 446-5244. 동대문분회/동대문구노원동101-7, 923-6313. 종로분회/종로구정전동201-1, 735-0905. 마포분회/마포구성산동275-1, 336-5057. 송파분회/송파구송파동50-12, 423-9158. 송구분회/송파구27가9-11, 279-1415. 용산분회/용산구원효로1가128-22, 712-7647. 서초분회/서초구서초1동1623-1, 586-7707. 은평분회/은평구녹번동70-32, 352-6720. 동작분회/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강남분회/강남구논현동242-30, 511-8515. 노원분회/노원구상계1동1019-79, 992-8076. 양천분회/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중랑분회/중랑구민들레동166-46, 923-6123. 성북분회/성북구사선5가110, 923-4401. 구로분회/구로구구로동86-4, 853-4084. ■ 부산직할시건축사회/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1가1(부산대피트네)(051)246-6284~7. ■ 대구직할시건축사회/대구직할시수성구발어동37가1-8, (053)753-8900~5. ■ 인천직할시건축사회/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558-1, (032)437-3381~4(FAX)437-3385(한국종합빌딩204호). ■ 광주직할시건축사회/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94-10, (062)521-0025~6(FAX)528-0026. ■ 대전직할시건축사회/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87-1, (042)256-9360~4. ■ 경기도건축사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7가124-5, (031)43-6662, 7072. 안양분회/안양시안양동523-5, (031)49-2698. ■ 강원도건축사회/강원도춘천시동천동39-5, (0361)54-2442. 원주분회/원주시중앙동60-54, (0371)42-4287. 강릉분회/강릉시성내동6-14(0391)12-2262. 속초분회/속초시안양동466-63, (0392)33-5081. 삼척분회/삼척시남양동55-43, (0337)2-3106. 영월분회/영월군영월읍양동1리960-12, (0372)43-2895. ■ 충청북도건축사회/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7가87-3, (0431)56-2752. 조식동명동466-63, (0392)33-5081. 삼척분회/삼척시남양동55-43, (0337)2-3106. 영월분회/영월군영월읍양동1리960-12, (0372)43-2895. ■ 충청남도건축사회/충청남도대천시중구대흥동487-1, (042)256-9360. 천안분회/천안시문화동160-1, (0417)551-4551. 홍성분회/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51)32-2755. 부여분회/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12-3304. 공산분회/공산시신령동35-4, (0541)197-10, (0452)34-3367. ■ 전라북도건축사회/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대륙 빌딩 508), (0562)87-6007~8. 이리분회/이리시남동동1가77-22, (0535)52-3304. 군산분회/군산시신령동35-4, (0541)197-10, (0452)34-3367. ■ 전라남도건축사회/전라남도광주광역시구회성동783-23(후선회관)(062)364-7567, 33-9944. 목포분회/목포시대안동1, (0631)43-3348. 순천분회/순천시대안동1, (061)43-3348. ■ 경상북도건축사회/경상북도경주시서노송동635-5(대륙 빌딩 508), (0562)87-6007~8. 이리분회/이리시남동동1가77-22, (0535)52-3304. 군산분회/군산시신령동35-4, (0541)197-10, (0452)34-3367. ■ 경상남도건축사회/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가1-8, (0551)46-4530~1. 울산분회/울산시남구신정동644-7, (052)74-6155. 진주분회/진주시동성동13-14, (051)745-4022. 충무분회/충무시서호동163-18, (0557)44-3232. 김해분회/김해시구원동24B-10L, (0525)84-6114. 양양분회/양양시삼봉동184-108, (0527)353-3646. 거창분회/거창군거창읍중앙리483-9, (0598)12-3777. 양산분회/양산군양산읍다림동522-4, (0523)44-6693. 거제분회/거제군신원동139-2, (0558)635-3432. 삼천포분회/삼천포시금동91-6(0593)33-3591. ■ 제주도건축사회/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22-3248, 52-3248. 서귀포분회/서귀포시서귀포동299-6, (064)62-2233.

建築許可制限 措置에

庶民生活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多世帶・多家口 住宅, 近隣

최근 우리나라의 經濟難國을 打開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중 過熱建設景氣 진정을 위한 建築許可規制와 관련하여 全國 3千7百餘 建築士一同은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표하며, 建築專門人이자 國民의 입장에서 이의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改善을 촉구하는 뜻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立場을 表明합니다.

1. 최근 建設景氣의 過熱樣狀은 순수한 民間部門의 建築行爲에서만 起因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住宅政策은 庶民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음은 물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住宅 및 傳費價에 폭등과 국민간의 違和感을 진정시키는데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過熱建設景氣 誘發과 각종 資材 및 人力의 부족등 많은 副作用이 발생 되고 있는 것도 否定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듯 최근 建設景氣가 과열되게 된 데에는 정부의 주택정책과 土地超過利得稅 新設로 가수요가 급증한 데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民間部門의 건축행위를 대폭 규제함은 물론, 심지어 수요자가 실제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庶民들이고 事業者 또한 소규모 零細住宅 事業者들이 주체가 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주택까지도 許可規制 對象에 포함하였음은 過熱建設景氣 鎮靜問題 못지 않게 중요한 다수 庶民들의 꿈과 희망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 庶民生活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多世帶・多家口 住宅, 近隣生活施設은 建築許可規制 대상에서 除外되어야 합니다.

建築許可規制措置는 국민경제상 불가피한 措置였다하더라도 국민생활에 필요한 近隣生活施設과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多世帶・多家口住宅에 대한 建築許可만은 차공시기를 調整하는 방향으로 改善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른 우리의 立場

生活施設은 建築許可規制 대상에서 除外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住宅政策에 있어 國民住宅規模의 하향조정과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의 분양방법 개선, 不動產投機根絶등도 과열된 건설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主要方案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점에 대하여도 적극 再檢討 되어야 하겠습니다.

3. 建築許可規模의 전면적인 凍結措置보다는 신축성있게 착공시기를 정하여 許可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建築許可規模措置가 일정기간 경과한 후 일시에 해제될 경우에는 또다시 建設過熱現象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방지를 위하여 전면적인 규제조치보다는 자재, 인력등의 수급능력을 감안하고 建築物을 用途, 規模別로 적당하게 안배하여 착공시기를 지정해 줌으로써 신축성있는 運用方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금번 조치가 補完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全國 建築士一同은 우리 立場이 반영될 수 있도록 政府 當局에 촉구드리면서 당면한 國民經濟難國의 극복과 선진국가건설을 위하여 전문직능인으로서의 맡은 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사회전반에 걸쳐 폭넓게 만연되고 있는 過消費 追放에 앞장서고 汎國民的 새질서·새생활운동에 적극 同參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1991年 9月 日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全國 15個 市·道建築士會 會長 外
3千7百餘 會員一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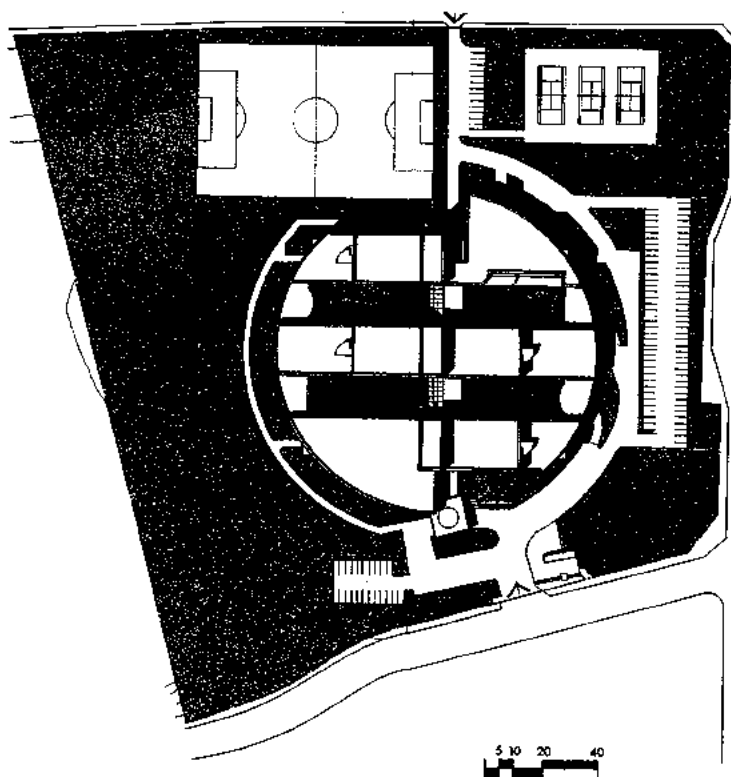
한국통신연구소

KTA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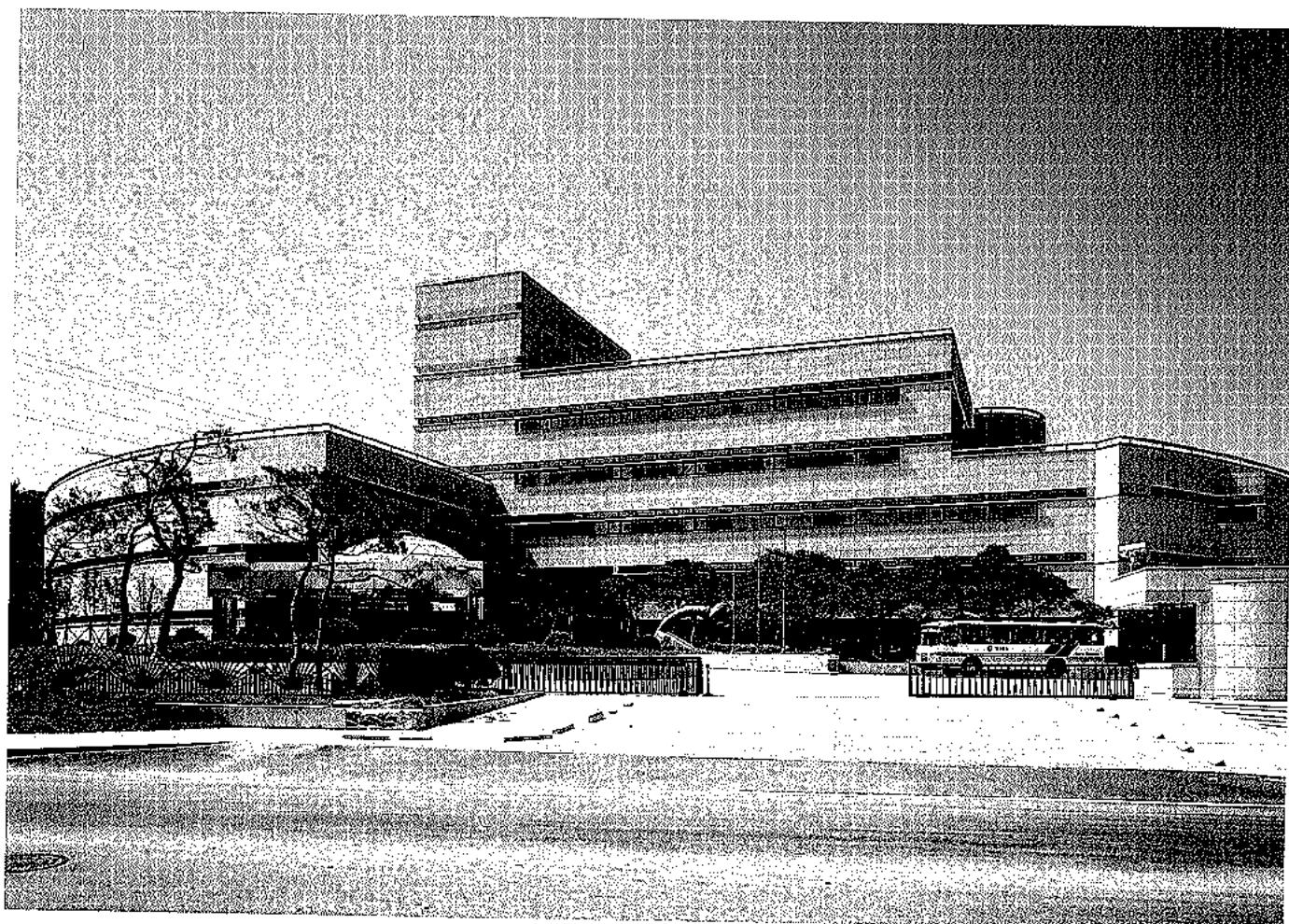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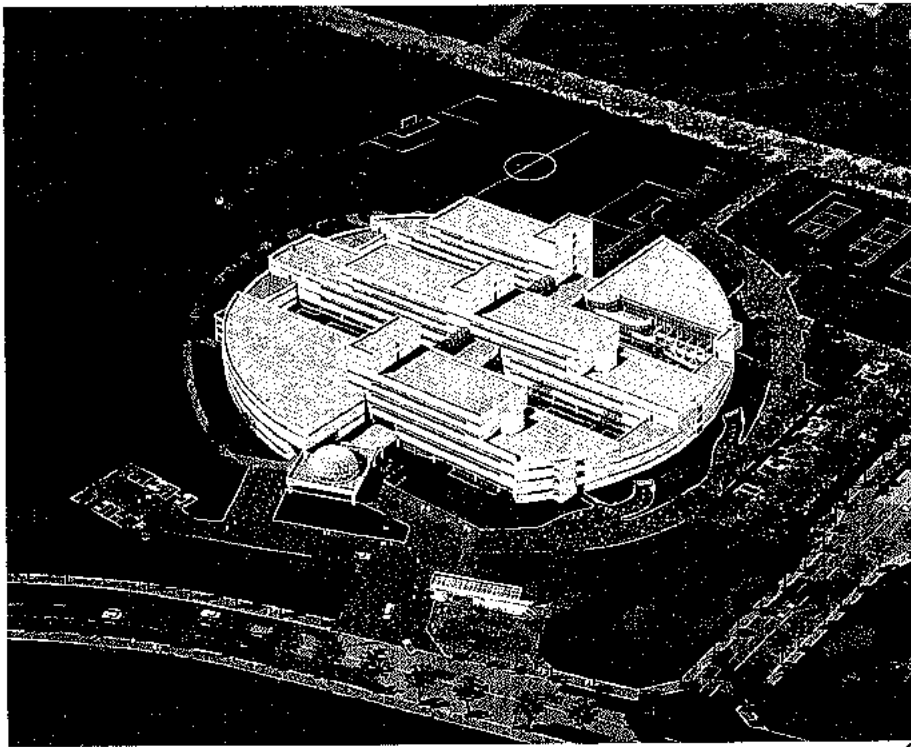
金正湜+崔泰容 /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Jung-Sik & Choi, Tai-Yong

■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7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구, 연구단지
대지면적 / 67,140㎡
건축면적 / 10,899.03㎡
연면적 / 49,318.18㎡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건폐율 / 16.23%
용적률 / 53.43%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및 일부 철골조
주요외장 / THK30mm국산화강석(가평석)바나구이 및 불갈기
THK 24mm 복층유리
부대시설 / 인조잔디 축구장 1면(필드하키상 겸용),
테니스 코트3면, 산책로



- | | |
|---------|-------------|
| ① 배치도 | ④ 주출입구상세 I |
| ② 정면 전경 | ⑤ 주출입구상세 II |
| ③ 투시도 | ⑥ 남서측전경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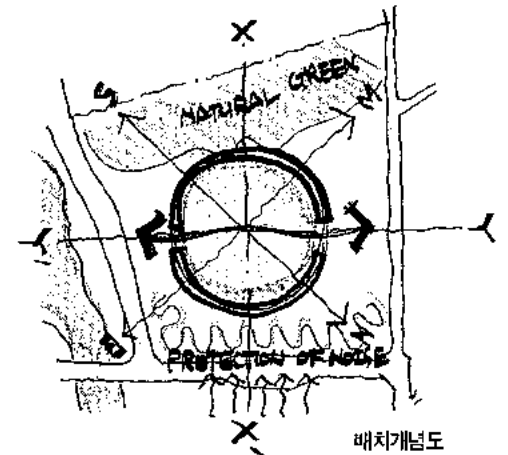
4

경부 고속도로의 서쪽측 관문에 위치한 계획부지는 입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독특한 성격과 조건을 내재하고 있으며 배치계획과 조형계획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첨단기술을 수반하는 연구단지로서의 장소성과 지적 생산의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한 인간성, 쾌적성을 만족하고 지세에 적응하는 형태와 인접한 고속도로 등 주변환경에 대응하는 기능충족을 위하여 종합적인 Master Plan을 수립하였다.

연구소라는 환경을 고려할때 업무형태에 의한 과중한 스트레스등 잠재된 욕구를 밖으로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공간과 의미있는 조경계획 등은 건축적 기능 해결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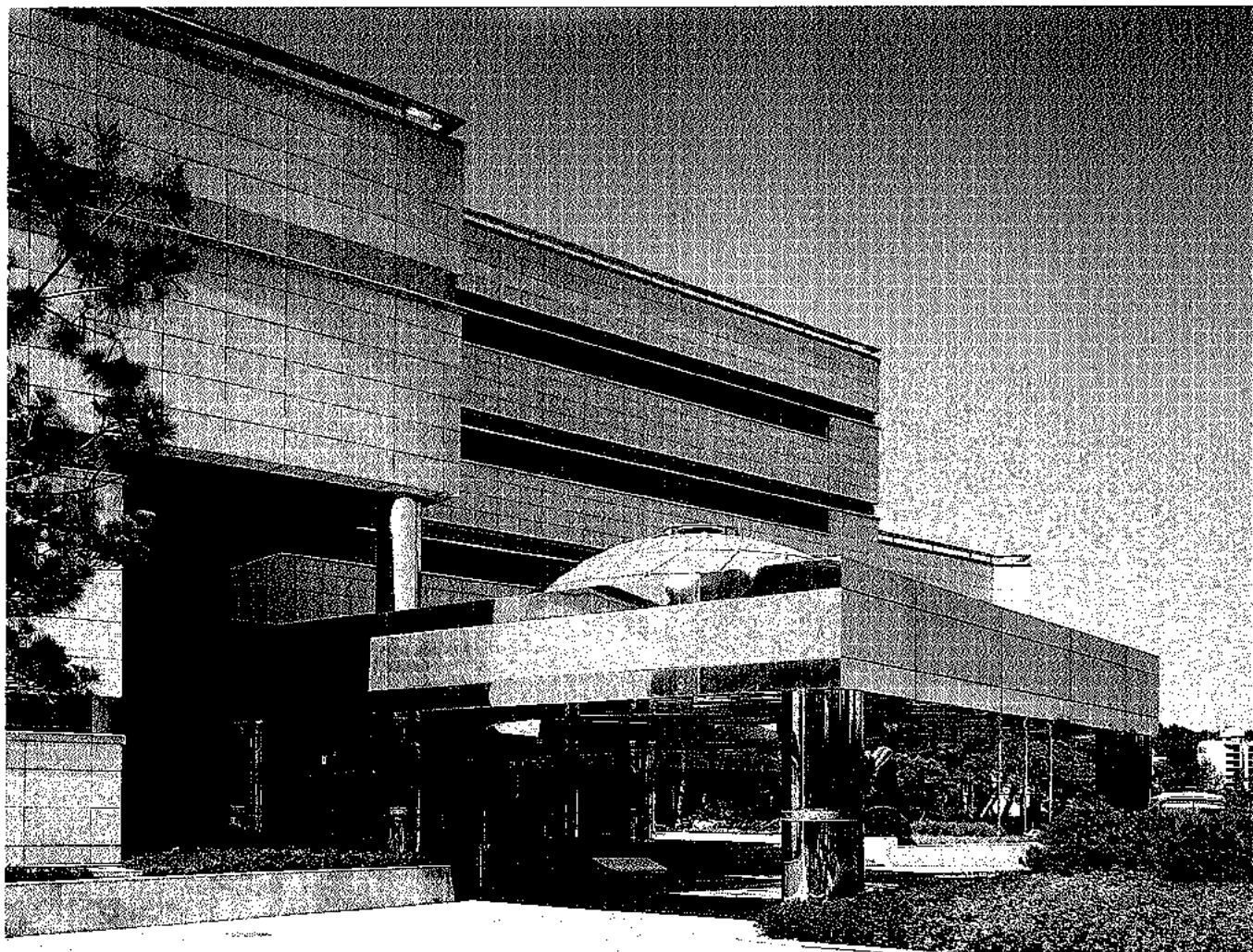
3면에 접한 도로와 80dB 이상의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은 배치 및 형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원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획을 긋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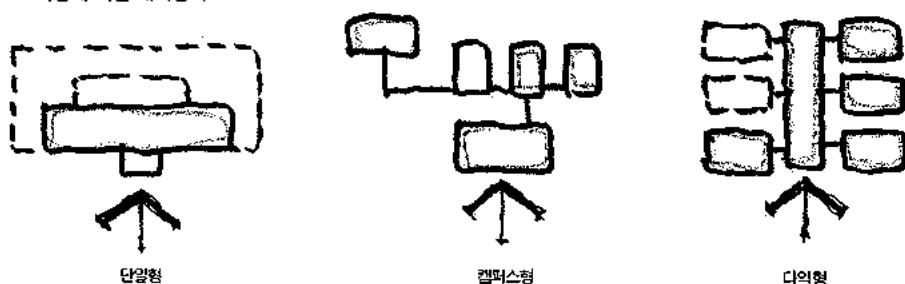
배치개념도

연구소는 그 기능상의 구성으로 볼 때 한 건물에 집중화된 고층타입의 단일형과 각 기능별 별동분산배치의 캠퍼스형 그리고 하나의 건물에 집중된 Core를 형성하고 분산 연결될 수 있는 다이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KTA 연구소의 경우 다이형의 변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평면구성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전면도로에서 갖는 강한 정면성과 앞뒤를 관통하는 Entrance를 중심으로 주통로(Main Cncourse)를 형성하고 가운데 연속된 3개의 주코아를 배치하여 6개의 윙(Wing)으로 형성된 각 기능에 동선을 유도하게 되며 좌우측 단부에 서브 코아(Sub Core)를 배치하여 원활한 내부 동선의 연결 및 흐름을 갖도록 하였다.



기능에 의한 배치형식



연구소의 동선 체계는 조직 상호간의 연결과 전체적 동선으로 조직되는데 Main Concourse는 건물의 핵심적 중추(Spine)를 형성하여 동선 흐름의 체계를 통제 관리하며 각 기능체와 유기적인 연결을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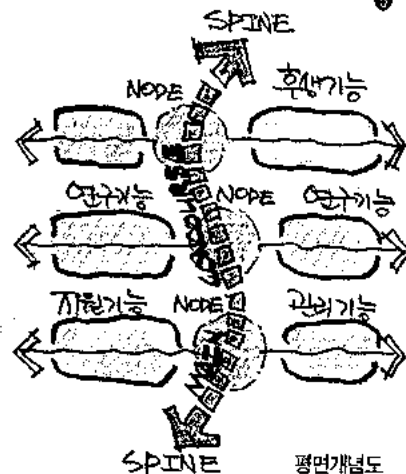
특히 우측의 코아 및 부속실 배치는 고속도로 소음을 막을 수 있고 형태적으로 처리된 원형과 무창의 피막(Solid Wall)은 그 해결을 더하도록 하였다.

단위 모듈(Module)의 선정적용으로 불확실한 기구 조직의 수축 확장에 항상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으며 후에 언급되었지만 IBS에 대비한 층고 및 설비공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변적인(Flexible) 평면계획이 되도록 하였다.

기본개념의 중추(Spine)에서 발전된

Main Concourse는 중정부문의 높고 밝은 부분과 각 Wing 부분의 낮고 어두운 부분이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다양한 공간을 연출하고 내외의 결합 공간인 동시에 연구원들의 Communication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보았으며, 내방객에게는 한국통신의 기업 이미지를, 연구원에게는 자부심과 애사심을 전달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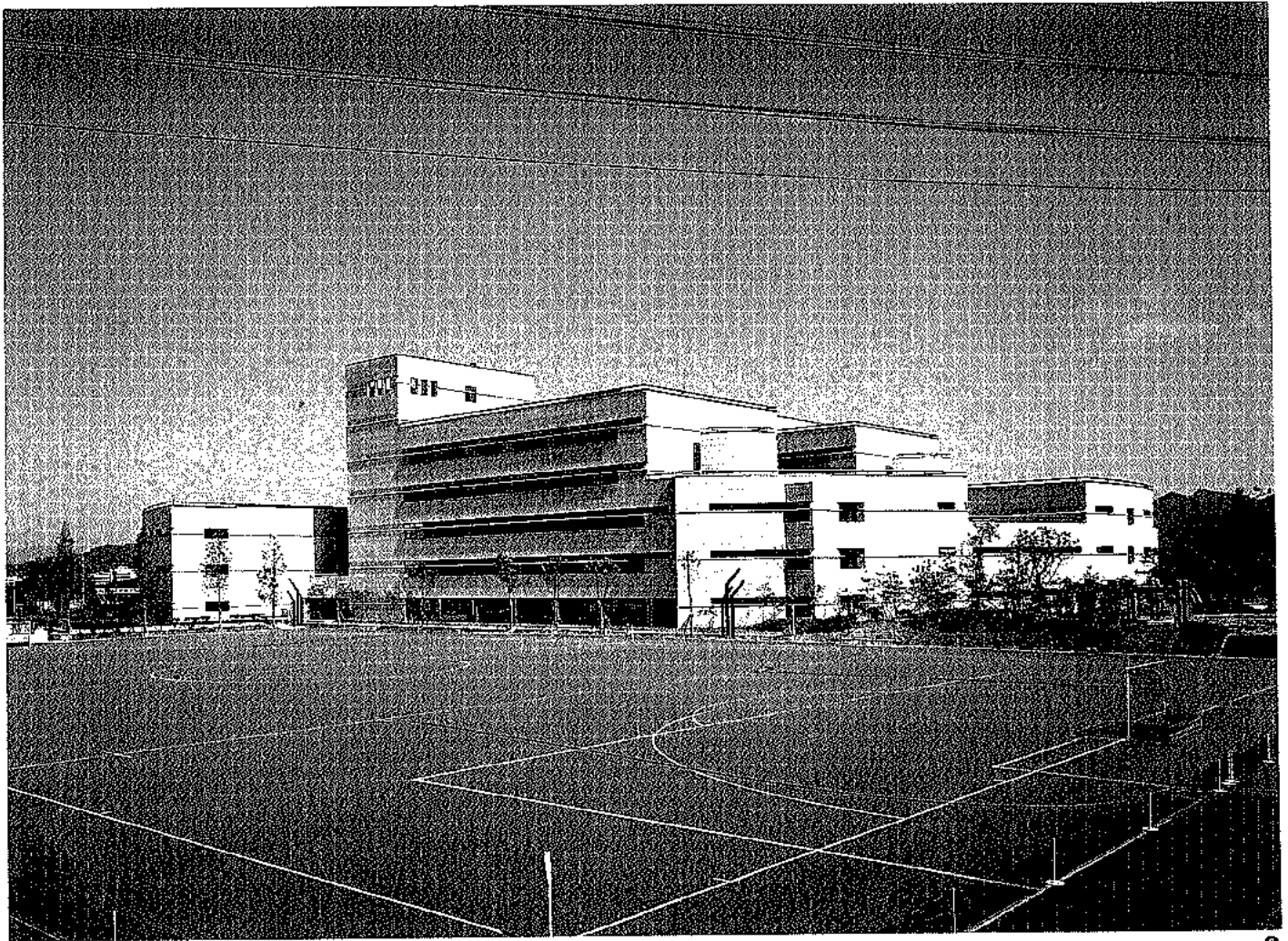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평면의 형태로 볼 때 주진입 방향에 의한 주통로를 중심으로 난향 배치에 의한 몇개의 동(棟)을 Wing(Wing) 타입으로 배치한 점이며 이는 주출입구 1개의 Check Point로 많은 연구원들의 동선이 동시에 집산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효과를 기할 수 있으며 각 Wing과 층별로의 기능 구분과 부속지원시설을 배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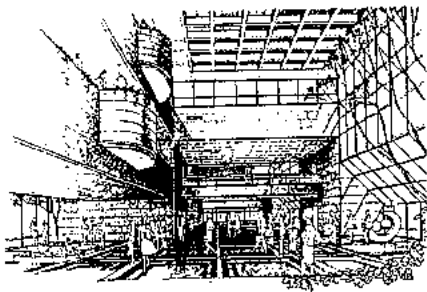
Main Concourse를 따라 연속적으로 배치된 내곳의 중정은 건물 계획의 가장 의도적인 외부 공간이며 자칫 베마르기 쉬운 업무환경에 철따라 신선한 청량제역함을 주고자 하였고 각기 성격이 다른 조정 방식을 함으로써 장소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중복도 형식으로 처리된 내부공간에 충분한 채광과 자연 환기를 함으로써 늘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여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연구활동과 인간성, 자연성이 존중되는 열린 공간의 업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원(圓)은 始原的인 영원함을 의미하고 변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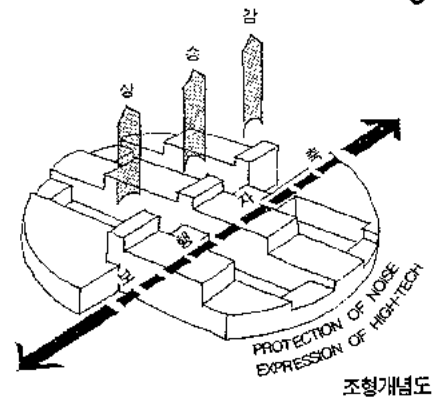
로비실내스케치

화있고 부드러운 선은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어 통일된 결합의지를 표현하며 목표를 향한 내부의 장래된 질서가 인화단결의 모습으로 파장을 그리며 시각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미를 표출하고자 하였다.

첨단 연구소로서의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표현의 시도로 한국 통신의 기업 이미지

부각과 High-Tech의 조형상 표출을 추구한 바, 당초 외장재료로 금속성의 Metal을 주재료로 고려한 바 있으나 도심지 진입부에 접한 장소성과 또한 재료의 영구성 등의 검토로 국산 화강석인 가평석으로 외벽을 마감하고 수평모듈에 의한 패턴디자인과 색상차이가 있는 수평창에 고창을 두고 그 사이에 스텐레스 집합띠를 돌출 시킴으로써 돌에 의한 무거운 양감을 해소하고 수평띠의 강조로 인한 하이테크의 기계 미학을 첨가하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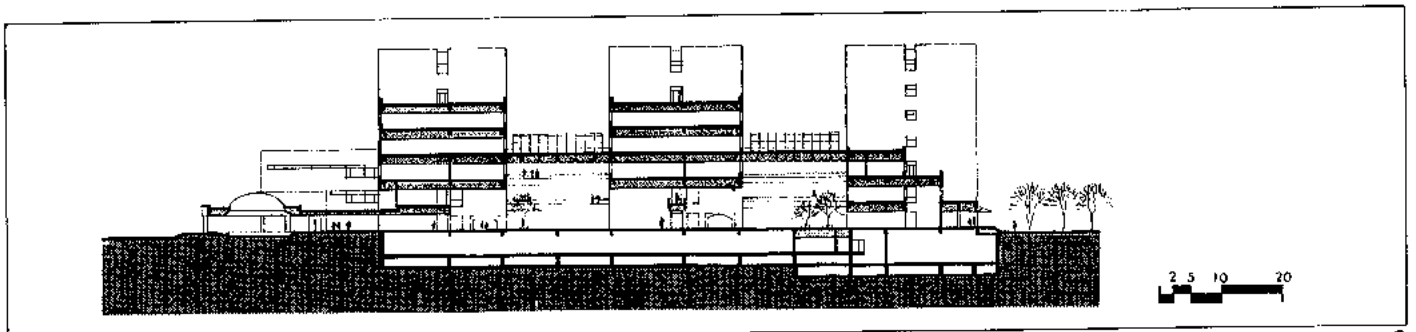
당초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1차, 2차분으로 나누어 착공키 위하여 설계되었으나 1차분 공사 과정에서 이미 2차분의 수요요구에 따라 동시에 준공케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예측을 훨씬 앞지른 것이었으며, 원



조형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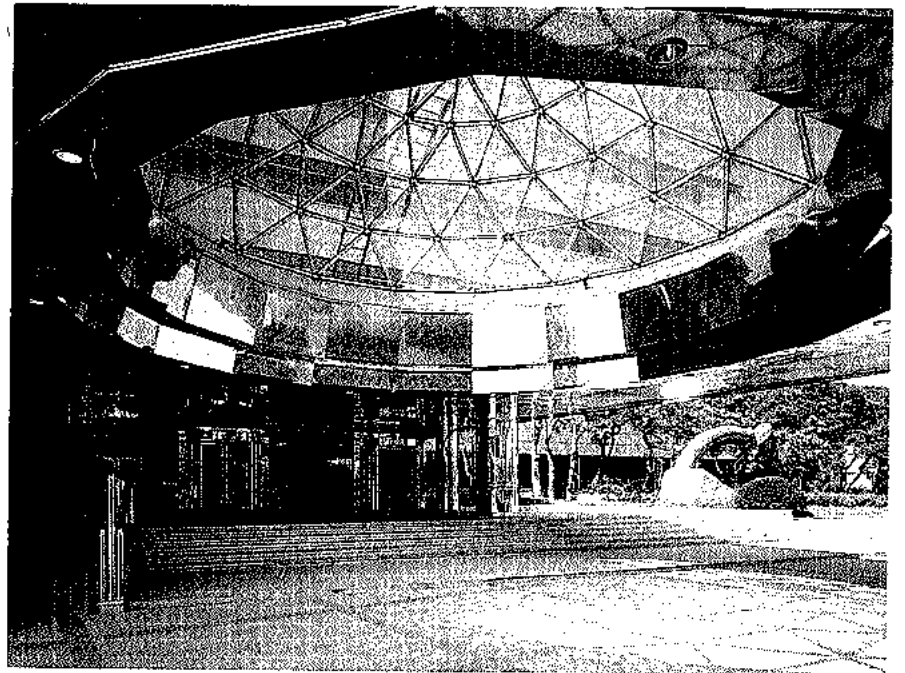
형의 매스와 3개의 탑은 성장과 발전, 연속적인 추진력의 파장으로 수도 서울의 관문에 위치함으로써 세계속의 모습으로 그 Monument적 효과를 기대하여 본다.

글/이형재 사진/정정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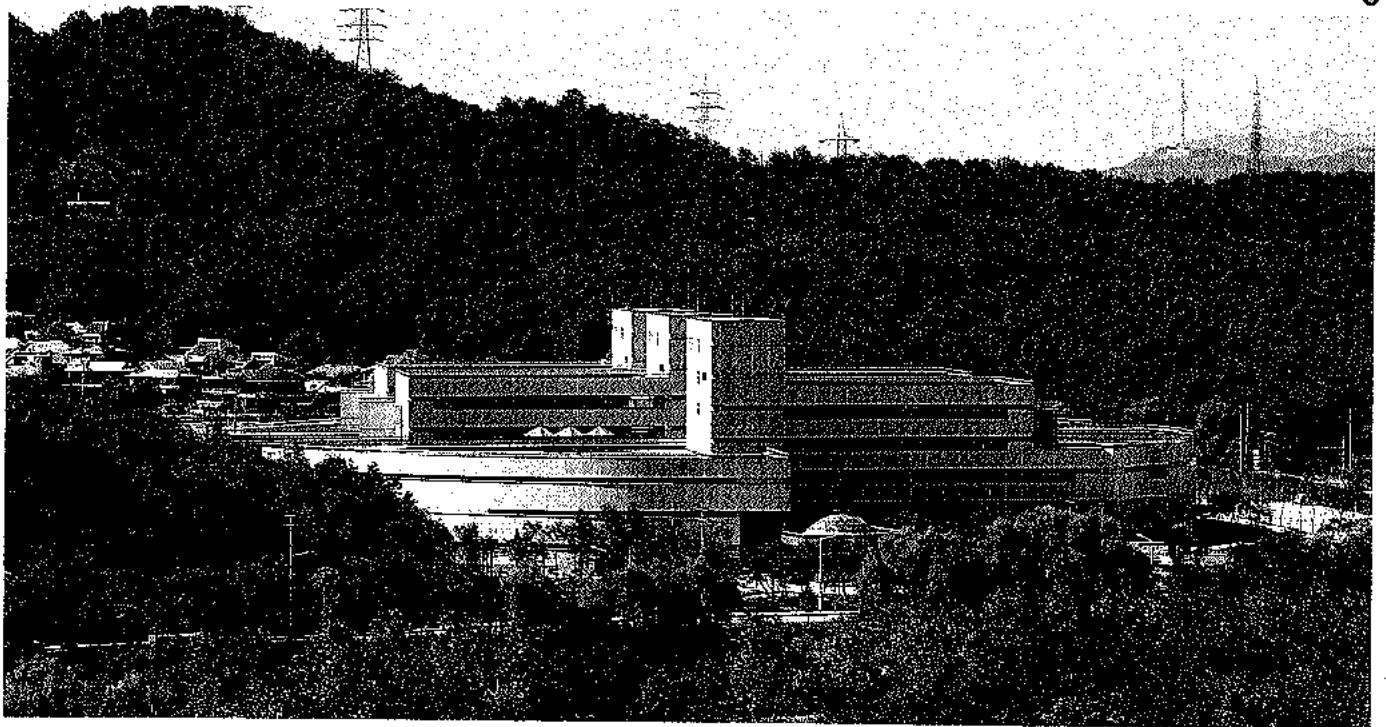


7

- ⑦ 주단면도
- ⑧ 주출입구캐노피
- ⑨ 원경
- ⑩ 내부광정상세
- ⑪ 중정
- ⑫ 측면전경
- ⑬ 2층평면도
- ⑭ 1층평면도
- ⑮ 부출입구상세
- ⑯ 외벽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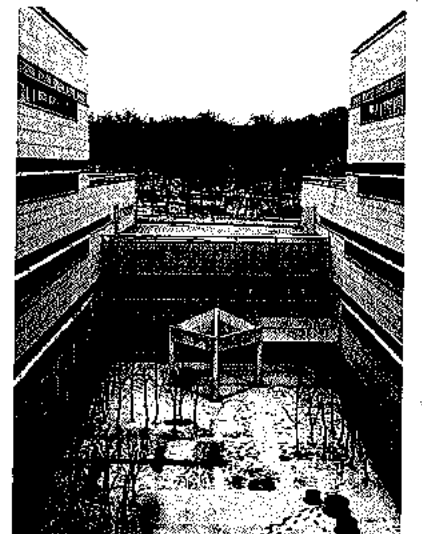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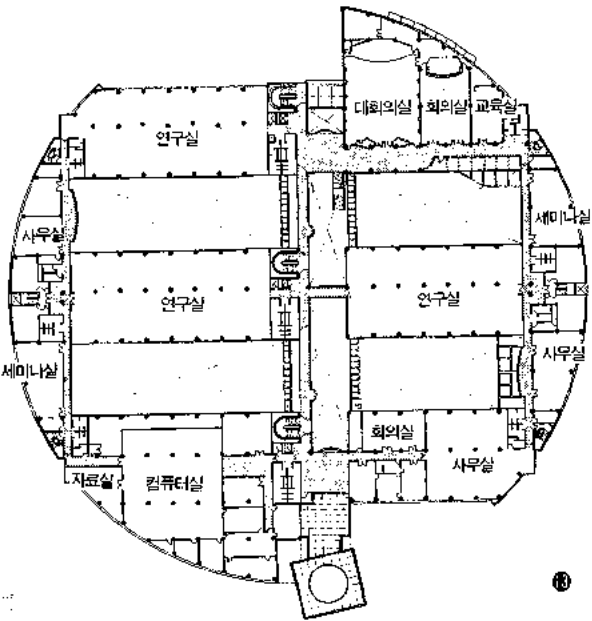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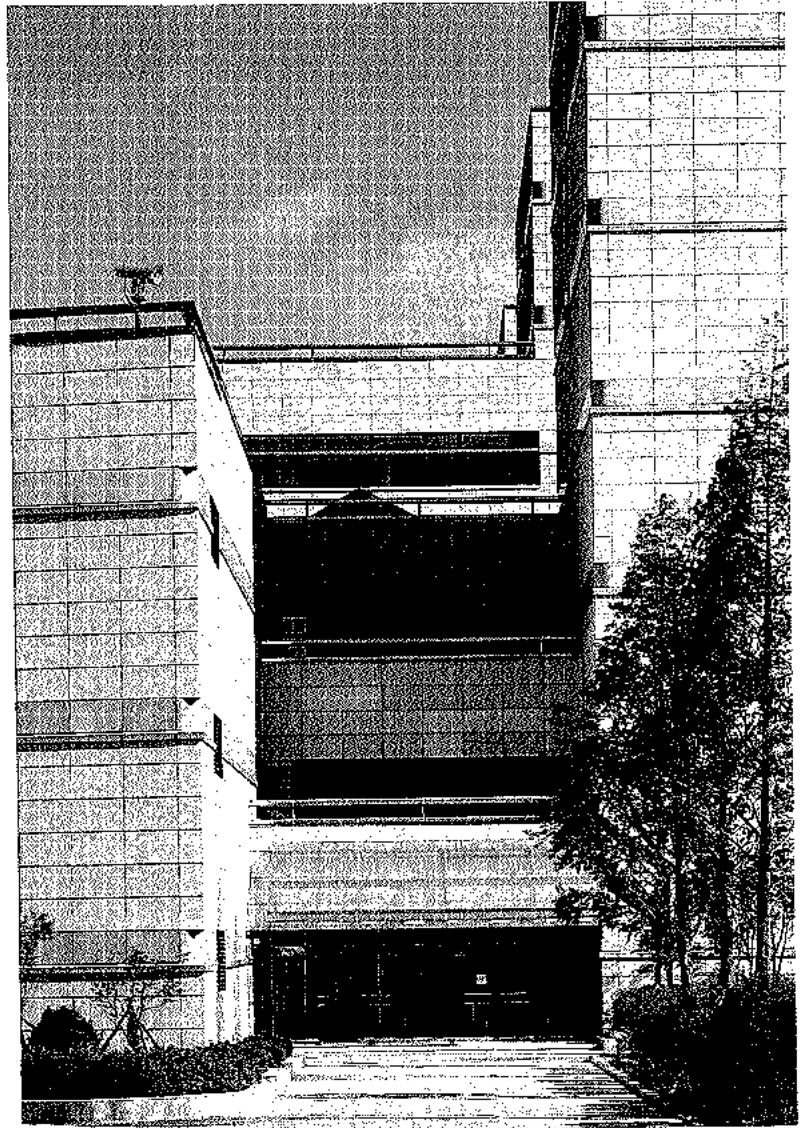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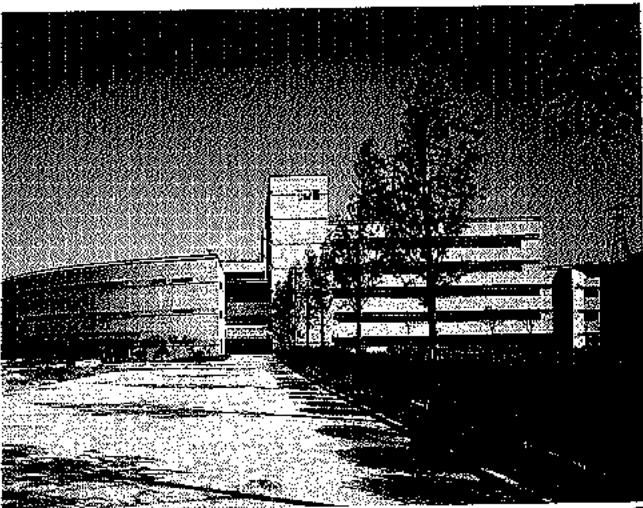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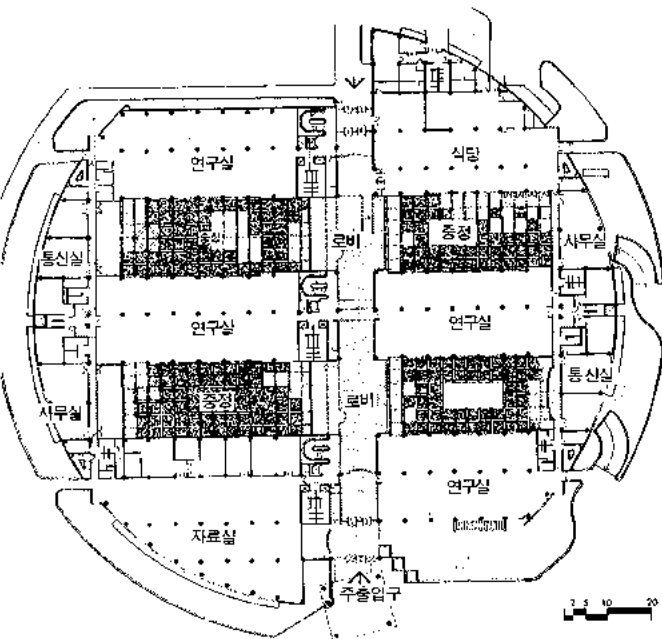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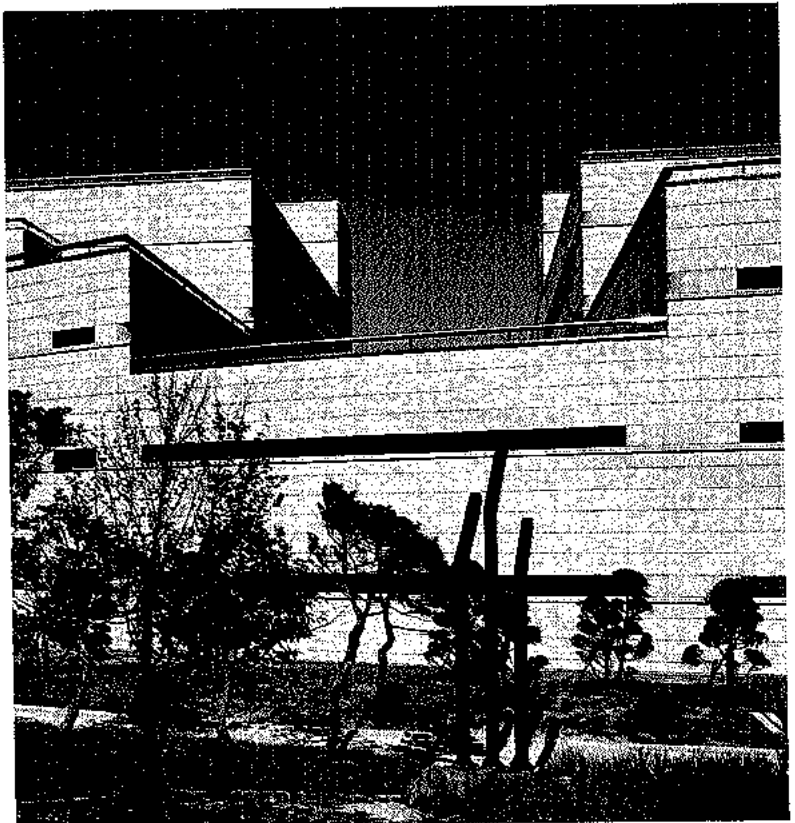
12



13



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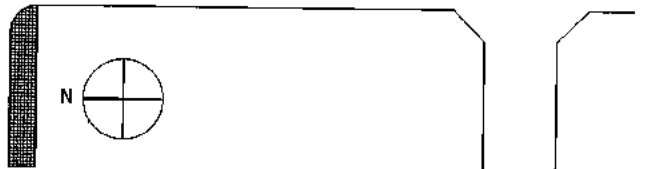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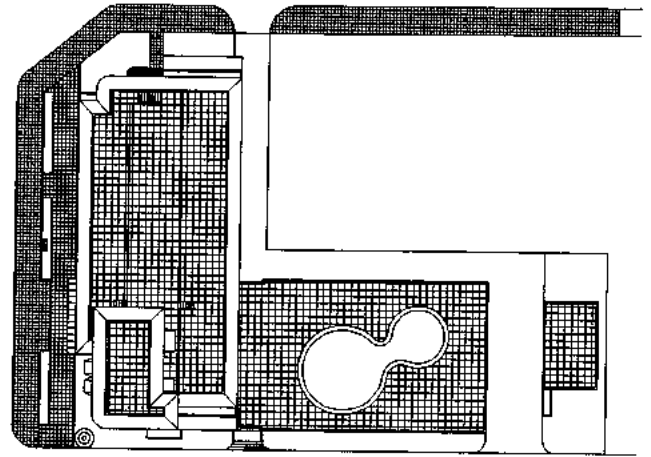
정한오피스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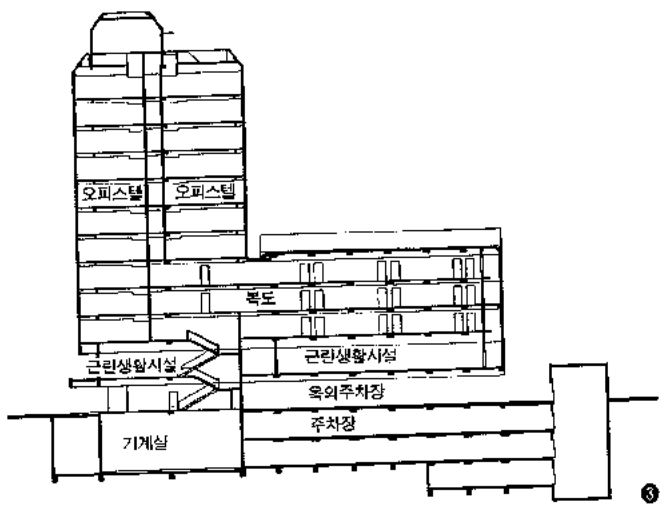
Junghan Officetel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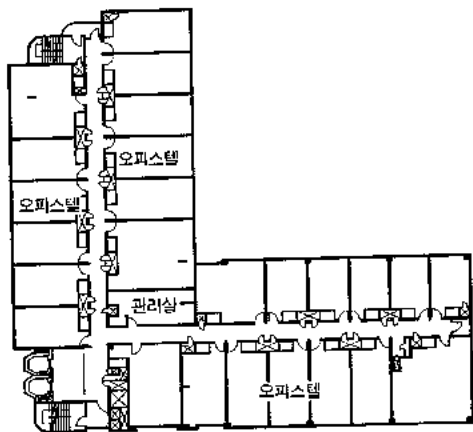
(주)간 · 삼중합건축사사무소
Group-3 Architects & Engineers

대지위치/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39외
지역 · 지구/상업 및 일반주거지역, 제 2·4·5종
대지면적/1,938.0m²
건축면적/1,189.57m²
연면적/12,910.04m²
건폐율/61.38%
용적률/538.0%
규모/지하 3층, 지상 12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장 마감/석기질 외장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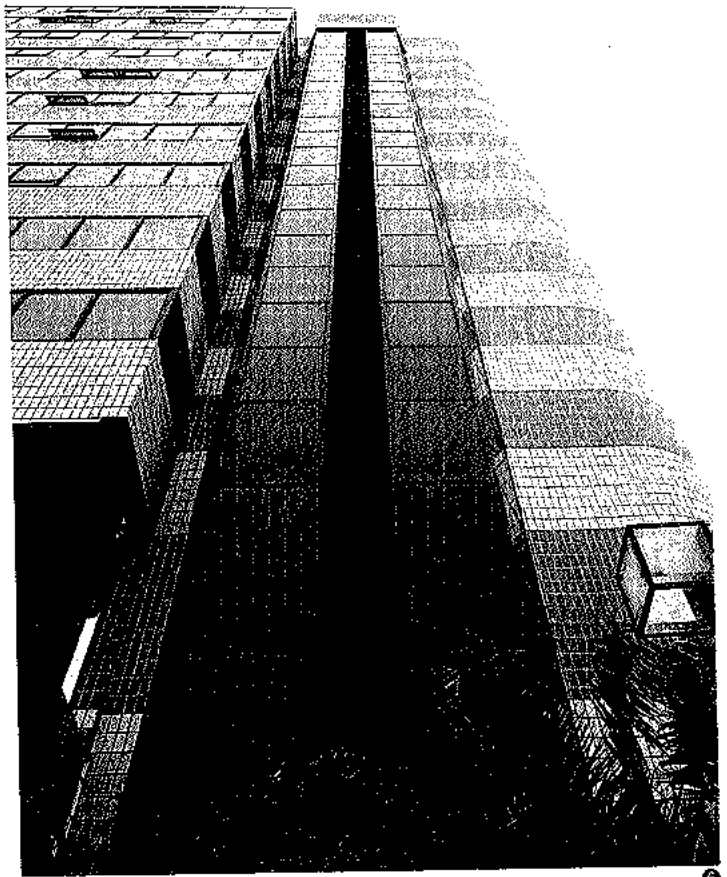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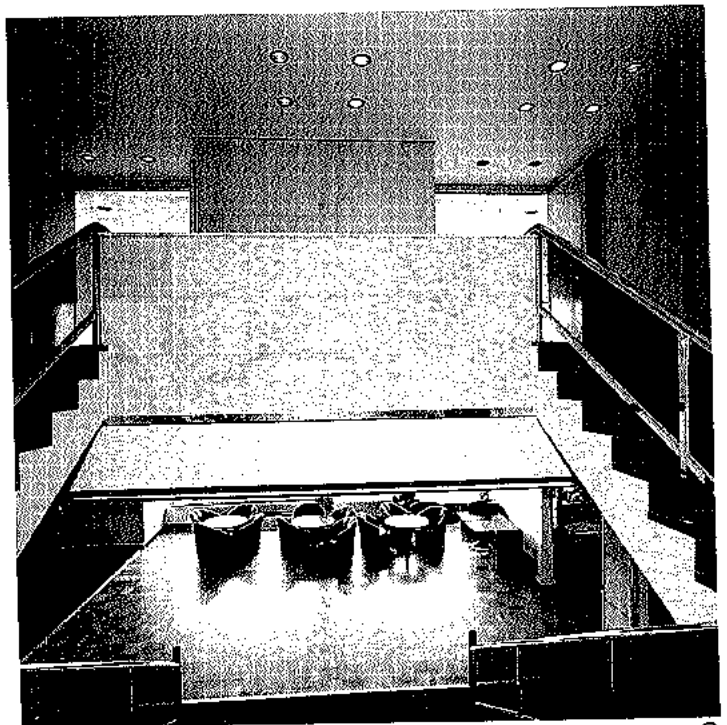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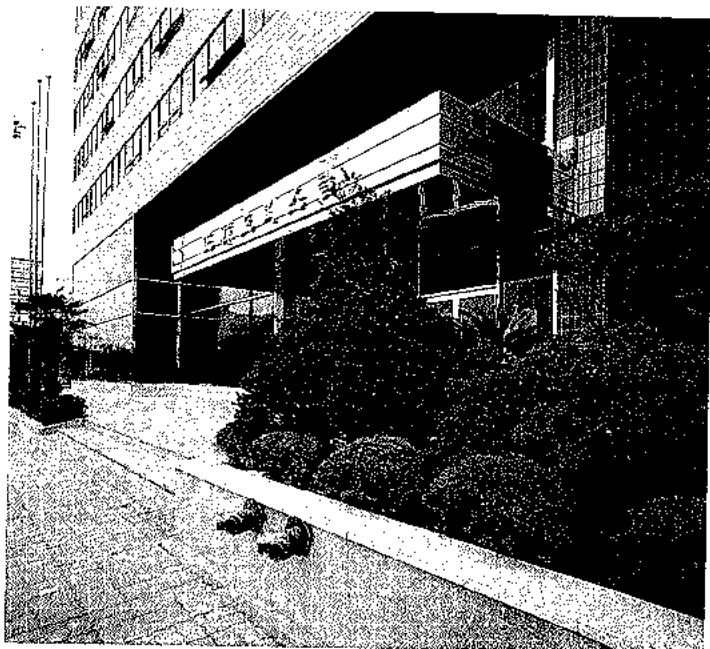
- ① 배치도
- ② 북서측 전경
- ③ 주단면도
- ④ 기준층평면도

- ⑤ 복동측 전경
- ⑥ 입면상세
- ⑦ 로비 내부전경

- ① 북측진경
- ② 주출입구전경
- ③ 연결계단
- ④ 옥상휴게소
- ⑤ 커피숍
- ⑥ 내부전경
- ⑦ 주출입구 측면상세
- ⑧ 외부조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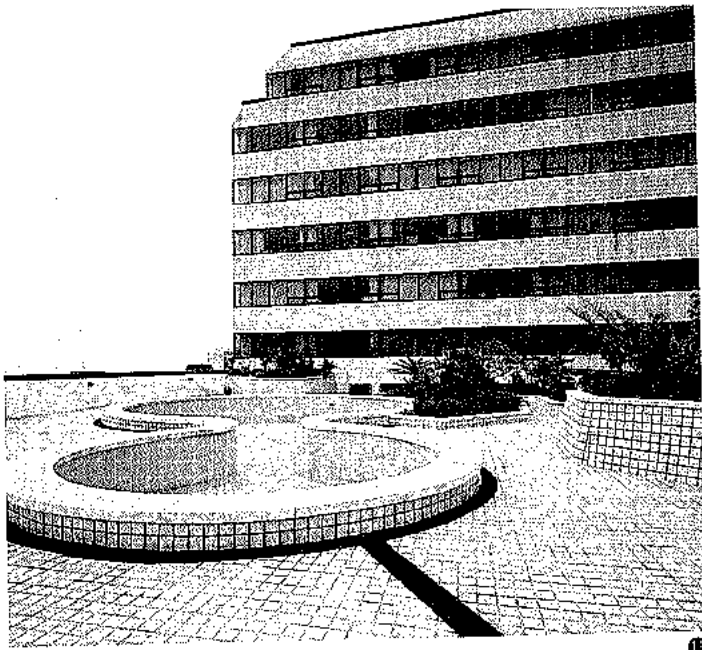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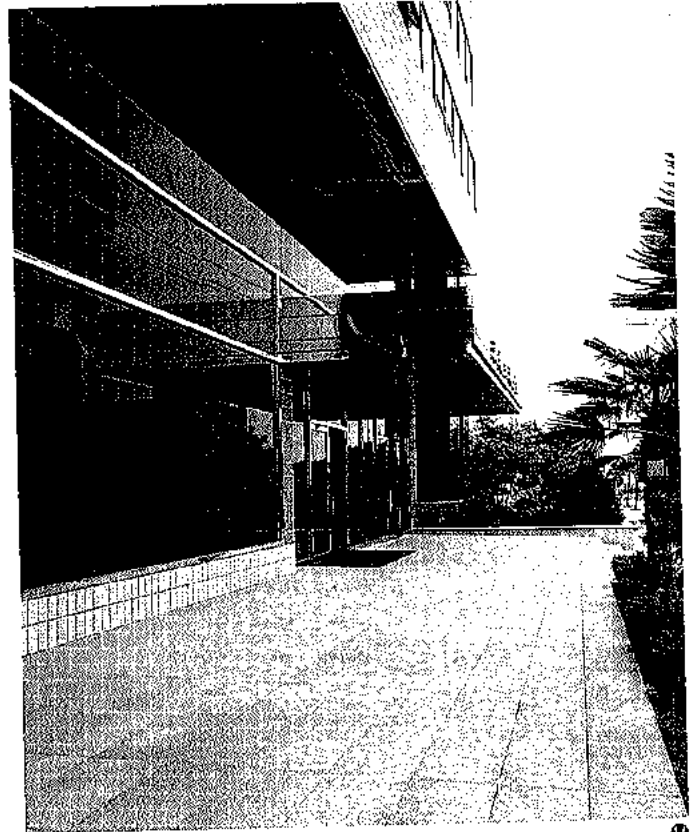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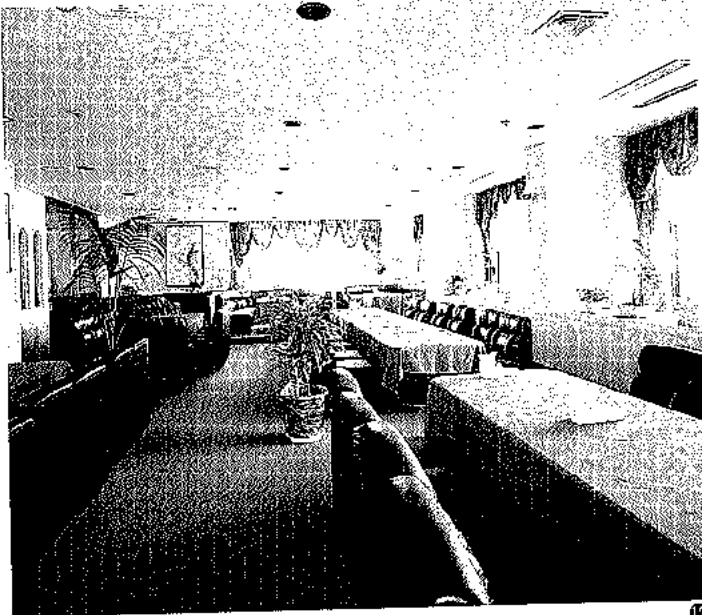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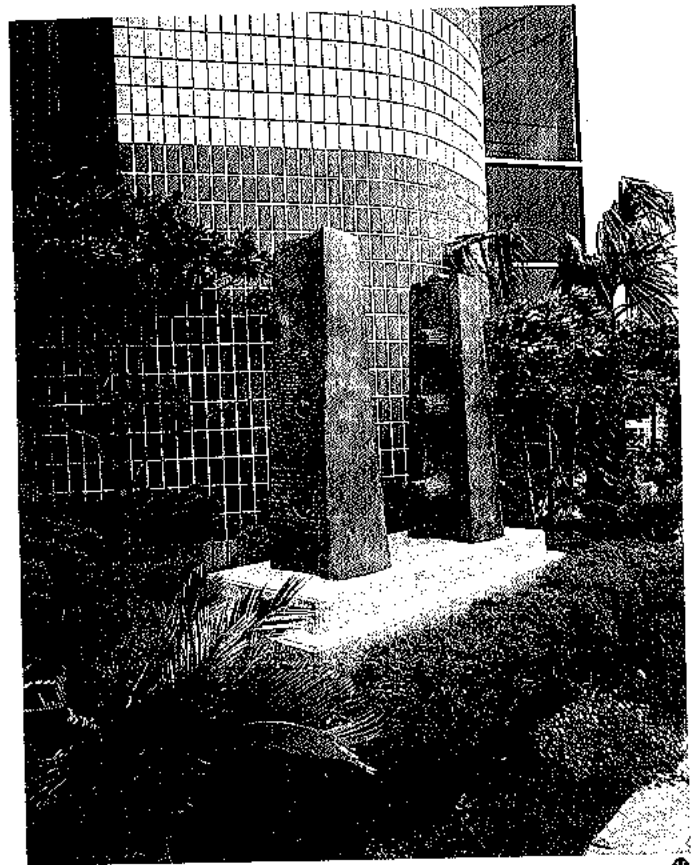
11



12



13



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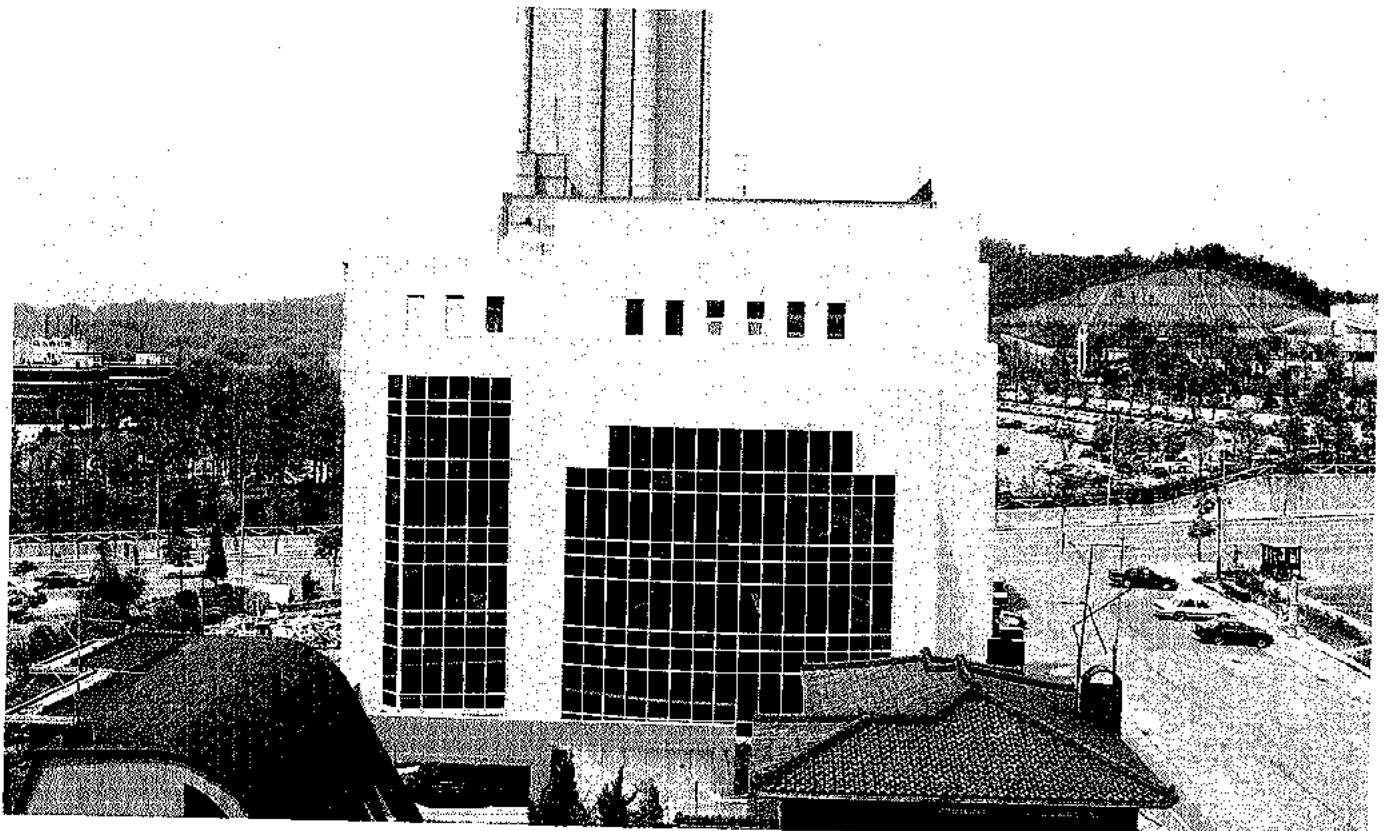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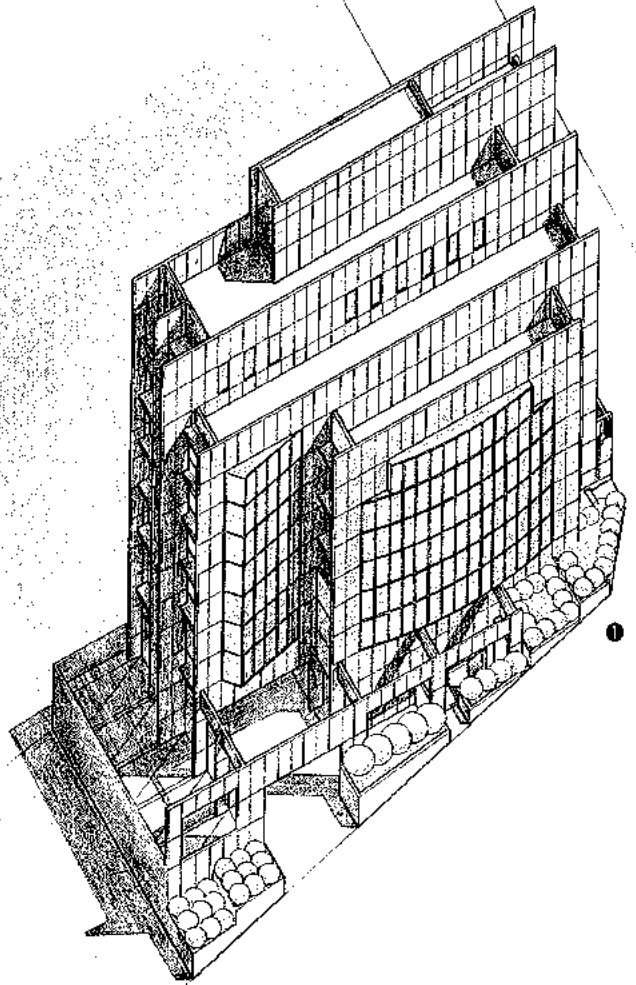
벌크헤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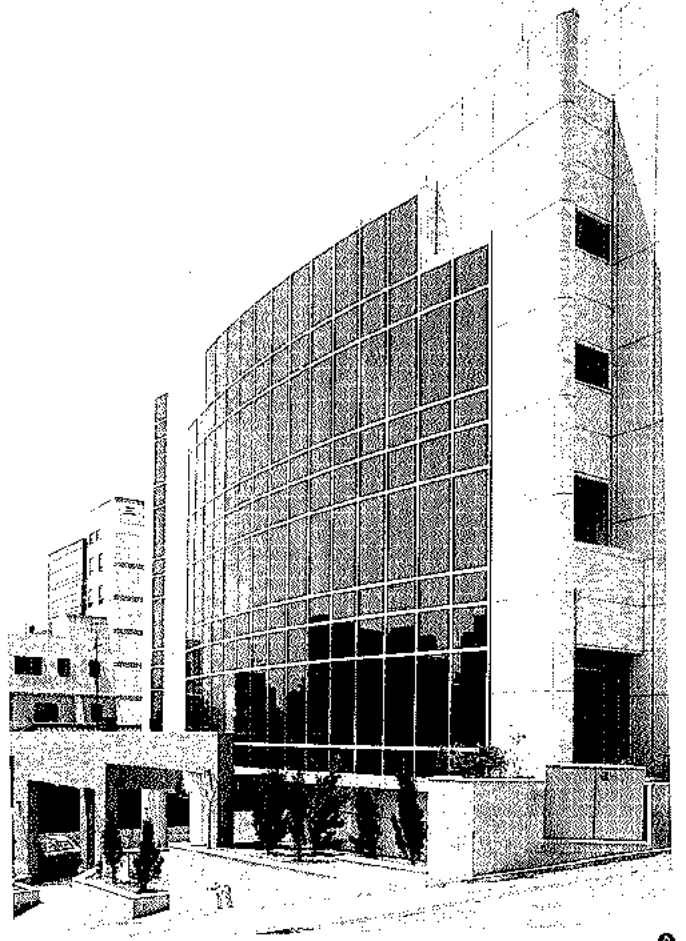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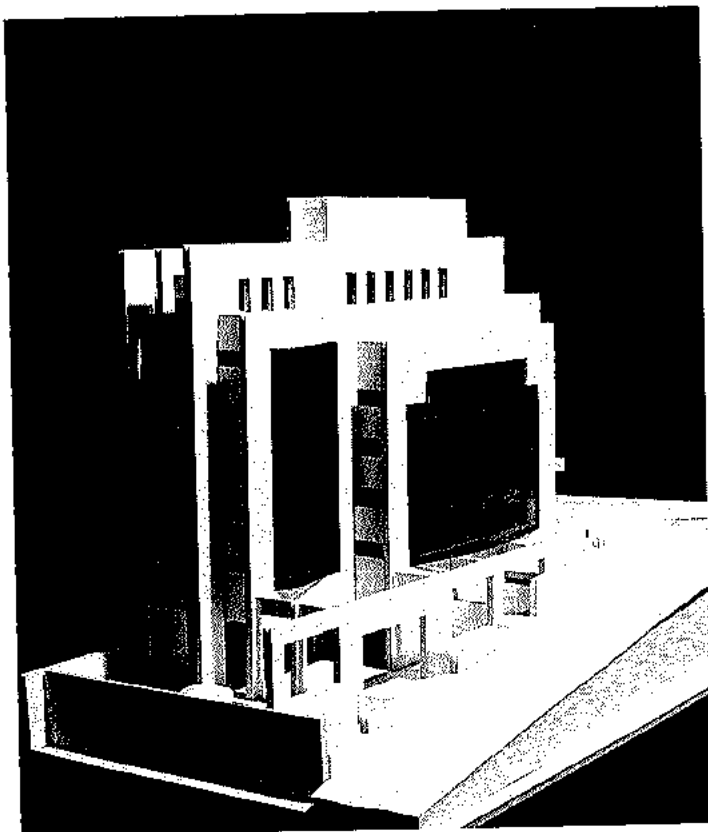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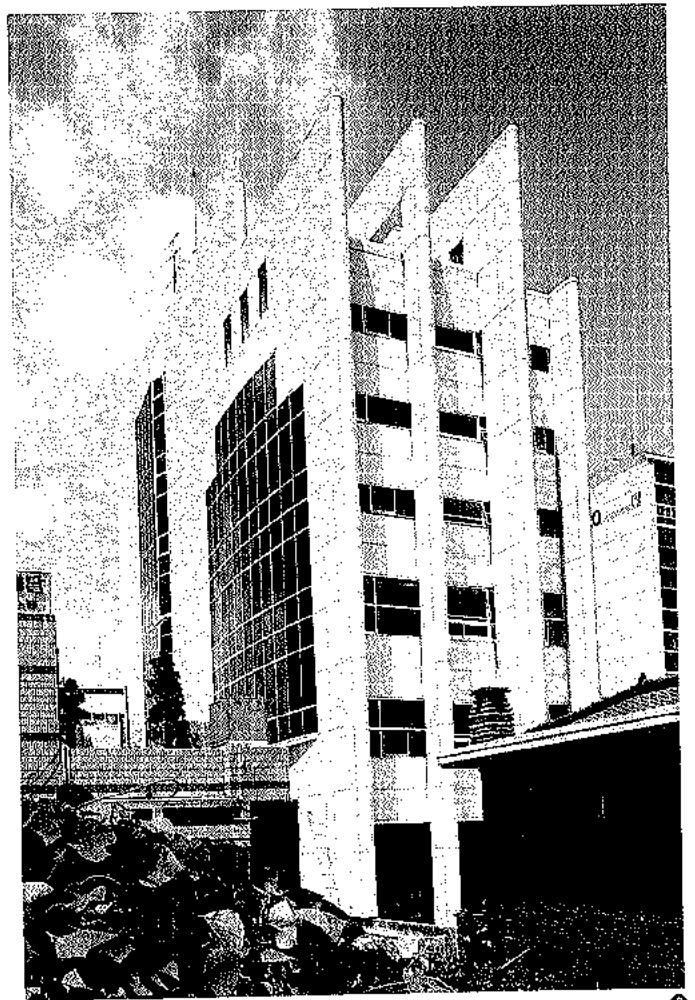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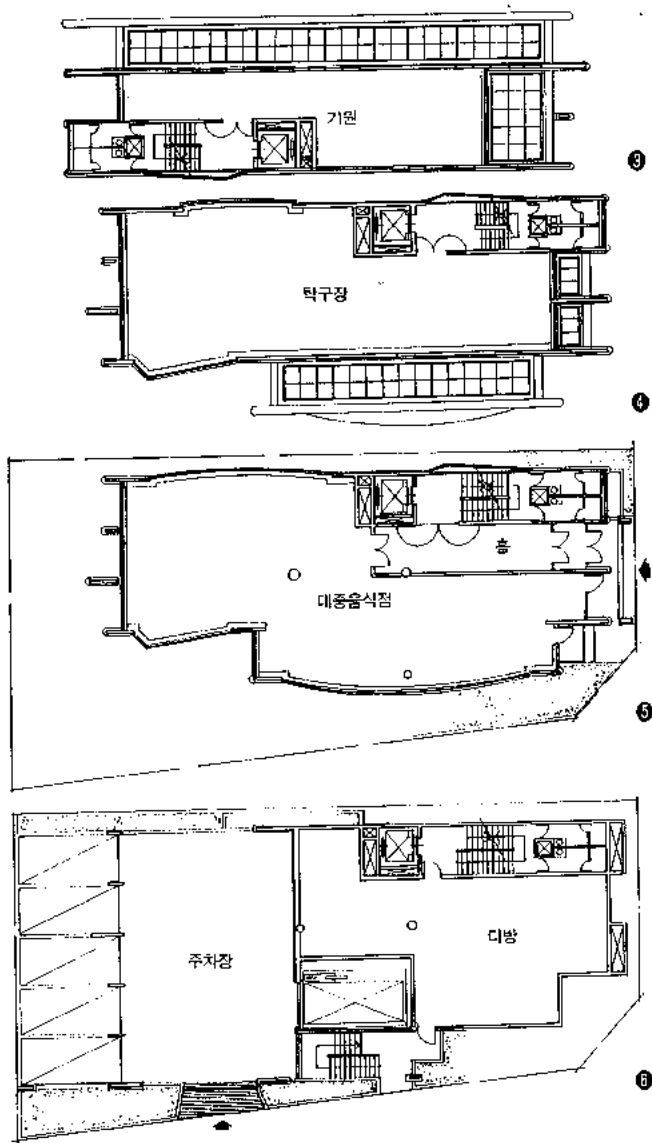
BULKH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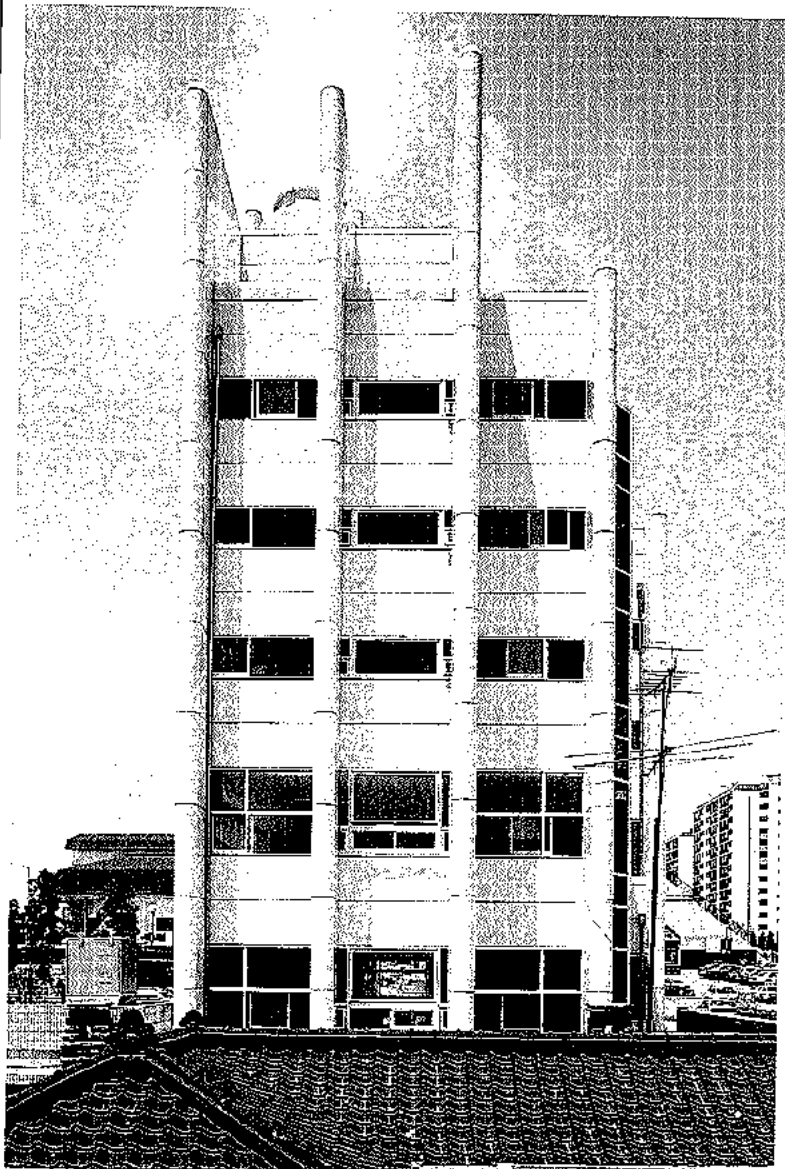
WORKS

金仁喆+韓英帝/(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
Designed by Kim, In-Chul & Han, Young-J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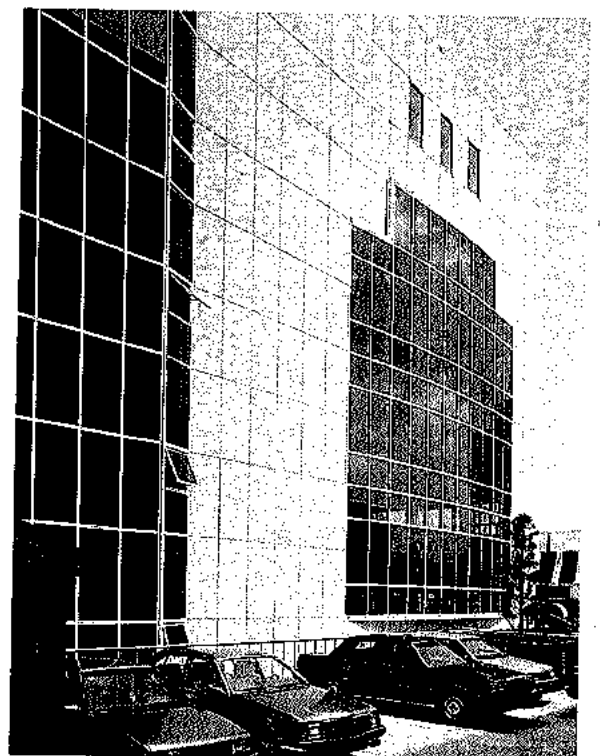
■
대지면적/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9-2
지역·지구/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지구
대지면적/540.4m²
건축면적/269.87m²
연면적/2,455.18m²
건폐율/49.94%
용적률/299.48%
규모/지하 2층, 지상 7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알루코본드, ①16층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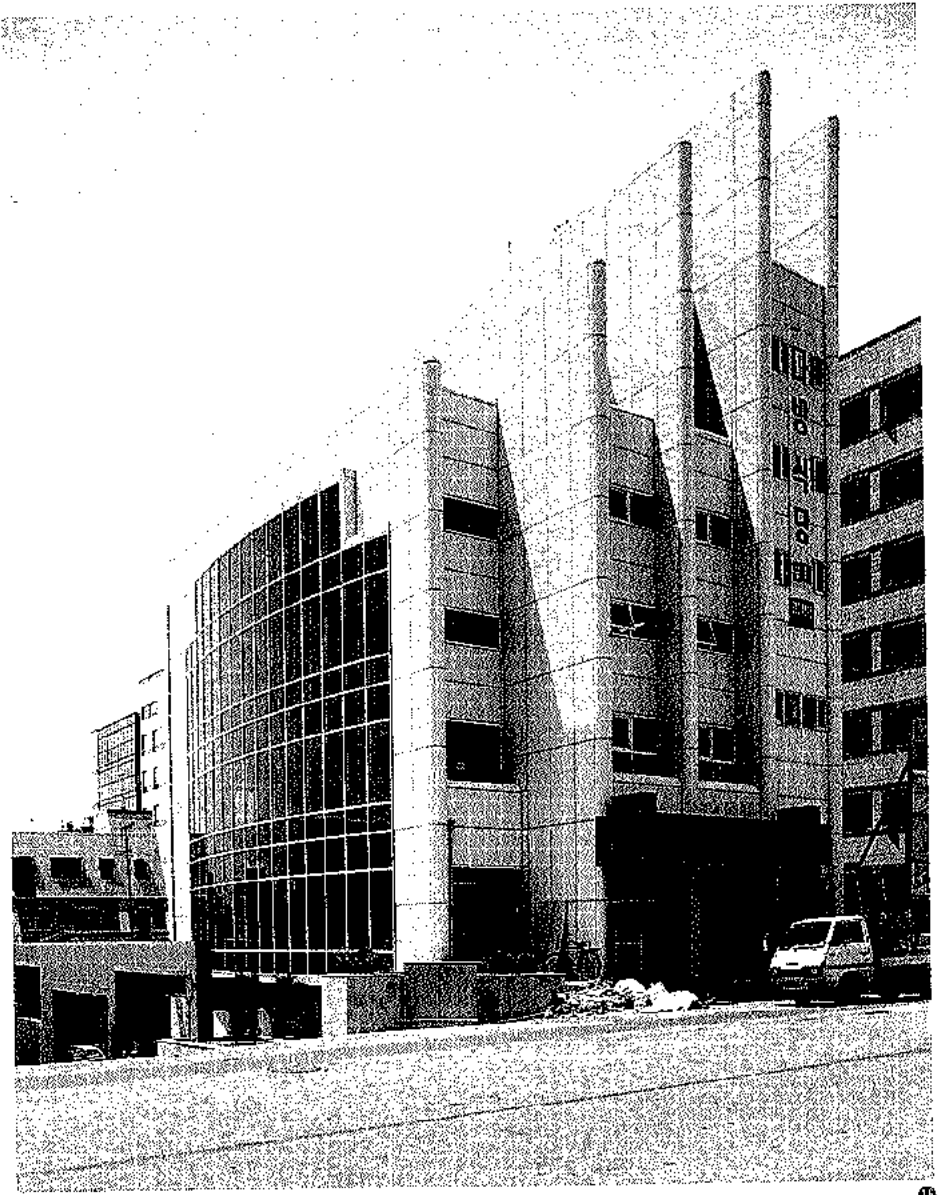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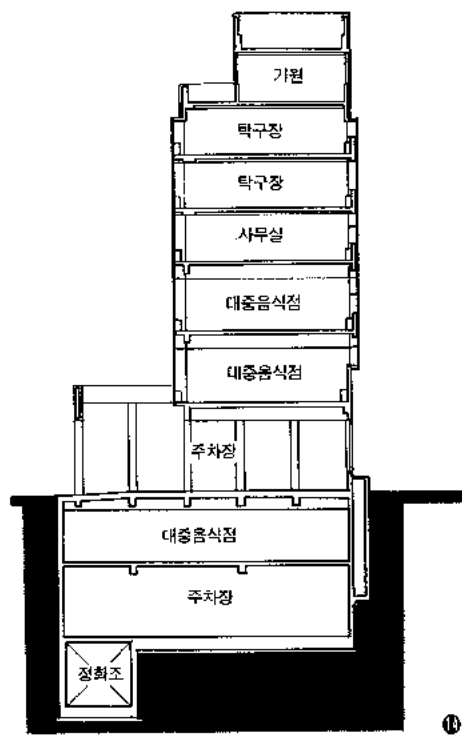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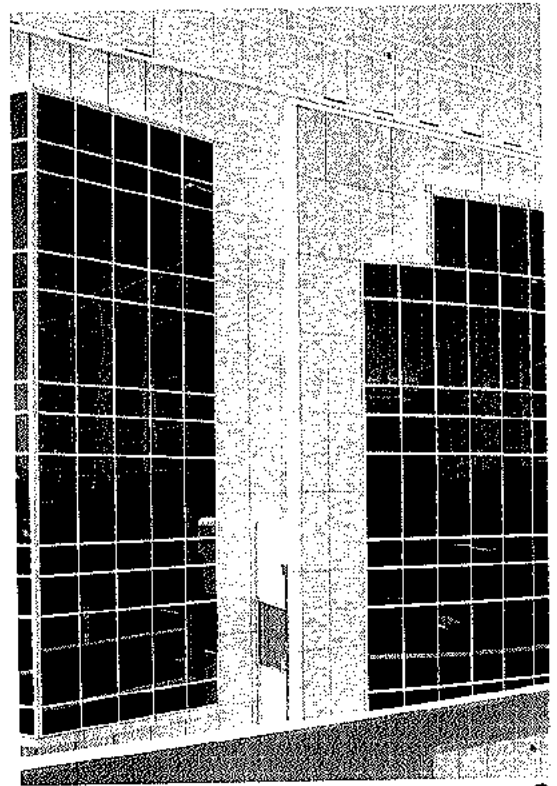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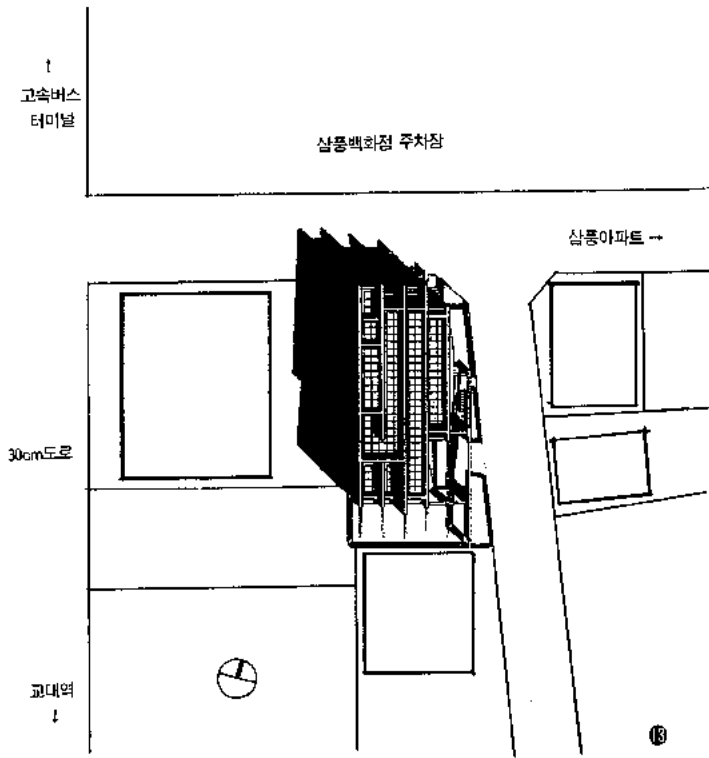






■
 법조단지로서 새롭게 특징지워지고 있는 곳
 촌스러운 이름의 백화점과 아파트가 이웃한 곳
 비닐하우스의 꽃동네가 자리했던 곳
 지금도 그곳의 어디에선가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곳
 도시설계지역으로 이런저런 제약이 많은 곳
 애초에는 평범한 주거지역으로 예정되었던 곳
 비탈진 도로에서 내려앉아 있는 곳
 주택가의 골목길로 이어져 내려가는 곳
 창차 미리 앉은 주택들이 쫓겨날 것으로 예견되는 곳.
 이런 곳에 빌딩을 지으려 한다.
 용적률에 최대한으로 꾸려 맞추어 법규의 한계에
 도전한다.
 주택을 지으라는 주거지역의 법규조건으로 사무실을
 짓는다.
 주차장의 확보에 따라 규모가 좌우된다.
 구조의 최소 두께 20cm에 당시의 주차폭 2m 50cm
 더하면 2m 70cm의 모듈이 생긴다.
 8m 도로의 사선제한으로 어차피 반듯하게는 되지 못한다.
 기둥을 심는 것보다는 벽의 켜를 올리는 게 간단하다.
 작은 공간으로 나뉠 수 밖에 없는 층고도 2m 70cm이다.
 결국 건져지는 것은 벽의 형태다.
 빗대어 붙여지거나 배불려 나온 창외 모양은 공간의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
 노출콘크리트의 벽이었으면 더욱 좋았을 금속의 벽이
 쳐라도 이루고 있게 되었기에 다행이다.





- ① 엑소노메트릭
- ② 동측원경
- ③ 7층평면도
- ④ 6층평면도
- ⑤ 2층평면도
- ⑥ 1층평면도
- ⑦ 스튜디오형
- ⑧ 남서측 전경
- ⑨ 북동측 입면
- ⑩ 북측입면
- ⑪ 북동측 원경
- ⑫ 외벽상세 I
- ⑬ 배치도
- ⑭ 단면도
- ⑮ 외벽상세 II
- ⑯ 남동측전경

수원 문화회관

Suwon Cultural Center

WORKS

林長烈 / (주)성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im, Jang-Ry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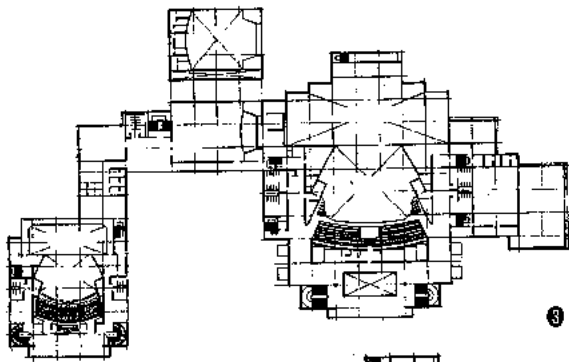
대지위치/경기도 수원시 안계동
대지면적/266,534.90㎡
건축면적/8,691.12㎡
연면적/22,007.4㎡
건폐율/3.83%
용적률/6.86%
규모/지하 2층, 지상 3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화강석 버너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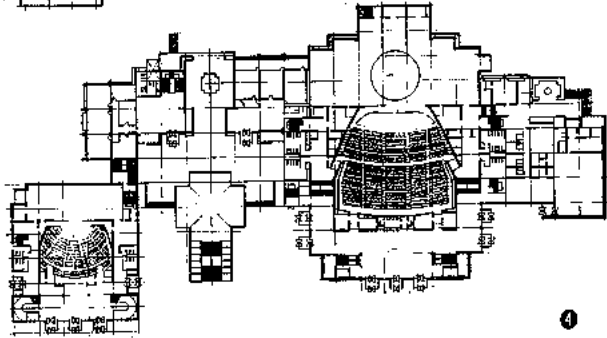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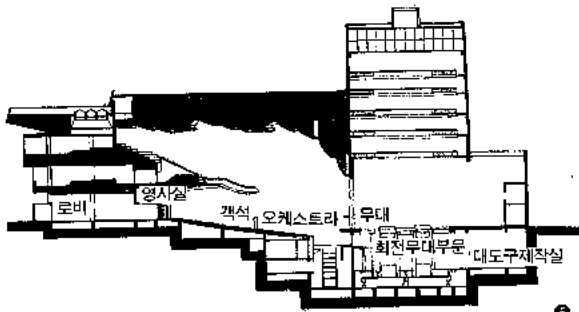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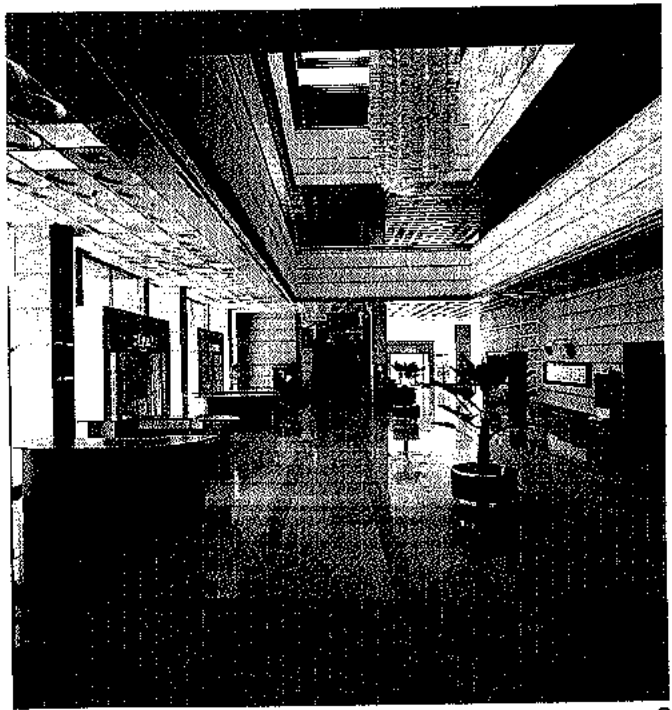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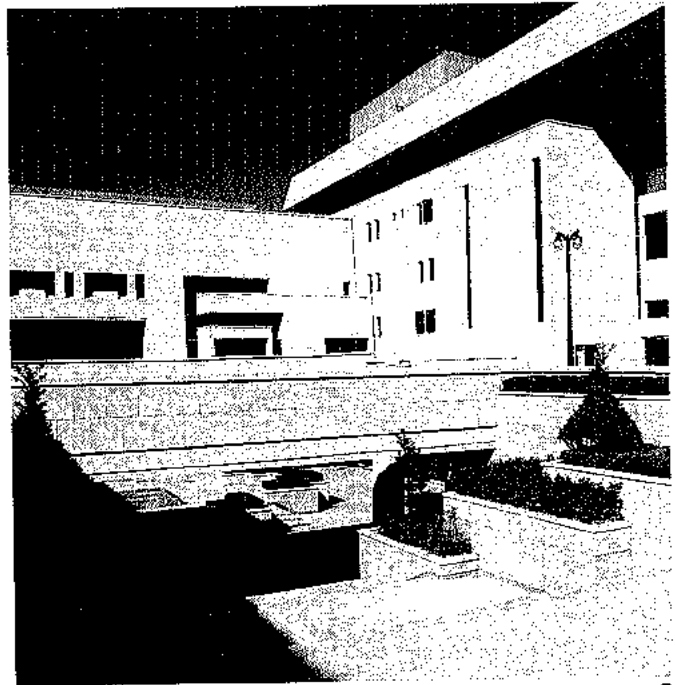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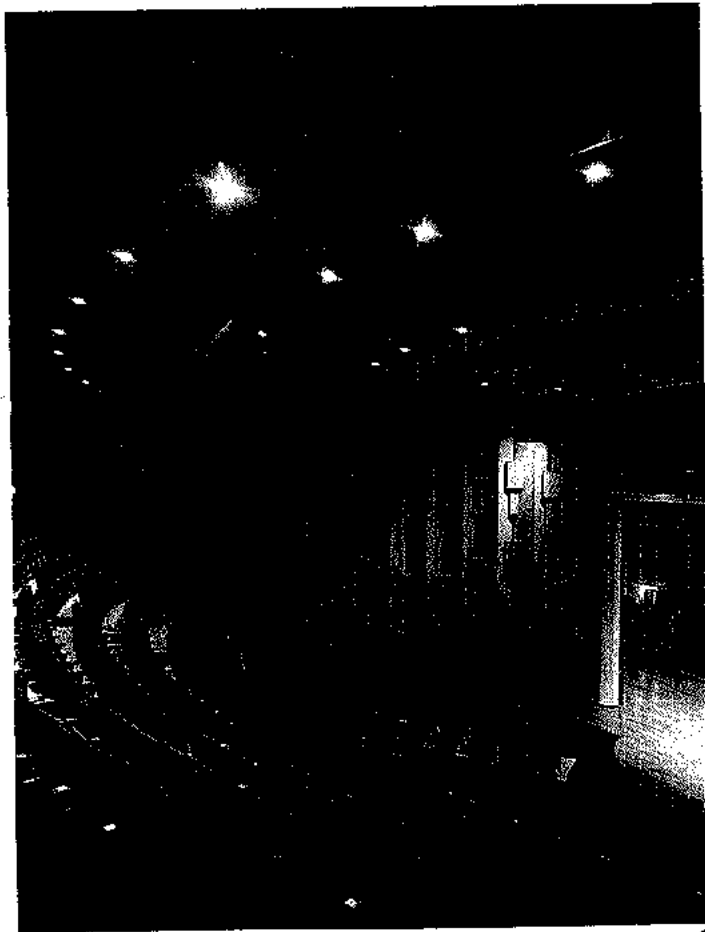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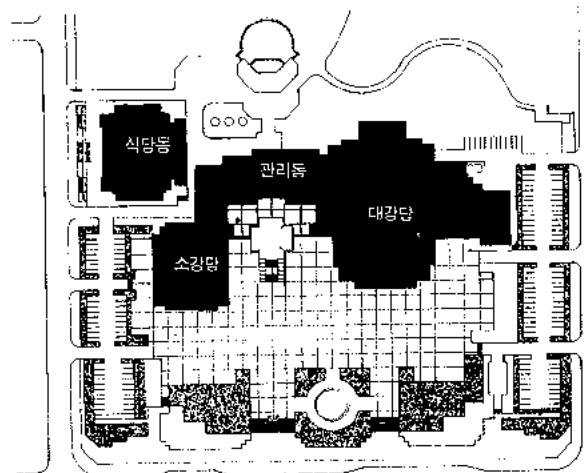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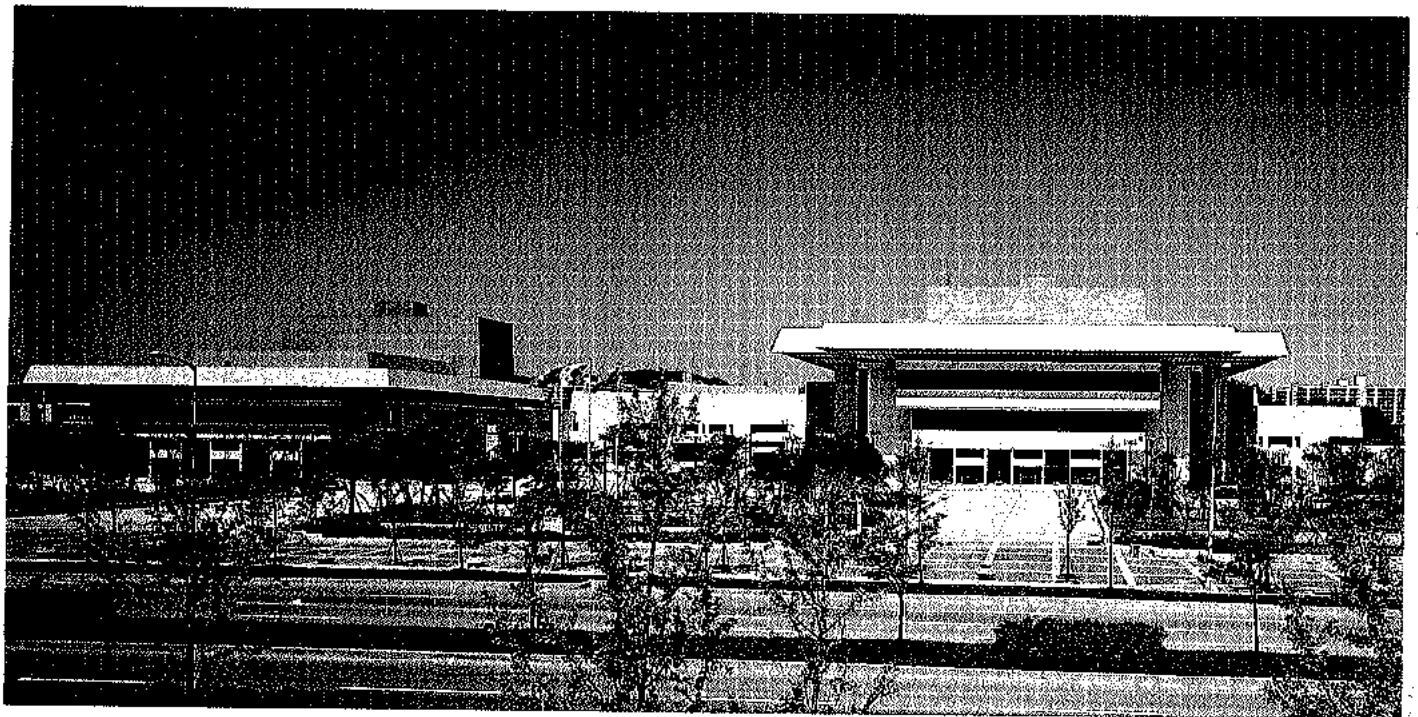
8



6



9



- | | |
|-----------|---------|
| ① 내부 로비전경 | ⑦ 로비 |
| ② 전경 | ⑧ 연결계단 |
| ③ 2층평면도 | ⑨ 배치도 |
| ④ 1층평면도 | ⑩ 정면 전경 |
| ⑤ 대강당 단면도 | ⑪ 연결브릿지 |
| ⑥ 대강당 내부 | |

기본계획

수원 문화예술회관은 전통문화 예술도시로서 수원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또한 시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세부기능의 합리적인 분석·재구성에 의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장으로서 최대한의 공간을 연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단순한 고유양식의 계승이 아니라 역사발전에서 따라 현대적 감각으로 다가오는 역사의 향기를 표출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각 시설계획

① 공연시설

좌·우측 선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문화회관의 상징적인 중심일뿐만 아니라 중심적 기능으로서 국·내외 행사를 비롯, 전통 및 현대 무대예술을 망라하여 연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② 전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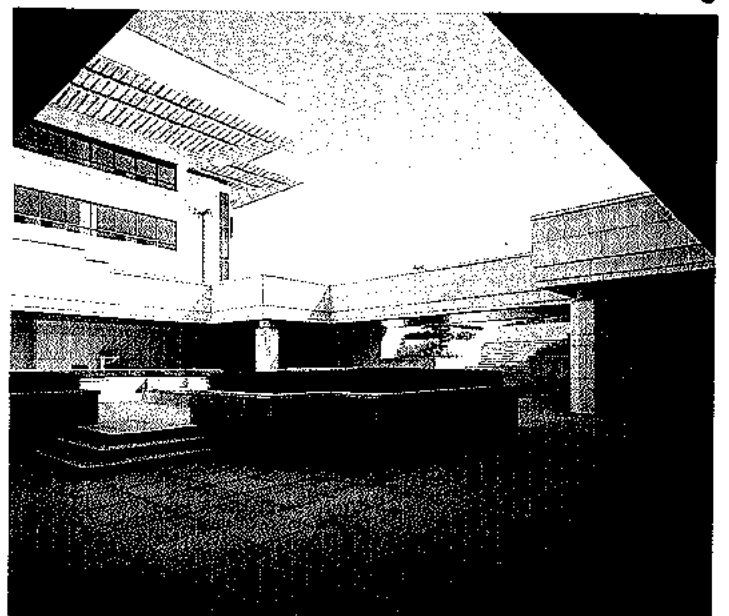
시민의 홍보활동을 위한 상설전시장과 일반 대중예술을 위한 대여 전시장 등을 설치, 지역 문화 창달과 교육활동을 주도하는 Civic Center의 기능을 갖도록 한다.

③ 회의시설

정치·사회·문화·학술 및 종교 등 모든 분야에 걸친 회의 기능으로서 국제적 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이다.

④ 부속시설

관리동, 연회를 위한 식사동, 야외 공연장 및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여 예술회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평면계획

① 대강당

관객수용능력 2,000석, 250명 동시 출연이 가능한 무대와 8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을 수용하는 대규모 실내공간이다.

로비는 1층에서 3층까지 보이드된 양편으로 주계단을 두어 개방감과 변화를 갖게 하며 최상부는 토타이트로 처리하여 빛에 의한 시화적인 공간을 창출하였다.

② 전시장

전시장은 대·소 전시장으로 나누어 전시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동선을 분리하였다.

일반 이용객은 프라자의 선큰가든을 거쳐, 차량 이용객은 등록 주차장에서 선큰가든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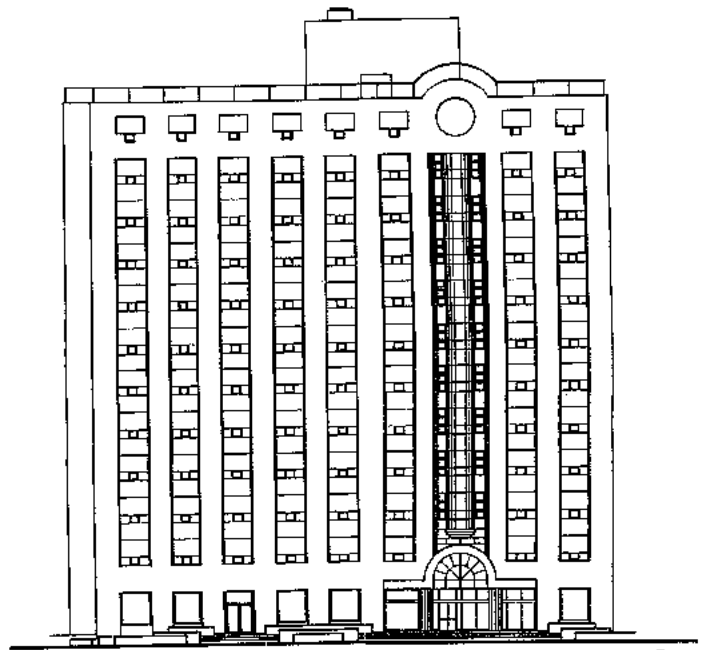
③ 국제회의장

회의장은 대강당과 소강당의 중간인 관리동 2층 부분에 배치하여 상호 유기적인 동선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필요시에는 강당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가변성있는 계획을 하였다.

제주 한신리조트텔

Cheju Hanshin Resortell

金鎬慶+李昶祐/종합건축사 사무소 가람나라
Designed by Kim, Ho-Kyung & Lee, Chang-Woo



1

대지위치/제주시 노형동 906-5
지역·지구/일반상업지역,
2.5종미관지구,
고도지구

대지면적/1,967.30m²

건축면적/972.35m²

연면적/16,873.27m²

건폐율/49.60m²

용적률/58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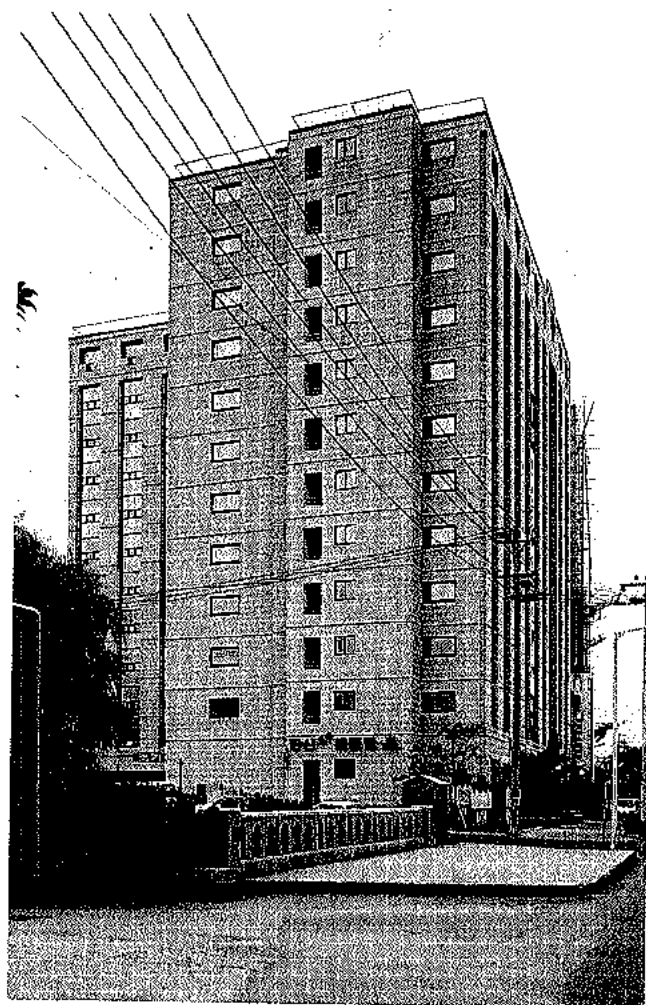
규모/지하 4층, 지상 12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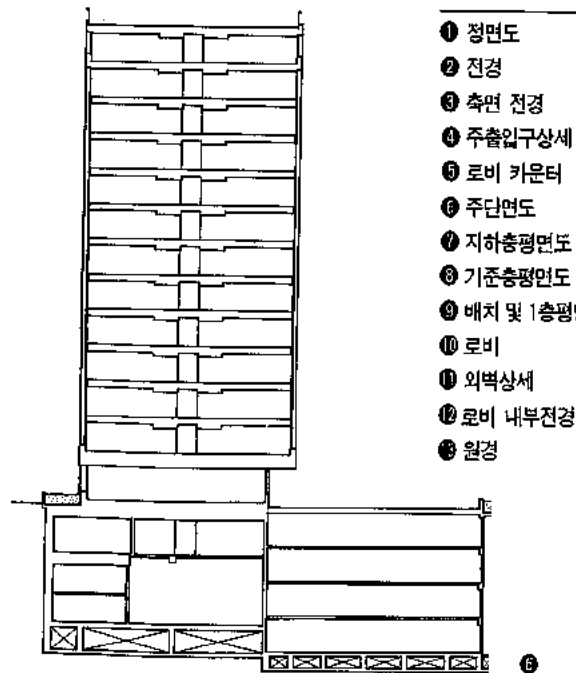
외부마감/석재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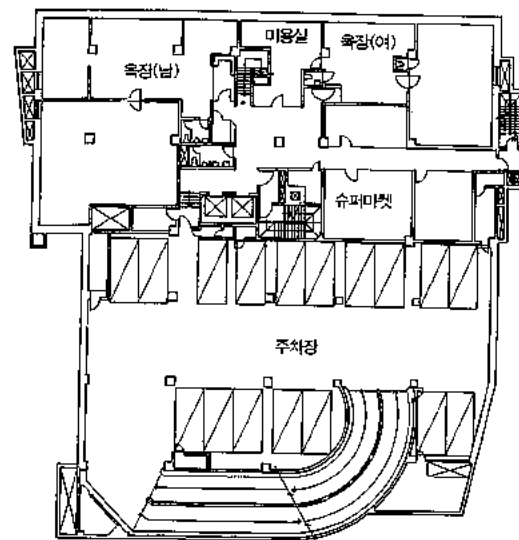
2



5



- ① 정면도
- ② 전경
- ③ 측면 전경
- ④ 주출입구상세
- ⑤ 로비 카운터
- ⑥ 주단면도
- ⑦ 지하층평면도
- ⑧ 기준층평면도
- ⑨ 배치 및 1층평면도
- ⑩ 로비
- ⑪ 외벽상세
- ⑫ 로비 내부전경
- ⑬ 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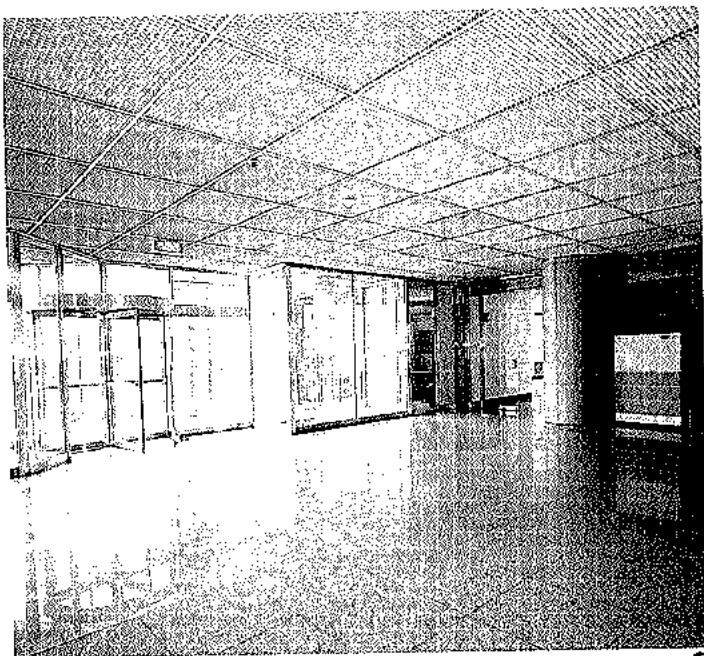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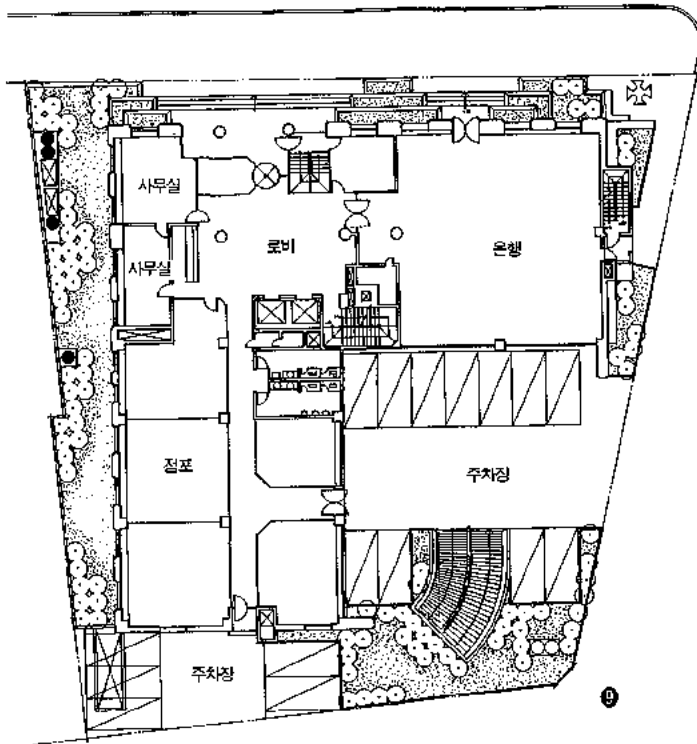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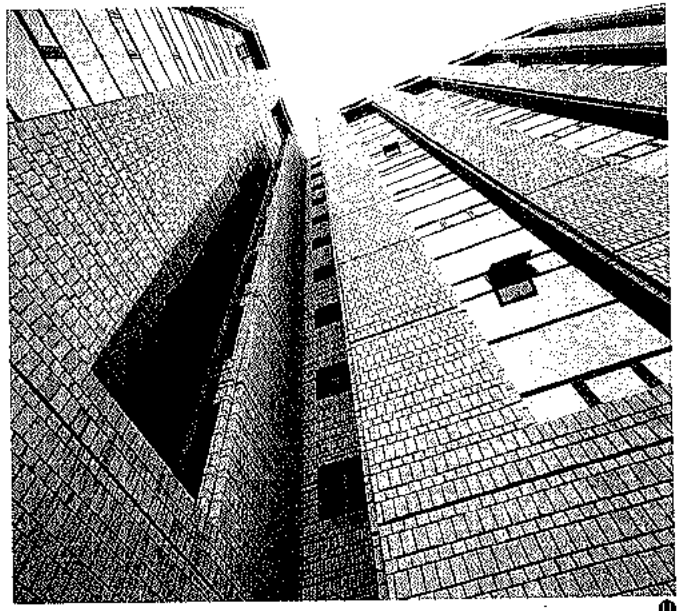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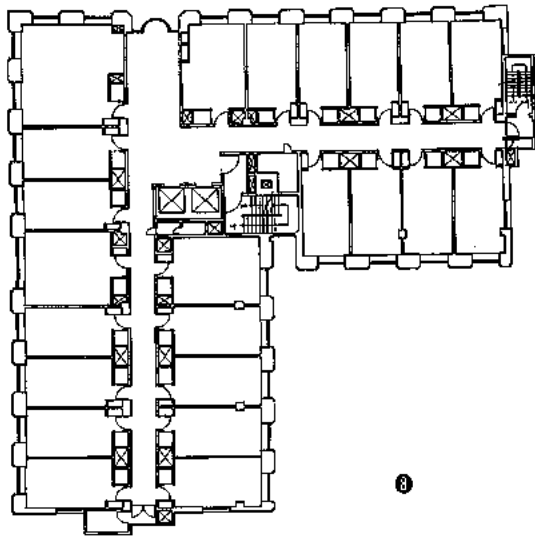
7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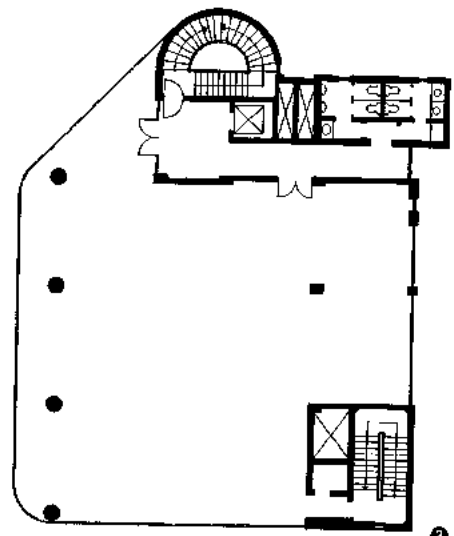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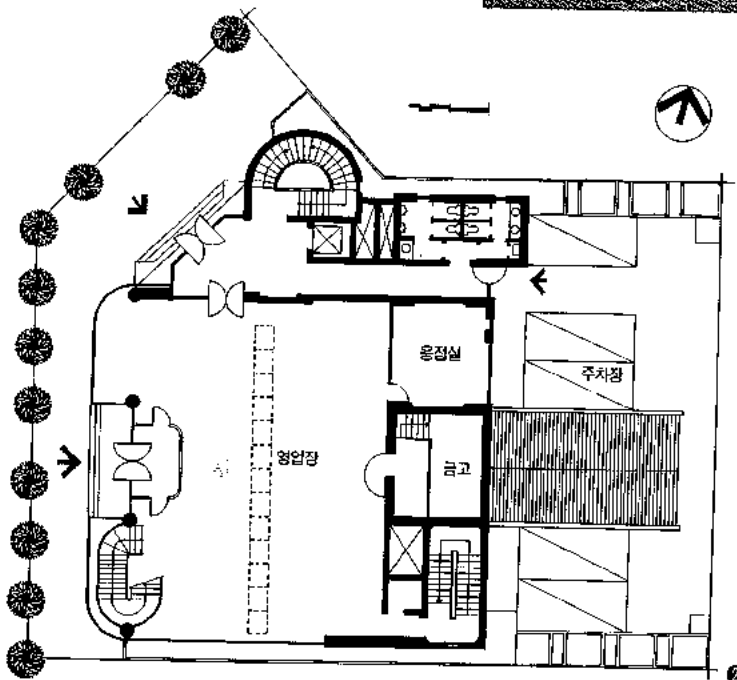
한국투자신탁 잠실지점

Korea Investment & Trust Co.
Chamshil Branch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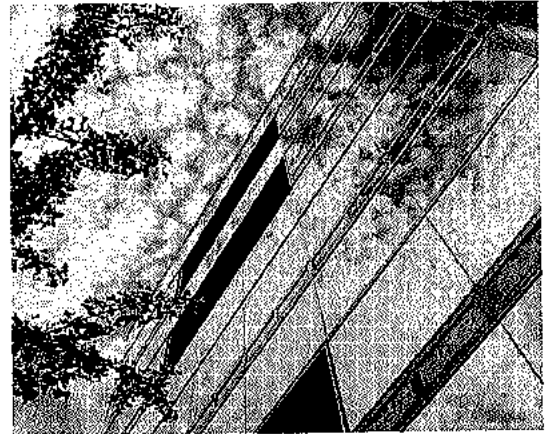
李永熙/(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ung-Hee

대지위치/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2번지 3,4호
대지면적/932.60㎡
지역·지구/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제1,2종 미관지구 도시설계구획
건축면적/458.54㎡
연면적/3,519.59㎡
건폐율/49.17%
용적률/241.14%
외부미감/화강석베너마감, 발색알미늄창,
복층반사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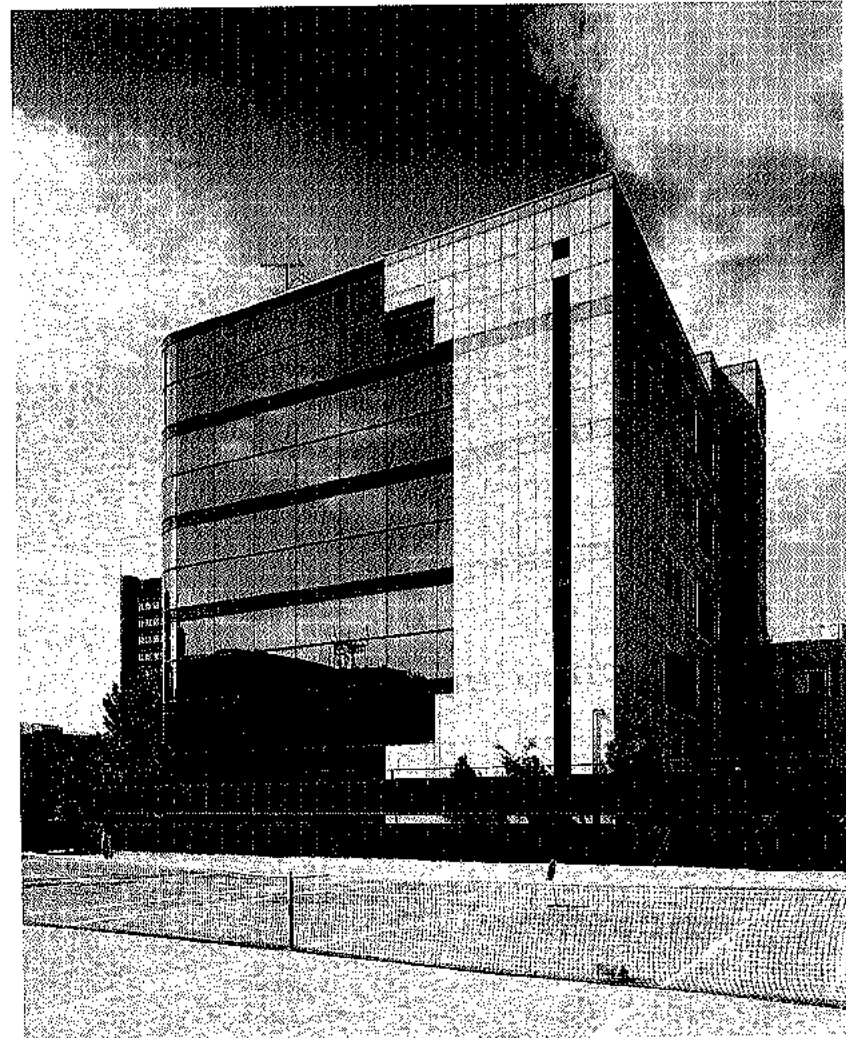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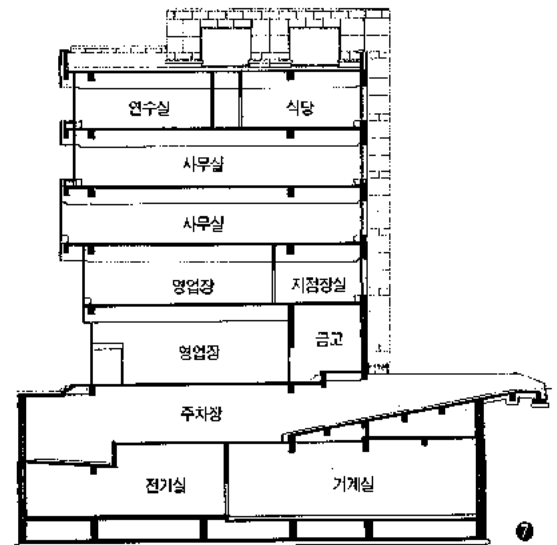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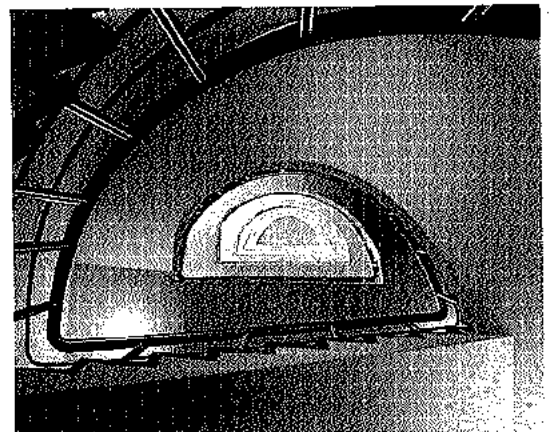
5



6



7



8

- | | |
|--------------|------------|
| ① 주출입구전경 | ⑤ 배면전경 |
| ② 배치 및 1층평면도 | ⑥ 외벽상세 |
| ③ 기준층평면도 | ⑦ 주단면도 |
| ④ 전경 | ⑧ 계단실 양각상세 |

그랜드 레저 오피스텔

Grand Leisure Officetel

李逢春/비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bong-Choon

WORKS

■
대지위치/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702-9
대지면적/1,487.6㎡
건축면적/1,188.8㎡
연면적/17,249.44㎡
규모/지하 2층, 지상 17층
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용도/레포츠 오피스텔 · 사우나 · 스카이라운지



1

■ 하루가 나르게 변모하는 삶의 환경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상대적인 발전과 변화의 거듭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세태를 반영하는 가치관이 때와 장소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듯이, 어차피 건축도 시대적 흐름과 양식의 조류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오피스텔, 호피스텔, 레저스텔, 레조트 빌라, 레포츠 등,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생소하던 신조어가 편리한 대로 합성되어 유행처럼 번지고, 언필칭 그것들이 호텔과 레저에 관계되어 자칫 소비성향에다 향락적 사회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그 의미가 예사롭지 않기까지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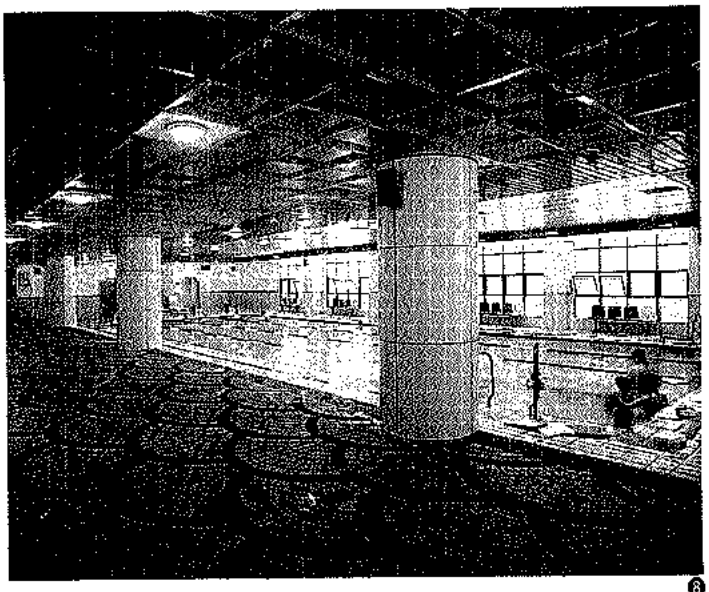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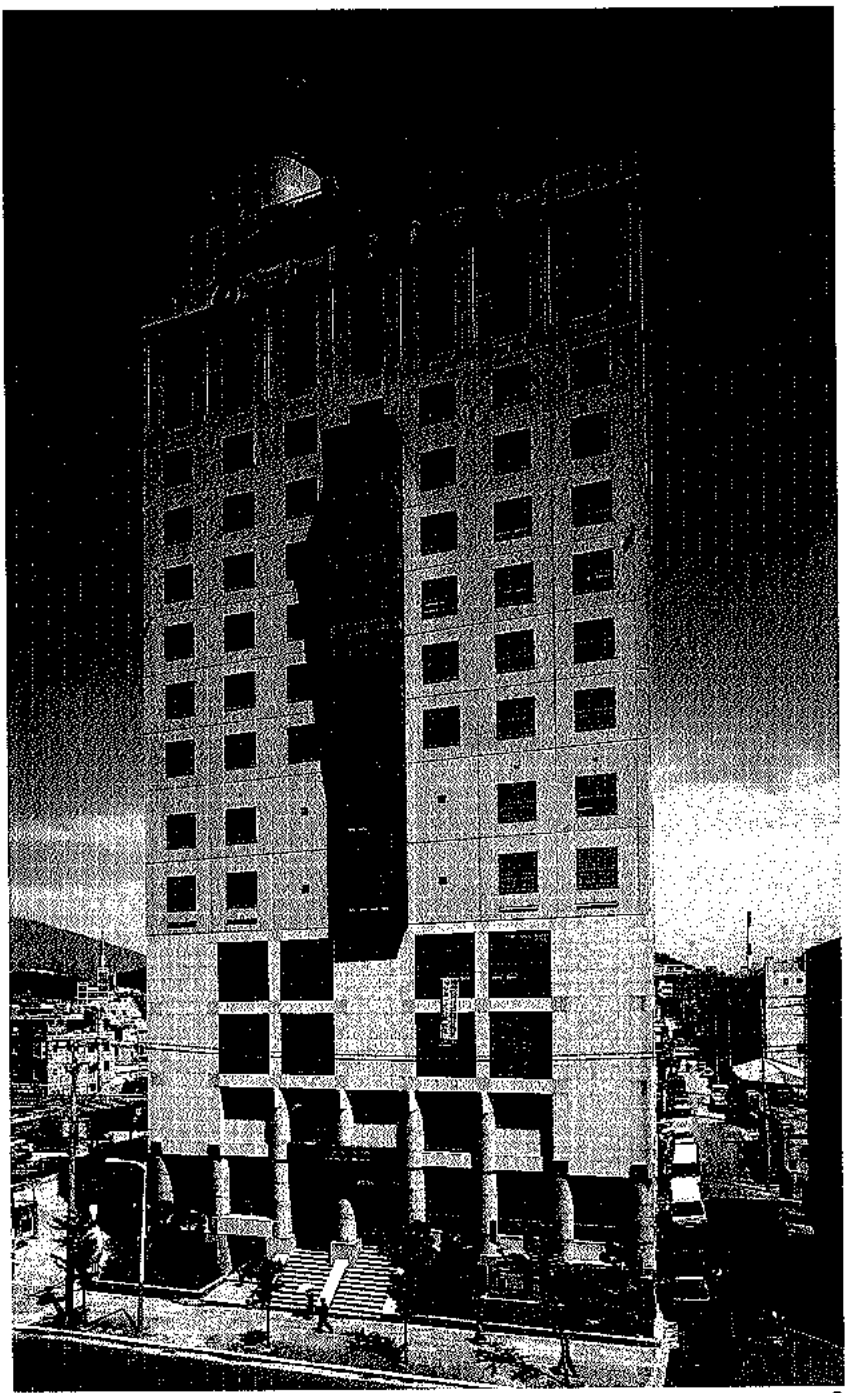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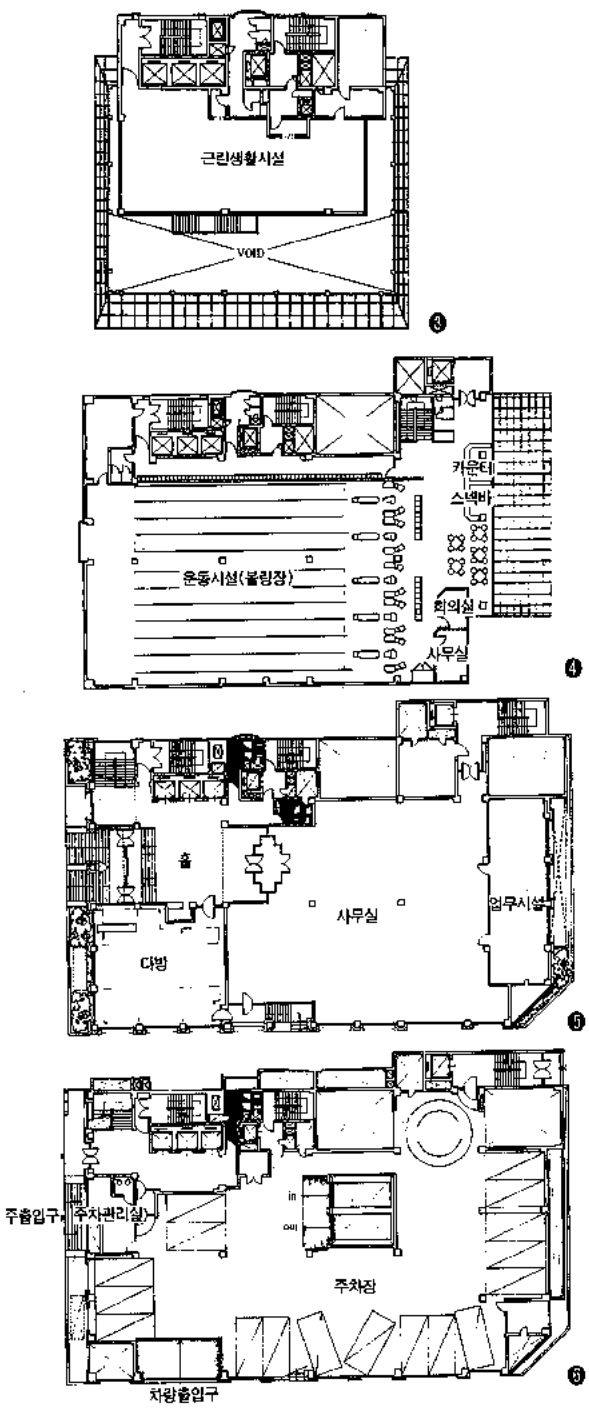
건축도 하나의 경제행위의 산물로서 수요자의 욕구와 수요자의 경제성이 합치될 때 성립된다는 기본적 논리에 부응하여 주어진 토지의 극대화라는 어쩔 수 없는 등식 속에서 Office+Leisure+Sport tel로 한껏 욕심을 내보았다.

그런데, 이젠 배불리 먹고 마시며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고 즐기는 일만 남았는가 라는 의문을 떨쳐 버릴 수 없음을 웬일일까.



2

- | | | |
|----------|---------|---------|
| ① 스카이라운지 | ④ 7층평면도 | ⑦ 전경 |
| ② 측면전경 | ⑤ 2층평면도 | ⑧ 실내수영장 |
| ③ 17층평면도 | ⑥ 1층평면도 | ⑨ 로비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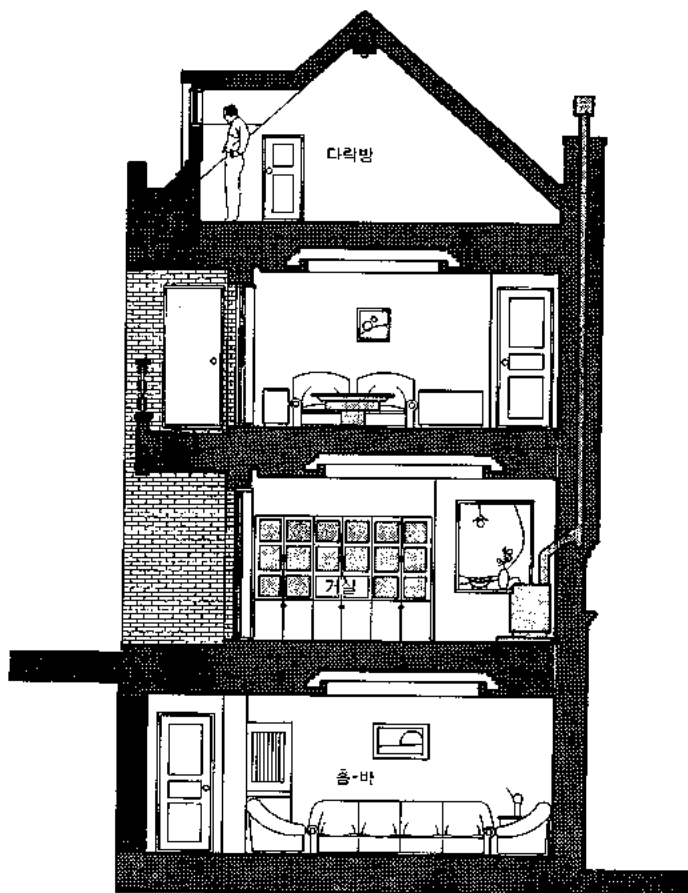
서초동 주택

Sŏcho-dong Residence

WORKS

吳基守/종합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 5
Designed by Oh, Ki-Soo

■
대지위치/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36
지역·지구/전용주거지역
대지면적/292.50m²
건축면적/114.96m²
연면적/315.62m²
건폐율/39.40%
용적률/74.40%
구조/철근콘크리트라멘조
외부마감/벽-붉은벽돌 치장쌓기
지붕-천연스레이트 씌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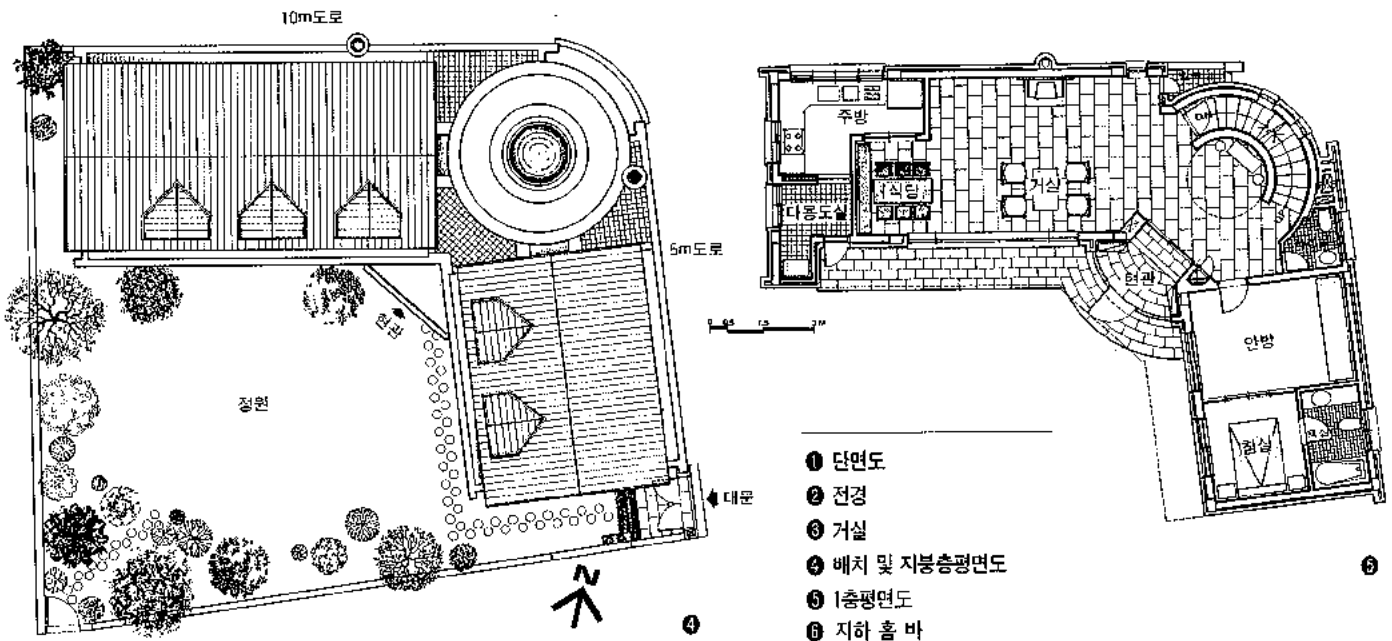




계획대지는 북쪽과 동쪽에 도로를 접한 모서리 대지로 북쪽 전면도로와 3m 정도의 고저차를 갖고 있다. 또한 남쪽과 서쪽은 건물로 막혀있고 남서쪽에는 옥외풀장, 체육공원 등이 좋은 환경을 이루고 있으며, 북쪽 길 건너에는 높은 상업시설들이 있다.

따라서 건물의 배치에 있어서 북쪽과 동쪽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겨울철의 찬바람 등에 대응하여 벽면으로 차폐시키고 풍부한 일조와 환경이 좋은 남서쪽을 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원은 주변의 건물에서도 시선이



차단되어 주거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되고 옥외풀장, 체육공원의 녹지 등과 연계하여 한층 풍부하고 안정된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건물의 형태는 벽면과 지붕의 질세된 만남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였고, 모서리는 원통형으로 처리하여 지하층에서 다락층까지 연결되는 계단을 설치하였다. 또한 계단탐상부에 톨라이트를 설치하여 1층까지 신선한 햇살이 밝고 명량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가족간의 표정, 의사전달과 유연부인의 감정이 교류되는 장이 되게 하였다. 지하층에는 홈바를 계획하여 친지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고 다락방은 건축주의 많은 수집품을 정리할 수상고와 어린이의 침실 및 놀이공간으로 쓰인다.

도로에서 바라보는 건물의 분위기는 붉은 벽돌과 화강석 혹은기로 단정하게 구성하였다.

“有 無”

Existence & Nonexistence

WORKS

崔東儻 / 예전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Dong-Ho

■ 채울 수 “있는 것”의 실체는 무엇이고 “없는 것”의 빈 것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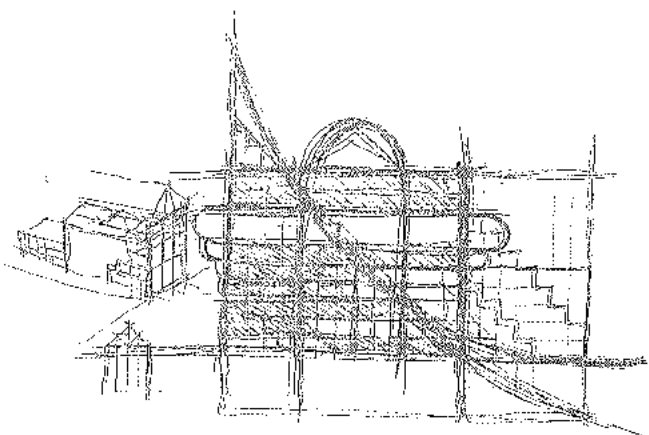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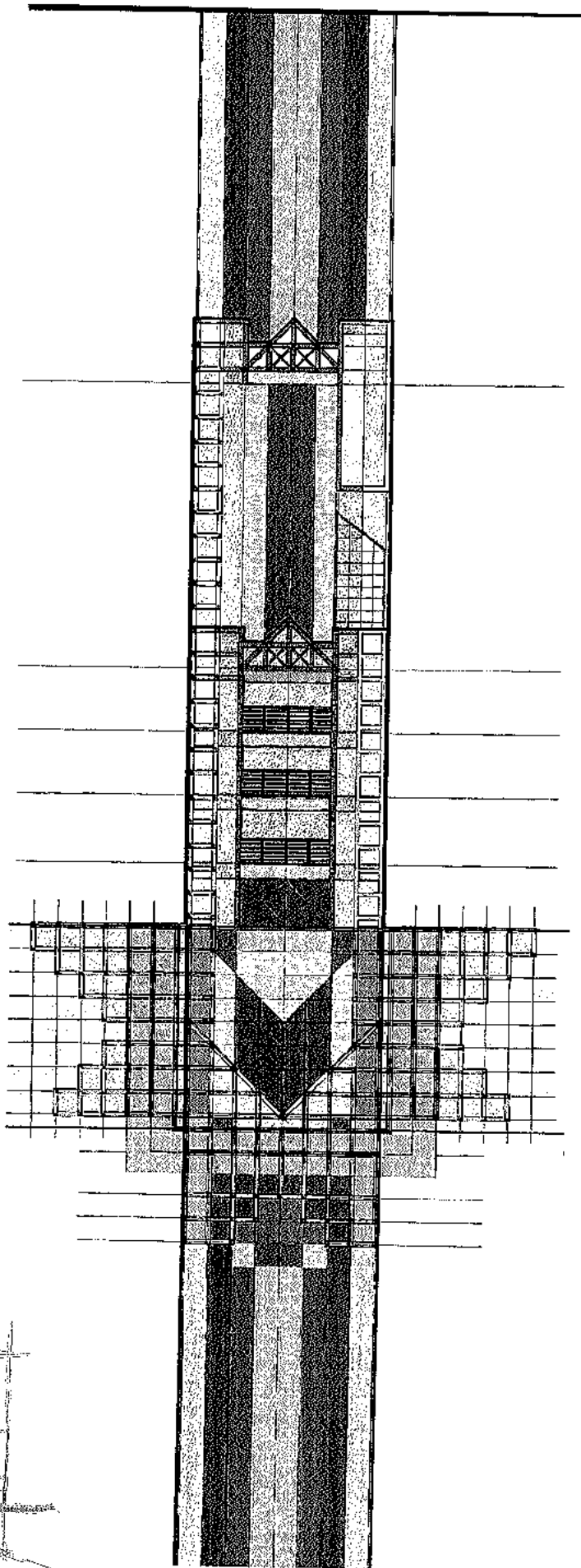
가득 또 가득 담아야만 하는 것이 건축이라면 과연 무엇으로 그려내야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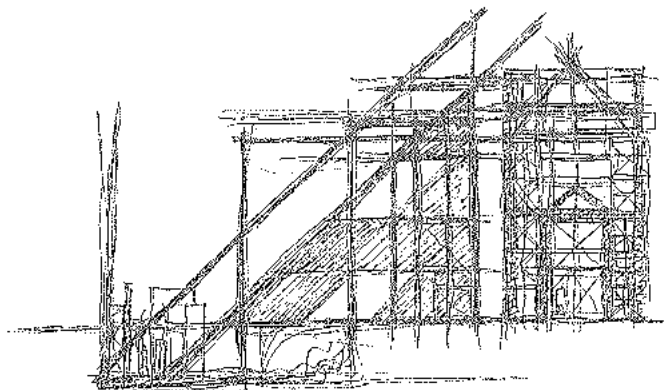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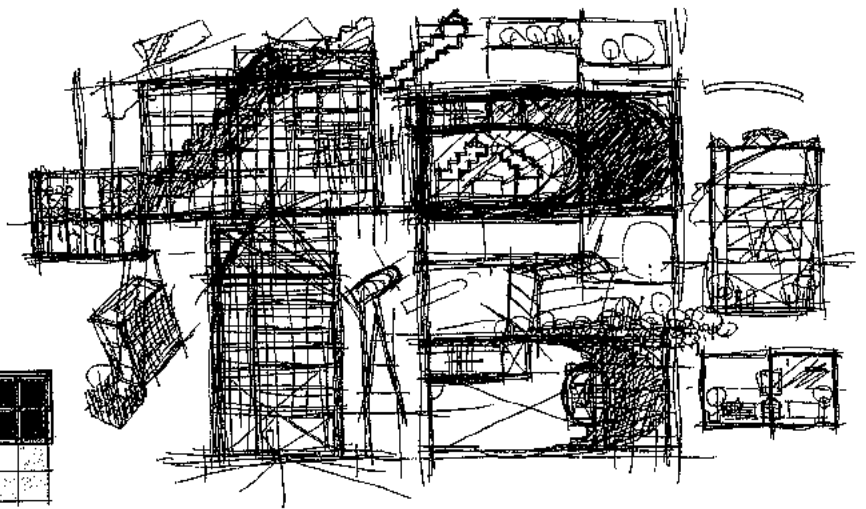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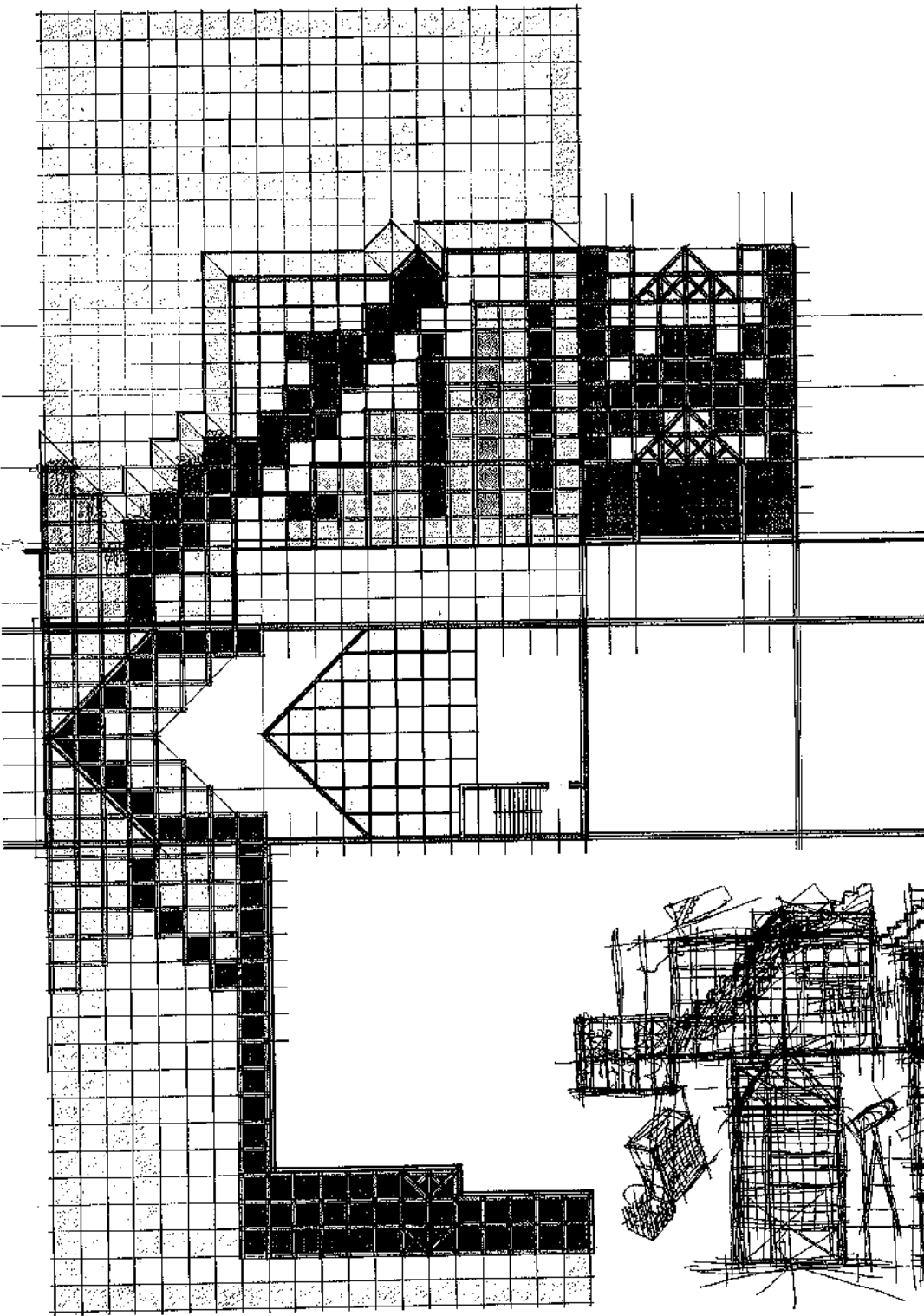
우주에는 비어있는 상태로서만 더 아름답고, 세계는 그대로 두어도 좋은 것들이 훨씬 많은 것을...

대지 뒷 부분의 썩은 가든에서 Green축을 설정하여 정면까지 연결시켰다.

전면폭이 좁은 대지조건 때문에 축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였다.

또한 좌·우측면까지 푸르름으로 채울 수(?) 있게 하여 후면과의 연속감을 있도록 하였다.





사랑이 感應하는 건축을 위하여

朴時翼 / 도봉건축사사무소

I. 水脈과 地電流

주택의 안방 밑의 지하에 수맥이 있는 집에서는 주인이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사실이 최근 일반상식화 되어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수맥에서 발생하는 水氣를 차단하기 위하여 銅板을 사용한다는 것도 일반화 되어있다.

즉 지하에는 위치에 따라서 수맥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이 수맥의 直上部에서 사람이 거주하거나 특히 취침을 할 경우 이 수맥은 사람의 신체에 나쁜 感應을 주어서 질병을 발생하게 되는 까닭에 결국 수맥 위의 주택은 좋지 못한 집이 된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독일에서는 지하에는 위치에 따라서 강한 지전류가 통과한다고 발표되었다. 침실의 지하에 강한 지전류가 흐르는 경우에 이 침실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 일찍 죽게 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고양이는 오히려 강한 지전류가 흐르는 공간을 더욱 좋아한다고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침실의 지하에 강한 지전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지전류를 다른 곳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기계도 개발되어 지전류로부터 발생되는 질병의 氣에 대한 감응을 예방하고 있다.

이러한 실제적인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는 수맥이나 지전류 이외에도 무한한 종류의 氣로 가득차 있다. 그리고 거주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氣를 흡수하게 되어 그 감응을 받게 마련이다. 즉 건축공간에는 사람에게 작용하는 역동적인 힘이 있는 까닭에 사람에게 이로운 氣가 있는 집은吉한 집으로, 그리고 이롭지 못한 불리한 氣가 있는凶한 집으로 구분하게 된다. 이와같이 사람은 주어진 공간에서 발생하는 氣에 항상 감응되고 있는만큼 자연과 건축물에 분포된 氣를 정확히 분석하여 그 이치를 건축공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II. 自然과 人體의 구조

사람은 누구나 하늘과 땅 그리고 태양과 물 등의 무한한 자연공간의 덕택에 의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늘은 인간의 아버지이며 땅은 어머니가 된다. 그 중에서도 푸르고 무한한 하늘은 자연의 근본이 되며 지상 만물의 원천이 된다. 그러므로 하늘의 큰 공간에는 만물을 창조한 하느님이 계신것으로 모두가 믿고 있다. 이러한 사상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하늘을 높이 받들고 있다.

한편 사람들은 땅위에서 자라나는 풀과 열매를 매일 매일 음식물로 먹고서 살아간다.

땅 위에 흐르는 강물도 어머니의 젖과 같이 인간에게는 生命水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땅은 인간을 낳아주고 키워주는 어머니와 같다. 이러한 관계로 땅을 어머니처럼 섬기며 존경하는 地母思想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하늘과 땅은 모두 인간과 만물의 생명체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창조의 힘은 바로 자연도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근래 도입된 서양의 가치관은 하늘과 땅에 대한 인식을 잘못 바꾸고 있다. 즉 서양의 地理學的 개념으로 보면 자연, 특히 땅은 일종의 礦物로서만 취급되어 전혀 생명력이 없는 無生物로서 해석한다. 그리하여 땅과 인간과의 관계도 땅은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는 상품으로 밖에는 취급하지 않거나, 식료품을 생산하는 기계적인 물체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같이 건축공간도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기계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하늘과 땅은 커다란 주택이며 부모이다. 그러므로 宇宙를 「집」이라 하였다.

하늘은 인간의 지붕이며 땅은 인간의 방바닥이다. 그리고 동서남북은 인간의 4面 벽이 된다.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삼고 태어난 인간은 우주의 축소판이다.

사람의 머리는 등갈게 신체의 상부에 위치하여 하늘의 무한한 형태를 상징한다. 사람의 몸통은 편편하여 땅을 닮았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동서남북을 축소하여 2개의 다리와 2개의 손, 즉 四肢를 만들었다. 하늘에서 빛나는 해와 달은 사람의 얼굴에 두 눈으로 빛을 발산케 하였다. 하늘과 땅사이에 水分이 상승하고 또한 비로 내려와서 서로 연결하듯이 인체의 내부에도 피와 혈관을 만들어 피의 순환을 통하여 머리와 몸통이 한몸으로 되게 하였다.

사람의 머리도 전면은 얼굴이 되어 밝음과 낮을 의미하며, 얼굴의 뒷면은 검게하여 밤의 세계를 축소하였다. 그리고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축소하여 머리카락을 만들었다.

III. 五常

하늘과 땅사이에 가득찬 氣는 춘하추동으로 변화하며 이 변화되는 氣는 인간에게 仁義禮智信 五常의 성품을 만든다. 따듯한 봄날의 아침 햇빛은 겨울에 움추려든 각종의 초목들을

사람에게 좋은 감응을 주는 건물은 훌륭한 인품을 만들어 주는 귀한 공간이며, 반면에 흉한 감응을 주는 건물은 불행한 인간을 만드는 공간이다.

사람에게 유익한 감응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앞에서 언급한 仁・義・禮・智・信의五常역시 그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중에서도 더욱 귀중한 하나를 선택한다면 『사랑』의 감응이야말로 오늘날에 가장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다. 황금만능의 시대에서는 인간의 사랑이 더욱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감응이 발생하는 공간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모두 부드럽게 퍼주고 사랑스럽게 만들어 준다. 이러한 기운은 사람에게 부드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한다. 이러한 마음씨를 『仁』이라 하였다.

가을 저녁의 쌀쌀한 바람은 나무가지를 매마르게하고 더욱 나뭇잎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주게 만든다. 이것은 나무의 뿌리와 몸통만이라도 살리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나무는 슬픔을 머금고 자신의 꺾과 같은 나뭇잎과 열매등을 자기몸에서 떼어낸다. 이것은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희생과 같다. 이러한 마음씨를 『義』라고 하였다.

한여름의 태양이 불빛을 밝고 뜨겁게 발산하면 나뭇잎이 무성하게 그 열과 빛을 받아들여서 화려한 꽃을 피워서 태양의 氣에 화답한다. 그러므로 여름의 나무는 나뭇잎으로 푸짐하게 몸치장을 하고 머리에는 아름다운 꽃을 올려서 즐거움을 나타낸다. 이러한 나무의 성질과 같이 사람이 푸짐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성품을 『禮』라고 하였다.

사람의 형태가 자연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듯이 사람의 행동도 자연의 활동과 일치한다. 아침에 해가 뜨면 사람은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해가 서산을 넘어가서 햇빛이 없으면 사람은 다시 드러누워서 행동을 중지한다. 이와같이 태양의 뜨고 짐은 사람의 일어나고 드러눕는 동작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날씨가 화창하면 사람의 마음도 즐거우나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에는 누구나 두려워 하게된다. 이와같이 사람의 구조나 생활은 자연과 일치하고 있다.

추운 겨울에는 만물이 동공얼어붙어서 나무도 죽음과 같은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운은 몸속 깊이 보관하여 걸으로는 나타내지 않는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냉정하게 기다린다. 이와같이 냉정하게 때를 분석하는 마음을 『智』라 하였다.

仁・義・禮・智 서로 다른 종류의 기가 모두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융합시켜주는 힘이 『信』이다.

이와같이 사람의 성품을 구성한 仁義禮智信도 그 근원은 바로 自然에 유동하는 氣의 감응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IV. 사랑의 氣와 建築

사람의 감성은 주변환경의 氣감응에 의하여 수시로 바뀌게 마련이다. 이것은 사람을 구성한 氣와 주변공간의 氣가 항상 상호 유통하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공간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게 되지만 지저분한 곳에서는 누구나 불안하고 불쾌해

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물에 있어서도 안정되고 중심이 잡힌 건물에서는 편안한 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편협하거나 중심이 잡히지 않은 건물에서는 불안해진다. 그러므로 건축공간의 氣는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의 성격을 고정시키고 인격의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같이 건물은 사람에게 의하여 만들어지지만 일단 만들어진 건물은 그 氣로 사람을 만들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공간을 만드는 작업은 바로 인간을 만드는 작업과 비견된다. 과거 孟子의 어머니가 孟子의 교육을 위하여 세번씩이나 이사하였던 사실도 바로 氣감응의 이론과 일치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좋은 감응을 주는 건물은 훌륭한 인품을 만들어 주는 귀한 공간이며, 반면에 흉한 감응을 주는 건물은 불행한 인간을 만드는 공간이다.

사람에게 유익한 감응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앞에서 언급한 仁・義・禮・智・信의五常역시 그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중에서도 더욱 귀중한 하나를 선택한다면 『사랑』의 감응이야말로 오늘날에 가장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다. 황금만능의 시대에서는 인간의 사랑이 더욱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감응이 발생하는 공간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건축공간에서 사랑의 감응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사가 공간에 사랑의 氣와 혼을 주입하여야 되겠다. 수맥과 지전류는 피함은 물론이며, 하늘과 땅을 사랑하며 애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을 사랑하고, 이러한 사랑으로 건물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감응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감응을 받게할때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건축사의 업무를 일부분이나마 수행한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오늘날의 많은 건축사들이 모두 좋은 건물을 만들어서 건축주와 사회에 이바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보람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건축물이나 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사회계층, 까다로운 일부의 건축관계 법령, 그리고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등은 건축사의 훌륭한 업무에 때때로 혼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건축사는 여기에서 좌절하거나 불평만으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

오직 건축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건축을 통한 사회의 봉사정신을 더욱 가다듬어 준비하고 정진하는 작업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情이 유독히 많은 한국의 전통사상을 발판으로 하여 사랑의 건축문화를 발전시켜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모두 즐거운 감응에 춤추는 지상천국을 만들자.

건축이 말을 한다

건축이 말을 한다.
눈웃음도 치고 입가에는 미소를 담는다.
어느덧 무표정에 익숙해진 사람들...
하늘의 구름을 그린다. 빛깔을 새긴다.

침묵이 금이라고는 하지만
거리의 표정이 온통 간판의 홍수와
자동차 소음으로 범벅이 될 수는 없다.
건축이라도 말을 하자.

경제성이니 기능이니 심플이니 모든 합리적 단어로부터
능동적 표현을 틀어 막는 심리적 고문으로부터 해방된다.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다.
이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본다. 욕심을 헤아린다.

길을 넓고 건축은 많은데
어느 한군데 말하는 집을 짓는 것을
과욕이라 탓하라
뼈에로의 슬픈 화장이라 손짓하라.

터지지 못한 제채기의 답답함이 아쉽다.

崔英集

종합건축사사무소 탐

金剛 시리즈 10

집·합·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발전은 연구와 도시유형을 계속확대하면서 제
합된 토지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집합주거와 슬럼을 분해 할수있다.

그러나 90년대 초부터 도시 서민을 대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우리의 집합주거
는 인간의 삶을 중요시한 건축의 본질을 외면한 채, 몰광해주의 양적생산에 치중
한 데다 20~30년을 재단해 적지 않은 후세대에 노정되어 온갖 폐기물, 폐기
물의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본지에서는 과거의 서민화요를 뒤
돌려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집합주거 문화의 창조와 개발을 위한 계획서
집조를 계획하여 관계전문가의 연구를 3회에 걸쳐 펼쳐 게재한다.

□ 편집자주 □

1회

- 집합주거 주민의 생활양식과 단위주거 공간계획 우동주
- 인간중심의 집합주거단지 개발방향 이희원
- 집합주거계획과 주거발전 박용원

2회

- 우리나라 생활에 맞는 집합주거 설계 이규성
- 저층 고밀형 토세주거 개발방향 안영배
- 고층 아파트 구조설계의 개선책 이장남

3회

- 집합주거단지 관리주거 계획 김철석
- 집합주거단지의 옥외공간과 녹지시설 이주형
- 집합주거의 노후화 영향분석과 건축계획 원성범

집합주거 주민의 생활양태와 단위 주호 공간계획

Design Unit Plan Suited to People' Life Style

禹銅宙 /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by Woo, Dong-Ju



1. 序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적인 급성장에 따른 도시 인구 집중현상으로 住居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로 量的 供給에 차중해 왔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單位住戶는 일련의 근대주의적 원칙들에 입각, 획일적으로 표준화 되어갔고, 개별성이나 집단의 部分文化的 特性을 반영하기 보다는 대량 생산의 기술에 의한 사회적 동질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용자의 입장이라든가 보다 면밀한 生活環境의 차원에서의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기에 이르렀으나, 요즘은 건립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를 두고 볼 때 이러한 질적인 면에 대한 문제는 도외시한 채 여전히 양적 공급에 급급하고 있는 느낌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전국적으로 多量 지어진 아파트의 공간이 우리의 실제 상황에 얼마만큼 부합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기회도 없이

서구적 근대화를 모델로 하여 선진적 생활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주거형태를 계획하여 보급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주거형태에 획일적으로 맞추어왔으나, 이제는 우리의 생활에 주거형태를 맞추어야 할 때라 생각된다.

본 글에서는 주민의 생활양태와 공간 활용을 연결지워 주로 단위주호 공간을 중심으로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계획적인 측면에서 제안과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2. 집합주거의 건축적 상황—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비교

우리나라 아파트의 單位住戶는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제일 먼저 만들어진 주호의 평면형이 하나의 Model이 되어 대량 건설의 붐을 타고 충분히 검토할 틈도 없이 답습되면서, 편리성과 합리성에 의해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보급되었고, 아직은 아파트의 편리성만이 사람들 의식의 대상이 되어 규모의 한계라든가 과도한 스케일의 처리와 환경 심리적 검토는 계획상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아파트의 특성으로서는 양적 수급을 위한 생산성 위주의 대량공급과 집합 규모의 과대, 단위공간 설계와 집합 계획이 분리되어 계획되는 문제점 외에도 전국적으로 표준화하여 보급된 단위공간의 획일성과, 이에 따른 실생활에 대한 부적합성, 그리고 경관의 단조로움, 도시규모 등 지역적 특성무시, 공동주거로서의 생활의 집합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 비추어 외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와 시행이 이루어져 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1950년부터 건설산업의 공업화가 강력히 추진되어 Strasbourg에 처음으로 800세대분의 대규모 단지가 건설된 것을 필두로 하여 보다 혁신적인 시도가 장려되었는데 Le Corbusier가 설계한 Marseilles의 주거단위(unité d'habitation)도 이 시기의 소산이다.

석유과동 이후 새롭게 등장한 주택정책의 기준은 量보다 質이 우선된 주택생산, 대단위 주택개발의 抑制와 기존 사가지의 재정비, 주택문제를 주환경의 차원에서 고려, 건설산업에서의 중앙정부의 역할 재정립과 주택생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고양 등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아이디어의 공개현상 제도인 P. A. N.(신건축 프로그램)과 R. E. X.(실험주택건설계획), 그리고 Modèle Innovation(개량형 표준주택)의 세가지 핵심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적용 범위는 임대, 분양을 포함한 서민주택을 주종으로 하였고, 외양에서나 주호 평면에 있어서 표준화의 경향이 농후하였다. 이와함께 도심지에서의 건축이라는 입지의 맥락성과 주택생산에서의 규모축 오래동안 잊혀졌던 전통적 도시조직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최근 街區의 街角, 交叉路 등 장소에 따른 도시형태의

우리나라 아파트의
單位住戶는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제일
먼저 만들어진 주공의
평면형이 하나의
Model이 되어 대량
건설의 붐을 타고
충분히 검토할 틈도
없이 답습되면서,
편리성과 합리성에 의해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보급되었고, 아직은
아파트의 편리성만이
사람들 의식의 대상이
되어 규모의 한계라든가
과다한 스케일의 처리와
환경 심리적 검토는
계획상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스케일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도시를 시각적,
역사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자 하고 있는데 Paurd의
St. Ouen의 재개발 계획, Portzamparc의 도시주거
등이 그 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73년 오일쇼크로 고도성장은 경제불황과 그후의
안정기 성장으로 상황이 변화하였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주택공급을 계속한 공단주택에도
반집이 속출하면서 고도성장기의 능률을 우선으로 한
사고방식이 지양되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세밀한
계획이 요청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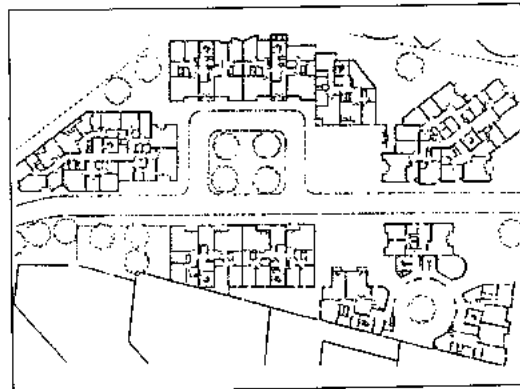
그런 중에서 주택의 규격화, 표준화, 量産化에
다른 주호평면의 획일화에 대해서 거주자의 개별성
혹은 다양성에 눈을 돌릴 필요가 제기되었다. 鈴木,
杉山茂一の「順應型 주택의 연구」(1974)

이와같은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공영, 공단주택의
주거방식 실태에서 2DK형의 연장으로 계획된
3DK형의 주호평면이公私分화를 지향한 公室의
확장을 요구하는 많은 거주자의 생활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밝혀, DK형 평면의 고정화의 문제를 지적,
간벽에 가변성을 부여하는 것이 유효한 것으로 제안,
구체적인 모델평면이 제시되었다. 초기의 표준설계는
주요구의 일반적인 발전동향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생활지도형의 계획이었는데
「順應形」은 주요구의 다양화와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을 의도한 것이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전통과 근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급과 개별성에의 대응 등의 상호대립적인
요건을 조화시키는 문제와 지역성에 대한 배려와
도심형 집합주거 등과 함께 주거환경의 질적 발전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 완성된 동경 근교의 多摩뉴타운은 장소성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경관조성, 도로와 단위주호와의
시각적 심리적 연결성과 다양한 단위주호 등의

- ① 올림픽 선수촌 전경
- ② 포집택의 오프포름(Les Hautes Formes) 집합주거
- ③ 오프포름 배치 평면도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는 좋은 본보기다.

또한, 居住者들 다양한 生活樣式을 보다
근본적으로 집합주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네덜란드의 SAR에 의한 支持體(support)와 가변적
요소(detachable unit) 이론이 있다. 이것은 표준화
(standardization)와 다양화(diversification) 사이의
대립적인 면을 해결할 수 있는 方法으로 評價된 바
있지만 네덜란드의 도시 아인호벤(eindhoven)
교외에 건립된 연립주택 32가구에 대한 10년간의
현장연구결과를 단위공간설계원리로 발전시킨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단위주호의 실생활 양태와 공간계획

모더니즘이후, 현대 건축은 기존의 建築環境이
설계자의 直觀 및 經驗에만 의존하고 이용자의 선호
및 가치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적합한
환경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자극받아
環境—行態研究(Environment-Behavior Study)와
住居後評價(P. O. E), 人類學的



3

現場研究方法論(ethnographic field study method)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과, 이러한 분야가 건축의 부분이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전문가들의 태도와 가치기준이 이들이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들의 것과 다른데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해 보자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파트 주민의 생활양태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생활을 하면서 애초와 계획된 공간을 변경하는 바 그 유형을 보면, 空間의 크기를 상호 변경하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室을 통합한다거나,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제거하는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족한 수납장소는 선반 등을 설치하는등 공간을 수직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設計時 空間의 立體的 活用度를 최대한 높여주는 계획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둘째, 근대화에 따라 생활상의 상당부분이 서구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적 생활습성이 많이 남아 있어 物的施設과의 사이에서 부적합성을

- ① '90분양한 일본 多摩뉴타운 저층부의 다양한 입면
- ② 다양한 평면유형을 가진 경관의 다양성
- ③ 도로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경우



4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로서는 인간의 사회생활이란 것이 대중적 현상이라기 보다는, 보다 범위가 좁은 가정, 근린, 그리고 공식·비공식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집단들은 각기 다른 생활양식(ways of life)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양식조차도 도시에서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온돌에 대한 감각과 여전히 실내에서는 신발을 신지 않고 지내는 근본적인 재래습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좌식생활을 고려한 계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방의 주거일수록 재래적 생활습성이 많이 남아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 소도시의 아파트는 대도시와는 달리 이런 점을 단위주호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유형별로 공간활용상의 패턴을 찾아 볼 수 있음으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 가변적인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젊은 연령층 부부일수록 부부를 위한 사적 영역성의 확보에 대한 要求度가 높게 나타나 작은 방을 부부침실로 사용하기도 하고, 소형아파트의 경우는 거실에 딸린 창고가 자녀의 방으로 변경사용 되기도 하며, 앞베란다가 공부방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이때 주방의 싱크대는 뒷베란다로 옮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방이 寢室化하여 자녀 혹은 부부의 전용침실이 되기도 한다. 노인들만 居住하는 경우는 작은 방을 賃貸하는 比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아파트가 經濟的 再生産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규격화된 아파트와 같은 획일적 공간에, 다양한 住居者의 生活樣式이 담겨지기 위해서는 공간의 융통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대상주민의 생활양식의 패턴에 대한 정확한 포착과 이해없는 그 실현성이 희박함을 지난날의 경험이 잘 말해주고 있다.

넷째, 단위주호 주변의 공간활용이 매우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한된 面積 내에서 실내 貯藏 공간의 부족함과 單位空間 자체의



5

협소함으로 인하여, 집 内部를 순수생활 空間으로 넓게 사용하려는 뚜렷한 目的에 따라 주변공간도 활용의 장소로 인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주호현관앞, 계단참, 현관입구, 캐노피 상부, 화단은 텅빈 空間으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생활에 따라 緻密設計를 해주고, 所要面積을 집안에 두는 대신 집 밖의 공용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로 중층으로 지어지는 소형아파트는 최대의 잇점이 접지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부 공간을 안일한 유럽풍의 여유공간(open space)으로 인식하여 계획해 주는 데도 그 원인이 있어, 생활의 연장인 하나의 장소로서, 단위세대와는 원할한 연계성을 가진 가로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접지층의 단위주호공간은 住戶周邊 空間과 연계성을 감안한 계획이 필요하다.

다섯째, 동일한 유형의 평면이라도 주거단지의 위치에 따라 생활문화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지역성을 고려한 계획이 요구된다.

대도시는 중소도시에 비추어 도시성에 있어 문화가 다양한 만큼 생활문화의 다양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보다 많은 문화화산의 기회를 갖게 됨으로 외적 생활양식을 원활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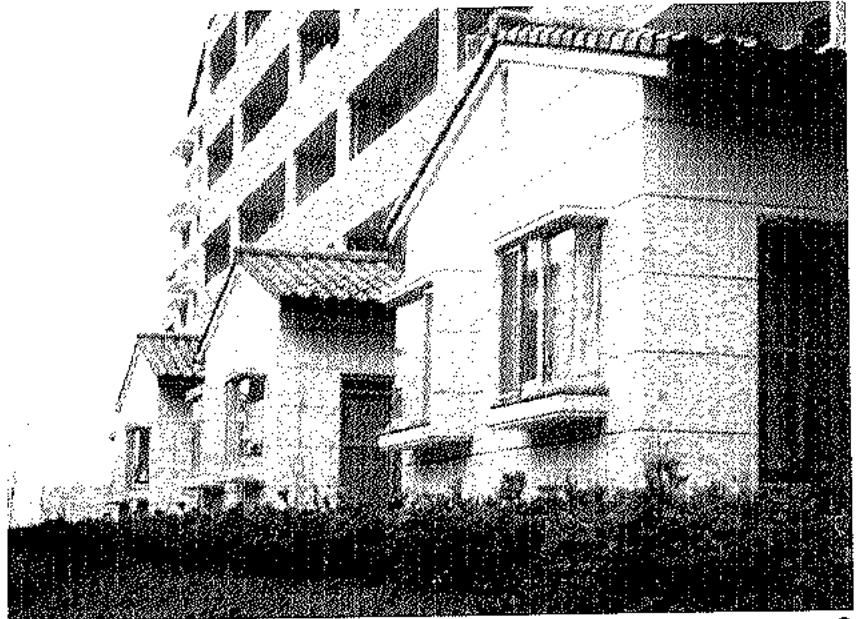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생활패턴은 다양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점이 단위주호 계획에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소형의 국민주택규모라 할지라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입식위주의 고층건립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도시는 평균가족(4.3人)과 가족유형의 분포, 그리고 층수에 관한 선호도를 감안할 때, 지역에 따라 좌식 위주의 중층이 바람직하며, 또한 상대적으로 재래적인 생활패턴이 많이 남아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따라 외부공간의

공용시설도 대도시와는 달리 계획해 줄 필요가 있다.

4. 바람직한 주거문화를 위한, 단위주호계획을 위한 제안과 전망

住居空間을 계획한다는 것은 文化的 脈絡(cultural context)과 物的 形態(setting)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그 대상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생활이나 행위가 가장 적절하게



6

⑥ 접지층의 특성을 살린 1층 주호

⑦ 방의 상부에 설치한 선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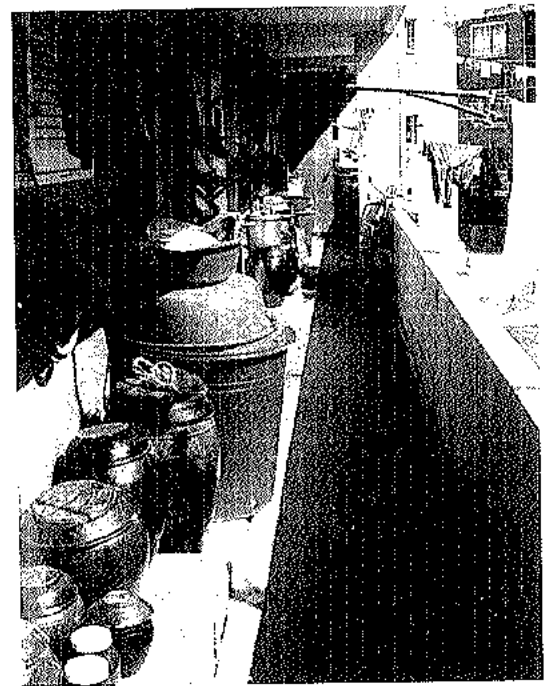
⑧ 복도에 내다놓은 살림살이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의 物的環境(physical Environment)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文化와 그들의 生活樣式을 이해한다는 것은 주거공간을 계획하는 설계자의 기본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집합주거의 단위주호 계획은 어제, 현재의 불특정다수를 겨냥한 표준형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할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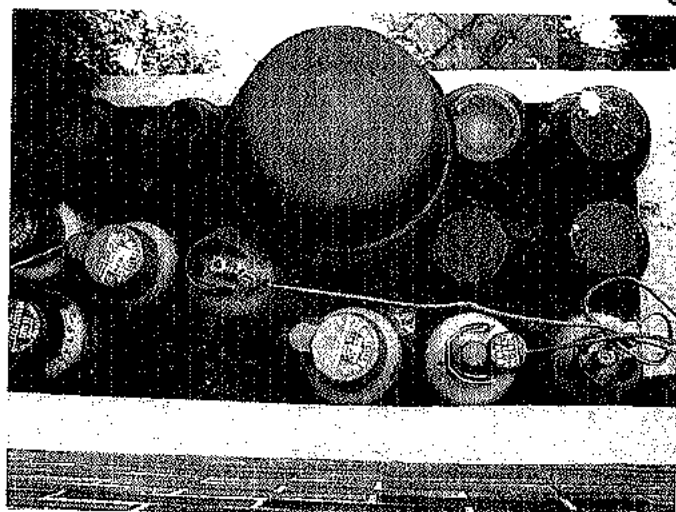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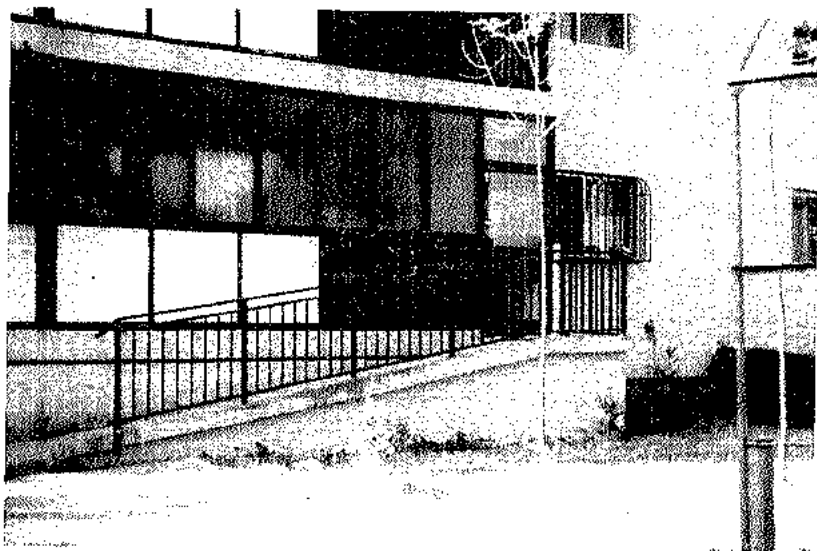


8

때이다. 住民들은 주로 계층적, 지역적, 집단별로 나름의 방식대로 생활양식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융통성의 문제도 이러한 生活樣式과 住居空間과의 대응관계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가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한다.

다양한 주거생활 유형에 따라 주민 스스로가 변용을 통한 개별성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두는 등, 궁극적으로는 대상을 명확히 하여 대상주민의 부분문화에 맞는 적합형 계획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혹자는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토지효율상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 할지 모르나 실제 거주할 사용자의 삶을 도외시킨 채 표준화한 단위주호를 복제하는 식으로 획일적으로 건립할 때 보급률은 높아질지 모르나 대상주민들은 살 수 없는



경우가 되거나 슬럼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최근 고층으로 지어지고 있는 소형의 임대아파트의 경우 여러가지면에서 우려되는 바 크다. 평균 3,4명의 자녀수도 그렇고 세대주의 연령이 40대로 장성한 자녀로 구성되어 있어, 생활양식상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고층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와 함께 한국의 수직적 슬럼(Vertical Slum)의 시원이 될 공산이 크다.

다행히 최근의 국민주택의 아파트단지는 현상설계를 통하여 보다 나은 계획안으로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주어지는 세대수, 용적률 등의 설계조건이나 설계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본적인 실효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장차 주거 자체가 경제적인 투기대상으로의 인식에서 벗어나고, 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 안정기로 접어들 때를 대비하여, 단지의 극대화와 표준형 단위공간의 획일적인 보급, 그리고 고층으로의 일색은 지양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테면, 동일한 평수라 할지라도 획일적으로 표준화 할 것이 아니라 지역적, 계층적 집단의 생활양식적 패턴이라 할 수 있는 부분문화(subculture)를 바탕으로 하여 도시 고밀도형 주거와 무주택 수급을 위한 단지형 주거

- ① 발코니 출입이 가능하도록 새로 설치한 경사로
- ② 발코니를 공부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 ③ 현관 캐노피 위에 보관중인 물건
- ④ 거실을 안방으로 꾸며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등의 계획적 접근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住居 자체도 이제는 어디에, 얼마만큼, 어떤 유형의 주거가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하는 사용대상을 보다 명확히 한 계획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人間中心의 集合住居團地 開發方向

The Search for Developing a People-Mattered
Housing Complex

李熙奉 / 중앙대 교수 건축학박사, 건설대학장
by Lee, Hee-Bong

한국적 현실에서 “몇 백만호 건설”의 구호에서 보듯 물량이 채워 넣는 것이 문제이지, 주거단지의 “質”은 잠꼬대같은 소리로 들린다. 지금도 열기를 띤 분야 당첨 전쟁에서 청약자는 오로지 몇평형인가가, 더 나아가면 모델하우스 내부마감에 고급스런 재료를 얼마나 썼느냐가 우선 관심사이자, 단지가 어떻게 꾸며지는지는 관심밖이다. 주민 생활의 질은 분양 팜프렛의 선전이나 화려하게 나오지, 실제 우선순위는 뒷전에 처지게 된다.

1. 序

산업화에 따라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밀집하면서, 대규모로 모여사는 생활이 익숙하게 되었다. 그간 수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규모가 점차 커져 신도시 규모로도 수없이 계획되어 건설되고 있으나, 과연 사업성이나 자산투자 목적에 우선하여 입주민이 살기 좋게 계획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그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를 몇가지 방향에서 짚어보면, 우선 한국적 현실에서 “몇 백만호 건설”의 구호에서 보듯 물량이 채워 넣는 것이 문제이지, 주거단지의 “質”은 잠꼬대같은 소리로 들린다. 지금도 열기를 띤 분야 당첨 전쟁에서 청약자는 오로지 몇평형인가가, 더 나아가면 모델하우스 내부마감에 고급스런 재료를 얼마나 썼느냐가 우선 관심사이자, 단지가 어떻게 꾸며지는지는 관심밖이다. 주민 생활의 질은 분양 팜프렛의 선전이나 화려하게 나오지, 실제 우선순위는 뒷전에 처지게 된다.

둘째로 계획하고 설계하는 기법이 대체로 서구의 방법을 도입해왔다. 건축, 도시 단지 계획책이나

자료집성책을 보면 서양(혹은 일본)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고 있다. 실제 입안자들 역시 외국 교육시 습득 지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양의 근대건축 소위 국제주의식 신도시가 특히 제3세계에 이식될 때 주민의 생활문화 차이로 인하여 실패로 끝남을 인도의 산디가르, 남미의 브라질리아에서 잘 알려져 있다. 또 같은 나라 안에서도 부분문화의 차이(이를테면 미국내의 흑인 저소득층 문화에 백인중산층 설계개념이 맞지 않아 아파트가 폭파 해체된다든지, 불란서의 농촌지역에 심어준 박스형 연립주택이 30년이 지나서 원설계형태는 간 곳 없게 된다.)에 따라 맞지 않게 된다. 고추장 김치먹는 한국인에게도 과연 그들의 주거 평면이나 단지계획이 맞는지 검토치 않고 무작정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셋째로 지어지는 물량의 규모나 중요성에 비추어 대규모 집합주거는 건축가가 별로 참여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적은 편이었다. 그동안 주택공사가 주축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근래에 들어서 개발업자들이 자체 설계로 짓고 있다. 모든 건물은 그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에게 편하게 하자는 것이 철칙이나, 천민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최대 이윤추구는 주민 복리의 후퇴를 가져오게 되고, 전문인으로서 건축가나 도시설계자가 양심적인 판단을 할 여지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넷째 단지 규모가 작은(몇 백세대 정도)곳은 짐작이 가능하나 대단위 단지나 신도시가 되었을 때, 단순히 잠자는 곳의 집합이 아니라 모여사는 각종 활동이 복잡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예측이 쉽지 않다. 또 건축가의 작업 속성상 단일 대지에 건물을 지어 왔으므로, 대지 밖의 세계, 즉 도시에는 취약한 경향이 있다. 도시라는 소우주를 설계하는 것이 도상에 금을 죽죽 긋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근래에 용감하게 긋는 사람도 많지만)

인간중심의 인간이 회복되는 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자는 기존 지어진 단지를 가 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 제안을 하려고 한다. “체계적”으로 가보는 방법을 “현장연구”(Field Study)라 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 “現場研究”란?

흔하게 된 건축 잡지에서 “비평”이라 하여 보기 좋은 건물 외부 내부 사진을 곁들여 형태언어가 이뽕고 공간이 흐르고 등등, 잘 설계되었다는 글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을 근거로 하여 그 건물이 잘되었다는 얘기인지 단지 “사진 발을 잘 받는다”는 것 외에 삶을 담은 그릇으로 과연 “삶을 잘 담고 있는 지?”를 어떻게 알수 있는가? 앞서 언급한 근대건축의 실패에서 보듯, 보기에만 좋은 “빛 좋은 개살구식 비평”은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할 것이다.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건물용도가 24시간 숨쉬고 사는 집합주거라면 주민이 정말로 살기에 좋은가가 무엇보다 우선하여 비평의 관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명이 발전한다는 것은 잘된 것으로부터 배우지만, 실패로부터 배워서 교훈을 얻어 실패를 피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다. 설계가 발달하려면 의도한 것(설계)과 지어져 사용되는 것(입주 생활)과 비교하여 과연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가 파악되어 다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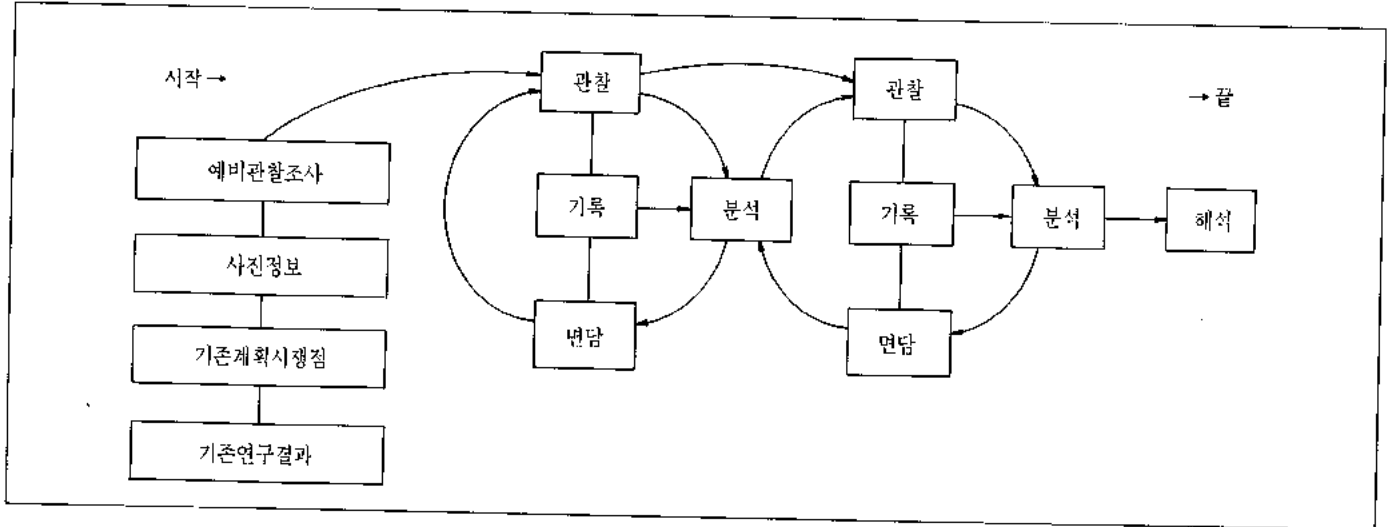
건축계에서는 소위 거주후 평가(Post-Occupancy Evaluation)라 이름하여 각종 기법이 소개되고 있으나 필자는 그 명칭부터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건축평가는 입주후 생활이 어느정도 자리잡은 시점에서 잘 설계되었는가가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축에서 “거주전 평가”란 단순히 조각 미술에 관심있는 사람만 할 것이고, 건축평가는 반드시 “삶과

이는 현 시점에서 배부른 자의 행복한 고민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복지 사회의 첫걸음이다. 언젠가 지금 상태의 고층 고밀 인공도시의 역사의 쓰레기장화 할지도 모른다.

연구결과 중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고교학군문제(예, 과천: “저학년 일대만 살만한 도시”)와 교통문제(출퇴근 및 단지순환 교통)와 도시계획, 또는 설계의 실행과 정상의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운영상의 문제는 건축가의 범위를 넘어가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1) 주변 자연환경의 民俗地理 파악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아무리 내부에



[그림 1] 현장연구의 과정도

건축물”과의 관계를 평가해야 한다. —모든 평가는 거주 후 평가이다.

평가의 방법은 양케이트를 돌려서 수치 분석을 하는 통계적 방법이 있으나, 그것은 피상적이라 문제를 꼬집어내어 다음 설계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필자는 문화인류학에 연원을 둔 현장연구 방법을 택하여 아파트 단지라는 “물적환경”속에서 주민의 “삶”이 바람직하게 이루어 지는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현장연구”는 현장에 가 본다고 현장연구가 아니다. 표본을 추출하여 만족도를 설문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추출하여 그 정도를 파악하여 원인을 해석하고 그것을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을 가려내어 반영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주 방법은 선입관없이 현장에 들어가 참여관찰을 하고 반복되는 개방형 질문의 면담을 통하여 주제를 파악해 나간다.

3. 現場研究를 통한 人間中心 團地 開發 方向

그동안 연구한 과천, 목동, 상계의 대규모단지(연구기간 89.7~90.4), 공업단지를 배경으로 한 울산의 아파트 단지(87.1~88.2)를 통하여, 자료를 분석, 해석하여 경향을 발견하고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인간적인 단지”,

공원을 갖는다고 해도 콘크리트 건물군과 아스팔트로 덮이게 된다. 주민들은 단지에서 벗어나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단지 애착의 중요 원천이 된다. “공기 좋고 물(지하수)좋음(과천)”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산책코스, 등산로를 이용하며 보임도 갖는다. (과천, 상계)개발계획시 보통 계획가가 책상위 지도상에서 거시적으로 파악하여 일방적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에게 익숙한 “民俗地理(Folk Geography)”를 파악하여(주민면담과 관찰에 의하지 않고 파악하는 길은 없음) 약간의 휴식, 체육시설을 부가하여 주민 커다란 자산으로 활용되게 된다.

남시터, 숲, 공동, 샘물, 계곡 등은 좋은 단지가 독특한 개성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 일례로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윗계곡에서 나오는 샘물 주변에 자연 발생적인 빨래터가 형성됨을 볼 수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파악했다면 빨래터를 설계해 줄 수가 있었을 것이다.

2) 취침도시에서 住民文化도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소요세대를 수용하기만 하는 취침전용에 머물러 있다. 원자화된 개개 주민은 때로 군중속에 숨어든 익명성을 즐기기도 하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없음을 아쉬워하기도 한다. 과천의 면담중 “앞집과 7년이나

마주보며 사는데 (같은계단)서로 인사만 하는 사이"임을 아쉬워하고 "전에 강북살때 셋집끼리 모여 친하게 교류"하던 적과 비교하기도 한다. 시 공무원 역시 "잠만 자고가는 도시로서 애항심 부족하고 인정머리없고 상호 신뢰 부족한 것"을 애로사항으로 꼽는다. 주민들에 잠재해 있는 만남과 모임을 원활히 살려줄 때, 대규모 비인간화된 도시를 살맛나는 도시로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된다.

신설된 단지 모두 만남, 모임의 시설이 없거나 극히 빈약하다. 과천은 현재 문화 활동과 휴식 체육시설이 거의 없으며, 목동은 청소년 회관이 일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계는 거의 없는 편이다. 계획원안에는 들어있을지도 모르지만, 현황을 분석하면, "주거의 수용"이 우선이지 "생활의 질"은 뒤로 쳐져 중발된 상태이다.

입주민들은 주거가 안정되면서 점차 자기개발과 문화활동 시설을 찾게 된다. 주부, 아동들의 취미, 교양활동의 욕구에 맞는 공공교육 및 전시공간, 학생, 주민들의 공연공간이 아예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다. 휴식을 위한 공공 공원, 주민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등도 주민 요구에 합당치 않게 법규기준에 따라 형식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가장 필요한 "집앞 산보"용 공원이 점차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체육시설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테니스 코트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건설에 관한 기준에 따라 형식적으로 설치하기만 해서, 주말의 집중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태부족이다. 또 사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수영장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아주 높다. 인구 5만 이상이면 당연히 주민을 위한 각종 경기용 공설 운동장이 필요하나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모든 것은 일차 계획시 시설을 고려해 주어야 할 것이고, 이차 이 시설물의 건설을 누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명시해야 할 것이며, 끝으로 도시를 운영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만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3) 近隣住區 개념의 적용과 한계

대규모 주거단지를 설계할 때 전체단지를 몇개 단지로 나누고, 단지를 다시 보행거리와 주호수에 따라 다시 몇개의 작은 덩어리로 보는 近隣住區-近隣分區-隣步區의 개념이 도시계획계의 骨幹으로 작용하고 있고 3개 단지도 그에 따라 계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920년대 이후 서양의 C.Perry 등에 의해 주창되어 통용되고 있다. 3개 단지의 학교계획도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위계도 거리와 주호수에 맞추어 또 상업시설도 구멍가게형 슈퍼-복합상가-대형슈퍼-백화점 및 쇼핑센터의 위계로 공원계획도 소공원-대공원, 놀이터도 마찬가지로 계획 설계되고 있다. 작은 것은 작은 단위에 하나씩, 큰 것은 몇개 단위를 묶은 큰 단위에 하나, 큰 것은 몇개 단위를 묶은 큰 단위에 하나씩 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본 조사를 통하여 보면, 원래 근린주구 개념이 잘 들어맞게 되어있는 국민학교에서조차 급식여부, 우수중학 진학기회, 계층갈등 회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설정된 구획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인구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접 학교까지의 통학반경이 줄어든 것도 한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상계나 과천에서 보듯 구매행위도 가격, 특정품목, 서비스종류에 따라 주민들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근린주구내, 전체 단지중심, 또는 단지 밖과의 경계를 수시로 넘나든다. 집앞 가장 가까운 구멍가게는 활용되나 그외는 자유경쟁에 맡겨지므로, 근린주구 개념에 따른 위치적 배열은 실제상 허구에 그치는 공론일 뿐이다.



[사진 1]
과천 굴다리시장 전경

근린공원 또한 상계, 목동 마찬가지로, 근린주구 개념에 따라 몇개 소단지에 1개씩 공유 배당된 공원은 사실상 그 속한 단지만의 전유물이 되지, 인근 할당된 단지에서는 공원의 존재여부도 모르고 가게 되지도 않는다. 결국 “저녁먹고 술술 산보나가는”집가까이 공원이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공원이 된다. 신도시 계획도상에 그럴듯한, 주변 자연환경과 중복되는 또하나의 중앙대공원은 각단지로 면적을 분배해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보다 긴요하게 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실정에 뿌리박 둔 근린주구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서양이론은 이제 그만 배제하고 우선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4) 新都市에 舊市場의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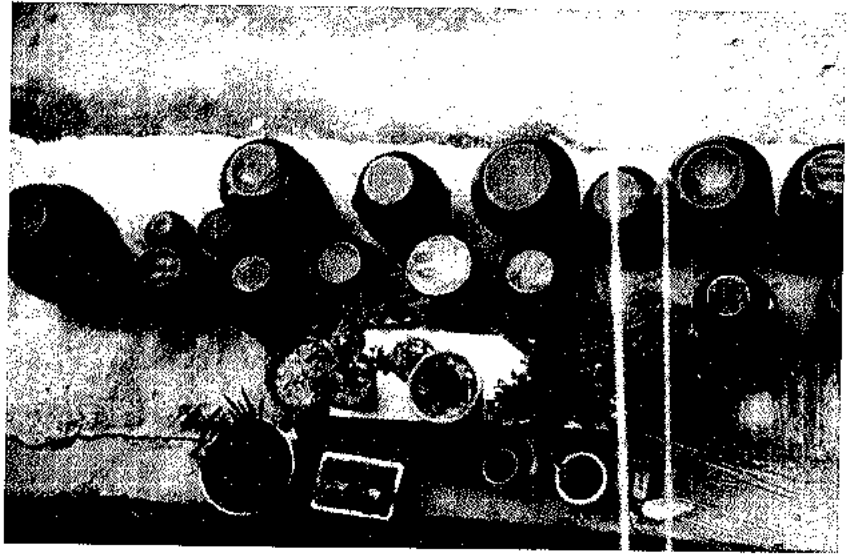
신단지 계획시 구매시설은 모두 슈퍼마켓, 복합상가, 쇼핑센터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재래식 시장으로는 설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보통 주민들은 살벌한 대규모 콘크리트 아파트 숲에서, 슈퍼마켓 구매방식, 즉 필요한 것을 기능적으로 구입하는, 규격화되고, 차갑고, 비인간적, 대물적 관계보다는, 이웃을 서로 만나고, 흥정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하는 인정미넘치고 푸근한 단골거래방식의 “市場文化”를 원하고 있다. 또 이러한 시장은 심리적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야채, 과일, 생선 등을 싱싱하게, 원하는 날개의 분량만큼, 외상으로도 살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목동, 상계지역은 기존 구시가지의 시장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교통은 불편하더라도)과천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자연발생형“굴다리 시장”을 갖게 되었다. 미관상과 위생상의 이점하에 수차레에 걸친 인접동의 실행행사와 시장국의 철거기에도 살아남아 잠정 허용되고 있다. 이는 상인들이 미관, 위생, 질서를 위해 약간의 자체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보행거리상 가까운 10분 이내 거리의 주민이 주로 이용). (사진1)

신도시, 신단지가 서구기법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실제 사는 주민은 평범한 한국사람이다. 일부 서구화를 지향하는 집단이나 계층에는 슈퍼마켓-백화점 방식으로만 설계해주어도

무방하겠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인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에는 반드시 “시장터”를 마련해 주고 장이 열릴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어떤 계획가가 슈퍼-백화점 문화를 발전이라 여기고 재래시장문화를 퇴보라 여겨 설계한다면, “주민이 소외되는 주거단지”로 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생활에 자연스러운 구시장을, 신단지에 과감하게 설치하는 결단이 계획가, 설계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사진 2] 동 앞 공동 장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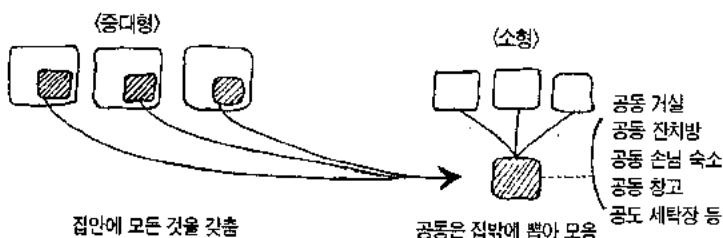
5) 집밖 외부로의 하용과 공용시설의 확장

소형 아파트단지인 경우 사적 물건이나 활동이 집 내부에 한정되지 않고, 내부 저장 공간의 부적합과 생활활동 자체의 외부지향성에 따라, 공적공간인 밖으로 밀려 나간다.

특히, 연탄난방 방식에 따른 보관 장소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집내부, 계단참, 복도 건물외부등 여러곳이 저장공간화되며, 또한 한국인의 식생활상 근본적인 김장과 장종류의 저장공간을 고려하지 않아, 동 앞 화단(김치독 문음), 현관 캐노피 상부가 (김치독 또는 장독)저장공간화 하는데, 한 아파트에서는 1층 현관 앞에 여러 세대의 공용 장독공간을 만들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사진 2). 설계자의 김장, 장독저장방식의 미해결은 오히려 아파트 주거가 식생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다음, 일상 생활인 빨래의 건조방식을 해결해 주지 않음으로써 특히 소형아파트에서 심각하게 되는데, 베란다 앞에 빨래줄을 돌출시키거나, 한 아파트에서 고안한 것처럼 동과 동사이에 집집마다 도르래 줄을 매어 만국기 처럼 빨래를 걸어 해결하고 있다.(사진 3). 공공 공간을 점유하여 활동, 미관장해를 일으키고 있으나, 주민들은 “서로 비슷한 처지라서, 지저분해도 줍으므로, 이웃이니까 참고 지낸다”고 하는, 생활 실용성과 편리성에 만족하는 공동의 동류 가치를 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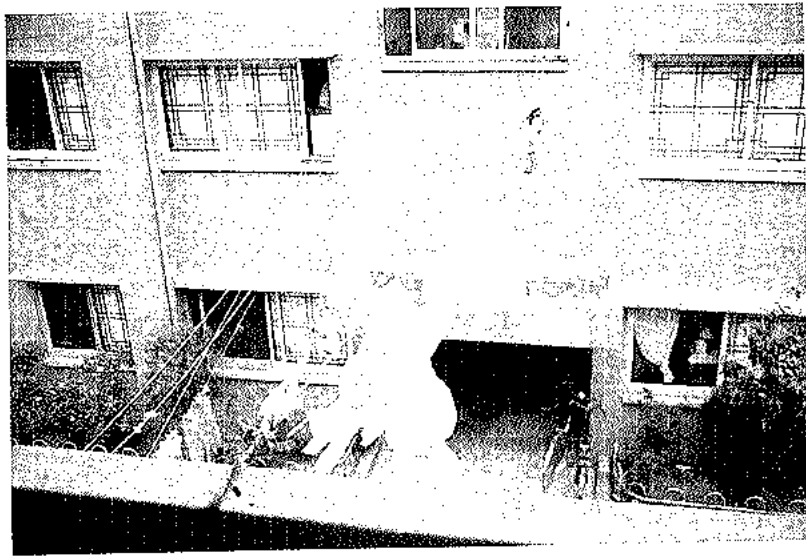
소형 아파트 단지에서 상식적으로 집안에 있어야 할 시설물, 사용물, 활동이 집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림 2] 소형아파트 공동시설 개념

것이, 원천적으로 설계의 잘못이나 불충실을
사용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 해결하려는 노력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히 공적 공간의 사적
점용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단속이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는 외부적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생활과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해하고 어느 정도의 허용이 따라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설계 개선방향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활동과 물건이 집중되는 동 내외부 연접공간, 특히
대문앞, 계단참, 현관입구, 캐노피 상부, 화단은 텅빈



[사진 3] 동간 빨래건조 방식

공간으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설계가
요망된다.

다음으로, 공동 주거란 공용시설을 가능하면 많게
해서 경제적, 사회적 잇점을 얻자는 것이라 생각되나
현재는 격벽구조의 단독주택의 단순한 모음에
불과하다. 중대형에서는 모든 시설을 집안에
갖추어야겠지만 소형에서는 가능한 공용시설을 집 밖
단지로 뺏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단칸방에 손님이
와서 머무르게 될 때 좁음이 심히 느껴지는 바 “공동
손님 방”을 각 동당 몇 개정도 설치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칸방이라도 뚝잔치나 집들이
같이 “손님 치를 때” 좁음이 심화되므로 20명 정도
들어가는 주방달린 “공동 잔칫방”을 마련 한다면,
지나쳤을 때, 반대방향으로 갈수 없다는 이유로
혼란이 수반된다. 현재 역방향으로 진입하거나
(모르고는 물론 알고도) 일방통행 도로를 쪼개어
양방향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대단지가 인간적이 되려면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이 되어야 하고, 건장한 청장년 중심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를 더 받는 노인, 어린이 중심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상재나 울산 단지에서 노인들이
단지내 터밭을 가꾸어 수확물을 나눠먹고, 성취감을
얻는 것도 인간성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고, 아파트
외부공간을 아스팔트길과 무의미한 잔디밭으로 덮는
것을 일부 상치, 오이를 가꾸는 밭으로 계획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된다.

어린이 놀이터도 주택건설촉진법규정에 의해 동

귀퉁이에 형식적으로 설치하거나 중앙집중형
놀이터를 만들것이 아니라, 상계에서와 같이
내다보고 소리질러 서로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대규모의 살벌한 물적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살아가는 기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를
가능하면 소규모로 축소하여 계획하고 인간체형
중심으로, 그 중 노약자 중심으로 계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4. 結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인간이 정말로 중심이 되는
“공동 빨래터”를 만들어 주고[염포에서 시행], “공동
김치방” “공동 장독대” [돌안에 설치] “공동
창고” [염포에 설치] 등을, “공동 옥의 거실”을 [현관
앞 평상에서 기능] 설치해 준다면 집안의 변천은
소형화되면서 공동생활은 풍요롭게 될 것이다. (그림
2).

3) 인간 체험중심의 규모로

인구 5만 이상이나 되는 대규모 신단지가 되면,
거대하고 획일적인 외부환경 속에서 인간은 체험상
왜소하게 느끼며 압도되게 된다. 또한 반복되는
物的環境 속에서 자기위치를 못찾게 되면 좌절감에
싸이게 된다.

목동 단지를 찾아가는 사람은 신기한 미로에
돌아간 것 같이 방향감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된다.
그 이유는 계획원안에서부터 잘못 설계된 허리부분이
차단되어 남북 단지가 분단되어 있는 것이 그
하나이고, 또 중심축 주변으로 일방통행식
순환교통방식이 그 원인이다. 차량의 일방통행식
도로는 얼핏 고속이동이 가능하여 기능적으로
보이지만, 통상 인간체형과 반대된다. 가려는 지점을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物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수량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형태미나 자본중심에서
생활의 의미 중심으로, 서구화된 이상 중심에서
한국적 현실 중심으로.

■ 더 관심있는 분들에게 참고될 필자의 글

- 이회봉, “우리네 생활양식과 서내의 주거형태 : 형실에서 출발한
주거설계를 향하여” 『주택』 47호, 대한주택공사, 1986. 6
——, “거주자의 실생활에 맞는 소형 집합주거
설계”, 『건축문화』 1989. 6
——, “주민중심의 신도시 개발을 위한 현장연구-
과천, 목동, 상계를 대상으로”,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1. 2.
——, “인간회복의 도시설계를 위한 부분문화 이론과
방법”,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88. 3
이회봉, 이규성, 우동주, “한국인의 생활양식에 맞는 주거형태
설계를 위한 현장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1. 4

집합주택계획과 주거밀도

Architectural Planning of the Density of the Multiple Housing

朴勇煥 / 한양대학교 교수
by Park, Yong-Hwan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의 대도시 집중과 地價의 상승으로 고층화, 고밀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고층화는 단독주택과 달리, 고밀을 전제로 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건강한 住環境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정 밀도 아래서 보다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고 일조와 녹지가 풍부한 양호한 옥외의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고층화, 고밀화 경향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1. 주거환경과 밀도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의 대도시 집중과 地價의 상승으로 고층화, 고밀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고층화는 단독주택과 달리, 고밀을 전제로 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건강한 住環境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정 밀도 아래서 보다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고 일조와 녹지가 풍부한 양호한 옥외의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고층화, 고밀화 경향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고층고밀화에 있어서 종래에는 동지 4시간의 일조조건이 계획·주거밀도의 종합적인 지표로서 계획상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어, 초기의 집합주택계획에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인동간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택공급을 위한 각종 법규의 변경으로 인한 인동거리의 축소조정으로 초기의 개념은 점차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변질되어 사실상 “주거환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기존개념에 의한 각 밀도지표기준이 세분되어 있어도 문제만 야기될 뿐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여지므로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밀도지표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집합주택계획에서 밀도지표는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기본전제가 되며, 주거단지 환경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2. 밀도지표와 공간특성

집합주택계획 및 설계의 조건은 제반 도시계획적인 측면, 생활수준의 설정, 계획대상대지의 地價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밀도지, 공간의 특성 그리고 거주성에 관한 일반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집합주택 단지의 기본적 공간구성은 밀도지표에 의해 규정되는 단지의 기본적인 구상 특히 공간구성에 있어서 밀도지표는 구체적으로 호수밀도, 용적률, 건폐율, 평균층수, 戶外空間率, 호당 바닥면적, 호당 옥외면적, 空隙係數, 벽면계수, 前面係數 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 지표들은 그 산출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종래 사용되어 오던 지표이외에 벽면계수, 전면계수, 공극계수에 관한 지표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 공극계수는 주동의 외벽면 길이에 대한 공극(空地)면적의 비율이며, 주동간의 공지의 상태 또는 옥외공간의 粒度를 지표화한 것이다.

벽면계수는 주동의 외벽면 길이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며, 주동 또는 주호의 外氣에 면하는 비율을 지표화한 것이다. 전면계수는 벽면계수에 대한 호당 바닥면적의 비율로서, 주동에서 주호의 외기에 면한 정도를 지표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긴 板狀의 주동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를 가정하면 공극계수는 주동간의 거리, 벽면계수는 주동의 길이를 나타내게 된다. 즉, ‘벽면계수’와 ‘전면계수’는 주동의 외기에 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각각 ‘주동의 길이’와 ‘주호의 전면폭’을 나타내며, 공극계수는 隣棟間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밀도지표치를 11개로 구분하고 그 관계를 나타낸 그림1을 보면 실선은 각 밀도지표간에 정량적인 관계가 있으며, 점선은 설계기법을 매개로 한 정성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량적인 관계가 있는 밀도지표간의 상호관계를 보면, 호수밀도=용적률/호당바닥 면적이며, 용적률=건폐율×평균층수=공극률×호외공간율, 호외공간율=호당옥외면적/호당바닥면적, 전면계수=호당바닥면적/벽면계수, 건폐율/공극률=벽면계수/공극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집합주택의 옥내공간과 옥외공간의 특성을 규정하는 공간특성항목은 적층형식 옥내공간기능, 주호개방특성, 옥외공간기능, 옥외공간특성과 같은 5개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각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밀도와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공간특성은 계획 및 설계시 각각의 관련된 밀도지표에 의한 규정을 받게 되는 것으로 각각의

밀도지표의 적용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이들 공간특성은 우선으로 연결된 각 밀도지표치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아래표에 부가적인 설명이 있다.

3. 우리나라 집합주택단지 및 밀도현황

1962년 대한주택공사에 의해 우리나라의 집합주택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마포아파트가 건설됨으로써 아파트가 주거유형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는 서구의 아파트를 모방한 것이었으며, 60년대 후반까지 이화동 아파트, 한강 공무원아파트, 세운·낙원 상가아파트, 시민아파트 등이 건설되었고, 대한주택공사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6층이하 중층아파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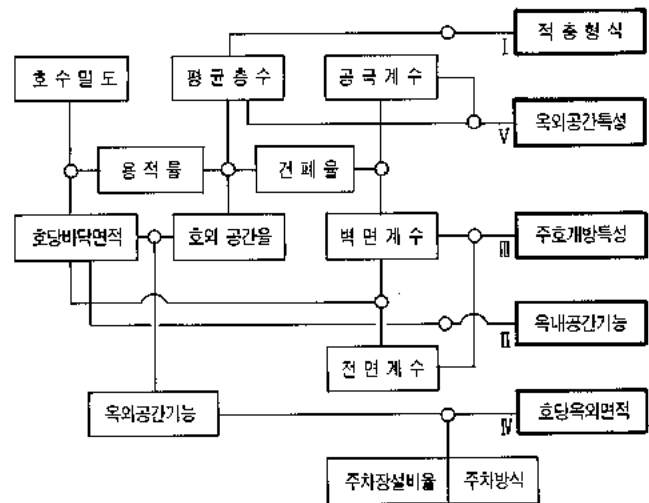
1970년대에는 강북을 중심으로 건설되었던 아파트 단지가 반포, 잠실, 압구정 등 강남을 중심으로 건설되었고, 여의도 시범아파트, 잠실 고층아파트, 둔촌아파트, 위커했아파트 등을 제외하면 중층아파트단지 중심으로 획일적인 남향배치로 대한주택공사가 주도해 왔다. 이때 최초의 공공 고층아파트 단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12층)가 건설되었고 잠실 고층아파트가 타워형과 판상형으로 건설되고 단지규모도 대규모화 되었으며, 70년대 중반에는 민간업체가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주택단지의 건설이 도시근교로 확산되어 대규모의 신도시가 개발되었고, 저가양동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택공급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15층 정도의 고층주택 위주의 단지건설이 이루어졌으며, 20~25층 정도의 초고층아파트들의 건설과 빌라의 건설, 주문식 주택의 시도 등 공동주택의 대량생산 함께 평면유형 및 단지개발이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1989년에는 법규에 16층이상의 초고층아파트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고, 고층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隣棟거리의 완화와 용적률의 완화로 20층 정도의 단지가 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신도시설계지침에서 초고층아파트 건설을 유도함으로써 분당을 비롯한 신도시는 20~30층의 건설이 촉진되어 주거환경 측면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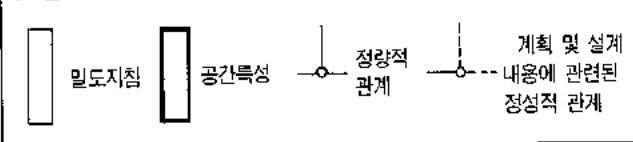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 집합주택 단지에 대해서 주택형식별로 호수밀도와 공극계수, 벽면계수²⁾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 3참조).

년도별로 주동높이에 따른 호수밀도 변화를 보면, 중층단지의 경우 공공주택단지 중심으로 1960년대 초 마포아파트에서 시작하여 1985년까지 건설되다가, 88년에 2-3개 단지가 건설되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볼 수 없고, 호수밀도는 150호/ha 전후가 대부분이며 도곡1단지와 상계5단지 250호/ha에 위치하고 있다.

중고층혼합단지는 대개 5층, 9층 12층, 15층 또는 5층, 15층의 혼합으로 구성된 대규모 단지로 1979년 둔촌 주공단지가 건설되었으나 1985-88년 사이에 몇사례가 건설되었으며 건설된 단지수는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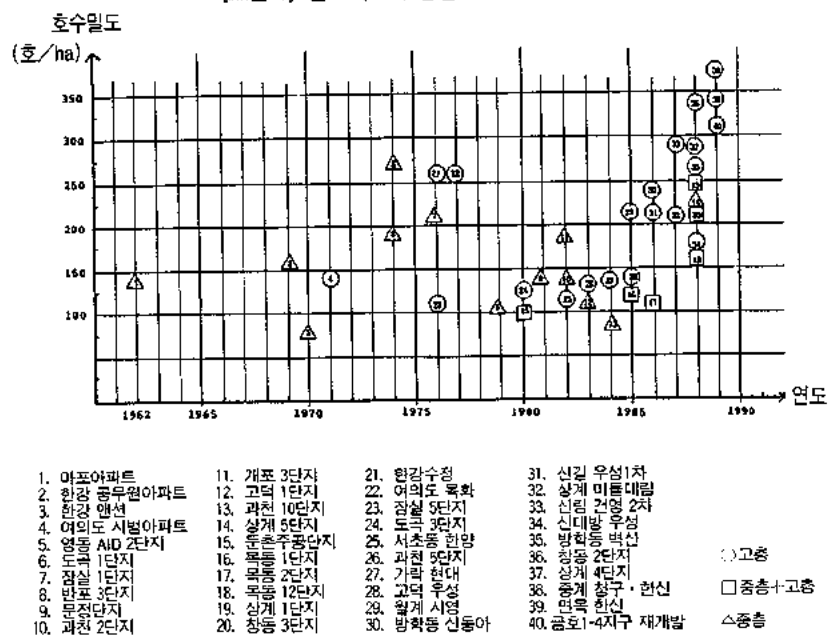


(※ 범례)



공간특성	I. 적층형식	주동의 높이
	II. 실내공간기능	주호의 평면형
	III. 주호개방기능	주동형태, 전면폭과 깊이의 관계
	IV. 옥외공간기능	옥외공간의 내용(녹지·광장, 도로·주차장, 복합), 옥외공간넓이와 주차방식(공극계수와 주차장설치율)
	V. 옥외공간특성	주동주변의 외부공간의 형태(주동배치형식, 인동간격과 층수)

[그림 1] 밀도지표와 공간특성 항목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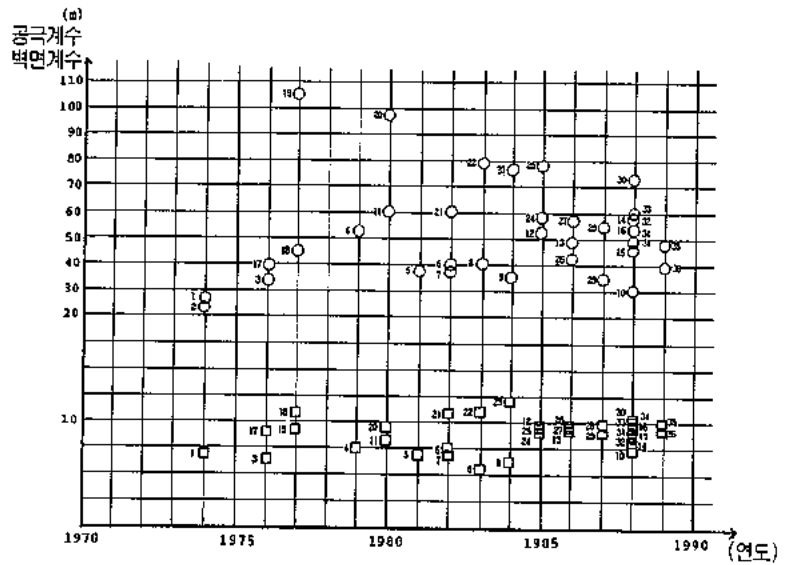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주동 높이에 따른 호수밀도

최근에 올수록 호수밀도는 110호/ha에서 200호/ha 전후로 증가되어 고밀화됨을 알 수 있다.

고층단지는 1976년 잠실 5단지, 여의도 한강 수정아파트의 건설을 시작으로 1985년 이후는 대부분 고층아파트만 건설되게 되는데 호수밀도는 공공과 민간의 차이는 볼 수 없고 85년 이후 호수밀도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200호/ha이상의 것이 대부분이며, 중계 청구·한신아파트는 300호/ha의 고밀도인 예(36, 38, 39, 40)도 있다. 이는 최근의 1985년 10월 용적률 완화(서울시: 180%→250%)와 건폐율 완화(아파트지구규정 20%→25%)에 따른 고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극계수와 벽면계수의 관계를 보면 벽면계수는 5~12m로 변화가 없는 반면, 공극계수는 잠실 5단지와 도곡 3단지의 경우를 제외하면 1974년부터 증가하다가 1985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985년 이전에는 공극계수가 적은 중층사례(1~10)와 1970년대의 고층사례를 제외하면 최근이 될수록 감소되는 경향이다. 이는 1985년 10월 이후 인동거리의 완화(서울시: 1.25H→1H)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 | | | | |
|------------|-------------|--------------|----------------|
| 1. 영동 1단지 | 10. 상계 5단지 | 19. 잠실 5단지 | 28. 상계 마들대빌 |
| 2. 연동 1단지 | 11. 둔촌 주공단지 | 20. 도곡 3단지 | 29. 신일 건영 2차 |
| 3. 잠실 1단지 | 12. 화곡 1단지 | 21. 서초 한양 | 30. 신대방 우성 |
| 4. 반포 3단지 | 13. 목동 2단지 | 22. 과천 현대 | 31. 망원 벽신 |
| 5. 둔촌 2단지 | 14. 목동 1단지 | 23. 가락 우성 | 32. 창동 2단지 |
| 6. 과천 2단지 | 15. 상계 1단지 | 24. 고덕 우성 | 33. 상계 4단지 |
| 7. 개포 3단지 | 16. 창동 3단지 | 25. 필계 시영 | 34. 중계 청구·한신 |
| 8. 고덕 1단지 | 17. 한강수정 | 26. 방학동 신동아 | 35. 여의도 한신 |
| 9. 과천 10단지 | 18. 여의도 동화 | 27. 신길 우성 1차 | 36. 금화-4지구 재개발 |

[그림 3] 연도별 주거단지의 밀도지표 현황(공극계수, 벽면계수)

4.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거단지에 대한 주거밀도의 비교

밀도와 관련하여 일본과 우리나라의 단지를 개괄적으로 비교해 보면, 부분적으로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사회적·역사적 배경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집합주택 설계가 전개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최근 10년간(한국 1988, 일본은 1989까지 사례)에 건설된 일본의 동경, 오오사카의 단지, 우리나라 수도권에 위치한 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주거밀도, 옥외공간의 형상 및 공간의 기능, 주호의 개방성에 관한 특징등을 비교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층수별로 용적률과 건폐율의 관계를 살펴보자. 주동높이와 용적률의 관계를 보면, 일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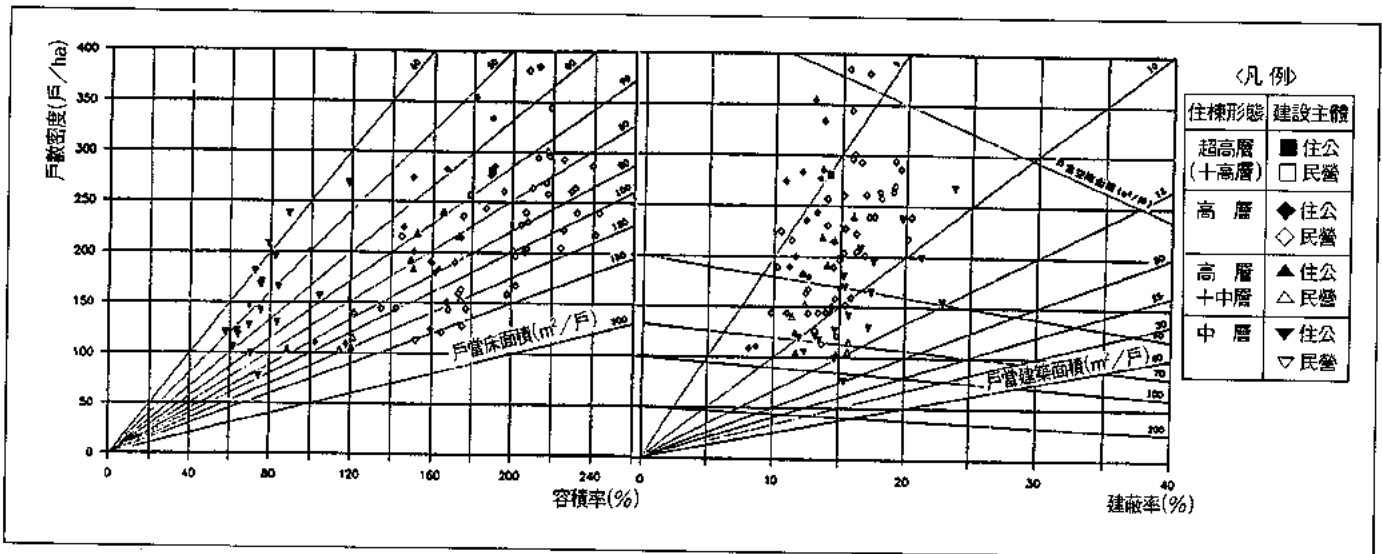
초고층단지는 1980년 이전에 건설된 사례는 용적률 250% 이하이며, 戶數密度도 비교적 낮으나 1985년 이후에 건설된 도심형 민간아파트의 경우는 용적률 300%, 고층인 경우 용적률은 국내 아파트단지의 대부분이 170~230%로 분포범위가 좁은 반면, 일본의 단지는 150~300%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중층인 경우도 용적률은 주공아파트만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60~100%에 분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40~160%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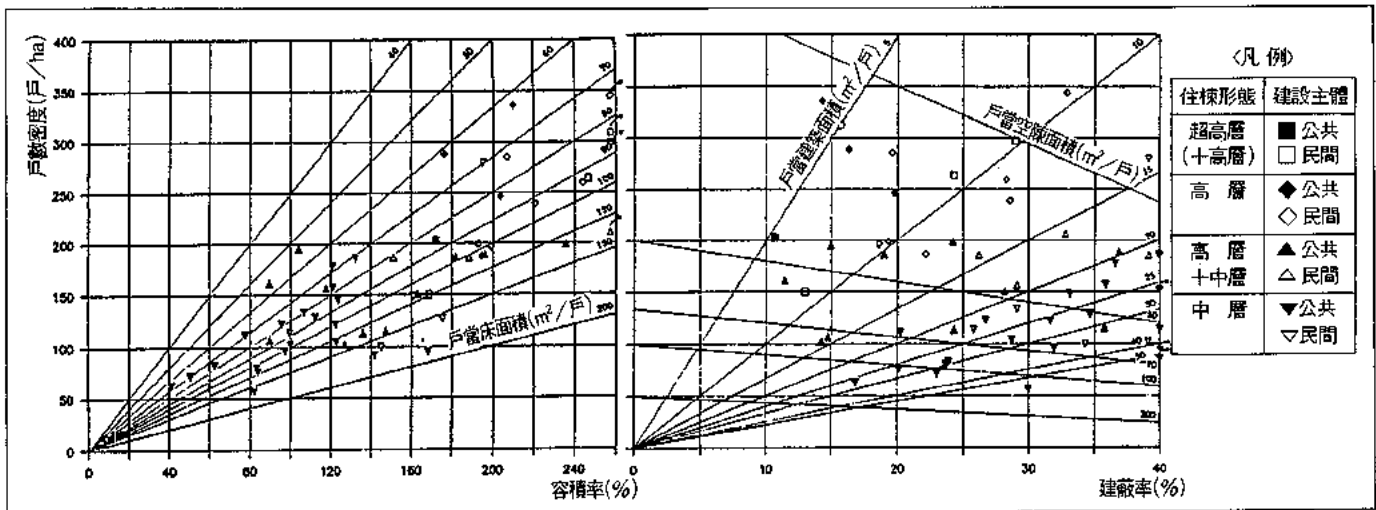
여기서 한국의 경우 용적률의 분포는 인동거리 규제의 변경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건폐율의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0~20%에 집중되어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10~40%로 폭넓게 인정되는 배경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호당 바닥면적(주호면적)은 40~150㎡ 범위에 고르게 분포되는데 전반적으로, 중층에서 고층으로



[그림 4] 호수밀도와 건폐율, 용적률(한국 집합 주택단지의 사례)



[그림 5] 호수밀도와 건폐율, 용적률(일본 집합 주택단지의 사례)

갈수록 커지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60-160㎡ 범위에 분포하는 것은 유사하나 층수에 관계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층단지의 대부분이 면적은 적은 주공아파트이며 호당 바닥면적이 큰 사례는 민간주도의 고층으로 계획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민간과 공공의 구별없이 계획되어 호당 바닥면적과 주동이 높이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호수밀도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일본 모두 중층에서 고층으로 갈수록 높아지나 우리나라는 중층의 경우 100-200호/ha 고층의 경우 140-350호/ha임에 비해 일본은 중층 50-150호/ha, 고층 200-350호/ha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중층과 고층의 호수밀도가 상당부분 중복되나, 일본의 경우는 중층과 고층의 호수밀도가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나 일본 모두 집합주택 단지는 고밀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일본은 초고층, 고층주택의 고밀화와 더불어 중층주택의 고밀화도 볼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층주택단지의 건설은 거의 볼 수 없고 고층주택의 고밀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교외에서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가의 양등을 반영하여 고밀화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시대에 따라 법규가 고밀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는 점과 주거단지 개발일지가 도심에서 도시근교, 수도권 신도시로 진행되고 도심재개발 단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옥외공간형상은 주동의 배치방법과 공공계수, 평균층수 등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배치방법은 주동의 30°이내의 남향으로 배치하는 “南面型”과 “기타”로 분류했으며 “기타”는 클러스터배치 30°, 45°의 앵글배치, 그밖의 여러가지 복합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동의 배치방법은 주동의 환경조건때문에 양국 모두 남면형 배치가 선호되고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주동배치 방법은 남향위주의 단지배치계획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신도시설계에서 클러스터 배치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일본도 남면형 배치가 많지만 대지형상에 맞추어 주동을 절곡하거나 전면향을 변화시키는 배치설계기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중층 소규모단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최근 고밀화로 인하여 남면형 배치는 충분한 인동거리를 점차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동거리는 1979년 3월부터 서울시의 기준이 주동높이의 1.25배에서 1985년 10월부터 1배로 변화되었고, 1989년 11월부터 고층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6층이상의 남북방향이나 아닌 타워형의 경우 0.8배로 축소되어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동의 배치계획상 인동거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현저하다.

주동간 거리를 나타내는 공공계수와 층수의 전반적인 관계를 보면 일본의 경우 층수가 높을수록 공공계수가 현저하게 커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층수가 높아지면 공공계수가 커지기는 하지만 그 경향이 뚜렷하지 않다. 이것은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변경에 따라 인동거리가 축소조정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옥외공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옥외공간을 녹지·광장·도로·주차장으로 구분하고, 녹지·광장의 면적이 2/3이상인 것을 녹지·광장 중심, 도로·주차장이 2/3이상인 것을 도로·주차장 중심, 그 중간것을 복합으로 생각한다.

옥외공간 가운데 주차장이 큰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설치율(주호수에 대한 주차대수의 비율)과 호당 옥외면적을 살펴보면 호당 옥외면적은 우리나라는 22~86㎡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11~133㎡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가 우리나라 보다 단지설계의 배치기법이 더 다양함에 따른 것이라 생각된다.

호당 옥외면적과 주차장 설치율의 관계를 보면, 양국 모두 호당 옥외면적이 클수록 주차장 설치율도 높은 경향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가 옥외면적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더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옥외 주차방식으로 한 대당 주차면적을 20㎡로 하면 주차장 면적율(주차장 총면적이 옥외면적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20%에 근접하는 것이 많으며 이 수치가 주공과 민간의 경계범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당 옥외면적이 비교적 넓으나 주차장 설치율은 낮고, 옥외공간이 녹지나 광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1980년대 전반까지의 사례에 한정되어 있으며, 중층의 주공단지가 많다. 1980년대 후반에는 연면적당 주차장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고, 고층고밀도 계획의 필요성에 따라서 옥외공간에 대하여 주차장이 갖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민간의 경우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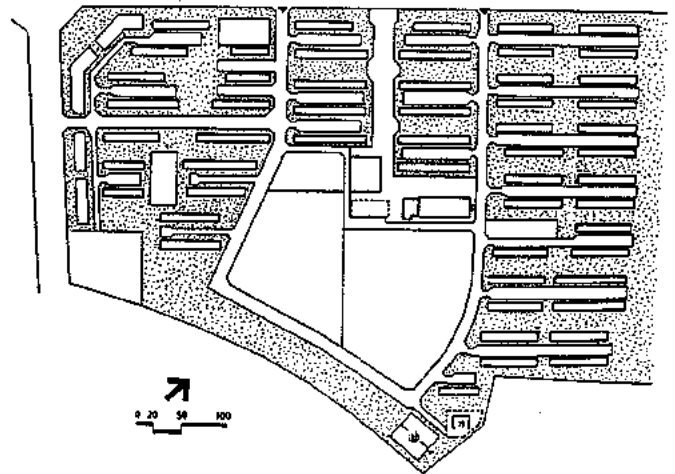
현재 단지설계조건상 주차장 확보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녹지나 광장과 같은 옥외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대지의 30%를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현행법규상 옥내 주차방식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일본은 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각 자치체의 지도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자의 판단에 따라 주차장 설치가 결정되지만, 주차장 설치가 분양 및 단지의 질적인 측면과 관계되므로 주차장설치율의 추세는 50%이상 확보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100%를 목표로 하는 방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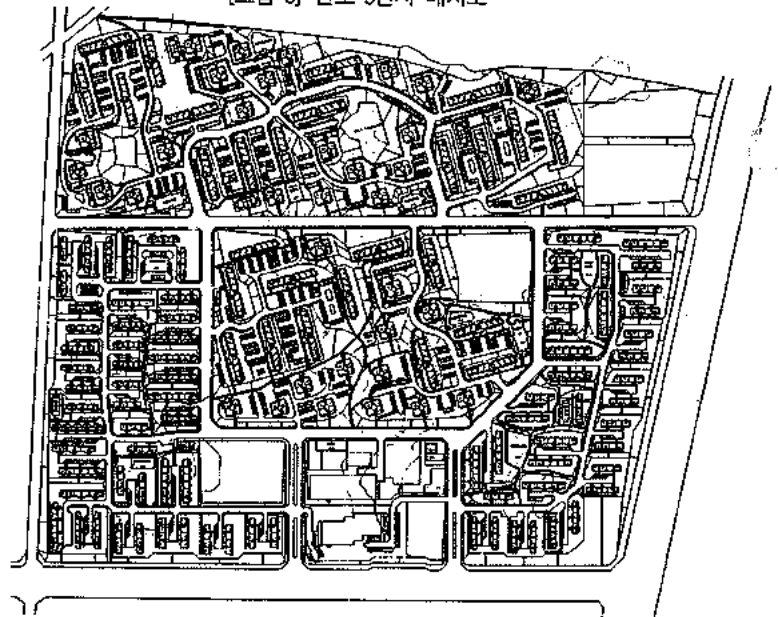
호당 바닥면적과 벽면계수의 관계로서 주호의 개방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벽면계수라는 지표는 板狀住棟인 경우 주동의 깊이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호당 바닥면적이 같을 때 벽면계수가 큰 것은 주호의 깊이가 크고 전면폭(Frontage)이 좁다는 것을 나타내며, 벽면계수가 같을 때 호당 바닥면적이 크면 주호 전면폭도 넓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용적률, 건폐율에서 나타나 있는 차이는 우리나라는 주거단지계획시 건폐율, 인동거리, 용적률 등의 법규규제를 받지만 일본은 원칙적으로 용적률만 규제를 받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나라는 최고 분양가의 규제가 계획 또는 시공상의 제한으로 작용하지만, 일본에서는 계획·시공상의 차이가 곧 분양가, 분양도로 의미한다. 또한 벽면계수가 작고 호당 바닥면적이 클 수록 주호가 外氣에 면하는 비율이 큰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항은 판상주동 이외의 주동형태에도 적용되지만, 단순한 수치 비교만으로는 주호의 개방성을 비교할 수 없으므로 주동형태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동형태는 중층, 고층 모두 판상주동이 기본이며, 고층인 경우 전면길이가 긴 주동이 많고 타워형은 적으며, 타워형인 경우 주호수가 4호인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경우도 板狀形이 기본이 되지만 다양한 주동형태가 나타나는데, 초고층에서는 1층 당 주호수가 많은 타워형, 고층에서는 Twin Corridor형도 있으며 이들은 현저하게 벽면 계수가 크다. 또한, 주동높이별로 호당 바닥면적과 벽면계수 관계를 보면 일본의 경우 벽면계수는 5~16m, 전면계수는 5~15m 사이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주호면적이 커짐에 따라서 벽면계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벽면계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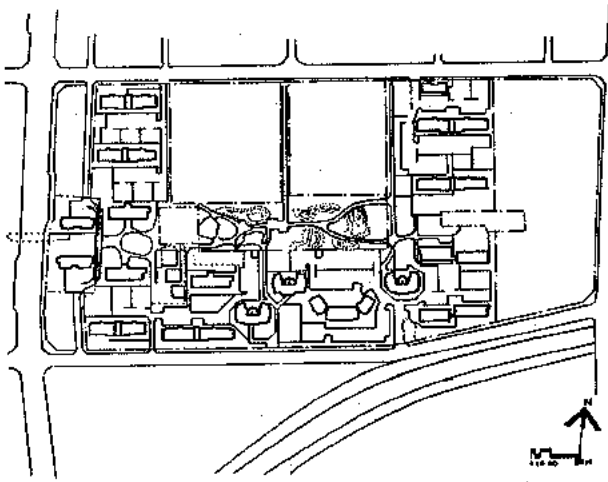
[그림 6] 반포 3단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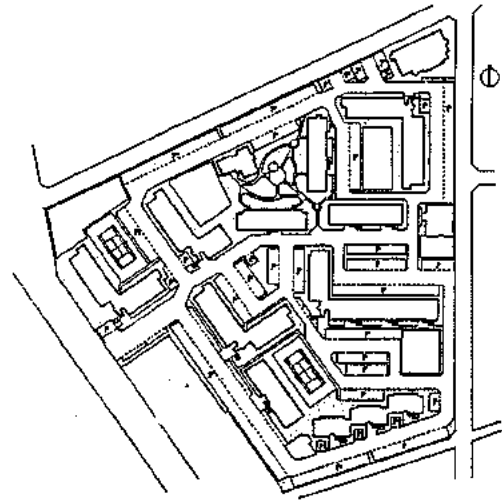
[그림 7] 둔촌 주공아파트 배치도

6~11m의 비교적 좁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전면계수는 6~13m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데, 일본과 달리 주호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면계수는 커지나 벽면계수는 거의 일정하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호면적이 커짐에 따라 주호길이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면폭을 넓게 하여 환경을 양호하게 하려는 것에 따른 것이라 생각된다. 주동높이에 따른 벽면계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동높이가 높을 수록 벽면계수는 약간 커지며, 일본의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한국사례와 마찬가지로 주동높이가 높을 수록 벽면계수가 커진다. 이처럼 주동높이가 높을 수록 다소 벽면계수가 커지는 것은 전면길이가 긴 주동이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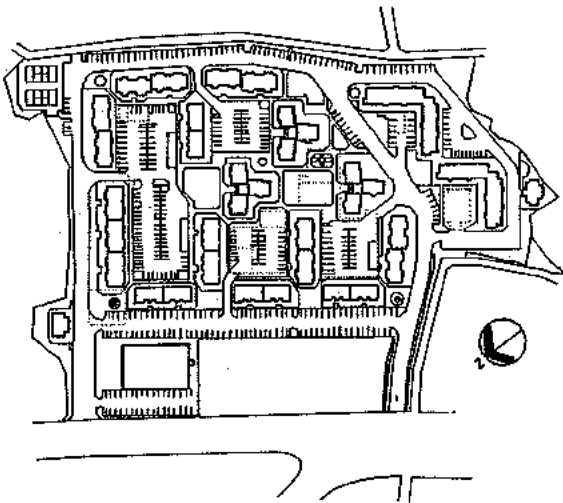
집합주택계획에 있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는 주호 전면폭에 대한 사고방식이다. 일본에서는 고밀도화에 따라서 주호규모를 크게 하는 경우 주호의 길이를 크게 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호의 전면폭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은 주호전면폭을 크게 하는 한편, 인동거리를 좁게 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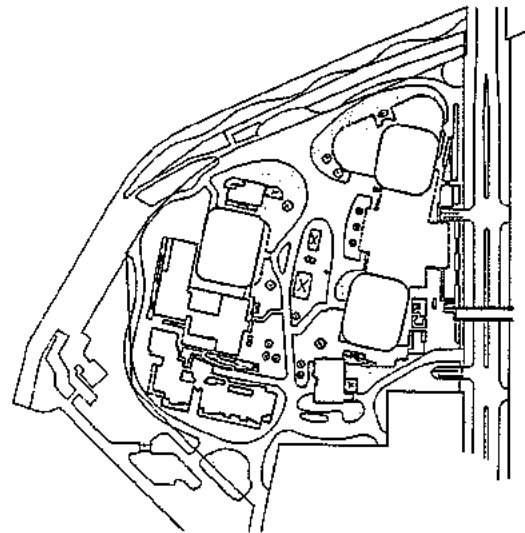
[그림 8] 상계 주공4단지 배치도



[그림 10] 면목동 한신아파트 배치도



[그림 9] 신대방 유성아파트 배치도



[그림 11] 大川端 리버시티 배치도

경향도 볼 수 있다.

동일조건에서는 주호의 개방특성의 확보와 인동간격의 확보는 반대되는 관계이며, 고밀화에 있어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서로 반대방향 즉, 일본은 주호의 전면폭을 줄여서 옥외공간을 확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호의 전면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5. 아파트 단지계획의 실례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택단지 가운데서 몇몇 단지를 소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단지로서 1979년에 건설된 반포 3단지는 대규모 남면형 판상 중층단지로 획일적인 형태의 전형적인 예이며, 대지면적 227,605㎡이며, 호당 옥외면적이 83㎡로 중층단지 중 넓다. 공극계수 51.8%, 벽면계수 7.3%, 주차장 설치율 13%로 옥외공간은 주차장과 녹지가 복합되어 있다(그림 6). 1980년에 건설된 둔촌주공단지는 「고층+중층」단지의 전형적인 예로서 대지면적 568,962㎡의 대규모

단지이며, 용적률은 89%로 「고층+중층」의 국내사례 중 가장 낮다. 호수밀도는 104호/ha이며, 호당 옥외면적은 84.7㎡로 사례중 가장 큰 부류에 속한다. 공극계수는 59.1%, 벽면계수는 7.8%, 주차장 설치율은 31%이며, 배치형은 「타워형+판상」, 「기타」의 구성을 보이고 있고, 옥외공간기능은 복합이다(그림 7).

1988년에 건설된 상계주공 4단지는 대지면적 75,922㎡, 용적률 190%, 호수밀도 281호/ha, 25층 초고층아파트 1동과 주위에 고층아파트가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초고층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주위에 탑상형의 주동과 그 주변을 남향의 판상형 주동이 배치되어 있고, 단지 주동길이(벽면계수 8.9m)가 짧은 반면 배치형은 고층동에 의한 클러스터배치로 판상기타이며, 옥외공간은 압박된 감이 있다. 호당 옥외면적 24㎡, 주차장 설치율 29%, 공극계수 48.1%로 옥외공간기능은 복합이다(그림 10).

일본의 단지로서는 도심인접형의 초고층을 포함한 대川端 리버시티 21은, 호수밀도 370호/ha, 용적률

464%로 전체사례 가운데 가장 밀도가 높다. 호당 옥외면적 23㎡로 작지만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녹지·광장중심」의 옥외공간을 만들고 있다.〈그림 11〉. 중앙부에 녹지가 있다. 호당 바닥면적 67㎡, 호당 옥외면적 31㎡, 공극계수 59.1m, 벽면계수 9.7m, 주차장 설치율은 29%이다.〈그림 8〉.

1988년에 건설된 신대방 우성아파트는 대지면적 79,784㎡, 연면적 202%로 16동 중 11동이 20층으로 단지중심의 타워형 3동과 그 주위를 판상형이 배치된 단지이다. 호당 바닥면적 121㎡로 주호규모가 중대형이며, 호당 옥외면적은 52㎡, 주차설치율이 83%로 지하주차장도 병설되어 있다. 공극계수는 71.3m, 벽면계수는 102m, 전면계수는 11.8m 주동길이가 비교적 길고 전면폭은 비교적 넓다. 옥외공간기능은 도로·주차장 중심이나 주변에 녹지가 있어 이를 보완해 주는 감이 있다.〈그림 9〉.

1989년에 완성된 면목동 한신아파트 단지는 중규모 단지로 대지면적 39,531㎡, 호수밀도 345/ha, 용적률 219%로 한국 고층사례 중에서도 고밀이다.

벨파크 시티는 1980년에 건설된 도심근접형의 초고층(36층, 타워2동)단지로 대지면적 10,5718㎡, 호수밀도 263호/ha, 용적률 247%이다. 타워형과 이것을 둘러싼 판상형주동으로 배치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호당 옥외면적은 31㎡, 공극계수 59.1m, 벽면계수 19m, 전면계수 4.9m이며, 입체주차장이 도입되어 있다.〈그림 12〉.

1974년에 건설된 川崎河原町 고층 단지는, 호당 바닥면적이 작고 호수밀도가 246호/ha로 높지만, 용적률은 180%이다. Twin Corridor형 주동이며, 벽면계수 23.8m로 아주 크며, 주차장 설치율은 3%로 낮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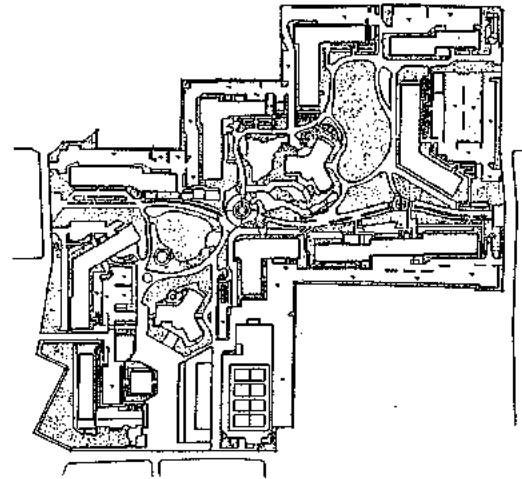
豊中島江住宅 단지는 1987년에 건설되었으며 시가지형의 중고층 복합단지로 대지면적 31,781㎡, 용적률 196%로 최근 일본의 중고층 복합사례 중의 밀도는 평균에 해당한다. 클러스터배치로 공극계수는 22.4m로 작고, 주호전면폭도 작으며 벽면계수는 13.1m이다. 옥외 주차장이 주차장 설치율 33.7%, 옥외공간기능은 광장·녹지와 도로·주차장의 복합된 형태이다.〈그림 14〉.

교외에 입지한 대표적인 중층단지의 하나인 近鐵生駒萩の台는 대지면적 20,651㎡, 호수밀도 114호/ha, 용적률 99%이다. 일본의 중층사례 가운데서는 비교적 밀도가 낮고, 남면배치가 채용되어 있다. 공극계수 30m이며, 호당 옥외면적 65㎡로 주차장 설치율은 63%이고, 옥외 공간은 「도로·주차장 중심」이 되어 있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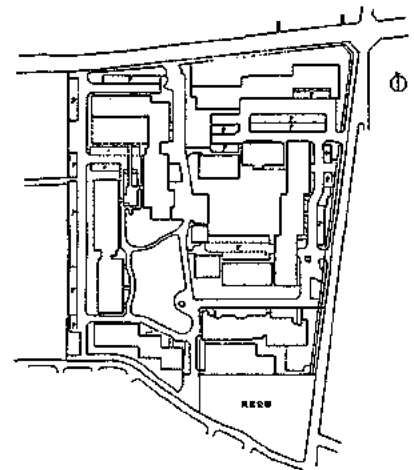
6. 맺는말

종래의 집합주택 주거환경은 동기4시간의 일조조건이 계획·주거밀도의 지표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법규변화에 따른 고층고밀화가 가속화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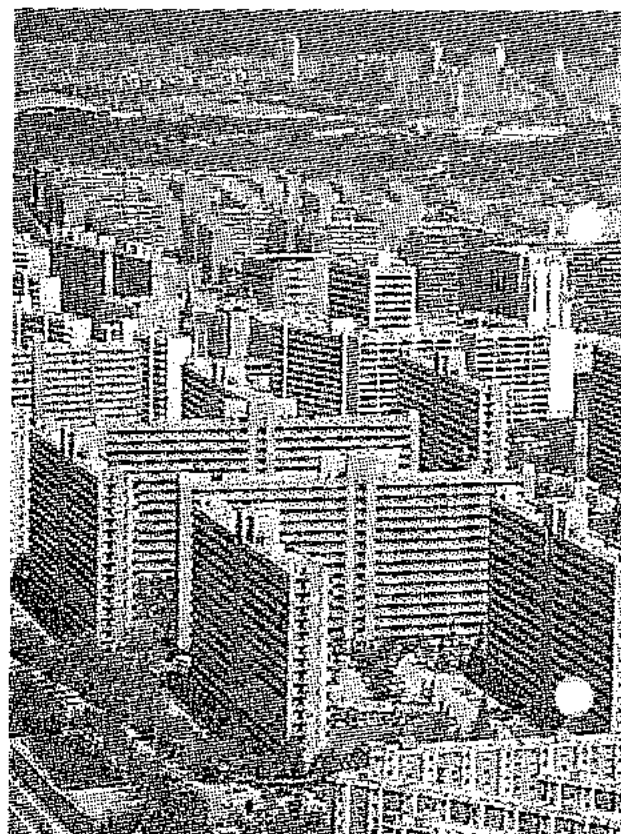
종래의 집합주택
주거환경은 동기4시간의
일조조건이
계획·주거밀도의
지표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법규변화에 따른
고층고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지표가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종합적인
주거환경을 나타낼 수
있는 밀도지표를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밀도지표는
주거환경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주거단지계획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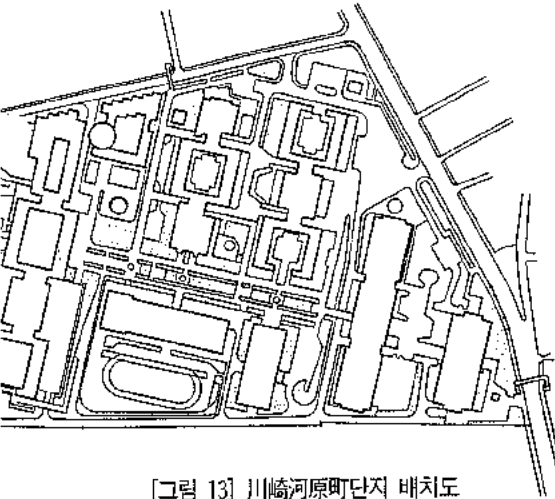


[그림 12] 벨파크 시티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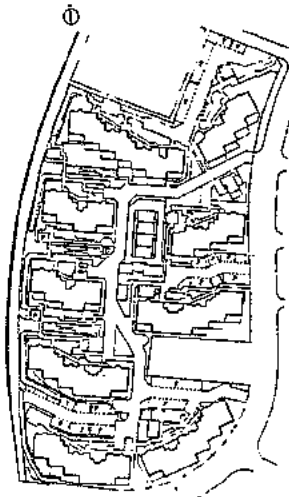


[그림 14] 豊中島江주택 배치도





[그림 13] 川崎河原町단지 배치도



[그림 15] 近鉄生駒駅の台



집합주택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하여 밀도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판상형
주동형태의 획일적인
배치계획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배치기법의 도입이
필요하고, 주호계획뿐
아니라 주동의 배치 및
옥외공간기능을 포함한
균형잡힌 전체계획의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16]
잠실아파트 단지

따라 기존지표가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종합적인 주거환경을 나타낼 수 있는 밀도지표를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밀도지표는
주거환경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주거단지계획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밀도의 현황비교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집합주택
단지설계에서 우리나라는 용적률과 건폐율의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음으로써 용적률, 건폐율의
분포범위가 좁음에 비하여, 일본은 용적률 규제만
적용됨으로써 다양한 단지배치설계가 가능하며,
일본에서는 지가의 양동에 따라 도심으로 갈수록
고밀화되지만, 우리나라는 법규의 변경으로 인하여
최근에 건설되는 단지가 고밀화되고 있다. 둘째,
옥외공간형상은 양국 모두 “남면형” 배치가 선호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남면형”이 대부분으로,
고밀화로 인하여 남면형 배치에서 충분한 인동간격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배치기법의 다양화가
절실해지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남면형 배치가
많으나 대지의 형상에 따라 절곡하거나 향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배치기법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옥외공간의 기능에서 호당 옥외면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단지설계조건상 주차장 확보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녹지나 광장같은
옥외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 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대지의 30%를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옥내 주차방식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주차장 설치가 각
자치체에 지도로 되어 있으나 단지분양과 절적인
측면때문에 주차장은 50%이상 설치하고 있으며,
옥내주차장 채용하고 옥외공간을 녹지·광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다. 넷째, 주동 전면폭과
길이관계는 일본의 경우 주동의 깊이를 깊게 하고
인동거리를 확보하여 외부공간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인동거리를 축소하더라도
주호의 전면폭을 넓게 하여 주호설계에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주택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하여 밀도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판상형 주동형태의 획일적인
배치계획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배치기법의 도입이
필요하고, 주호계획뿐 아니라 주동의 배치 및
옥외공간기능을 포함한 균형잡힌 전체계획의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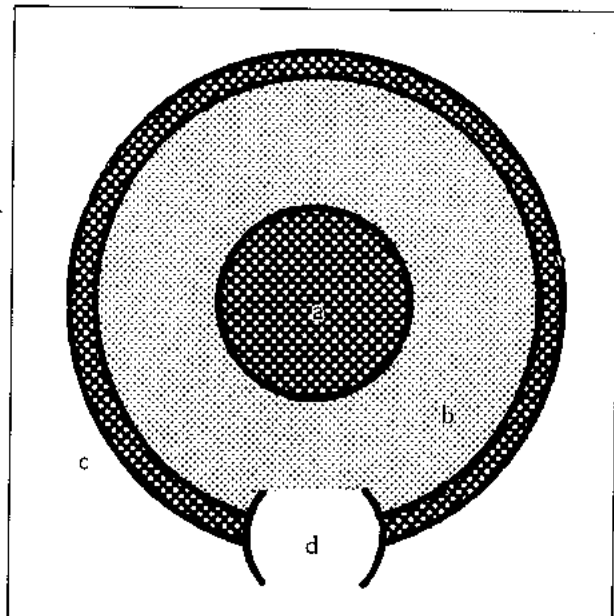
- 1) 공극율=1-건폐율
- 2) 공극계수=2(대지면적-주택의 건축면적)/외벽면의 길이
- 3) 벽면계수=2X 주택의 건축면적/외벽면의 길이

日本史속의 建物과 都市

Buildings and Cities in Japanese History

趙仁淑 / 다리건축

by Cho, In-Souk



2. 제례의식·불교건축

2. 일본땅에서의 불교건축(계속)

이 단계의 空間구성은 가란(伽藍)의 구성요소인 主建物 및 탑 그리고 회랑, 문의 관계로 잘 표현된다. (그림1)의 중심부분 a는 그 공간의 주체를 위한 건물로서 대변된다. 즉 불교사찰에서의 탑(塔), 八角円堂 또는 金堂등이고 궁전에서 황궁이나 신덴(寢殿)이고 神社에서의 本殿이다. 그 중심건물의 내부공간은 그 공간의 주체를 위해서만 존재하며 원칙적으로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다. a를 둘러싸고 있는 빈 공간 b는 회랑부분인 c로 둘러싸여진 외부공간으로 특별히 정해진 기능은 없는 곳이다. 그러나 주체의 영역이 이곳까지 확산되어 주체를 훨씬 성스럽게 한다. 주체와 방문자간의 교류는 문(門)인 d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즉, 이 단계의 공간구성의 원칙은 모든 요소들을 중심건물을 가운데 놓고 그 주위에 늘어놓아 무한한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1) 중심건물

고대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곧도오(金堂, main hall, 本尊佛모심)이다. 그러나 일본의 초기불교에서는 탑(pagoda)이 사실상 더욱 중요했다. 이는 스투파(stupa; 탑의 전형)가 사카무니의 무덤을 상징하면서부터 고대인디아 사찰에서의 예배의 대상이 된 이래로 중요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절인 아스카데라(飛鳥寺)에서 탑이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을 보면 초기에는 탑이 훨씬 중요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 시간이 흐름에 따라 金堂(main hall)과 탑(pagoda)은 거의 같은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호오류우지(法隆寺)그림7 b), 결국에 가서는 탑은 金堂의 장식품이거나 또는 단순히 사찰경내의

目次

1. 개관—원시시대
2. 제례의식, 불교건축
3. 都邑
4. 住居와 조경
5. 사무라이文化와 쇼잉(書院)
6. 城의 시대
7. 에도(江戸)—‘空間’과 ‘場’으로서의 江戸시대
8. 民家
9. 근대건축의 태두
10. ‘전통’의 재고, 현재속의 과거

사인포스트가 되고만다. 실질적으로 헤이안(平安)시대까지의 고대사찰에서는 탑이 있지만 중세로 내려오면 禪宗이나 淨土宗계통의 사찰에서는 탑이 없으므로 탑은 고대사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당시의 탑은 대개 3~5층의 목조이며 탑 꼭대기 부분의 후꾸바치(伏鉢)는 원래 인도탑의 전형인 스투파(stupa)의 형태를 작게 줄여 장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탑의 주요구조부는 3~5층의 기단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중국의 다층건물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강한 대칭성에 있다. 대개 일본탑의 특징은 4축(軸)에 대칭이고 평면은 정방형이며 4면에 문이 있다. 기둥은 각 면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지붕은 피라미드 형태이다.

일본탑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대가 올라갈수록 대칭성이 강하다. 호오류우지(法隆寺)탑을 보면 4면이 소조상들로 둘러싸여진 심바시라(心柱)가 있고 4면이 거의 같은 기단부였다 비슷한 모양의 돌계단까지 있다. (그림3 a, 그림4) 시간이 감에 따라 완전대칭이 깨지게 된다. 완전대칭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불상(佛像)을 안치하고서부터인데 불상은 바깥을 향하게 안치하게 되니 자연히 탑은 완전대칭이 깨지고 방향성 내지는 전면성을 갖게 된다. 중세로 내려오면 1층에 중심기둥인 심바시라(心柱)가 없어지고 心柱를 둘러싸던 네 개의 기둥 시텐바시라(四天柱)중 뒤의 두개 기둥이 벽면에 의해 연결되어 제단 뒷벽을 형성하게 된다. (그림3 b) 이 벽을 레이고가베(來迎壁)이라 하며 이는 佛像 뒷부분을 가려주어 전면에서만 예배를 드리게끔 한다.

히로시마(廣島縣)의 고조지의 3층탑은 四天柱의 앞의 두개 기둥을 앞에 없애서 예배 드리기 아주 편하게 해 놓은 좋은 예다. (그림3 c) 게다가 중세말엽쯤에는 레이고가베(來迎壁)이 좀 뒤로 가서 제단앞에 좀 더 넓은 공간을 둘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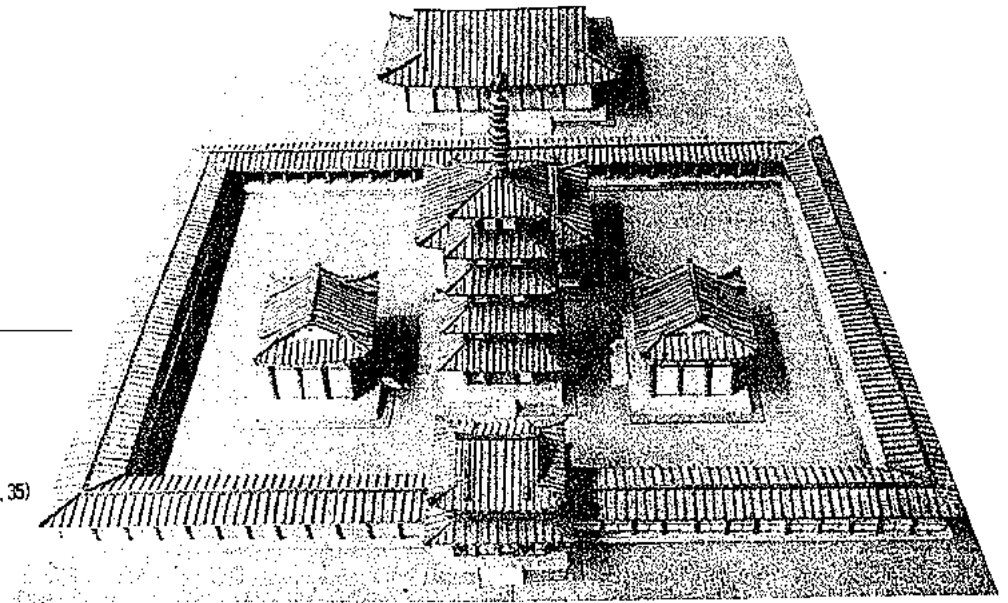
① 공간구성의 다이어그램 (이노우에 p.45)

- a. 주체를 위한 건물(중심건물)
- b. "a"를 에워싸고 있는 여백공간
- c. 카이로(廻廊)
- d.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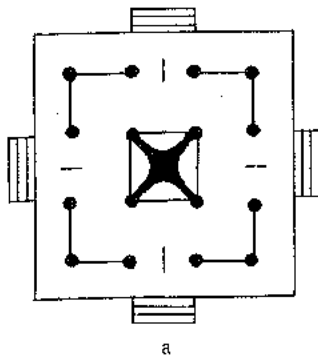
② 아스카데라(飛鳥寺)의 복원모델 (이노우에 p.35)

③ 탑의 평면 비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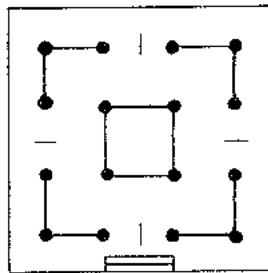
④ 호오류우지 탑(法隆寺 塔)의 복원도 (이노우에 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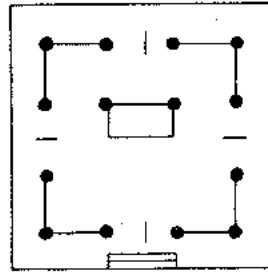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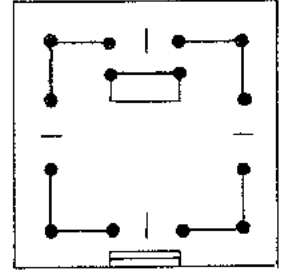
a



b



c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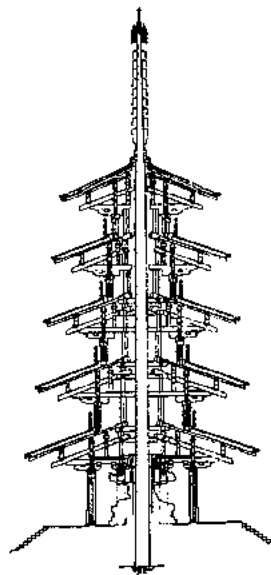
(그림3 d) 이 때쯤 되면 内部空間의 대칭성이 완전히 깨지게 되고 중세 이래로 탑들은 기단부의 계단이 전면에만 남게 된다. (그림3 b, c, d)

탑에 관련지어 엔도(円堂, 원형건물)에 대해 설명하면 엔도(円堂)는 사실상 8각형의 건물 즉 헛가꾸엔도(八角円堂)로 고대사찰의 주요 구성부분중의 하나였다. 이는 정방형의 佛堂과 기능은 비슷하고 사찰의 중심건물이기도 했었지만 주로 보조적인 佛堂 역할을 많이 했다. 이 8각원당은 강한 대칭으로 문이나 창들도 대칭이 되고 8모지봉은 로반(露盤)과 호주(寶珠)가 받치고 있다. 円堂이라는 이름때문에 건물이 좀더 원형에 가깝고 보통탑보다도 대칭성이 강하다.

호오류우지의 유메도노(法隆寺 夢殿)(그림5)는 완전대칭의 좋은 예다. 金堂의 평면구성은 호오류우지(法隆寺)가 좋은 예로 日本의 現存하는 가장 오래된 金堂이다. 후대의 것 과 비교해 보면 비교적 정방형에 가까워서 전면대 측면의 비율이 1:1.3 정도 된다. 이는 4축대칭으로 안팎으로 거의 완벽한 대칭이 된다. 平面구성은 불상의 대좌가 있는 모야(母屋)와 하사시(庇), 모포시(裳階)로 되어있다. (그림6)

2) 회랑(카이로, 廻廊)

대륙문화 유입후 지어진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④

사찰에서의 회랑이다. 그러나 중세이후 점차적으로 지어지지 않게 되어 남아있는 것은 몇개 안된다. 카이로(廻廊)에서의 '로'(廊)는 원래 통과기능을 가진 길의 의미로 복도와 같은 의미이다. 고대에 이 회랑은 사실상 담으로서의 기능을 했었다. 불교사찰에서의 회랑은 사찰배치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시텐오지(四天王寺)"나

"호오류우지(法隆寺)"등의 사찰 이름들은 사찰배치를 대변하는 용어로 쓰이곤 하는데 이는 사실상 본건물과 탑의 관계에서 구분지어지는데 공간구성상의 견지에서 보면 회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초기 불교사찰에서는 회랑이 탑이나 金堂등의 주요건물들을 에워싸고 있다. (그림7)

아스카데라(飛鳥寺)는 중심에 탑을 두고 탑의 東, 西, 北쪽의 거의 같은 크기의 金堂이 있고 회랑이 이 건물들을 둘러싸고 남쪽회랑 중간에 문을 두었다. (그림7 a)

호오류우지(法隆寺)는 탑과 金堂이 나란히 배치되어 이를 회랑이 둘러싸고 있고, 탑과 서쪽 회랑사이, 金堂과 동쪽회랑 사이, 탑과 金堂 중간에서 남쪽회랑 사이의 거리는 모두 같다. (그림7 b)

시텐오지(四天王寺)에서는 塔과 金堂이 앞뒤로 나란히 있고 회랑이 이들을 에워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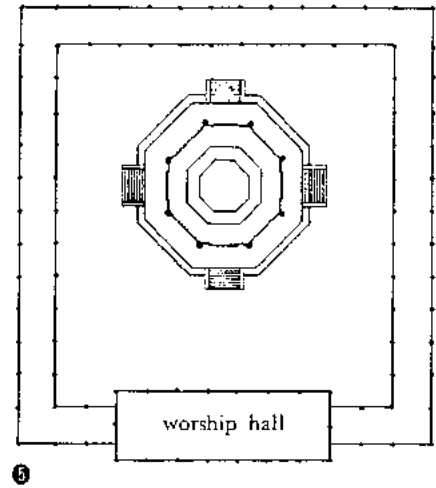
오오사까(大阪)의 시텐오지(四天王寺)에서는, 북쪽회랑에 講堂이 연결되어 있다. (그림7c)

야쿠시지(藥師寺)에서는 金堂과 東·西塔이 회랑 안쪽에 있다. (그림7c)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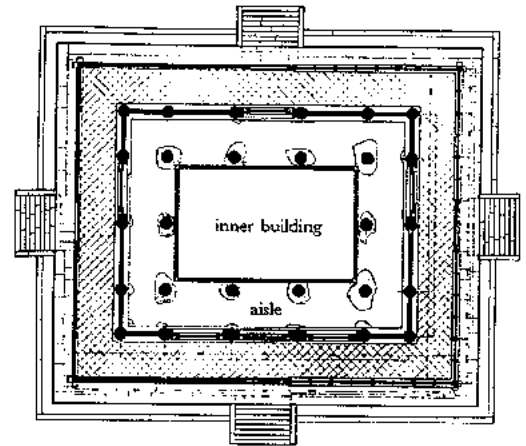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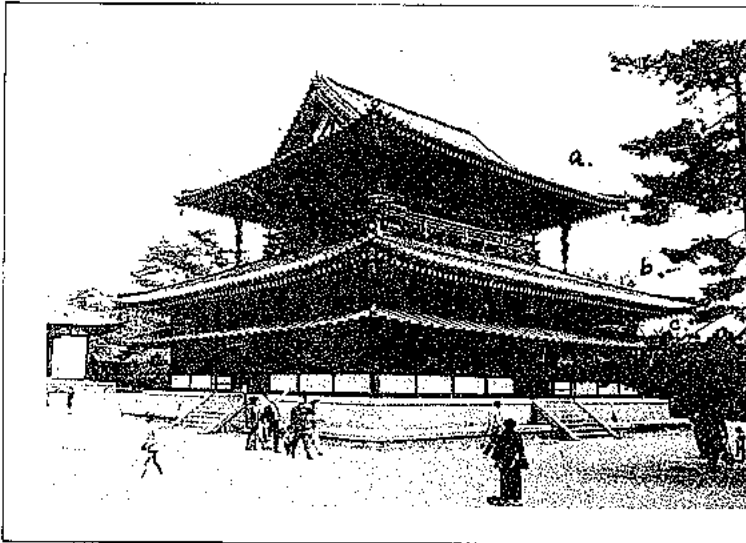
3) 문(門)

불교사찰에서 회랑안에 세워진 문에 대해 살펴본다. 아스카데라(飛鳥寺) 南門에 대한 기록이 니혼쇼키(日本書紀)에 있다. “황궁의 제사가 아스카데라(飛鳥寺)에서 있어 그 때 佛經을 다 읽고 난 후 皇帝가 南門으로 가서 거기서 정배했다.” (이노우에 p. 39, 日本書紀)

앞에서 언급했지만 아스카데라(飛鳥寺)에서는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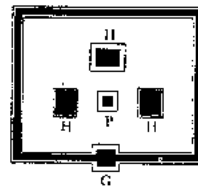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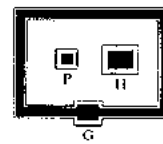
탑과 세 개의 金堂(main Hall)이 회랑으로 둘러싸여있어서 예배할만한 적당한 空間이 없다. 그러다보니 회랑의 남쪽 부분만이 제주(祭主)가 설한 장소였다. 이 문(中門)은 3칸×3칸으로 사찰의 南門인 난다이문(南大門)보다 훨씬 컸다. 이렇듯 예배장소로 사용되었던 중문(中門)의 예가 여러곳 있는데 그 중 호오류유지 東院의 유메도노(夢殿)는 오늘날 레이도(禮堂)라 부르는데 초기에는 中門으로 언급했었다. (그림 5)

문(門)의 일반적인 空間特性을 보자. 문은 담장에서의 열린 부분으로 우선적으로는 통과하는 길이며 일종의 열린부분 즉 틈새이다. 그러나 회랑으로 구획된 안팎의 서로 다른 공간 사이를 연결지음으로써 단순한 틈새로서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두 공간사이의 경계구실을 한다. 즉 통과하는 길이기도 하고 멈추는 장소이기도 하다. 제주(祭主)는 문에 와서 멈추어 제사를 올린다. 문은 단순히 회랑의 한 부분으로서만이 아니라 자주적인 구조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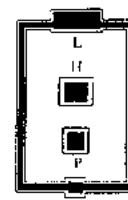
(계속, 다음 호는 도다이지(東大寺)와 쇼쇼잉(正倉院), 그리고 3. 都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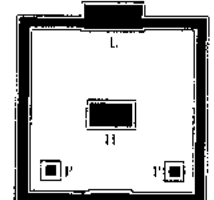
a



b



c



d

- 5 73년에 창건된 호오류유지 유메도노 복원도(法隆寺 東院 夢殿)
- 6 호오류유지 金堂(main hall) 내부공간에서 부터 바깥 쪽으로
- a. 모이(母屋, inner building)
- b. 히사시(庇, aisle)
- c. 모꼬시(裳階)
- 7 초기 불교사찰의 배치
- a. 아스카데라(飛鳥寺)식
- b. 호오류유지(法隆寺)식
- c. 시텐오지(四天王寺)식
- d. 야쿠시지(藥師寺)식
- (P=탑, H=金堂, L=강당, G=중문)

참고문헌

1. What is Japanese Architecture by Kazuo Nishi and Kazuo Hozumi
2. Space in Japanese Architecture by Mitsuo Inoue(Chap. 2)
3. Japanese Culture by Paul Varley(Chap. 2)
4. 日本建築みどころ事典, 中川武編
5. 日本の歴史 by 井上清(서동만 옮김)
6. 日本の歴史 関斗基 編著
7. 日本史 by John Whitney Hall(朴英宰 역)
8. 日本書紀 成殷九 譯註
9. 百濟寺刹建築 張慶浩 著
10. 日本美術史 監修 山根有三
11. 日本美術史 奏弘變譯
12. "Source of Japanese Tradition" by Tsunoda
13. "Horyuji" by Edward Kidder

주1) 대체로 藥師寺 배치는 후대에 넣는 경우도 많지만 이노우에는 초기불교사찰에 분류를 한다. 이는 金堂이 회랑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노우에 p. 36)

朝鮮시대의 建築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

張慶浩 / 문화재연구소장
by Chang, Kyung-Ho



13. 住居建築

여기서는 시대를 조선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 주거의 발달사를 다룸으로써 조선시대의 주거건축을 대신하려 한다.

1. 序

인간은 수십만 년전 구석기 시대부터 생존을 위하여 본능적으로 외침을 막는 집을 짓게 되고 그 집에서 휴식과 침식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떠한 형태이든 그들을 보호하는 Shelter로서의 건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이 최초로 건축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의 생활을 위한 주거건축이었다. 이러한 뜻에서 주거건축은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전통의 근거를 가지고 발전·개량되어 오는 것이다. 특히 민간건축에 있어 이 전통을 무시한 것은 없다. 어느 나라의 주택이든 그 나라의 자연환경과 민족적 뿌리를 근거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의 주택은 주위에서 얻기 쉬운 재료 즉 흙과 돌 그리고 나무와 짚 등으로

세워지는 농촌의 주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들은 비록 權威建築 만큼 짜임이 정밀하지 못하고 영성하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나라 자연환경에는 가장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건축형태를 갖추고 있다. 민가는 권위건축인 궁궐이나 사찰에 비하여 그 재력과 기술 등이 열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를 이어 實生活를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에 의한 창달과 개선으로 발전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가장 진실한 생활철학이 담긴 건축이다. 따라서 전통민가는 유행따라 변하지 않고 꾸준하고 영원하며 촌너와 같은 순박함을 갖는 건축이기도 하다. 민가는 이렇게 민간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거주하는 민족과 풍습, 지리적 환경 등에 민감하게 영향받아 건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제주도의 민가는 그 지역의 기후특징인 강한 풍우에도 잘 견디도록 바람막이 돌벽담과 역세돌을 '井'자형으로 엮어 이온 지붕 등 자연에 잘 조화시킨 것이다. 또 북유럽의 뽀족지붕은 그 지역의 기후특징인 많은 눈에 의한 적설하중을 견디기 위한 자연과의 대응일 뿐이다. 이러한 주택지붕을 한때 우리나라 주택에 이용하여 선진국의 형태로 선호되어온 적이 있음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 70년대에 새마을 운동에 의하여 없어진 농촌의 초가집은 전통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거건축은 선사시대의 움막주거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오래된 주거는 신석기시대의 움막주거인데 대체로 기원전 약 4천년전에서 4천5백년전 경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평면을 원형으로 지반을 파내려가 방바닥을 삼아 위에는 서까래와 풀잎으로 덮은 지붕이다. 방바닥 한가운데에 불을 지핀 爐가 있었고 그 옆에 저장공을 두었다. 따라서 반지하의 지열과 爐의 불길로 추위를 견디었다. 즉 토벽과 爐의 구운 돌은 주거건축에서는 빼어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가 되어 후에 민간건축의 발전을 이루는 데도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어 이러한 근본적 요소를 근거로 주택건축의 발전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요소 즉 주방과 화덕을 기점으로 한 주택평면의 발전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住居건축의 발상과 발전

1. 先史時代

고고학적 고증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주거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던 시기로 밝혀졌다. 물론 이보다 앞서 구석기말에도 주거의 시설은 있었지만 이 시기에는 자연동굴이나 천막구조로 건축이라 말하기는 어려운 시기이다.

신석기시대의 주거는 움막집으로 지반을 파고 반지하식으로 내려가서 鑿穴주거라고도 한다. 이렇게 움을 파서 지붕을 덮어 사는 주거는 청동기시대를 거쳐 삼국시대까지 보존화되었음이 문헌과 실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다.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였던 시기의 움막주거에 대하여는 이미 첫 장인 원시

건축에서 논하였지만 다시 한번 개설한다면 다음과 같다.

- ① 대체로 압록강·대동강·한강·두만강·서남부 도서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 ② 평면은 보통 원형이거나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직경이 보통 5~6m 内外이다.
- ③ 움집의 깊이는 지표면에서 60cm 정도이나 얇은 것은 25cm에서 깊은 것이 1m가 넘는 것도 많다.
- ④ 움집 중앙에는 남북장축의 타원형 평면을 한 爐가 있었는데 이것은 보통 냇돌을 돌려막아 만든 것이다. 또 이 爐의 곁에는 토기를 얹어서 놓은 貯藏孔이 있어 이들은 주방과 난방을 겸한 시설이다.

- ⑤ 집의 출입구는 동남이나 서남쪽에 두어 일조관계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⑥ 이때는 수직벽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고 지붕처마가 지면에 닿고 내부바닥은 특수한 경우에 진흙으로 깔고 보통은 맨흙바닥이었다.
- ⑦ 이 시기에도 암사동이나 궁산유적과 같이 集居를 형성하여 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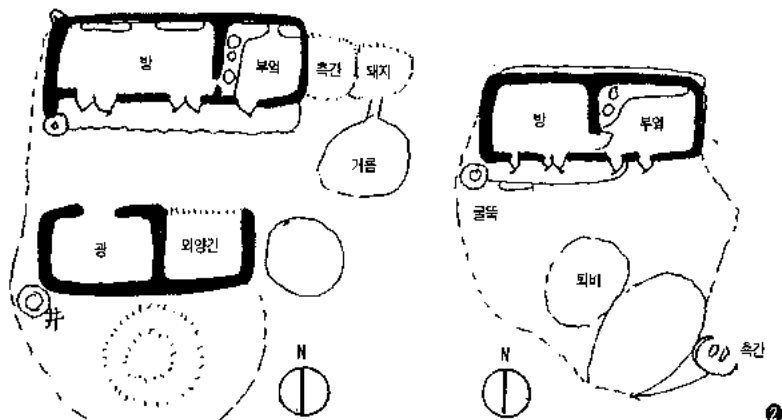
그 다음 민무늬 토기를 사용하던 시기인 金石併用시대에서 청동기시대에 걸친 시기의 주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이때에는 농경이 크게 발달하여 생활은 물론 사회제도에 큰 변혁을 가져온다. 즉 이때에는 많은 노동력의 필요와 그 노력에 따라 빈부의 차가 생기고 사회적 계급이 생기고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성립되면서 하늘에 제를 올리는 신앙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농경생활의 발전으로 정착생활을 하면서 취락을 형성하게 된다.
- ③ 움집의 평면이 거의가 장방형을 이루어 규모가 커지고 한편 爐의 위치가 한 쪽으로 옮겨지면서 2개로 늘어나는데 경우에 따라 난방용 화로와 취사용 부뚜막을 별도로 사용한 것 같다."
- ④ 전대에서 보았던 爐 옆의 작은 저장공은 없어지고 별도의 저장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⑤ 특히 이 시대에는 경기도 혼암리 움집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의 남쪽 경사부 낮은 쪽에서 수평으로 파고 들어가 이로 생긴 평지를 바닥면으로 하고 중간에 간막이벽을 두었는데 벽의 두께가 60cm, 높이가 90cm 정도로 흙을 단단히 다져 쌓은 것이다. 또 방의 크기는 하나는 길이가 10m이고 폭이 4.2m이었으며 또 하나는 길이 7m, 폭 2.8m이었다. 여기서는 爐와 저장공이 없었다." 따라서 여기서 주의를 끄는 것은 지상에 수직벽과 간막이벽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것과 창고시설을 별도로 두어 단위건물의 기능별 分化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또 춘천시 中島에서 발견된 움집터에서는 爐보다는 좀 발달한 구들 시설과 煙突을 구비한 부뚜막을 갖춘 움집도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독특한 은돌시설의 嚆矢를 보이는 예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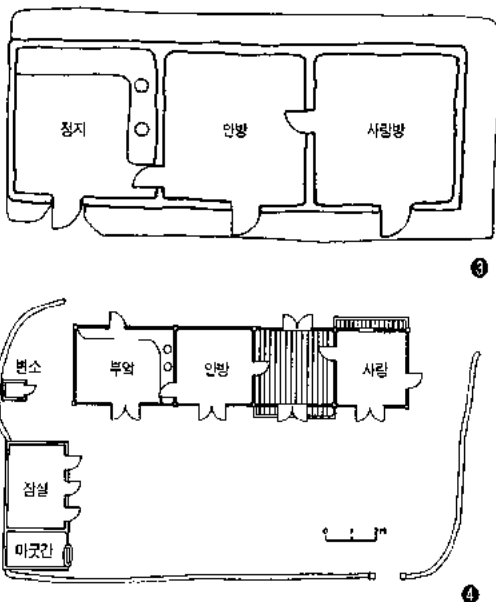
2 歷史時代

선사시대의 움집주거는 삼국시대에 와서 조금 더 개선, 발달되어 고구려에서는 이미 상당히 발전된 온돌의 구조를 사용하였음이 기록이나 실제 발굴조사로서 밝혀졌다. 고구려 벽화고분인 안악3호분 벽화의 주방도나 유물로 남아 있는 철제 부뚜막과 陶製 부뚜막 그리고 또 북한에서 알려진 고구려의 노남리나 동대자 유적의 구들 등으로 온돌의 발달을 알 수 있다.

또 〈新唐書〉高麗(高句麗)條에는
「...居依山谷以艸茨 惟王宮官府佛廬以瓦



- ① 안동군 예안면 김종철씨 가옥 전경
- ② 평안도 지방의 서민주택의 배치도(朱南哲, 韓國住宅建築에서 전제)
- ③ 경북 안동군 홍순인씨 가옥 평면도
- ④ 경북 안동군 김병곤씨 가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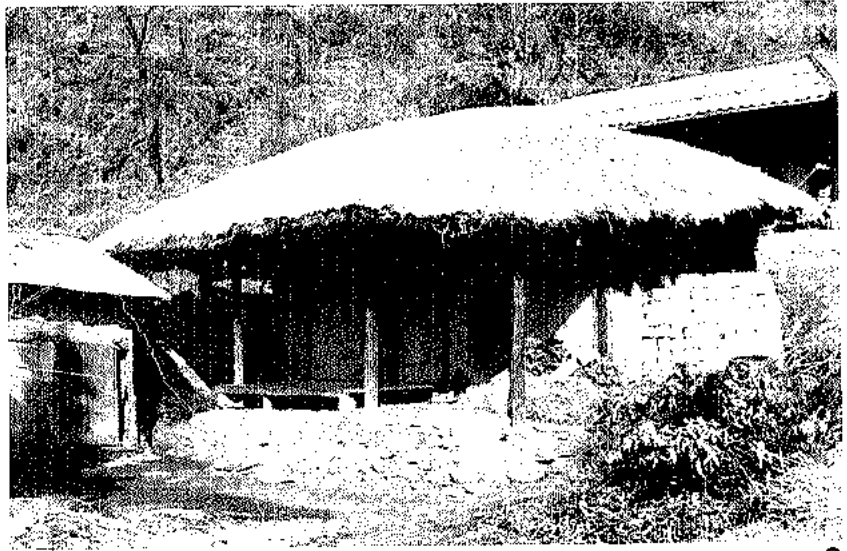
「...民盛冬作長坑 溫火以取煖...」이라고 하여 원위건축에는 가와를 사용하고 민가에는 간 구들을 두어 방을 더웁게 하였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三國志〉魏誌 東夷傳에는
「...於所居之左右立大屋
祭鬼神又祀靈星社稷...家家自有小倉
名之爲柁京...其俗作婚姻 言語已定 女家作小屋
於大屋後 名婿屋」이라고 하여 그 내용을 보면 '거처 좌우에 큰 집을 짓고 귀신과 성사적에 제를 지내고... 집집마다 부경이라 불리우는 작은 창고를 두고 혼인이 정하여지면 신부의 집뒤에 서옥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집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보아 한집에 여러 기능을 갖는 가옥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83년 부여 부소산성 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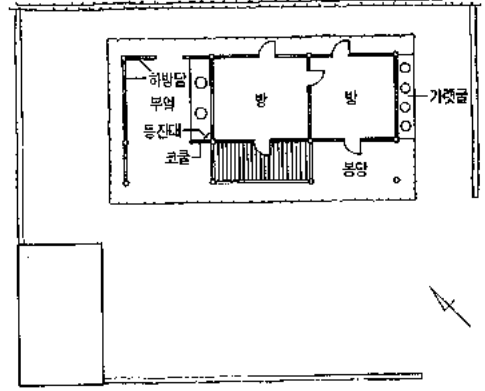
움집터에서 외골로 된 백제의 부뚜막과 구들을 겸한 시설이 처음 확인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三國史記》屋舍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듯이 옥사의 규제를 두어 방의 넓이와 크기, 지붕粧飾, 두공, 건물의 기단과 계단형식 그리고 석재의 치석방법, 담장의 높이와 대문의 형식, 단청의 채색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자세히 규제하여 기술하고 있다. 특히 四頭品이나 백성들에게 허용된 주택은 방의 크기나 넓이가 15尺을 넘지 못하고 기타 모든 장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건축규제는 고려시대에도 있어 《고려사》권85 지 권 39 형법2의 최승로의 상서에 ‘...禮에 이르기를 전자는 堂을 9尺으로 하고 제후는 堂을 7척으로 정한다’는 기술이 있다. 또 이인노의 《東文選》公州東亭記에 나타나는 奧室을 온돌방으로 涼廳을 대청으로 해석하여" 이때에도 온돌방과 대청마루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음을 말하여 준다.

다음 조선 세조대에 왕조실록과 경국대전 및 대전회통에 기록된 가사 규제내용을 보면 세종대에 大君, 公主, 翁主·宗親 등 二品以上, 三品以下, 庶人 등으로 등급에 따라 건축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즉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449년에 제정된 것을 보면 내략 대군은 60間내에서 樓 10間, 正寢, 翼廊, 西廳, 內樓, 內庫 등을 두되 間長(도리間으로 추정)을 11尺으로 廣(보間으로 추정)은 前後退를 합하여 18尺, 退柱(높이) 11尺 또 차양이 있는 斜廊은 間長이 10尺, 廣이 9.5尺, 기둥높이 9尺, 행랑은 間長이 9.5尺, 廣이 9尺, 기둥높이 9尺 등으로 되었고 반면 서민 계통은 총 10間내에 樓3間을 둘 수 있고 每間의 間長을 8尺으로, 廣은 7.5尺 柱高 10.5尺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종대에 와서는 크기가 조금 완화된다. 그러나 흔히 99間으로 전해지는 허용기록은 없다. 이와 같이 집의 기둥간격은 間으로 하여서 그 한 間의 크기가 정해진 것은 자금도 전통민가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신라시대에 관한 기록인 《삼국사기》옥사조에 기록된 長·廣 15尺~24尺은 柱間의 全長을 의미한다면 정면을 3칸이상 둘 수가 없는 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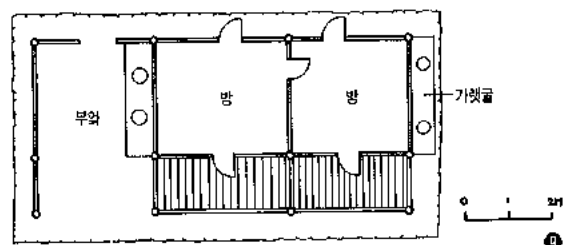
- ⑤ 충북 제원군 한수면 김한도씨 가옥 전경
- ⑥ 부엌내부 코골과 등잔대
- ⑦ 김한고씨 가옥 배치도
- ⑧ 충북 제원군 한수면 장주현씨 가옥 전경
- ⑨ 장주현씨 가옥 평면도



규모여서 이해가 잘 안된다.

조선시대의 주택건축으로 그 입지와 향, 그리고 배치에 있어 부수적으로 크게 영향을 준 것은 陰陽五行과 風水地理사상이라 말할 수 있다. 음양사상은 우주万물의 象이 음과 양의 상반된 성질의 대립원리로 되어있어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룩하여야 생의 생성과 번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五行의 사상은 우주를 이루는 五氣의 相生相剋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五方과 五色, 五聲 五味 등을 木·火·土·金·水의 순으로 상관시키는 것이다.

또 風水地理說은 땅을 토대로 하여 위의 음양오행 사상과 결부시켜 地氣를 잘 타고 나면 생기를 얻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道敎的 사상은 陽宅과 陰宅(墓)을 정하는데 크게 작용을 하였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 건물의 坐向과 門間體와 부엌, 안방 등의 설치방향을 정하는 陽宅論까지 상행하였다.



3. 平面配置의 構成과 發展

우리나라의 전통민가는 평면형식으로 보아 크게 분류하면 홑집과 겹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그 형태로 보아 一字집, 二字집, ㄱ자집, ㄷ자집, ㄹ자집 등으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평면형식과 형태는 그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풍습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방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대체로 북부 지방형(함경도), 서부지방형(평안도), 중부지방형, 남부지방형, 제주지방형 및 서울지방형으로 구분하고 있다.³⁾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그 平面型을 이루는 여러 가지 복합된 요소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상적 분류방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좀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전통민가의 평면구성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그 지방의 지리적인 자연 조건에 따른 요소.(지형, 기후, 기상 등)

둘째, 그 지방에서 성행되는 민속신앙, 풍수 및 음양오행사상 등의 사회적 관습으로 인한 인위적 요소.

셋째, 그 지역에 移住되어 오는 거주자의 전통적 지식과 관습에 의한 건축문화의 전파요소.

넷째, 거주자의 경제적 능력과 신분 계급에 의한 요소.

다섯째, 거주자가 종사하는 직업에 따른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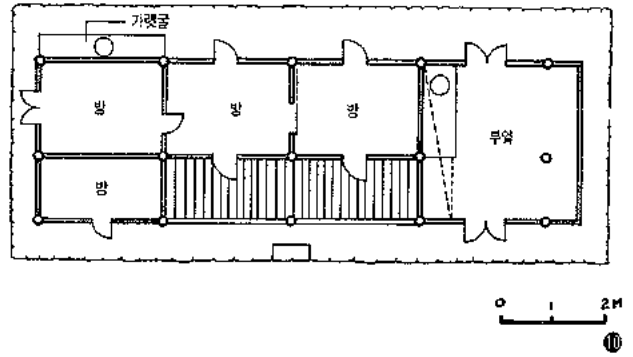
이와 같은 요건으로 같은 지역의 민가라도 그 형식이 다를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의 민가라도 같은 평면형식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오히려 원시적 기본형에서부터 발전되어가는 평면형을 찾고 지역적 특성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1. 홑집

1) 一字집

가장 기본적인 평면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무너토기를 사용하던 시기의 움집평면은 이미 一字집의 평면을 이루어 방의 기능을 분리, 櫺을 한쪽으로 놓으면서 부엌의 기능을 갖게 한다. (그림 2)는 평안도 지방 서민주택의 한 예이다. 우측의 평면을 보면 토벽을 쌓은 두 방의 一字집을 두었는데 평면은 동측이 부엌이고 서측은 온돌방 한칸이다. 이것은 선사시대의 움집 평면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한 형이다. 또 왼쪽의 것은 본채와 바깥채의 두채의 一字집이 간격을 두어 나란히 놓여있다. 본채는 역시 부엌과 큰 방으로 나누어져 있다. 부엌에는 부뚜막이 있어 취사와 난방을 겸하게 하고 방 앞은 한단 높은 기단으로 되어 방문을 통해 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바깥채는 역시 一字집인데 광과 외양간을 두고 있어 저장시설이 별도로 되어있어 선사시대의 움집평면과 비유된다. 이 집의 대문안은 따로 없고 출입은 동남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3)은 경상북도 안동군에 있는 홍순인씨의 토담집이다. 이것은 역시 一字집으로 정지(부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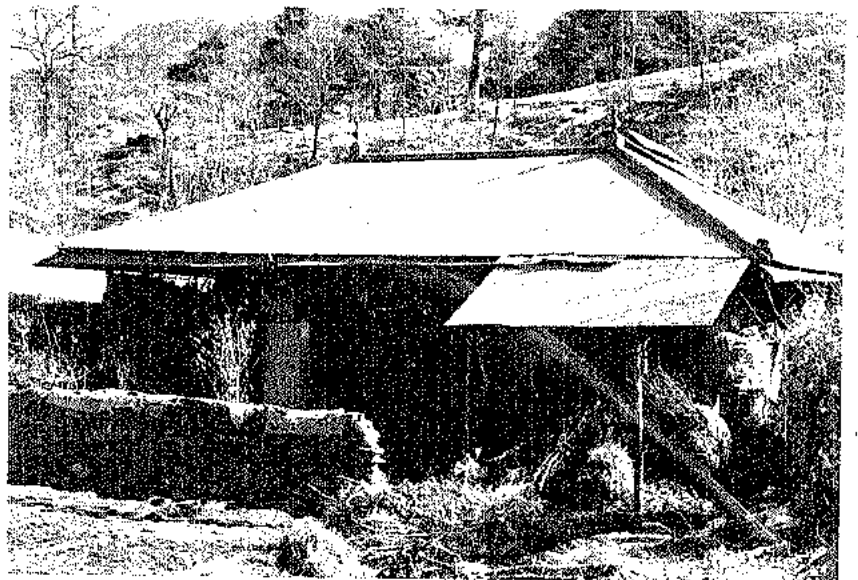
⑩ 충북 제원군 한수면 장재원씨 가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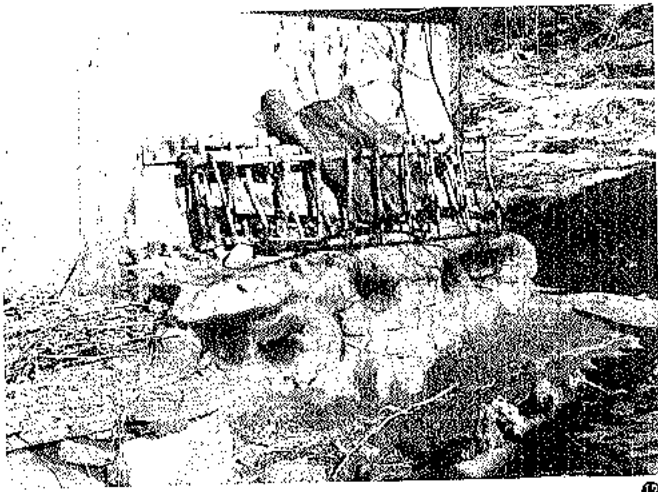
⑪ 제원군 한수면 진관범씨 가옥 전경

위치가 서쪽에 있고 동쪽에는 안방과 사랑방이 있다. 이것 역시 움집에서 크게 발전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림 4)의 같은 지역의 김병곤 씨 가옥을 보면 안방과 상방 사이에 대청마루를 더 두어 좀 발전된 형식을 보이는 一字집이다. 이들 양측방은 대청마루에서 통하는 문이 있다.

(그림 7)은 충북 제원군 한수면에 있는 김한고씨 가옥인데 一字집으로 된 토벽집이다. 높게 쌓은 기단을 마련하고 그 위에 둥근 기둥과 토벽을 쳐서 초집을 얹힌 건물인데 서측에는 부엌을 들어서 부뚜막을 두고 동측에 아래·윗방을 연속으로 놓아 아랫방 앞 퇴칸에는 뒷마루를 놓고 윗방 앞 퇴칸에는 흙바닥의 봉담을 두었다. 또 부엌에는 출입문이 없어 터져 있고 부엌의 서벽도 처마 밑까지 다 쌓아 올리지 않고 위를 터지게 하여 연기가 잘 빠지도록 하였다. 또 부엌에서 지피는 불길은 부뚜막 밑으로 하여 2개의 방을 통하여 윗방 동벽 밖 '가랫굴'이라고 불리우는 土窟을 구멍으로 빠져 나가게 되어 있다. 이 '가랫굴' 위에는 쟁기나 기타 농기구와 농산품을 올려놓아 건조시키는 기능을 갖는 이 지방의 독특한 시설이다.

(그림 9)는 역시 한수면에 있는 장주현씨 가옥인데 총주뿔 건설로 인하여 지금은 수몰된 곳이다. 이곳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一字집으로 이곳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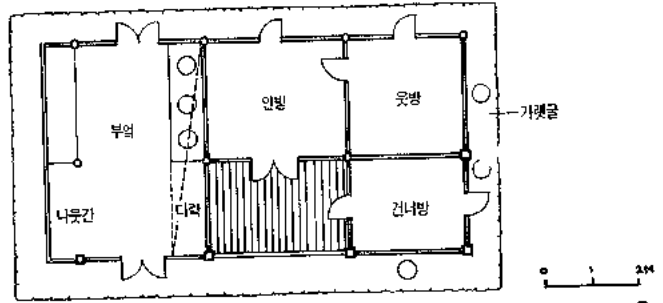


12



13

3칸뿔집이라 한다. 서쪽에 부엌이 있고 동쪽에는 방 두개가 연속해 있으며 이 두 방 앞에는 넓은 뿔마루를 놓았다. 부엌에는 부뚜막을 두고 그 위로 다락을 설치하였다. 이 집의 부엌은 토벽을 위까지 쳐서 막았고 가랫굴을 두었다. 이집은 원래 초가였던 것이나 새마을사업으로 스테이트 지붕을 하고 있었다. 또 (그림 10)은 같은 지역의 장재원씨 가옥인데 부엌을 동측으로 둔 3칸뿔집에다 끝에 방2칸을 막아 달아 4칸뿔집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뿔마루는 중앙에 있는 2개의 방 앞에만 놓여있고 가랫굴은 서쪽방 북벽 밖에 있다.



14

(그림 14)는 같은 군내 진관범씨 가옥인데 평면의 기본은 3칸 뿔집을 변형시켜 겹집과 같이 방과 마루를 배치한 것이다. 즉 서쪽에 넓은 부엌을 두어 이곳에 나무간, 찬장, 다락 등을 시설하였고 그 동측에 안방과 옷방을 나란히 놓고 안방 앞에는 마루를 두고 옷방 앞에는 건너방(사랑방)을 두어 불을 따로 지피게 하였다. 그리고 동벽 밖에는 가랫굴을 시설하였다. 이것은 앞의(그림 7)의 경우에서 불당 대신 방을 들인 것이다.

(그림 17)은 같은 군 연영택씨 가옥인데 평면의 기본은 위의 3칸뿔집에다 옷방 앞쪽에 마루와 사랑방을 덧댄 7자집이다. 여기서는 부엌에 벽과 판문을 달아 이곳에서는 발전된 형식이다.

2) 7자집

이 평면 형식은 이미 앞의 충청북도 의 예에서 본

- ⑫ 진관범씨 가옥의 가랫굴
- ⑬ 내부기구
- ⑭ 진관범씨 가옥의 평면도
- ⑮ 제원군 한수면 연영택씨 가옥 전경
- ⑯ 마루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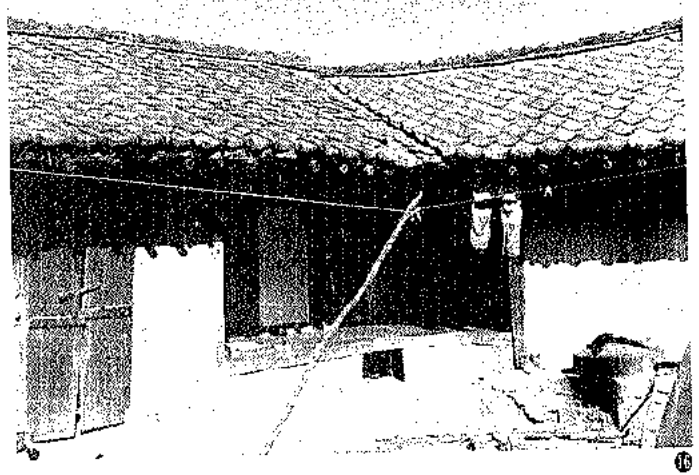
바와 같이 근원적으로는 기본형인 一字形 평면에서 발전된 것이다. 이 형식은 서울을 중심으로 중부지방과 안동, 기타 지방에서도 널리 볼 수 있는 형식이다.

(그림 18)은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한 농가의 평면인데 一字形집에서 마루와 건너방이 연결되어 확대된 형태인데 위의 (그림 17)의 것과 거의 같다. 이러한 형은 결국 부엌을 한쪽으로 놓고 그 전후로 찬방과 안방을 놓고 여기에 직각으로 꺾어 대청마루와 건너방을 놓는 전형적인 서울의 7자집 형식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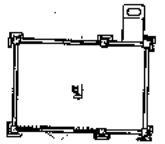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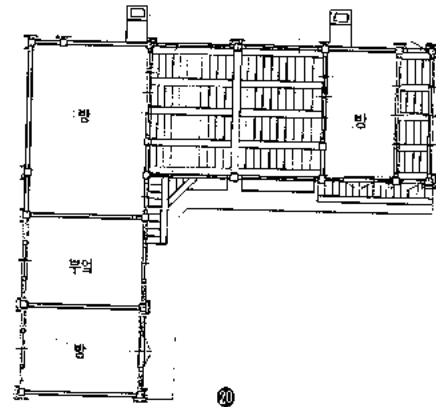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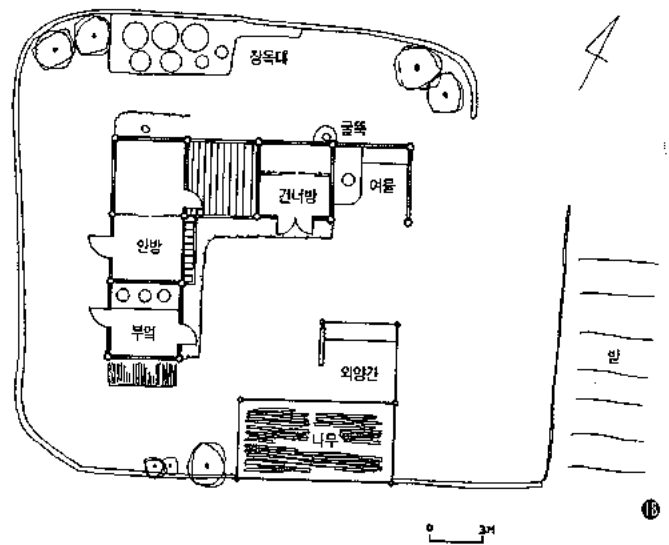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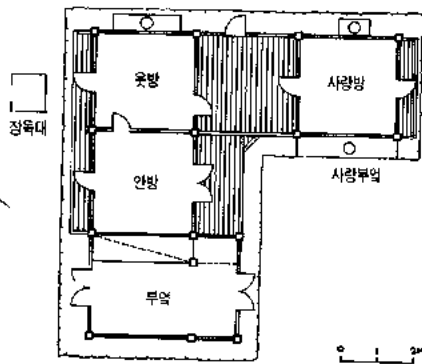
(그림 20)은 서울 원서동에 있는 백흥범씨 가옥의 평면도이다. 서울의 전형적인 7자집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다만 창호 등 일부 변형된 부분이 있고 또 일반형식으로 건너방 앞의 뿔마루를 퇴칸을 만들어 높이고 그 밑에서 군불을 때게 되어있는 방식도 흔히 있다. 부엌은 지반을 낮추어 부뚜막을 통하여 불길



15



16



안방으로 잘 들이게 하였다. 부엌 남쪽에는 찬방을 두고 그 출입은 동측의 뒷마루를 통한 문을 이용하게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 부엌과 통하는 문도 있고 이때 부엌에서 방쪽으로는 뒷마루를 놓아 요리를 할 수 있게 한다. 부엌의 위는 다락층을 두어 안방에서 이 다락에 드나들 수 있다.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는 넓은 대청을 두었는데 그 앞·뒤로 분합문을 달아 겨울에 찬바람을 막는다. 또 대청과 부엌측 사이에는 눈섭마루를 대고 안방의 아래쪽쪽에 좁은 미서기문을 달아 항상 외부를 감시할 수 있게 투명유리 덧창을 달았다.

(그림 23)의 충북 제원군 권호진씨 가옥의 안채는 ㄱ자집의 지방형으로 건너방 앞에 뒷마루를 하고 또 안방이 부엌쪽으로 한 칸이나 더 나와 긴 평면을 하고 있다. 문간채는 一자집으로 되어 대문칸 양 옆으로 방과 사랑방, 그리고 마루間을 놓았는데 특히 전면측으로 퇴칸을 두어 퇴마루를 놓고 있음이 특징이다. 이 집은 조사당시 퇴락이 심하였지만 거의 원형이 보존되었던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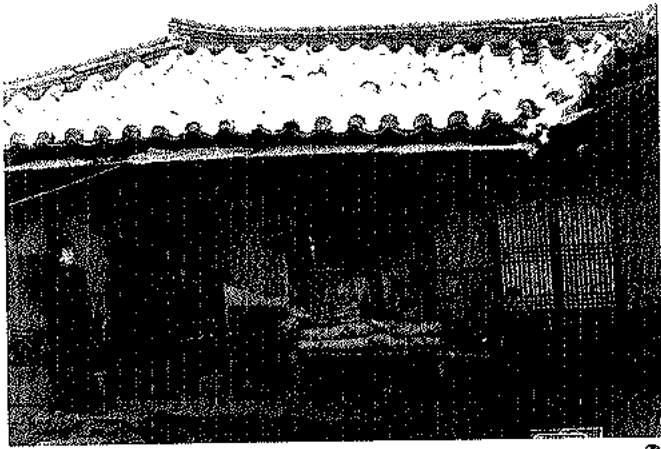
(그림 25)의 안동지방 ㄱ자집은 안방 건너 건너방 대신 庫房을 두고 그 옆에 사랑방을 두었으며 이 들 입구에는 뒷마루를 깔고 사랑방 끝마구리 쪽에도

- ① 연영택씨 가옥의 평면도
- ② 경기도 양주군 농가의 배치도
- ③ 서울 원서동 백흥씨 가옥 부엌과 찬방부분
- ④ 백흥씨 가옥의 배치도

뒷마루를 깔았다. 그리고 부엌 남측에 광을 두었다. 이러한 사랑채의 기능은 (그림 24) ㄱ자 평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너방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와 사랑채 전용의 공간을 둔다. 이 가옥은 안동의 김경장씨 가옥인데 양반의 기와집이다. 원래는 행랑채와 부속건물이 있었던 것이나

조사당시(1980)에는 ㄱ자의 본채와 그 남동쪽에 별당 그리고 북편에 사당이 있었다. 본채는 앞서 설명한 ㄱ자의 안채 평면이다 다시 ㄱ자 사랑채와 대문間을 연결시킨 평면이다. 안채로 통하는 대문은 남서쪽에 정문이 있고 동쪽 건너방과 사랑채 사이에 협문이 한 개소가 있다. 그리고 사랑채는 ㄱ자로 꺾임 부분에 큰 마루를 트여놓고 여기서 사랑방과 사랑마루로 통하게 되어 안채와 출입을 달리하는 마갈과 안사람들의 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그림 26)은 안동군 예안에 있는 봉당있는 초가이다. 전체적으로 동향을 하고 있는 집으로 남측에 본채가 놓이고 북측에 따로 떨어져 사랑과 고방을 두고 있다. 본채는 겹집의 형식인데 그 배치는 한 지붕밑에 정자와 안방, 건너방, 대청마루와 '봉당'이란 안들이 있고 그리고 봉당 옆에는 마굿간이 있으며 그 앞에 대문간채가 있어 환기와 채광을 담당한다.



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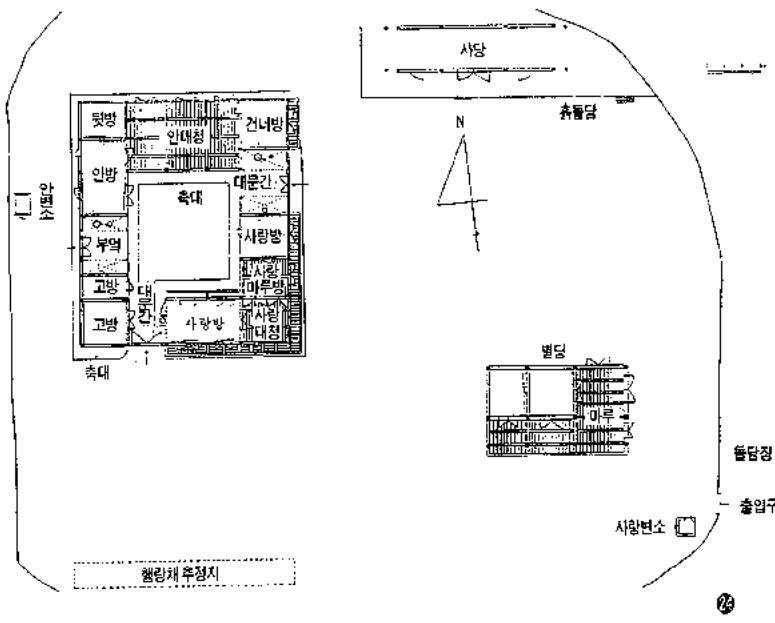
㉒

그래서 이 집은 외부로 보아 一자집인 듯하나 내부의 평면기능은 一字에서 ㄷ字와 또 ㄱ字의 평면기능까지 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한 지붕밑에서 불도 때고 가축도 두기 때문에 지붕에 연기와 냄새를 뽑는 환기구를 두는데 이것을 까치구멍이라 하여 이러한 구멍이 있는 집을 까치구멍집이라 한다.

(그림29)는 역시 안동의 안동권씨인 권종국씨 집으로서 평면이 ㄱ字로 된 기와집이다. ㄱ자본체의 서북에는 따로 떨어진 2間 정자가 있다. 평면의 앞쪽에는 대문칸과 사랑채 그리고 마굿간이 있고 동측에 부엌과 안방, 대청마루와 상방, 그리고 그 앞에 공방이 돌아가며 배치되고 가운데는 안마당이 있다. 여기서 대청이 있는 본채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기단을 훨씬 높이어 문간채 너머로 日照光이 잘 들어오도록 꾀하였다. 이 민가 평면의 방배치의 기본은 앞의 봉당있는 초가집과 같은 것이다. 다만 여기에 사랑방을 추가하여 한 지붕밑이 아닌 터진 공간을 두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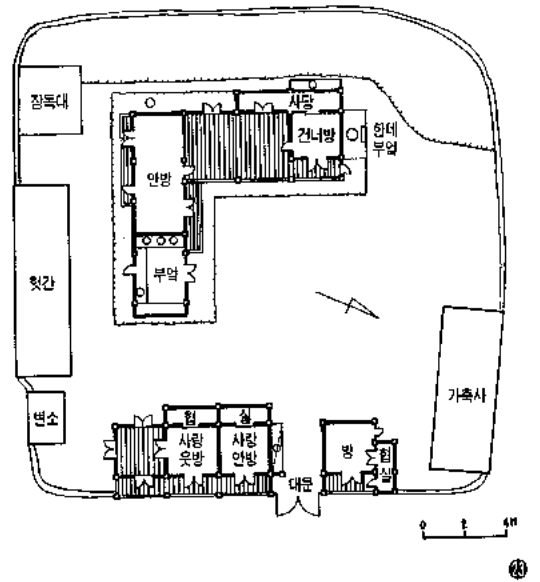
2. 겹집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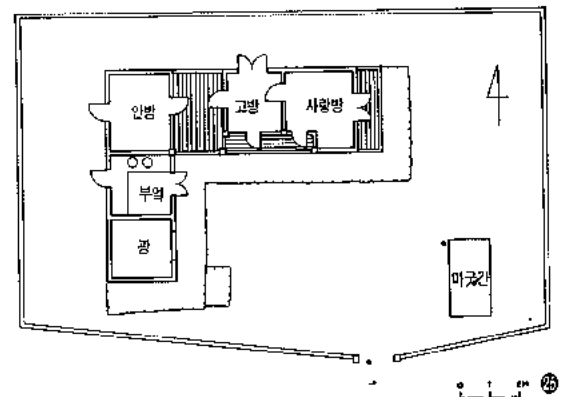
㉓

- ㉑ 충북 제원군 권호진씨 가옥 안채
- ㉒ 사랑채
- ㉓ 권호진씨 가옥 배치도(충북대학교, 충주댐 수물지역문화재지표 조사 보고서에서 전제)
- ㉔ 경북 봉화군 물야면 김경장씨 가옥 배치도(安東文化園 地表調査報告에서 전제)
- ㉕ 경북 안동군 척감씨 가옥 배치도(안동문화권 지표 조사 보고서에서 전제)



㉔

민가평면형은 태백산맥을 中軸으로 서쪽 평지연안에 분포되어 있는 흙집형과 동쪽 내륙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겹집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겹집평면은 추운 山間지방에서 熱관리를 잘하여 열의 소모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의도에서 발생, 발전된 형식이라 말할 수 있다. 그 특징은 정지로 된 부엌 안에, 흙바닥으로 된 부분과 이와 비슷한 면적의 부뚜막 높이 만큼 한 단 높은 온돌바닥(정짓간온돌)을 설치하여 소위 정짓간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는 식사와 기거를 같이 할 수 있어 부엌에서 발생하는 취사용 화기를 그대로 이용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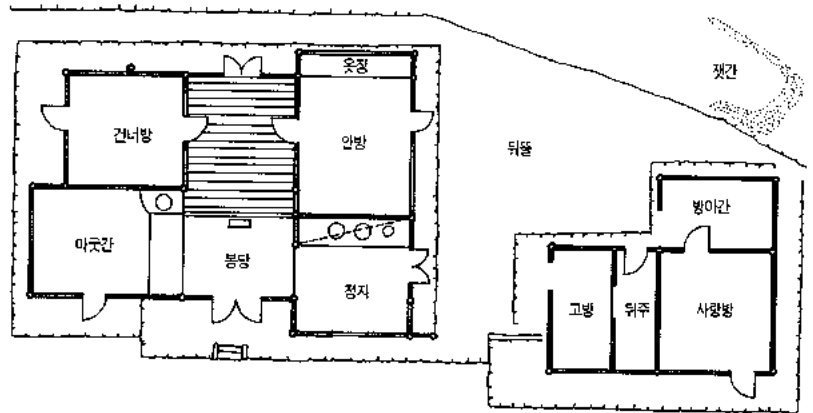


㉕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때 잘 빠지지 않고 역류하는 연기는 전술한 까치구멍을 지붕에 두어 빠지게 한다.

(그림 30)은 함경도의 겹집형 민가의

기본평면으로서 정지의 火氣를 최대로 이용하여 마굿간과 방앗간 등 작업장까지도 같은 공간내에 두는 예이다. 이것이 더 확장되어 田字型 평면을 이루어 우리나라 북동부 지방 민가의 전형적인 평면을 이룬다. 이러한 평면은 초기에 선사시대 움집과 같이 爐와 부뚜막을 중심으로 한 생활공간을 발전시켜 확대하여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평면은 비록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의 전통민가에서도 볼 수 있어 (그림 31, 32)에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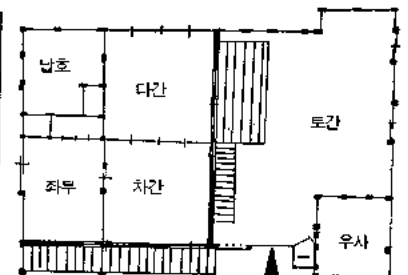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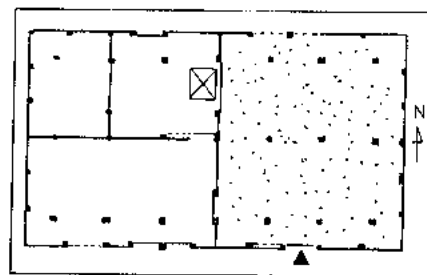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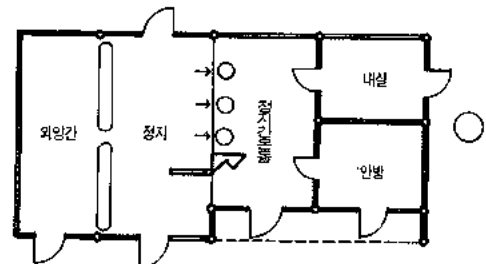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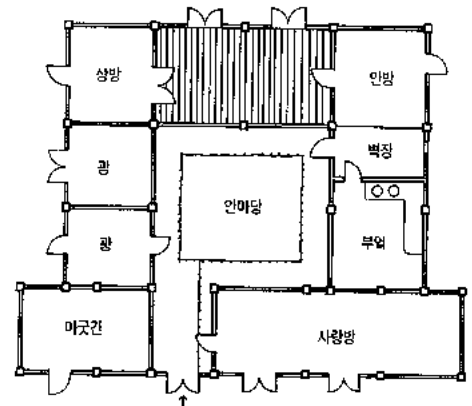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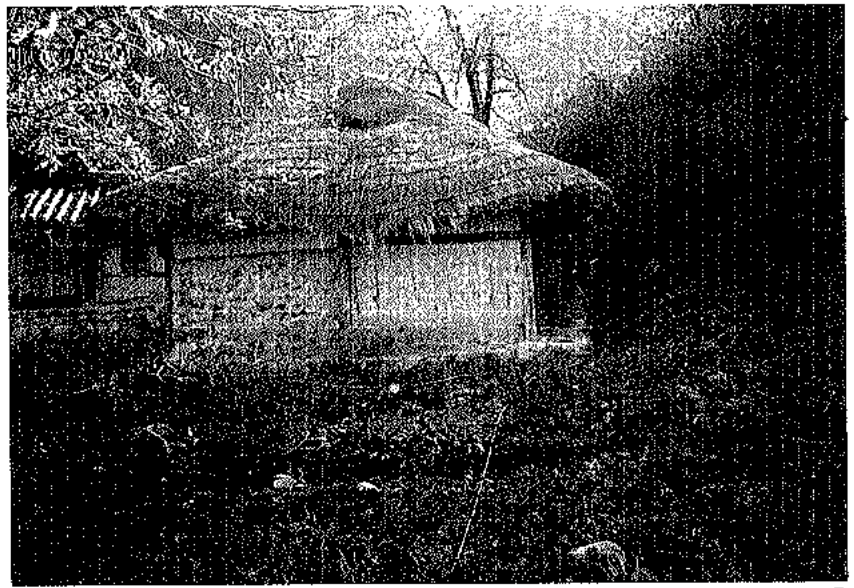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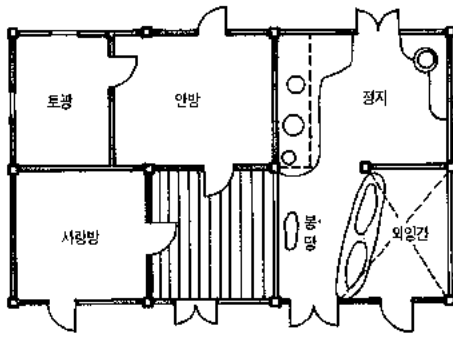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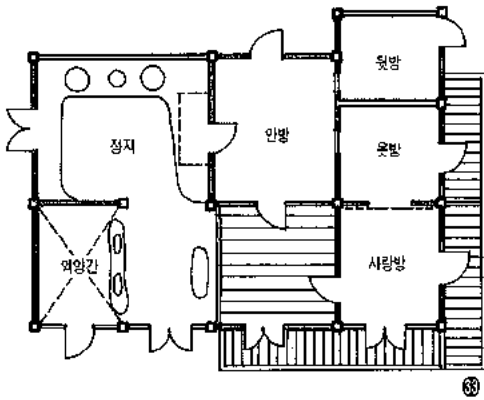
평면을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부뚜막을 둔 부엌이 있지만 그것은 별도로 시설한 것이고 온돌방은 없는 것이 다르다. 이러한 겹집을 우리나라에서는 함경도에서 시작하여 강원도 태백산 以東과 기타 산간지방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산맥을 따라 남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도 삼척의 신리마을의 너와집도 이러한 겹집형이라 할 수 있다. 또 안동과 영동지방의 주택평면이 이와 유사한 유형에 속하고 충청 산간지역에서는 절충식이 나타난다. 즉 안동의 봉당있는 평면은 같은 지붕 밑에 봉당과 정짓간, 마굿간, 대청, 침방 등이 모여있어 열관리상 효율적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짓간에 온돌을 두지 않고 있음이 기후의 다른 점이라 믿어진다.

(그림 33, 34)는 경북 안동과 영덕의 산간지역에 있는 겹집형 주거이다. 이것은 앞에서 기술한 (그림 26) 봉당있는 초가와 (그림 30)의 겹집형을 혼용한 평면이다.

우리나라의 주택평면 발전은 이와 같이 一자型의 기본형을 확장·조합시킨데서 이루어지는데 그 중심적 요소는 취사와 난방시설에 있다. 다만 이러한 조합형에서 조선시대의 유교적 敎示인 男女의 차별로 안채와 사랑채를 구분하게 되었고 이들 공간은 서로 분리되어 Privacy를 지키어 출입도 다른 문으로 하였다. 특히 온돌과 마루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계절에 따라 유용하게 방을 이용하였다는

- ② 안동군 예안면 김종철씨 가옥 배치도 (문화재연구소 자료)
- ③ 김종철씨 가옥 전경
- ④ 방 내부 천장
- ⑤ 안동군 권종국씨 가옥 평면도 (안동문화 지표 보고에서 전재)
- ⑥ 함경도 겹집형 민가 평면도
- ⑦ 古井家주택 (16~17세기) 평면도
- ⑧ 중요문화재 山本家주택 (17세기)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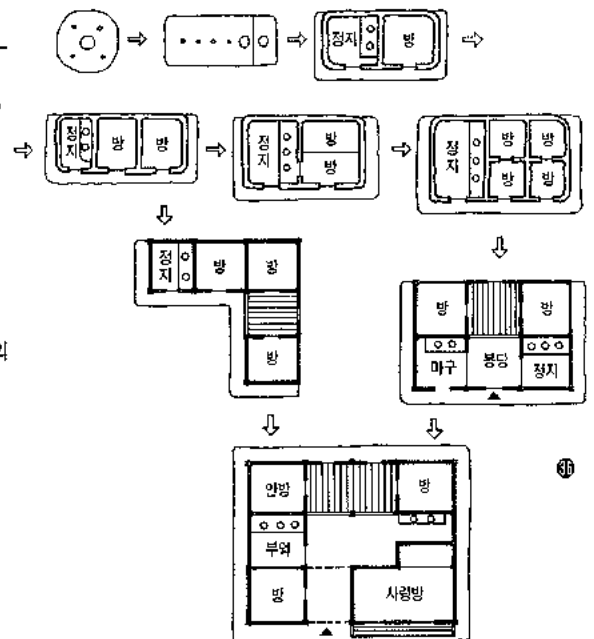
① 안동군 녹전면 사신동 김재훈씨 가옥 평면도(金一鎭, 까치구멍집에 관한 연구)

② 영덕군 창수면 갈천동 박수암씨 가옥(金一鎭, 까치구멍집에 관한 연구)

③ 박수암씨 가옥 측면의 까치구멍

④ 우리나라 민가평면의 발전과정(拙稿, 한국전통 민가의 평면구성과 일본주택의 華甲記念論文集)

⑤ 청덕궁 연경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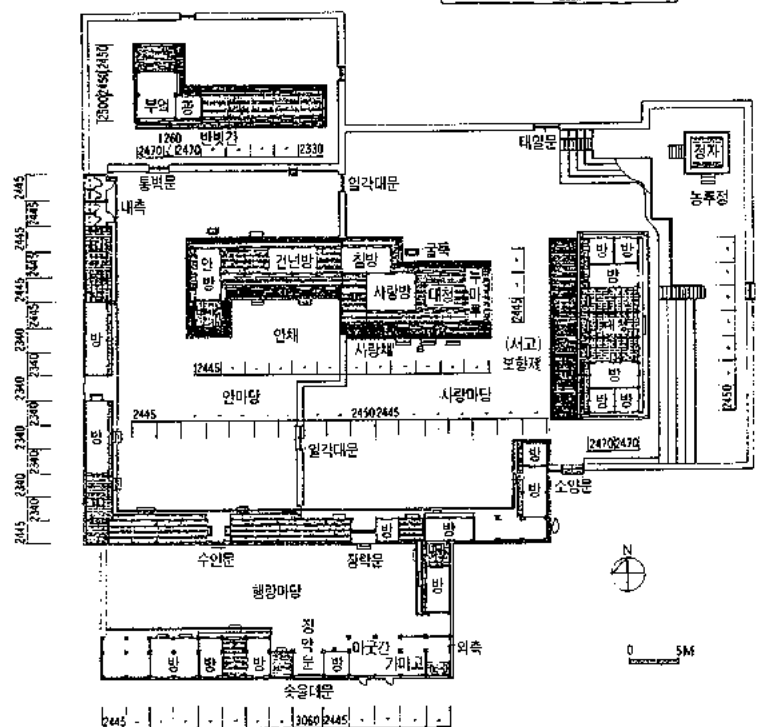


것은 전통건축의 우수한 점이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 사대부집의 표본이라 말할 수 있는 演慶堂에 대하여 기술한다. 창덕궁 비원을 들어서서 언덕을 넘고 芙蓉池와 映花堂을 지나 좌측의 不老門을 들어서면 우측에 愛蓮池를 끼고 올라 작은 도랑이 흘러 석교를 지나 대문인 長樂門의 문간채를 들어서게 되고 그 뒤로 행각과 같이 붙은 長陽門과 脩仁門이 좌우로 변하게 된다. 이 중 좌측에 있는 수인문은 안채로 들어가는 문이고 장양문은 사랑채인 연경당으로 통하는 문이다. 안채와 사랑채는 반대로 꺾인 격석과 같은 평면으로 붙어 있지만 그 앞마당을 낮은 담으로 막아 협문을 통하여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다. 연경당의 동편에는 善齋齊가 있고 그 동북쪽 높은 지대에는 濃繡亭이 있다. 또 안채의 뒤에는 담 밖으로 별채가 있다. 이 건축은 1828년 순조때 세자의 청으로 士大夫의 생활을 알기 위하여 그 주택을 모방하여 지은 것이라 전하여진다. 뒷동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연경당의 시원한 대청과 樓마루 그리고 뜰에 놓인 石槽와 怪石들과 귀한 수목 그리고 안채의 아기자기한 짜임 등은 절경에 가까워 누구든 하루를 묵고 싶은 곳이다.

註

- 1) 拙稿, 우리나라의 暖房施設인 溫突(구들)形成에 대한 研究, 考古美術 165호, 1985.
- 2) 金正基, 우리나라 住宅의 歷史, 住宅公社, 1979.
- 3)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총서, 欣岩里住居址, 1978.
- 4) 주남철, 韓國住宅建築, 一志社, 1980, p. 44.
- 5) 주남철, 前掲書, p. 75
- 6) 영남대학교 박물관, 安東文化園 地表調査報告, 1981.



해양건축을 향하여

Composition of Oceanic Architecture

이용재譯

by Lee, Yong-Jae



잉글랜드 Brighton 소재의 West Pier

해변과 해양환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 관한 글들이 많은 타잡지에 출판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해변시설이나 그 현황 그리고 통제된 물환경을 다루고 있다.

‘해양건축의 구성’이라는 제목의 본특집은 바다와 강과 건축간의 상호관계로 창조된 건축공간을 다루고 있다. 여러 해변건축의 사례의 연계성을 계획, 디자인 그리고 설계과정에서 여러 제반상황을 통해 강조한다.

작품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되었다.

1. 물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건축물.
2. 물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물 위 그리고 물 속의 건축물.

3. 지형적으로 물의 존재로 건축을 향상시킨 건축물.

각 사례는 건축물을 직접 계획하고 디자인했던 건축가의 글과 자료로 설명되었으며, 모든 사례는 물과 건축의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개념을 내포하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제목 아래 분류되었다.

‘물과의 상호작용’ ‘바다를 가로지르는 건축물’ ‘바다위에 떠있는 건축물’ ‘바다를 포용하는 건축물’ 그리고 ‘물 속의 건축물’

우리는 미래의 ‘바다와 건축의 관계’를 건축과 바다 또는 강과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새로운 건축공간을 소개하였다.

아키오 구로야나기
일본대학 해양건축공학과 교수

좁은 국토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해양건축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중요한 분야다.

日本の 건축전문지 「Process」는 최근 Composition of Oceanic Architecture 라는 주제로 특집을 마련하였다.

本誌는 세계의 유명한 각 건축물들을 직접 계획하고 디자인 했던 건축가들의 글과 자료를 토대로 그 내용을 엄선, 정리하여 2회에 걸쳐 회원들에게 소개한다.

— 편집자 註 —

— 목 차 —

- | | |
|------------------|--------------------|
| 1. 마리나 시티 | 9. 테아트르 델 몬도 |
| 2. 리버시티 | 10. 베로나 |
| 3. 캐나다 플레이스 | 11. 아쿠아 폴리스 |
| 4. 포트컴플렉스 | 12. 도쿄 해양공원 |
| 5. 온타리오 파빌리온 | 13. 링 오브 파이어 아쿠아리움 |
| 6. 마리존 | 14. 시애틀 아쿠아리움 |
| 7. 베리어 리크 플로팅 호텔 | 15. 발티모어 아쿠아리움 |
| 8. 플로팅 아일랜드 | 16. 아사즈리 전망대 |

물위의 건축은 미학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준다.

*미학적 영향

물위에 건축을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정복되지 않은 끝없는 물질에 깊이 뿌리박는 것과 같다.

물의 경계선은 단지 육지로 한정될 뿐이다.

물로 에워싸인 건축물은 신비하다.

건축물은 대지위에 놓이지만 물은 우리에게 미지의 것이다.

물위에 세워진 건축물은 그 대지와 동적인 관계를 갖는다.

건축물은 정적이지만 대지는 항상 움직이며 끝없이 깊고 넓은 유체로 이루어진다.

건축물이 반사체인 물위에 세워지면 이는 두개의 건축물을 짓는 것과 같다.

*사회적 영향

물위에서의 음향, 빛 그리고 수분있는 생활은 육지에 집착된 생활에 변화를 줄 것이고 육지에서 제한됐던 새로운 인간관계의 개방감과 감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물의 경관과 소리는 도시주거인에게 빈잡한 도로와 인도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줄 것이다.

*경제적 영향

물위에 건축하는데 드는 높은 건축비용은 대지구입의 경제성으로 보완될 것이다. 대지를 구입하는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물위에 세워진 건축물은 그곳에 와서 즐기고 돈을 쓰는 사람들로 그 가치 이상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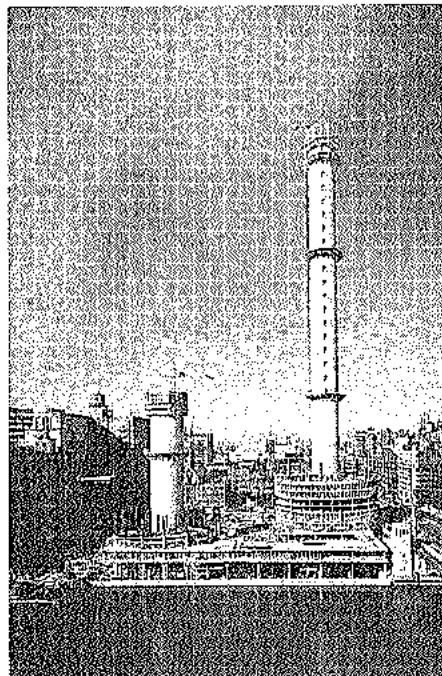
— 버트란드 골드버그 —

1. 마리나 시티(주거 복합건축)

시카고 도심지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마리나 시티는 시카고의 도심지를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휴식하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건설노동조합의 의뢰로 설계되었다. 이 단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조합회원들에게 마련해 줄수도 있었다.

시카고 강변의 4천평대지가 개발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당시 마리나 시티는 미국 최초의 복합건축물(주거, 사무, 위락시설)이었다. 또한 당시만해도 이 건축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 단지였다. 강에서 난방에너지를 끌어왔으며 중앙보일러실이나 굴뚝을 없애고 전기로만 유지되는 건물이었다. 또한 직원들에게 쾌적한 작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리나 시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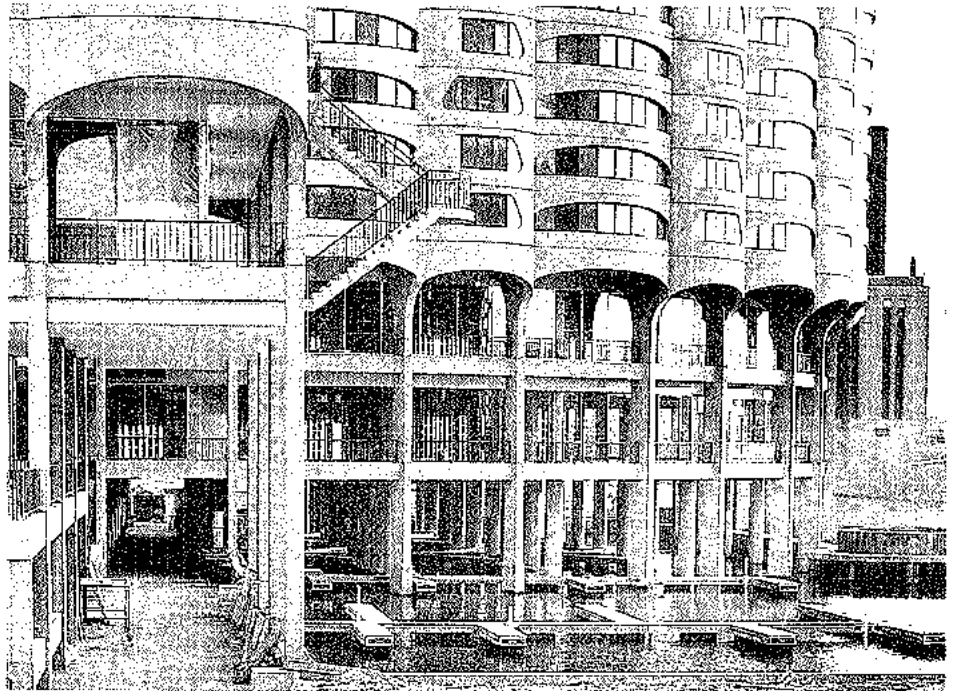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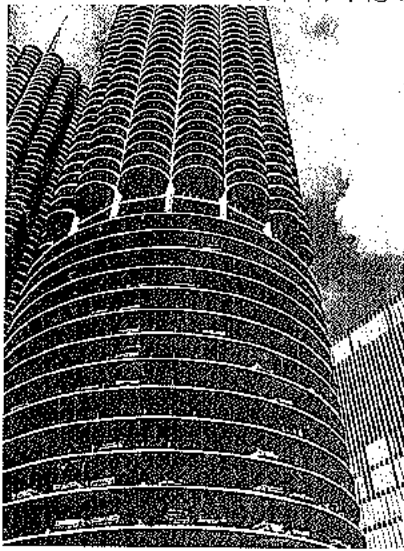


사무실들은 여느 오피스건물보다 밝은 조명이 제공되었고 이 조명으로 사무실의 난방도 해결한다. 중앙 냉·난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인들은 수시로 각자 집의 온도와 환기를 조절할 수 있다.

주거밀도(1,200평당 637명) 또한 당시 세계 최고의 기록이었다. 60층짜리 쌍둥이타워 각층의 14개 주기 유닛트는 각기 소규모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상업용도의 저층부는 500명이 한꺼번에 쇼핑, 영화, 관람, 식사, 스케이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로비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마리나 시티는 쌍둥이타워 주변의 강둑을 깎아 선착장을 만들었다.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주위를 강물이 가득 채움으로써 건물의 이름(marina)처럼 선상도시를 연출해낸다.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선착장의 콘크리트 기둥에는 방수덮개가 씌워졌고 선착장의

마리나 시티 외벽상세



마리나 시티의 전면부

물을 진동시켜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하였다. 30년전 마리나 시티는 물을 내륙으로 끌어들이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고밀도의 도시중심부 한 귀퉁이에 살고 있는 거주인들에게 아이덴티타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마리나시티의 독창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 리버시티(주거용 복합건축)

시카고 도심부 남측에 자리잡고 있는 리버시티는 1만㎡의 철도부지를 복합용도로 재개발하는 계획의 초기단계에 디자인된 것이다. 이 작품은 25년전 건설된

○건축개요

- 위치 : 시카고 강변
- 설계자 : 버트란드 골드버그 어소시에이츠
- 완공 : 1964년
- 면적/대지면적 : 12,100㎡
건축면적 : 12,100㎡
연면적 : 185,800㎡
- 규모 : 6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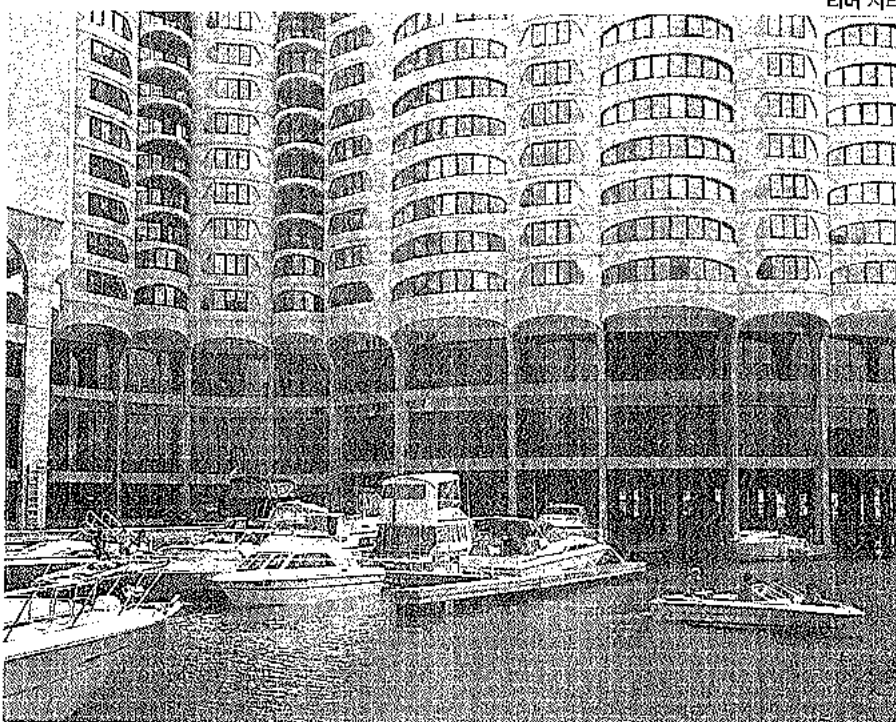
마리나 시티를 어느정도 모태로 삼았다. 마리나 시티는 고층고밀이었지만 리버시티는 중층중밀로 설계되었다. 두 작품 모두 사용되지 않던 강변을 최대한 활용했고 건물 밑으로 강물이 흐른다.

마리나 시티는 25대의 보트를 정박시킬 수 있고 700대의 소형보트를 보관할 수 있다. 리버시티는 건물하부전체가 선착장이며 70대의 보트를 동시에 정박시킬 수 있다. 마리나 시티의 선착장은 뿔뿔이 건물로 막혀있지만 리버시티는 선착장 절반이 하늘로 개방돼 있어 돛단배와 큰 여객선들도 정박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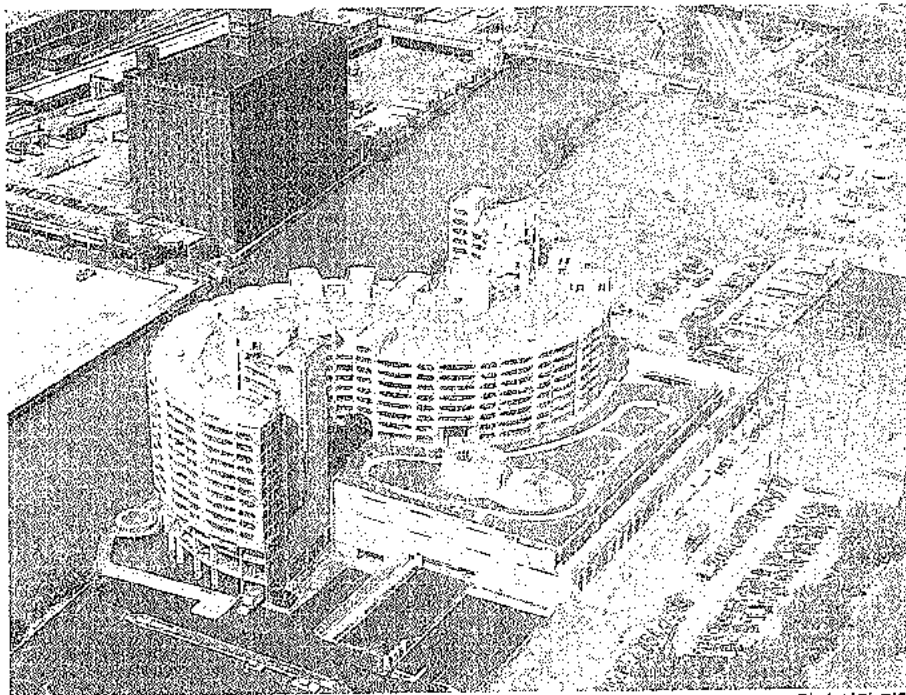
리버시티의 450개의 주거유니트는 200m길이의 시카고 강변을 가득 채운다. 튜블러스 콘크리트 모듈에 따라 나선형으로 배열된 이 건축물은 다양한 곡선형으로 여러 작은 주거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주거 유니트들은 2만㎡의 상업공간과 250대 수용규모의 주차장이 있는 저층부 3개층 위에 계획되었다.

리버시티의 동선패턴은 시카고강변으로 최대한 노출되도록 설계되었다. 진입로비, 상업공간의 통로, 그리고 강변쪽으로 연속된 보도 등은 내부공간과 수공간을 긴밀히 연결한다. 건물완공이후 깎아내어진 강쪽은 강물을 건물내부로 끌어들인다. 그럼으로써 이 디자인은 도로로 둘러싸여있는 도심부에서 신선한 수공간을 연출해낸다.

리버시티의 주거밀도는 1천2백평당 100명으로 마리나시티의 6분의1수준이다. 17층 규모의 나선형 건물에 의해 각 커뮤니티로 분절되며 각층의 천창이 있는 진입복도와 엘리베이터 로비는 만남의



리버 시티



리버 시티 전경

공간이 된다. 주거지역의 최저층부에는 공공 "강변보도"가 배려되어 테라스 유형의 각 주거진입부와 직접 연결된다. 이처럼 건물 자체는 정적이지만 그 밑을 흐르는 강물은 전체 커뮤니티에 동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마리나 시티의 커뮤니티는 수직팽창을 허용하지만 리버 시티의 커뮤니티는 수평적인 확장을 계속 허용한다.

3. 캐나다 플레이스(컨벤션 센터)

이 작품은 엑스포 '86 당시 캐나다 파빌리온으로 사용되었다. 엑스포 이후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컨벤션 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대규모 전시동은 첨단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그 결과 뱅쿠버의 도심지는 항구에까지 확장되었다. 대부분의 북미도시처럼 여기도 도심지와 항구를 철도가 가로지른다. 다만 오피스의 창문을 통해서만 아름다운 조망이 허용된다. 이곳 선착장은 동양으로부터 처음으로 배가 도착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관계로 그같은 항수를 환기시키는 프로미나드의 연출이 요구되었다.

이 프로미나드의 개념은 설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었다. 그것은 항해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뿐 아니라 항구의 활기를 환충 증진시키 줄 것이다.

캐나다 플레이스는 뱅쿠버의 국제적인 상징이다. 컨벤션센터의 저층부에는 3개의 유람선 선착장과 버스정류장, 770대 규모의 주차장 등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타워부분에는 505실 규모의 고급호텔과 세계무역센터의 사무실들이 들어서 있으며 쇼핑시설과 아이맥스극장, 야외원형극장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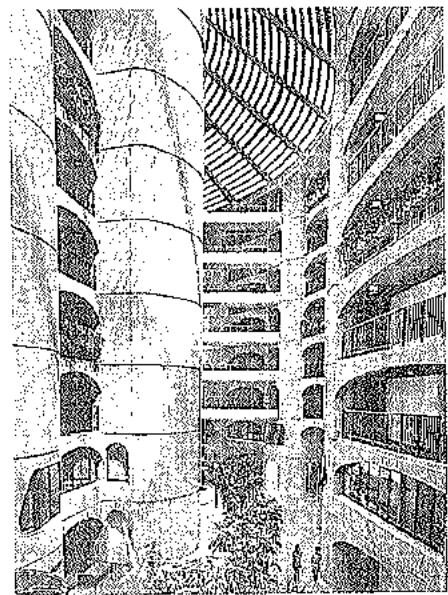
- 위치 : 시카고 강변
- 설계자 : 버트란드 골드버그 어소시에이츠
- 원공 : 1987년
- 면적 : 대지면적/21,750㎡
건축면적/11,800㎡
연면적/100,000㎡
- 규모 : 19층

등도 갖추고 있다.

아제 섬유유리 강화 테프론 지붕은 뱅쿠버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전시공간을 덮고있는 55m스팬의 골결치는 지붕은 마치 돛을 휘날리는 범선을 연상시킨다. 이 해상의 모터브는 전체 컴플렉스에 섬세하게 반영된다. 일련의 옥외테라스는 자연을 배경으로한 다이내믹 한 조망을 허용한다. 그것은 도심부로부터 항구에 이르는 해안산책로의 구실을 할뿐 아니라 화재시 비상로의 기능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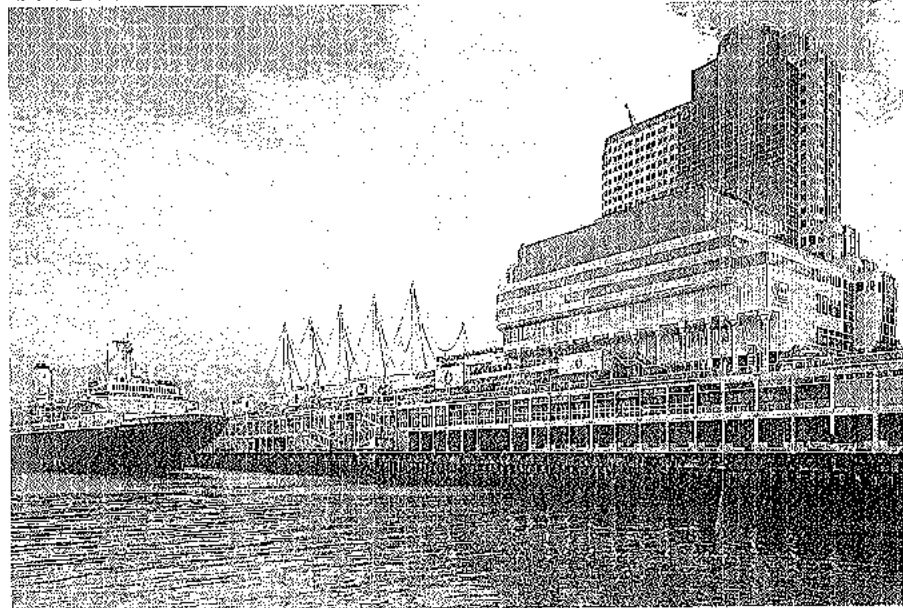
4. 온타리오 플레이스의 포트 컴플렉스(전시복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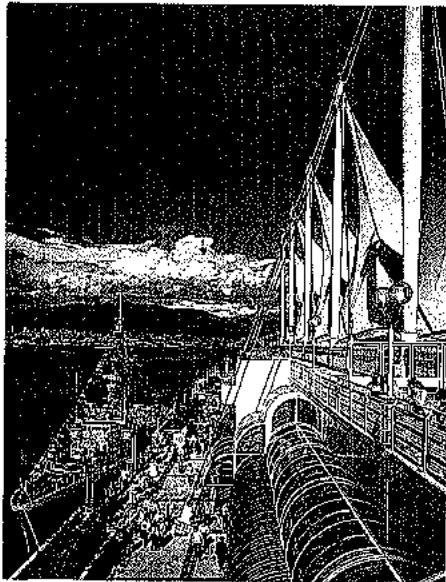
온타리오 플레이스는 시대에 뒤진 캐나다 국립전시장의 온타리오 전시동을 새로



리버 시티의 오픈부

캐나다 플레이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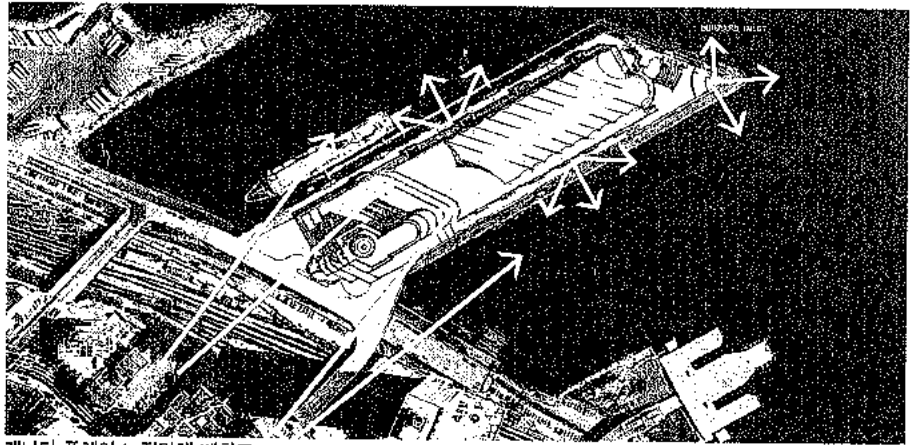


캐나다 플레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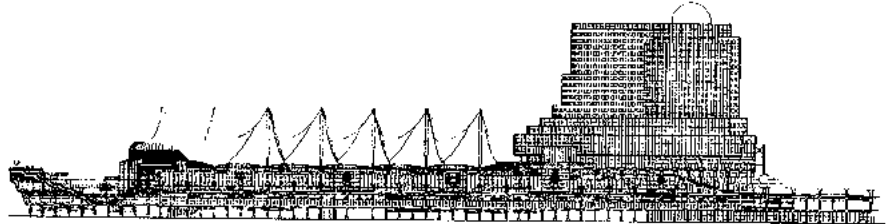
짓겠다고 약속한 온타리오 정부의 계획을 실현한 것이다. 우선 이 전시동은 건축적 기변성과 시대적인 변화요구들을 수용하면서 토론토해변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전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질적인 도시공원을 창출하여 이 도시의 사회적 정신적 요구에 대응해야 했다.

그에 부응하는 결과물로서 초호에 있는 6만평 규모의 인공섬에 5개의 포드(pod) 즉 5개의 전시정자들이 계획되었다. 이 포드들은 약 750㎡의 규모로 모듈화된 3층으로 구성되어 형태상의 중첩과 조화를 허용한다. 또한 이 포드들은 강위에 띄우기 위해 마치 유정탑같이 첨단기술에 의한 최소한의 경량 철골구조를 사용하였다.

토지매립을 통해 조성된 인공섬에는 새로운 공원, 수로, 호수 등이 만들어져 캐나다 국제전시장과 도시를 연결한다. 그 새로운 공원은 조용하고 한적한 휴식공간을



캐나다 플레이스 전망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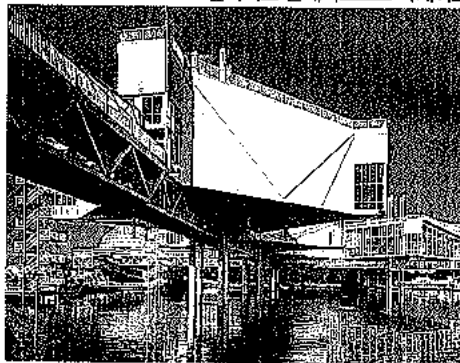
캐나다 플레이스 단면도

○건축개요

- 위치 : 캐나다 밴쿠버
- 설계자 : 에버하드 H. 자이들러
- 완공 : 1986년
- 연면적 : 165,362㎡
- 규모 : 2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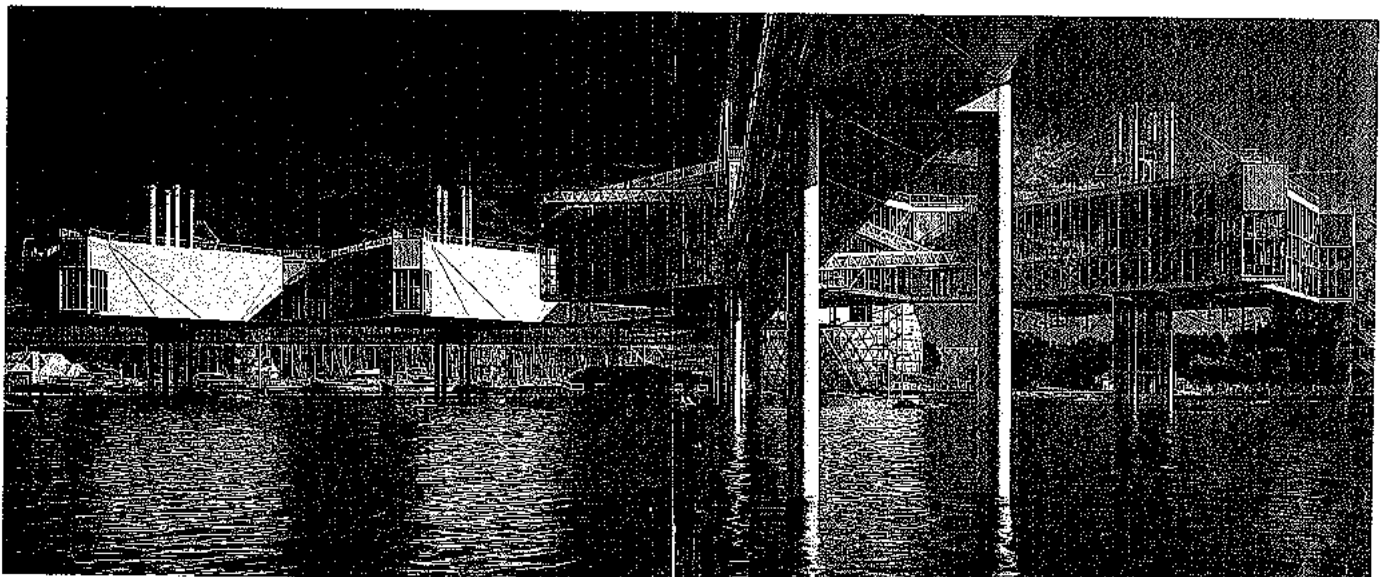
제공하면서 레스토랑, 상점, 스포츠, 문화시설과 같은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온타리오 플레이스포드 아케이드



○건축개요

- 위치 : 캐나다 토론토
- 설계자 : 에버하드 H. 자이들러
- 완공 : 1971년
- 면적 : 대지면적/364,203㎡
건축면적/186,148㎡
연면적/17,651㎡
- 규모 : 메인 파빌리온(3층)



온타리오 플레이스포드 콤플렉스 전경

5. 온타리오 파빌리온, 엑스포 '86—아외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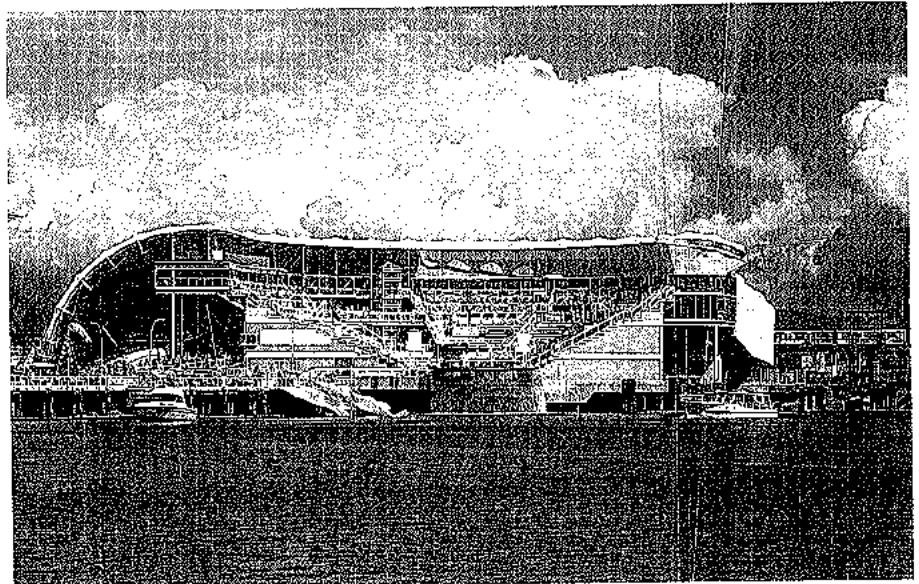
온타리오 파빌리온은 엑스포 '86을 위해 온타리오정부가 외외해 온 건축물이다. 밴쿠버의 펄스 그릭위를 덮는 피어로 지탱되는 반원형의 형태는 엑스포 산책로의 곡선형을 반영한 결과이다. 800㎡규모의 전시공간을 덮고 있는 지붕은 엑스포 '86의 전체경관이 바라보이는 700석의 원형극장을 수용하고 있다. 실리콘이 입혀진 섬유유리질의 반투명 지붕천이 철관과 케이블로 된 반아치형 응력프레임위를 덮고 있다. 이 구조물의 3개층은 야외전시공간으로 사용되며 그 상부층에는 옥상정원, 레스토랑/바, VIP관객시설들이 자리하고 있다.

4개층의 주공간을 램프와 계단으로 서로 연결되며 그 반대편에는 반원형극장이 자리잡고 그 밑에 있는 중앙무대는 나이가가라폭포를 상징하는 인공폭포로 에워싸인다.

다른 전시공간들은 건물하부 3개층에 배치되며 그 상부층에는 수평으로 25m 수심으로 18.5m를 덮는 경량철관과 케이블로 된 반아치형 섬유지붕 구조물로 덮인다.

반원형 계단실로 진입되는 최상층에는 휴식공간과 식사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 최상층의 편익시설들은 가변유리벽체를 통해 원형극장의 상부로 개방되며 그 밖으로 나오면 우천시 패쇄로 가능한 2개층의 테라스 식당에 도달한다.

야외 정원극장은 조류가 밀려드는 펄스 그릭관의 말뚝기초위에 세워져 있으며 최저층의 전시공간은 깊이 20cm의 인공호수로 에워싸인다. 원형극장은 의도된 공연보다 우발적인 이벤트를 수용하는



온타리오 파빌리온 엑스포 '86—아외공연장—

○건축개요

- 위치 : 캐나다 밴쿠버
- 설계 : 에버하드 H.자이들러
- 완공 : 1986년
- 면적 : 대지면적 / 7,081㎡
건축면적 / 36,420㎡
연면적 / 7,617㎡
- 규모 : 4층

활기찬 공공공간으로 의도되었다.

이 퍼포먼스 공간에서 사람들은 앉아서 휴식을 취하거나 점심도시락을 먹으면서 여러 해프닝을 관람하거나 아니면 단지 머물러 있을만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6. 마리존(위락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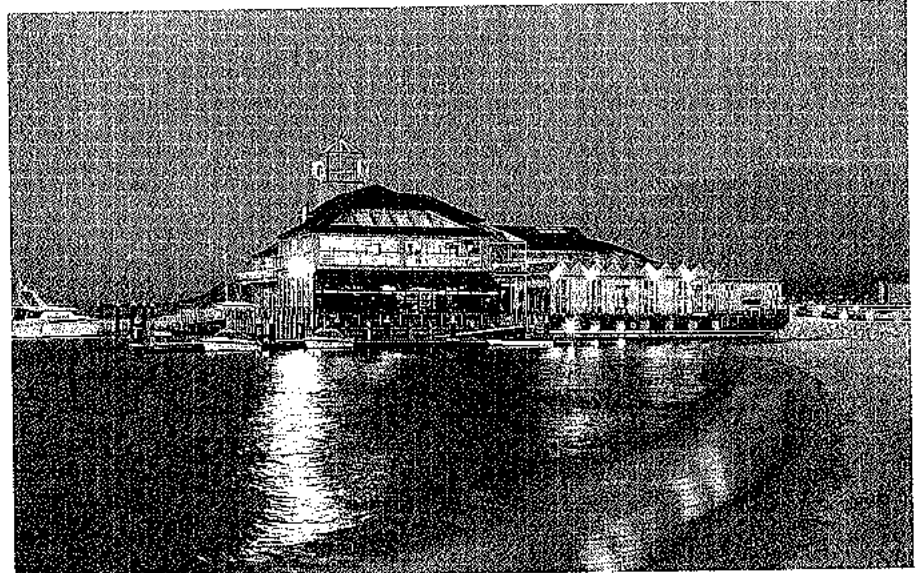
마리존은 도시위락시설로 설계되었다. 우리는 특히 지역적 특성인 해변의 쾌적성에

최대한 유의하였다. 설계프로그램은 두가지 원리 즉 시민들에게의 쇼핑, 위락, 식·음료의 제공은 물론 기존 상주업체들에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두었다.

그 전제로써 우리는 모든 건축물과 해변시설들을 “바다위의 초대형 데크”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육지의 편의 시설뿐 아니라 항구나 해변에서 볼수 있는 해양의 편익시설들이 합치된 복합건축을 창출할 수 있었다.

이곳은 바다 특유의 휴식에 적합한 정적인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도시적인 흥분이 조화되는 환경을 갖게 되었다. 그같은 고요함은 특히 특별히 취급된 테라스에서 느껴지는 해양적인 경험에서 극대화된다. 또한 공간적인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바다와 자연의 조화를 느끼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해 온색 스틸프레임의 파사드와 원초적인 색채들, 삼각형 지붕이 만들어내는 열정적인 조화는 도시적인 삶의 흥분을 환기시켜 준다.

마리존 전경



○건축개요

- 위치 / 일본 후쿠오카시
- 설계 / 미시마 건축연구소+팬타해양구조
- 완공 / 1989년
- 면적 / 대지면적 : 5,600㎡
건축면적 : 2,535㎡
연면적 : 3,905㎡
- 규모 / 3층

1991년도 7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 7월분 1천4백28만4백67㎡보다 17.95%(2백56만3천5백67㎡) 감소한 1천1백71만6천9백㎡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7월분 합계 8천2백4만1천1백99㎡보다 3.71%(3백4만3천3백83㎡) 증가한 8천5백8만4천5백82㎡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 월 비 6월분 1천2백19만6천7백33㎡보다 3.93%(47만9천8백33㎡) 감소한 1천1백71만6천9백㎡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狀態)

(연면적 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분	1990년도	1991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인천	1,207,398	1,838,858	631,460	52.30
광주	292,010	324,390	32,380	11.09
대전	199,120	509,462	310,342	155.86
경북	694,853	697,097	2,244	0.32
경남	1,417,674	1,721,557	303,883	21.44
제주	104,620	112,308	7,688	7.35
감소지역				
서울	3,311,922	1,730,030	(1,581,892)	-47.76
부산	811,282	654,263	(157,019)	-19.35
대구	543,811	320,626	(223,185)	-41.04
경기	3,651,844	2,265,066	(1,386,778)	-37.97
강원	318,059	169,843	(148,216)	-46.60
충북	414,955	363,119	(51,843)	-12.49
충남	599,293	475,585	(123,708)	-20.64
전북	392,301	253,866	(138,435)	-35.29
전남	321,325	280,830	(40,495)	-12.60
합계	14,280,467	11,716,900	(2,563,567)	-17.95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増減狀態)

(연면적 기준)

(단위/㎡)

종별	6월분	7월분	증·감	비율(%)
단독주택	1,159,447	770,026	(389,421)	-33.59
다세대주택	795,109	742,601	(52,508)	-6.60
연립주택	235,299	249,403	14,104	5.99
아파트	6,281,943	4,900,366	(1,381,577)	-21.99
근린생활시설	1,589,255	2,128,132	538,877	33.91
종교시설	63,729	49,261	(14,468)	-22.70
의료시설	7,796	39,079	31,283	401.27
교육연구시설	251,042	312,024	60,982	24.29
업무시설	373,503	716,344	342,841	91.79
숙박시설	17,362	44,544	27,282	157.14
공장	795,217	1,020,563	225,346	28.34
기타	627,031	744,457	117,426	18.73
계	12,196,733	1,716,900	(479,833)	-3.93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7月分)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면적	연면적	건수	면적	연면적	건수	면적	연면적	건수	면적	연면적
서울지부	2,330	2,435	1,666,755	105	109	63,275	0	0	0	2,435	2,544	1,730,030
부산지부	1,497	1,689	606,181	179	226	29,856	51	56	18,226	1,727	1,971	654,263
대구지부	476	517	273,209	555	575	36,552	27	27	10,865	1,058	1,119	320,626
인천지부	449	569	1,806,502	30	32	17,360	30	31	14,996	509	632	1,838,858
광주지부	369	436	306,203	75	81	14,158	13	13	4,029	457	530	324,390
대전지부	284	336	477,968	53	53	13,247	126	132	18,247	463	521	509,462
경기지부	1,786	2,176	2,070,121	155	180	134,915	79	79	60,030	2,020	2,435	2,265,066
강원지부	490	561	125,510	125	151	40,707	19	19	3,626	634	731	169,843
충북지부	542	656	294,849	108	148	59,566	76	76	8,704	726	880	363,119
충남지부	462	509	411,012	155	155	48,071	49	50	16,502	666	714	475,585
전북지부	311	369	207,756	67	82	38,075	26	26	8,035	404	477	253,866
전남지부	505	582	202,158	129	207	68,707	23	24	9,965	657	813	280,830
경북지부	791	936	574,122	150	187	93,327	19	19	29,648	960	1,142	697,097
경남지부	1,118	1,450	1,616,464	169	211	73,554	30	34	31,539	1,317	1,695	1,721,557
제주지부	209	229	107,256	89	89	5,052	0	0	0	298	318	112,308
합계	11,619	13,450	10,746,066	2,144	2,486	736,422	568	586	234,412	14,331	16,522	11,716,900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7月 合計分)

구분 지부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지부	30,074	31,086	16,872,586	607	646	399,377	0	0	0	30,681	31,732	17,271,963
부산지부	10,836	13,637	5,924,925	1,395	1,818	343,516	276	308	157,371	12,507	15,763	6,425,812
대구지부	5,526	6,107	3,464,970	2,913	3,061	301,073	227	231	106,127	8,666	9,399	3,872,170
인천지부	3,108	3,949	4,629,176	181	217	115,238	129	132	57,553	3,418	4,298	4,801,967
광주지부	3,001	3,266	1,735,858	555	591	194,420	64	64	16,035	3,620	3,921	1,946,313
대전지부	2,678	3,315	3,627,440	288	316	159,857	634	684	103,463	3,600	4,315	3,890,760
경기지부	16,703	19,779	16,753,838	1,191	1,350	669,147	494	494	460,584	18,388	21,623	17,883,569
강원지부	3,442	3,943	1,434,641	806	948	233,371	95	95	29,220	4,343	4,986	1,697,232
충북지부	4,311	5,192	2,959,797	725	905	386,336	346	346	55,181	5,382	6,443	3,401,314
충남지부	3,757	3,981	2,428,870	837	838	263,484	220	221	81,725	4,814	5,040	2,774,079
전북지부	2,520	3,018	2,141,873	551	634	430,311	141	143	33,972	3,212	3,795	2,606,156
전남지부	4,006	4,707	2,077,145	873	1,221	379,697	183	198	42,341	5,062	6,126	2,499,183
경북지부	5,927	7,027	3,923,907	1,241	1,512	785,664	142	146	103,095	7,310	8,685	4,812,666
경남지부	9,625	11,688	9,527,058	1,556	1,798	624,067	242	250	102,011	11,423	13,736	10,253,136
제주지부	1,745	2,030	874,987	734	743	73,275	0	0	0	2,479	2,773	948,262
합 계	107,259	122,725	78,377,071	14,453	16,598	5,358,833	3,193	3,312	1,348,678	124,905	142,635	85,084,582

用途別 全國圖書申告概況(7月分)

구분 용도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4,817	4,962	717,969	891	924	47,284	78	78	4,773	5,786	5,964	770,026
다세대주택	1,344	1,545	737,397	26	26	2,806	28	33	2,398	1,398	1,604	742,601
연립주택	169	221	248,864	1	1	470	1	1	69	171	223	249,403
아파트	292	979	4,885,035	9	9	9,588	5	5	5,743	306	993	4,900,366
근린생활시설	3,238	3,380	1,955,916	491	530	78,192	300	305	94,024	4,029	4,215	2,128,132
종교시설	76	86	29,754	34	35	14,805	10	10	4,702	120	131	49,261
의료시설	7	7	4,436	9	12	34,195	1	2	448	17	21	39,079
교육연구시설	47	59	190,769	75	99	102,904	20	20	18,324	142	178	312,024
업무시설	155	164	669,450	55	59	34,482	15	16	12,412	225	239	716,344
숙박시설	13	16	13,409	5	5	1,180	12	14	30,055	30	35	44,644
공장	486	833	725,695	214	389	251,660	51	53	43,208	751	1,275	1,020,563
기타	975	1,198	567,345	334	397	158,856	47	49	18,256	1,644	1,644	744,457
합 계	11,619	13,450	10,746,066	2,144	2,486	736,422	568	586	234,412	14,331	16,522	11,716,900

用途別 全國圖書申告概況(1~7월 合計分)

구분 용도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52,713	54,156	8,913,647	6,374	6,705	420,483	408	410	29,253	59,495	61,271	9,363,383
다세대주택	11,341	12,726	5,811,073	226	239	24,942	117	143	11,099	11,684	13,108	5,847,114
연립주택	919	1,276	1,637,770	22	25	10,598	6	6	1,116	947	1,307	1,649,484
아파트	1,724	7,853	32,965,473	86	116	164,551	33	50	32,051	1,843	8,019	33,162,075
근린생활시설	29,309	30,877	13,677,937	3,174	3,323	719,066	1,719	1,745	492,553	34,202	35,945	14,889,556
종교시설	629	743	412,144	293	339	127,021	41	44	16,506	963	1,126	555,671
의료시설	56	75	330,172	51	59	76,934	16	17	8,554	123	151	415,660
교육연구시설	315	465	1,016,313	405	532	541,107	135	144	67,045	855	1,141	1,624,465
업무시설	1,014	1,111	3,984,719	346	367	244,712	73	74	109,106	1,433	1,552	4,338,537
숙박시설	160	198	434,461	64	93	56,119	54	57	64,152	278	348	554,732
공장	3,533	6,115	5,576,742	1,619	2,620	2,107,185	300	315	207,599	5,452	9,060	7,891,526
기타	5,546	7,130	3,616,620	1,793	2,180	866,115	291	307	309,644	7,630	9,617	4,792,379
합 계	107,259	122,725	78,377,071	14,453	16,598	5,358,833	3,193	3,312	1,348,678	124,905	142,635	85,084,582

신 입 회 원



朴泰根(5年)
서울대 건축, 동대학원
미도, 대림건축(종합)
경기 수원 권선 교동 20-2
252-1659



趙和衍(56年)
충남대 건축공
기림건축
서울 마포 서교 303-5
323-2877



朱浩廣(59年)
연세대 건축공
형상건축
서울 강남 도곡 448
579-3232



李全浩(59年)
연세대 건축공
형상 건축
서울 강남 도곡 448
579-3232



朴萬浩(55年)
서울대 건축
나상건축
서울 서대문 연희 80-2
325-3648



崔昌道(52年)
서울산업대 건축
(주)대흥건축(종합)
서울 서초 방배 795-25
534-6322



玄海仁(42年)
연세대 건축, 동대학원
한길건축
서울 은평 녹번 155-23
388-0017~9



李世權(57年)
전남대 건축
죽림한마당건축(종합)
서울 강남 대치 909-2
569-5842~3



金珉煥(51年)
경북공고 건축
아성·대성·다에건축(종합)
서울 강남 도곡 957-10
554-3003



鄭相謨(57年)
전북대 건축
팀·자성건축(종합)
서울 강남 신사 572-3
545-6078



金宗安(57年)
중앙대 건축
(주)천일건축(종합)
서울 강남 논현 91-20
546-1001



都大洙(61年)
대림공전 건축
루·트건축
경기 군포 금정 44-7
54-0614



崔得福(34年)
한양대 건축공
구상건축
서울 서초 서초 136-13
553-5391



金龍翼(54年)
동아대 건축, 중앙대학원
대인건축
서울 성북 삼선 5-15
927-9261~3



裴泰鉉(56年)
건국대 건축공
성일·세진·미도건축(종합)
서울 강남 도곡 543-2
553-9305



趙賢濟(38年)
한양대 건축
삼취·종한건축(종합)
서울 동작 사당 1044-11
586-6266



李基洙(53年)
대전공대 건축공
木成건축
대전 중구 선화 151-13
254-8401-2



張炳虎(51年)
경북산업대 건축
대화건축
대구 달서 삼산 155-23
558-5002, 555-1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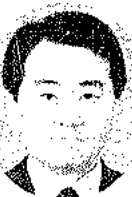
金敏演(54年)
서울대 건축
한양대 건축
경기 수원 권선 교동 20-2
252-1659



李曉鐘(55年)
한양대 건축, 동대학원
마당건축
경기 김포 사우 186-8
83-4401



趙炳勳(57年)
서울산업대 건축
윤·동지·조훈건축(종합)
경기 파주 금촌 768-16
944-3388



尹相淇(56年)
승전대 건축, 건국대학원
카스건축
서울 서초 방배 450-16
522-2863



李澤濤(49年)
중앙대 건축공, 서울대학원
木成건축
대전 중구 선화 151-13
254-8401-2

水害地域 温情 잇달아

태풍 클레디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영남지방의 수해복구 작업에 전국 建築士들의 温情이 잇따르고 있다.

本協會 全國會員일동은 지난달 30일 한국일보사에 수재의 연금 1천1백10만3천원을 기탁한데 이어 각 시도 건축사회 및 분회별로 수재민돕기 성금을 모금, 전달하는 한편 특히 수해피해가 극심했던 경상북도건축사회(회장 崔種培)와 경우 관내 1천여동의 진파, 반파 수해주택(85㎡이하)에 대해 설계 및 감리비를 전액 면제키로 하고 수해복구작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경상남도건축사회(회장 崔鳳厚)에서도 도내 피해주택 1백여동에 대한 설계비 50%를 감면키로 하여 훈훈한 온정의 손길을 펼쳤다.

각 시도 건축사회별 수재의연금 기탁현황은 다음과 같다.

· 吳雲東회장외 전국회원일동 1천1백10만3천원-8.30한국일보사

- 부산직할시건축사회 회원일동 2백6만원-8.31부산일보
- 인천직할시건축사회 회원일동 1백만원-9.5인천일보사
- 경기도건축사회 회원일동 3백만원-8.9 경기도청
- 고양분회 5십만원-7.25 송탄분회 1백6십만원-7.30 부천분회 7십만원-7.27 안양분회 5십7천원 상당의 생활품-7.29
- 충청북도건축사회 회원일동 1백만원-9.2 충청일보사
- 경상남도건축사회 회원일동 2백만원-9.2 경남신문사
- 울산분회 2백만원-9.2 삼천포분회 30만원-9.4 충무분회 1백만원-9.2 김해분회 1백만원-9.2 진주분회 30만원-8.31
- 제주도건축사회 회원일동 1백만원-9.2 제주신문사

한편 경기도건축사회(회장 李一潤)는 지난 7월31일 경기도청을 방문, 진경위문금 1백15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ARCASIA 代表團 파견

本協會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中國 北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ARCASIA) 이사회 및 토론회(FORUM 6)에 吳雲東회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한다.

ARCASIA理事團으로서 매년 개최되는 정례이사회 참가와 더불어 '아시아에서의 대단위 집단 공동주택의 새로운 경향'이라는 주제로 6회제를 맞는 토론회에 참석, 아시아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택공급 문제를 심도있게 토론,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민주택 공급계획에 적극 동참함을 물론 외국의 건축관련 신기술 및 정보 습득을 통하여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될 이번 대표단 활동은 또한 본 협회측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주의 참석을 유도함으로써 남북建築士界의 교류가 이루어질것으로 귀추가 주목되어지고 있다.

日 建築士會 全國大會에 대표단 파견

本協會는 오는 26,27 양일간 개최되는 日本 建築士會 제34회 全國大會에 5인 공식대표단을 파견, 결연단체인 양協會간

의 우의를 돈독히하고 상호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會員사무소 CAD이용실태 설문조사

지난 6월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건축사사무소의 CAD이용실태 파악 및 향후 전산화의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본 협회 건축전산위원회에서 실시한 CAD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회원사무소에서 향후 업무전산화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총 835통이 회신된 이번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835명 중 전산화 실시 사무소가 267개소(32%), 전산화 계획 사무소가 530개소(63.5%), 전산화 계획이 없는 사무소는 38개소(4.5%)로 구분되었으며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무소 568개소중 93.3%인 530개소가 향후 전산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산화 계획년도는 1992년도가 231명(43.6%)으로 가장 많고 1993년도가 147명(27.7%), 1991년도는 91명(17.2%)이 응답하여 향후 1,2년내에 전산화 하겠다는 회원이 응답자중 469명(88.5%)으로 나타났다.

현재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질문에서 사무소에 컴퓨터 설치 및 CAD이용 최초 년도는 90년도 설치가 80명(30%)으로 가장 많았고 CAD 최초 이용년도는 90년이 102명(38.2%), 91년 78명(29.2%),

89년 44명(16.5%) 88년이 14명(5.2%)순으로 89년 이후가 응답자의 224명(83.9%)으로 나타남으로써 최근 2~3년사이 산업계 전반에 불어온 컴퓨터 그래픽의 확산이 건축 설계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닌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의 사용분야는 (복수응답) 실시도면 작도가 229명(30.3%), 구조해석이 106명(14%), 문서작성이 158명(20.9%), 사무소관리가 111명(14.7%) 등으로 나타났는데 89년도 조사시에는 구조해석분야 이용이 35%였고, CAD분야(실시도면 작도)가 12%였던 것으로, 컴퓨터 사용 용도가 복잡한 수치계산을 처리하던 구조해석 분야에서 CAD분야로 주 활용 경향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전산회사 컴퓨터의 활용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는 (복수응답) 실시도면 작도가 478명(23.6%)이 응답하여 가장 많았으며, 구조해석이 362명(17.9%), 투시도 319명(15.7%), 사무소 관리가 294명(14.5%)으로 나타나 이미 전산화한 회원이 건축설계분야에서 활용이 미흡한 반면 향후 전산화 계획 회원은 건축설계분야에서의 많은 활용을 예정하고 있었다.

全國建築士大會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본협회에서는 올해로 3회째 개최한 전국건축사대회의 개최성과 점검과 향후 발전방안의 토대를 마련키위해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20일동안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총 949명중 767명(80%)이 매년 대회개최를 원했으며, 개최지로는 서울위주에서 벗어나 지방에서도 순회하며 개최할 것을(60%) 원했다. 연수와의 병행문제에 있어서는 80% 회원이 전국건축사대회와 병행할 것을 원했으며, 예산확보방안으로는 일부협회예산과 대회부대사업으로 충당할 것을 원했다.

그리고 행사내용의 보완문제에 있어 토론, 강연, 작품전시 프로그램을 늘려줄 것을 원했으며, 개최시기는 11월중 장기흥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것을 다수회원이 희망했다.

건축사 면허 취소

건설부는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박재동씨(면허번호 제4484호)에 대해 지난 27일자로 면허취소조치를 취하였다.

空間아트아카데미 '91 하계건축학교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는 80년초 故김수근회원의 발의로 시작된 공간아트아카데미의 일환으로 “變換”이라는 주제로 지난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공간아트아카데미 '91하계건축학교를 실시하였다.

전국 각 대학(원) 건축학과 및 설계실무 5년이하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포트폴리오와 서류심사를 통해 40명의 학생은 선발하고 김광현, 김병윤, 도창환, 동정근, 민정식, 송효상, 신기철, 우경국, 이상립, 조성룡 등 10인의 건축가가 튜터로 참여한 이번 하계건축학교는 7월31일 개교식에 이어, —일본 후쿠오카시 넥서스월드(Nexus World, 코디네이터 아라타 이소자키) 비디오 감상과 좌담(우경국, 장세양)(7.31) —김수근건축전 비디오 감상 및 김수근건축에 대한 즉석토론(우경국, 장세양)(8.1) —1차 내부평가: 학생들의 발표와 교사들의 토론 —조성룡·우경국 씨가 '유럽건축 新기행'이라는 타이틀로 슬라이드쇼(8.2) —최종안 평가 및 전시장 디스플레이 및 스튜디오주변 정리(8.4)의 順으로 진행되었으며 8월17일 공간포럼에서는 공간아트아카데미의 진과정을 비디오로 공개하고 작품평가 및 Open Critic이 있었다.

이 행사는 올해로 처음 실시되는 건축아카데미로 앞으로 공간의 주요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全南大 본관 현상설계경기 발표

전남대학교가 지난 5월 일반현상공모한 전남대 본관의 설계경기 당선안에 종합건축사사무소 단우·모람(대표 崔命喆)案이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졌으며,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원(대표 柳翼鉉)案과 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대표 韓鍾彦)案을 우수작으로 선정, 각 3백만원이 지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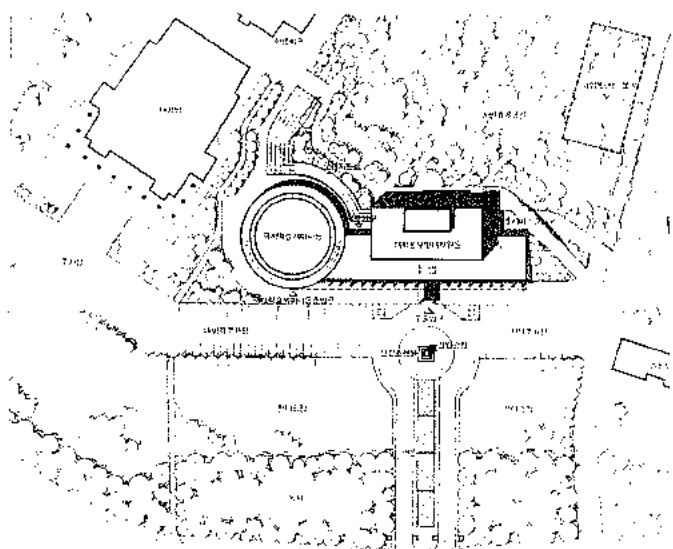
이번 설계경기의 공모지침은 부지면적 30,000㎡(9,090평), 건물규모 9,500㎡(2,878평)에 당초 마스터 플랜이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캠퍼스의 장기적 발전을 상징하는 진취적이

고 미래지향적인 구심적 건물로, 대학의 상징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으로서 대지는 비교적 완만한 구릉지와 평지의 경계지역으로 북측에서 남측으로 경사지어 흐르는 듯한, 지형상 요지인 블록하게 튀어나온 낮은 구릉지에 위치한다.

전남대 본관은 대학본부 및 대학원동과 국제학술세미나등의 기능을 수용하는 건물로 각 기능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설계의 관건이 되었으며, 캠퍼스건물로 아카데미한 상징성과 현대성이 요구되었다.

당선작

종합건축사사무소단우모람(대표崔命喆)案



대지면적/11,400㎡

건축면적/2,554.6㎡

—대학본부 및 대학원동/1,433㎡

—국제학술세미나동/1,121.6㎡

—건축연면적/9,407.5㎡

—대학본부 및 대학원동/7,109㎡

—국제학술세미나동/2,298.5㎡

규모/지하 1층, 지상 9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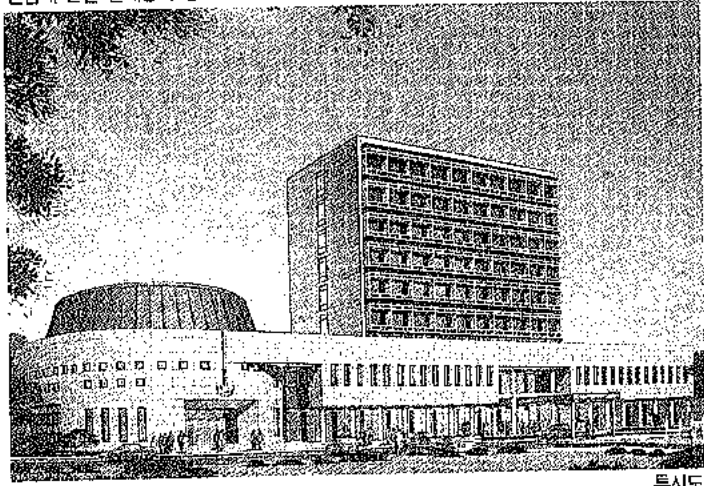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화강석버너마감+화강석

벽칠(애벌 그라니트)

주차대수/53대

전남대 본관 설계경기 당선작인 단우모람 건축소



투시도

배치계획

대지는 접근성과 본관의 상징성 등으로 인해 남쪽의 강한 정면성이 요구되며, 정문과 후문을 잇는 중심도로변으로 공식적인 접근은 정문이지만, 신시가 지 개발로 후문쪽의 진입동선이 중요시된다.

· 축: 기존 건물과의 연계 및 지형에 따라서 동서로 길게 배치하고 주입입 방향을 고려하여 남쪽에 강한 정면성을 부여함으로써 동서의 기능적 축을 형성하고 남북의 시각적 축을 부여한다.

· 동선: 중심도로의 산만한 보행동선을, 전면광장 및 회랑을 설치함으로써 지층부 전면에서 주조름이 형성되도록 하고 후면의 녹지와 연계된 동선은 소극적인 동선처리로 전면의 활기찬 동선과 분리시킨다.

· 매스: 기존 녹지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등고선을 따라 동서로 길게 지층부를 배치하고, 강한 정면성을 갖는 고층부를 배치하여 본관의 상징성을 강조한다. 서측 대강당의 육중한 매스와 본관 고층부의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원형의 국제학술세미나동을 배치한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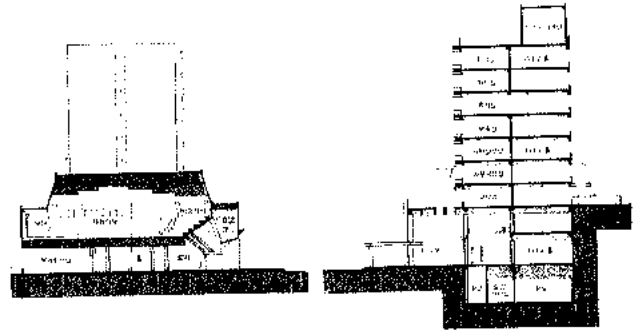
본부, 대학원동 및 국제학술세미나동을 단일건물로 계획하여 각 동의 지원시설을 같이 사용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저층부에 로비 및 휴게실 등의 공용부분을 국제회의장의 로비와 연결시키고 전면에 회랑을 두어 서로 다른 기능과의 유기적 결합 및 내의공간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킨다.

본부 및 대학원동의 기본모듈은 $3.6\text{m} \times 3.6\text{m}$ 로서, 각 실의 레이아웃은 $7.2\text{m} \times 7.2\text{m}$ 를 기본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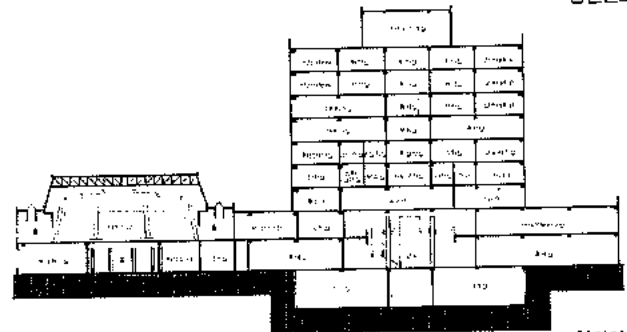
입면계획

저층부는 등고선을 따라 배치하고 석재로 마감하며 정면에 회랑을 두어 기존건물의 이미지를 수용하고, 주출입구는 2개층 높이를 후퇴시킴으로써 건물의 정면진입을 강조한다. 고층부는 건물정면에 $3.6\text{m} \times 3.1\text{m}$ 의 차양을 둬서 규칙적이고 통일감있는 정면성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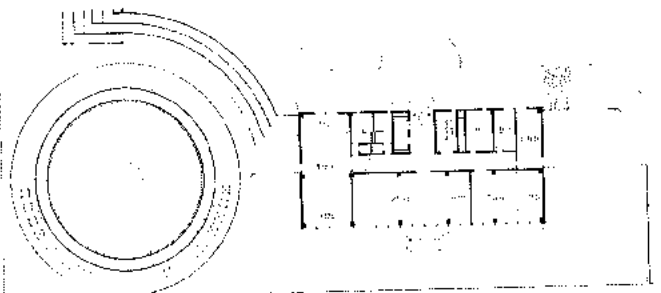
저층부의 Solid한 Podium위는, 0.9m 돌출된 차양에 의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음영효과를 갖는 입면으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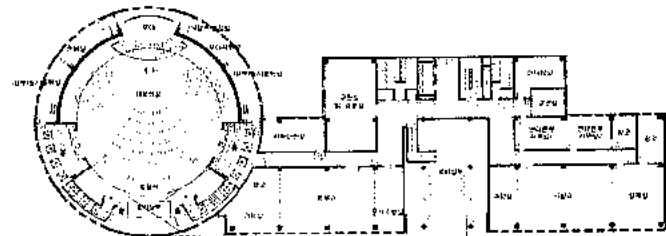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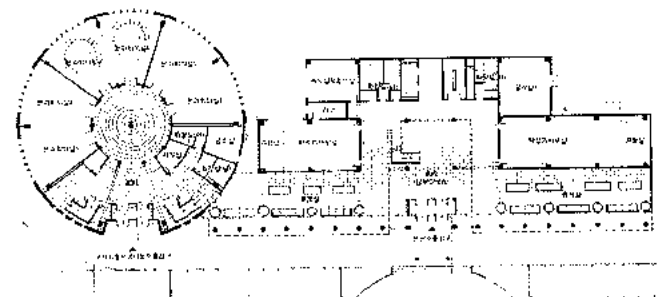
횡단면도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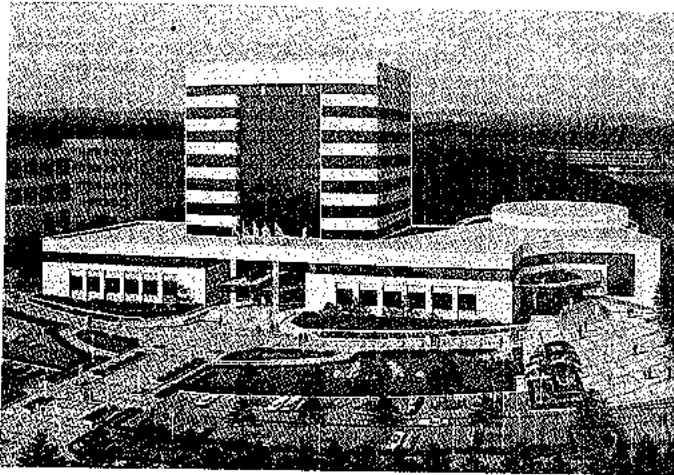
2층평면도



1층평면도

우수작

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대표 韓鍾彦)案



배치계획

대학행정의 중심인 대학본부 및 대학원동 그리고 국제학술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학술세미나동 등 3개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치가 요구되었다.

건물은 남북의 방위축과 동서의 도로축이 교차하는 방사상의 형상을 이룬 중앙부에 위치한다. 좌측으로는 대강당의 방향성을 가진 축이 형성되어 있으며, 우측으로는 구룡으로 이어지는 자연축이 있어 대강당축과 자연대축의 완충적인 새로운 축으로 의도했다.

남남동향을 제외한 모든 방향에서 저층부의 시야가 단절되며 수목과 주위건물에 의한 대지의 시야 단절로 본 건물의 랜드마크적인 고층부가 요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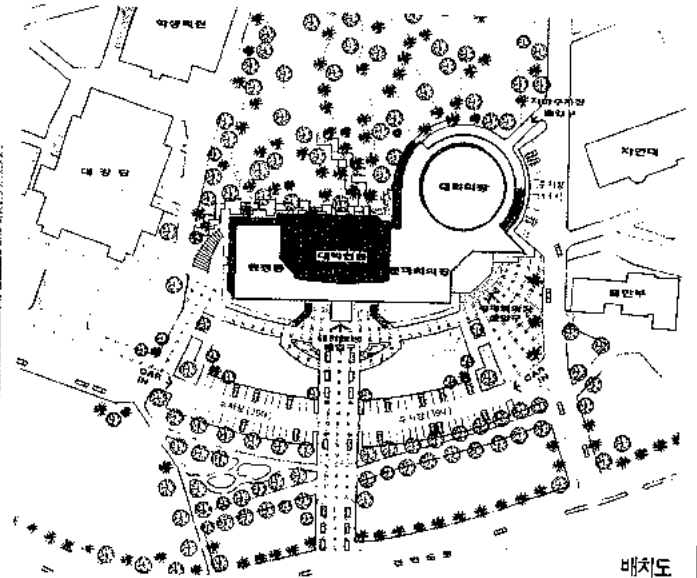
계획대지 전후면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대강당 전면과 자연대 좌측면의 형태를 유지시키며, 평지에 전면 주차공간을 배치하였다. 진입-녹지-주차-녹지-건물-후정의 개념을 도입하여 중심성과 대칭성을 갖는 건물 및 조경배치로 통일성, 안

정성을 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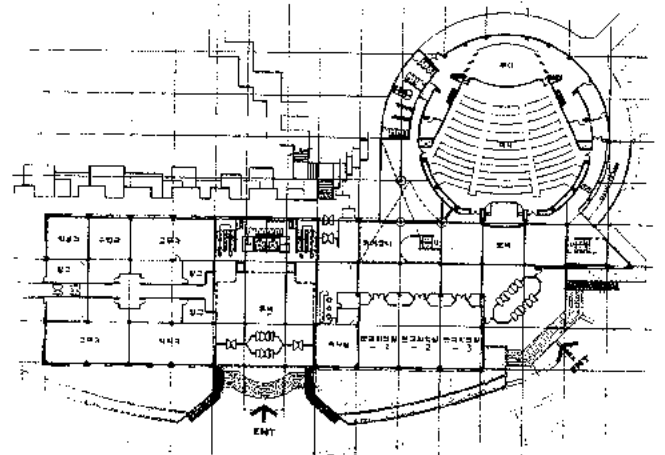
진입축에 따라 전면도로-도로변녹지-휴게공간-건물전면녹지-본부·세미나동 후면으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소공간을 연출했다. 중앙접근로에 상징성을 부여했으며, 본부 및 자연대와 전면공간의 연결성을 부여했다.

건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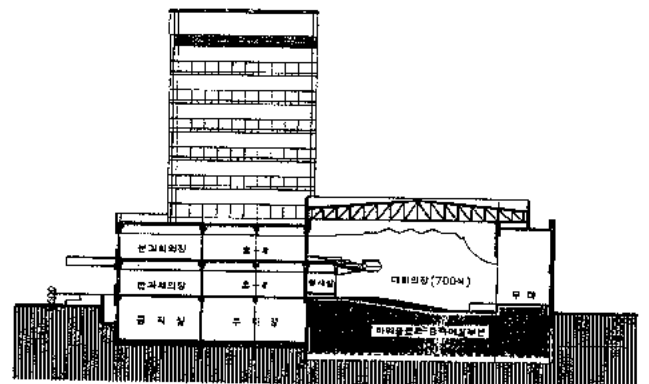
저층부는 Podium으로 안정감을 주었고 고층부는 인식성을 강조했다. 세미나동은 기능을 고려하여 원형매스를 선택했으며, 본관과의 연결은 삼각형 매스를 사용하여 인식성과 출입구의 기능을 수용했다. 전체적인 외관은 좌우대칭으로 정면성이 강조되었고, 저층부는 기존의 건물 및 주위 자연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시각적 안정감을 추구했다. 또한 고층부의 수평면과 저층부의 수평면으로 수직적인 요소의 완화와 비례로 조형 질서를 정립했다.



배치도



1층평면도



단면도

대지면적/11,400㎡

건축면적/3,224.10㎡

연면적/9,899.44㎡

-대학본부/5,806.08㎡

-대학원/1,328.40㎡

-국제학술세미나동/2,764.96㎡

규모/지하 1층, 지상 8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강당/철골트러스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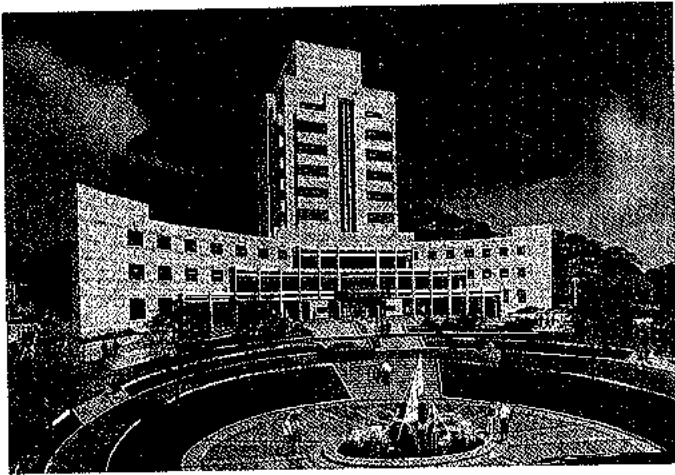
주차대수/97대(옥내6대, 옥외91대)

외부마감/T-30화강석진다듬

T-24mm 복층반사유리

우수작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원(대표 柳翼鉉) 案



계획대지면적/28,000㎡
건축면적/2,735.07㎡
연면적/9,504.13㎡
건폐율/9.77%
용적률/31.15%

규모/지하 1층, 지상 10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철골트러스조
주요마감재/화강석 버너구이

배치계획

남측 진입로가 현재 황으로 지나고 있으나 운동장과 연못에 대로가 접해 있어 향후 대지 정면으로 주진입로의 유입 가능성을 구상, 강한 축을 암시하고 있다. 신축부지의 진입로로부터 후면 녹지대까지의 자연적 구릉이 강한 모티브가 되는 축과 동서의 연결통로를 자연스럽게 포용하는 1차적인 기능축은, 자연적 상승감을 통한 캠퍼스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상승의 축이다.

북측의 녹지대 확보를 위하여 본 건물을 남측으로 배치, 녹지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정면에 상징적 광장을 두어 정면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주축을 중심으로 점진적 공간의 변이를 추구하였으며 단계적 변화를 유도하였다.

평면계획

평면의 형태는 대학의 기본이

념에 따라 세계를 주도하고 포용하는 듯한 양 날개를 두고,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표출시키기 위하여 상승감을 고조시키는 형태로 계획했다. 대학본부와 국제학술세미나 강당을 분리 동선의 혼잡을 피하고 대학원동을 학생민원동과 수직적으로 분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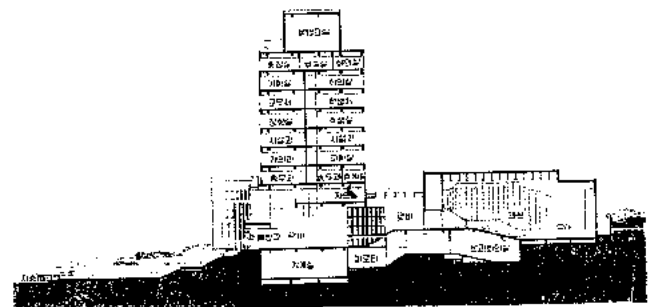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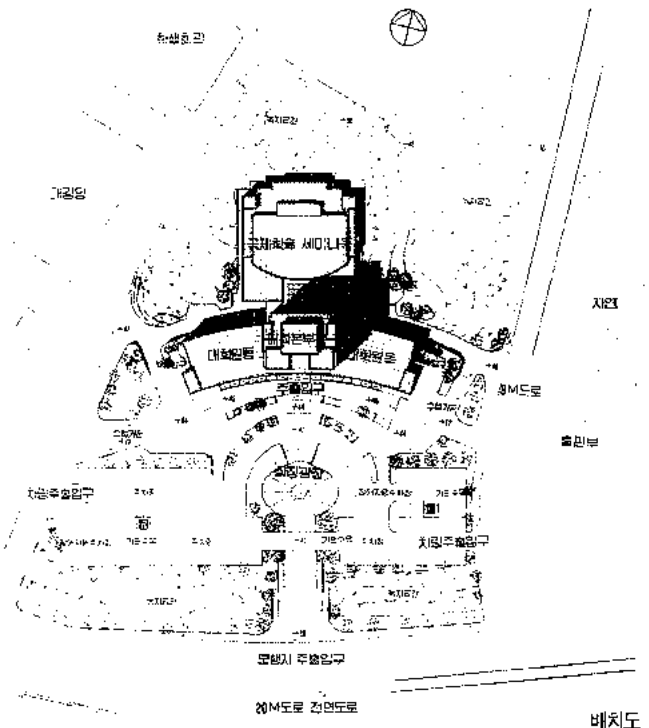
코어는 양분하여 공간상의 윤희성을 부여하고 각 기능의 연결부에 완충공간을 두었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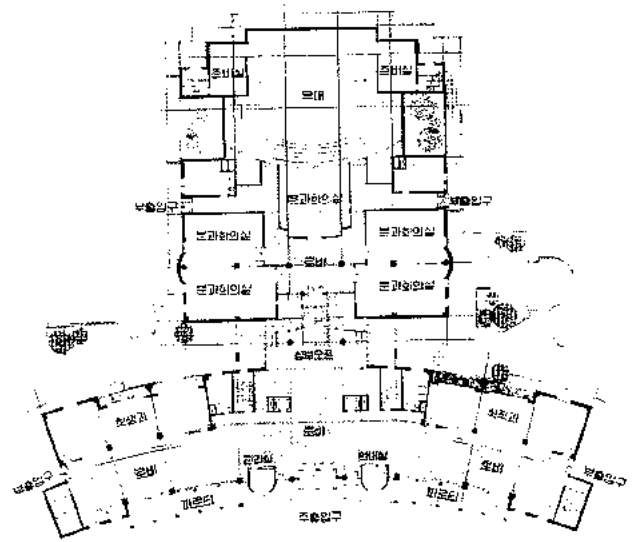
곡선형의 저층부 양 날개는 강한 포용력의 상징이며, 중앙의 고층화된 매스는 미래에 대한 진취적인 기상으로 표출이다.

국제학술세미나 강당의 육중한 매스는 끊임없는 정열의 바탕이며 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형태의 이미지 색채 및 재료의 통일은 전체적 통일 의미하며 정연한 형태를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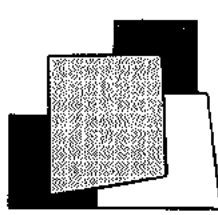


종단면도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91
BATIMAT &
RESTRUCTURA**

'91 프랑스, 이태리 국제 건축자재 전시회

파리 BATIMAT / 토리노 RESTRUCTURA

1991년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세계제일의 규모와 전문을 자랑하는 제 18회 프랑스 국제건축자재전시회 BATIMAT 91이 PARIS PORT DE VERSAILLES 국제 전시장 전관에 걸쳐 개최됩니다.

지난 BATIMAT 89에는 세계 3,700여 회사가 출품했으며 607,000명의 방문객 수를 기록하여 세계 여러 건축자재 관련 전시회들과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이 분야에 있어 선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BATIMAT는 세계 제일의 명성을 자랑하는 신제품 경영대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분야별로 계획 전시되는 신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1991년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태리 토리노에서 개최되는 RESTRUCTURA에서는 건축및 건물유지 보수기자재, 기술, 서비스 및 신개발 기자재를 위주로 세계최대 기자재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전시일정

프랑스 BATIMAT/199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이태리 RESTRUCTURA/1991년 11월 20일 ~ 11월 24일

●전문가들의 만남 /BATIMAT

건축관련업자와 만남, 신제품소개와 새로운 사업구상등 종합전시장이 될 BATIMAT 91은 국제적인 마케팅 환경이 될 것이며, 전세계의 유명한 주택, 사무실, 건물등에 요구되는 건축자재 전시회로서 관심을 이룰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이유로 1989년 방문객 수의 7%에 해당하는 44,000명의 전문업자들이 BATIMAT의 모든 전시회를 계속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경영대회 /BATIMAT

BATIMAT 신제품 경영대회는 세계 제일의 명성을 자랑하는 공평하고 최고의 제품들이 참여하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효과적인 운영과 신제품으로 뿜힌 제품에 더욱 명예를 부여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계획되었고, 인기순위를 정하는 특별한 언급이 제기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신업종 최고의 고용효과를 나타내는 분야로서 수출과 성장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BATIMAT가 되도록 모든 조건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시분야 /BATIMAT

- 구조재 : 지붕재 및 외장재, 석공, 벽돌, 목재, 타일, 천장재, 각종 PC 판 등
- 내장재 : 바닥재, 천장재, 실내용 타일, 프라스틱 자재, 벽지, 미장, 텍스타일 및 기타 실내 마감재등
- 급수위생재 : 싱크대, 세면기, 양변기, 수영장 시설재, 각종 위생설비재
- 방수, 도장재 : 방수재, 방수제, 페인트, 방수시트, 칠장재
- 창호재 : 창호재용 유리, 대문과 현관문, 차고문, 창문, 도어록 및 기타, 자물쇠, 각종 창호용 설비재
- 전기조명재 : 분전반, 스위치, 등, 상태라야, 전구 및 각종 전기 설비재
- 냉, 난방기자재 • 건축자재 설비도구 및 장비 • 건축자재 관련 세계유명 전문잡지 및 신문전시 • 기타



A PLAN

단 체 명 : 프랑스, 이태리 건축자재전시회
여행기간 : 1991년 11월 16일 ~ 11월 25일 (9박 10일)
여행지역 : 파리, 토리노, 베니스, 플로렌스, 로마

일자	지 역	시간	교통편	세부일정	호텔
11/16 (토)	서울	1125		김포공항 구청사 2층 신한은행 앞 모임	
	프랑크푸르트	1325	LH719	서울 출발	
		1900		프랑크푸르트 도착	일금호텔
	파리	2135	LH1750	프랑크푸르트 출발	
		2245		파리 도착후 휴식	
11/17 (일)	파리		전용차	전일 BATIMAT 참관	"
11/18 (월)	파리		전용차	전일 BATIMAT 참관후	
		2222	열차편	야간열차편으로 파리 출발	참대열차
11/19 (화)	토리노	0713	전용차	토리노 도착후 전일 RESTRUCTURA 국제 재건축 기자재 전시회 참관	일금호텔
11/20 (수)	토리노		전용차	밀라노를 거쳐 건축양식을 탐사하며	
	베니스			베니스 도착	"
11/21 (목)	로마		전용차	건축양식을 탐사하며 플로렌스를 거쳐 로마 도착	"
11/22 (금)	로마		전용차	세계 3대 미항중의 하나인 나폴리와 고도 폼페이 유적지 탐사후 로마 귀환	"
11/23 (토)	로마		전용차	전일 로마 시내 건축양식 탐사 관광	"
11/24 (일)	로마			오전 자유시간후	
	프랑크푸르트	1330	LH1139	로마 출발	기 내
		1535		프랑크푸르트 도착	
		1650	LH718	프랑크푸르트 출발	
11/25 (월)	서울	1140		서울 도착후 해산	

* 참가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광 불편 신고 센터 : 735-0101

B PLAN

단 체 명 : 프랑스, 이태리 건축자재전시회
여행기간 : 1991년 11월 16일 ~ 11월 23일 (7박 8일)
여행지역 : 파리, 토리노, 베니스, 플로렌스, 로마

일자	지 역	시간	교통편	세부일정	호텔
11/16 (토)	서울	1100		서울 출발	
	파리	1920	AF287	파리 도착후 휴식	일금호텔
11/17 (일)	파리		전용차	전일 BATIMAT 참관	"
11/18 (월)	파리		전용차	전일 BATIMAT 참관	"
11/19 (화)	파리	0725	AF692	파리 출발	
	토리노	0850		토리노 도착후	"
			전용차	RESTRUCTURA 국제 재건축 기자재 전시회 참관	
11/20 (수)	토리노		전용차	RESTRUCTURA 국제 재건축 기자재 전시회 참관	"
11/21 (목)	토리노	0955	AF697	토리노 출발	
	파리	1120		파리 도착후	"
			전용차	시내 관광	
11/22 (금)	파리	1050	AF288	파리 출발	기 내
11/23 (토)	서울	0859		서울 도착후 해산	

• 참가비 : ㉠ ₩ 2,120,000 ㉡ ₩ 1,760,000원 (15명 기준)

• 참가비내역 :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2인 1실), 전일정 식사비, 공항세, 전시장입장료, 해외여행자 보험등 일체

• 참가신청마감 : 1991년 10월 20일

• 접수처 : 한중여행사 (일반여행업등록 137호)